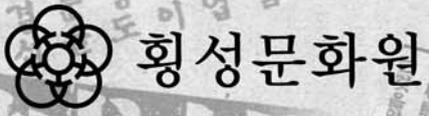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속의 횡성

박미현



가상현일 부동의
 강원도 횡성군 심실산촌에
 산학교도 본히 지정할 판
 서 설립한바이라 지정할 상
 출은 방첩이 업습는 물론가 상
 흥마-어니와 신문날 구립
 하다가 터금 정장호길의 업
 서서 신문날 그학교 여러성도
 되었더니 구립학교 설립도
 가 권업의가물신로 신문날
 계속하여 구립학교 설립도
 하의 그학교 임원들도 찬성
 ▲가상현일의 일제하 담의를
 가상현일의 일제하 담의를
 가상현일의 일제하 담의를



횡성문화원

方地城橫

발·간·사

억눌린 사회와 고난의 삶 그리고 저항의 시대를 돌아보며



한말과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질곡의 터널을 빠져나온 시기입니다. 왕조시대를 벗어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근대를 지향하는 중요한 시기를 불행하게도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현대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해되는 장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의병운동 및 3·1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한 애국의 고장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이시기에도 우리 황성지역에는 황성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부대끼는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식민지 정책 하에서 수탈과 억압을 당했다는 큰 명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이 어떠한지, 식민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선각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는지 누가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96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발간된 신문에서 황성지역 사회상과 생활상, 변화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에 대해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 요즘의 신문기사와 달리 더욱 무미건조하고 행정 시책 위주이며 다양한 생활의 실상이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황성지역 선인들의 고민이나 힘겨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 했던 모습들을 기사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저항운동을 전개한 이들의 자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아우른 황성관련 신문기자 자료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박미현 선생님에게 감사드리며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조망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하여 우리 황성의 근대 역사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황성문화원장 김 광 수

편저자의 글

신문기사로 본 격동의 근대 황성지역 사회상 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과 반성의 자취를 찾아서

박미현

1896~1945년 신문 황성 기사 총689건

한말과 일제강점기 사회상 밝히는 자료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근대시기를 망라해 지역 관련 기사를 발췌해 엮은 책이 나왔다. 전통사회에서 현대로 이행되는 근대 황성지역 사회생활상을 신문 기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신문기사는 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나 연구자들에게만 일부 활용됐을 뿐 지역민들이 대중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다. 근대 황성지역 사회상과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각종 관공문서, 사문서, 일기, 신문 잡지, 편지류 등 문헌 자료와 사진 등 영상 자료, 그 시대를 직접 겪은 이들이 구술 자료 등이 있다. 신문기사는 전 시기를 아우르고 황성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당대 사회상과 시대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요긴하다. 각 도서관에 흩어져 소장된 고신문 자료는 근래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화되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검색어가 충분치 못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일일이 넘겨가며 지역 관련 기사를 찾아내야하는 수고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근대 시기를 망라한 엮음으로써 황성지역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시대적 변화와 소소한 일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1896년부터 1945년까지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10여종 신문에서 황성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묶었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공립신보> <해조신문> <신한민보> <독립신문> (상해발행)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12종 신문에서 황성 관련 기사를 가려 뽑았다. 발췌 기사는 총689건으로 신문별로 보면 <독립신문> 12건, <황성신문> 49건, <대한매일신보> 44건, <공립신보> 1건, <해조신문> 3건, <신한민보> 9건, <독립신문> (상해발행) 1건, <시대일보> 10건, <중외일보> 117건, <중앙일보> 3건, <조선중앙일보> 49건, <매일신보> 391건으로 나타났다. 황성 관련 기사를 찾아내고, 활자화하느라 노력을 기

울이긴 했으나 워낙 분량이 많은데다 흐릿한 활자를 판독하느라 놓친 기사와 해석 과정에서 오자 탈자 등이 적지 않아 아주 성글다.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질정을 기다리며 한 말과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로 본 횡성 사회생활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앞서 신문기사 속성에 대해 몇 가지 전제를 하려한다.

신문기사는 지역사회상과 여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 3·1독립운동 보도하지 않아

자칫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부 사실일 것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과 비중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기사를 쓴 기자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사실만 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언론인의 생각과 관점에 맞춰 가공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취재 기자 외에도 신문사 성격과 사주 성향, 편집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역에 주재하는 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기자가 부지런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언론인과 취재원의 친소 관계나 성향에 따라서 보도되는 취재 내용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취재해 기사를 쓰고 나서도 취재 데스크, 편집, 편집 데스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활자화 되는 것이므로 주관적 개연성은 여러 차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독자를 선동하기 위해, 유리한 시책에 끌어들이기 위해 과장이나 축소, 누락시키는 것은 물론 허위 보도에 오보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발췌된 신문기사의 내용만으로 횡성 지역 사회 전체적인 상황이나 모습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횡성지역 3·1독립운동은 3월 29일~4월 2일 가장 격렬했던 것으로 연구됐으나 당시 발행된 <매일신보>에서 전국 각 지역 3·1독립운동을 다룬 '소요사건'에서는 횡성 관련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재미 동포사회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서 5월 27일 지역민 수백명이 참가한 3·1독립운동이 전개되어 사상자 다수가 있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매일신보>에서 횡성 3·1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던 배경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으나 당시 횡성에 기자가 주재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또 민족지인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유형과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사 유형을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1920, 1930년대 초반까지 횡성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차원에서 단체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전개된 상황이 민족지에는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총독부 기관지는 거의 신지 않고 있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5년 광복까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행정기사, 시책기사 일색인데, 이것은 당시 횡성사회에 주목할 만한 사회적 사안이나 일상의 변화, 사건 사고 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전시체제 아래 지역민을 수탈, 착취, 동원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시책 홍보와 독려 기사로 일관한 기관지적 성격 때문에 일상적 활동은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문 기사를 이해하면 기사 내용이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 낯선 용어들을 따라 시간 여행을 하다보면 기존 전통사회 질서에 맞서며 갈등했던 모습들, 국권을 지키기 위해 초라한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걸었던 이름 없는 의병들, 신분 타파를 부르짖은 개혁적 선각자들, 가난함을 떨치기 위해 혁신적인 농촌운동을 전개한 동네 일꾼을 만날 수 있다. '제2의 개성'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교통과 상업요지 황성 발전을 도모하던 과정과 신분 차별, 가부장제 폐해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간 영혼, 광복 직전까지 치밀하고 교묘한 착취로 골수까지 빼낸 식민지행정, 내선일체 시책에 협력하며 부와 명예를 쌓긴 일그러진 모습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유산과 치욕적 반성을 주고 있다.

1907~1909년 항일의병 교전 속보 상황 속속 기록

이름 없는 의병들 송고한 자취, '의병' 대신 '의도' '폭도'로 기록되기도

황성지역은 민족운동이 강렬한 곳으로 정평 나 있다. 역사 속 지역 특성이 신문기사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황성신문> (1898~1910 발행)과 <대한매일신보> (1904~1910 발행)에 항일의병전쟁 교전 상황과 국채보상운동 모금 내역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을 때 국채보상 의무금 모집에 동참했음을 보여준다. <황성신문> 5, 6월에 국채보상의무금으로 기탁한 갑천면 면내 부동리 화전리 창촌리 등지와 황성면 3리, 우사상도중 기탁 명단과 금액 등 현황이 일일이 소개되어있다.

항일의병운동은 1896년 10월 12일 의병 700여명이 전투한 사실(독립신문, 1896. 10. 24)을 처음으로 전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대한제국 군대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개된 1907년부터이다. 1907년 8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일본에 협력적인 심홍택군수를 포군에서 붙잡아 가둔 상황을 시작으로 1909년 5월 22일자 신문 보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70건에 가까운 보도를 통해 황성에서 치열하고도 지속적으로 전개된 실상을 알려주고있다.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황성군 지방에만 의병장 김치영씨의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는데'라고 보도할 정도로 황성은 일본에 강제병합 되기 직전 해까지도 지속했다.

1907~1909년 <대한매일신보>의 '지방정형'이라는 난과 <황성신문>의 '내지정형'이라는 난을 통해 항일의병운동 전개를 속보 형태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황성은 교통요지로 원주 흥천 강릉 평창 경기도 양평 충청도 등과 연계한 의병운동이 특징적이다. 포병들이 의병운동에 필요한 군량과 군 무기를 내달라는데 황성군수 심홍택이 곡식 한말도 거두어 줄 수 없고 무기도 없다고 하자 구금하고(대한매일신보, 1907. 8. 11) 지역 유림들이 호소해 풀려난 뒤(대한매일신보, 1907. 8. 16) 직인을 갖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파직 보고가 있어 해임되는 등 일련의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 1907년 10월 15

일 횡성면 덕가리에서 일진회원 2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횡성과 경기도 지평 중간 고둔골에서 기지를 구축해 겨울을 지내는 의병수가 8천명에 달하고 격문을 돌려 의병을 더 모집한다(공립신보 1907. 12. 6)는 기사를 통해 의병세력을 엿볼 수 있다.

횡성일원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헌병대 경성분대관, 횡성분견소, 안흥분견소, 원주수비대 등 인근지역 일본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일본측은 주로 추운 겨울을 틈타 1907년 12월과 1908년 1월을 전후해 일본 군인과 순사와 순검 등이 갑천면 일원 등 곳곳에서 공격해왔다. ‘횡성 동방’ ‘횡성 서쪽’ ‘횡성 북방’ 등으로 교전지를 표기해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으나 잇따른 교전 과정에서 오로지 구국일념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싸우는 의병 피살과 부상이 속출하며 흩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횡성 주재 일본병이 1908년 3월 3, 5일 횡성 유동에서 의병 150명과 교전한 결과 의병들이 패하여 흩어졌으며, 3월 8일엔 횡성 동쪽에서 60여명을 습격하고, 3월 13일엔 횡성군수비대 보병분대가 북방 4리 되는 곳에서 150명 또는 100명과 낮과 밤에 격전을 벌인 결과 32명의 의병이 죽고 19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 <대한매일신보> 와 <황성신문> 등에서 비중있게 보도됐다.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은 의병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저지키 위해 주민에게 자위대를 만들게 하는데 횡성지역 주민들은 자위단 조직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자 군수 및 각 면장들의 주도로 주민을 소집해 자위대를 강제로 조직케 한다.(황성신문, 1908. 2. 22) 이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의병운동 기세는 꺾이지 않아 횡성분견서 일본병은 횡성을 벗어나 원주 문막에 출동한 가운데 황재석을 비롯한 의병항전이 있었다. 1909년 5월 의병장 김치영을 비롯한 의병단 출몰 소식이 소개됐다. 김치영의 활동은 인상적인 듯 1920년 중국 상해서 발행된 <독립신문> 의병전에 金致榮이 횡성 의병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군인들은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등짐을 지우는 동원이 잦아 고통을 겪는 모습이 ‘못살겠다 못살아’(대한매일신보 1909. 10. 2)로 드러나고 있다.

전통사회 폐습이 청산되지 않은 사회에 서스러진 영혼

금광 개발을 둘러싼 암투와 욕망이 빚어낸 사건들

조선시대 횡성현이었던 횡성군은 1895년(고종 32) 전국을 23부 336개 군으로 나뉘면서 횡성군이 되었다. 원주목 관할 고모곡(古毛谷)면과 지하곡(地何谷)면을 편입해 서원(書院)면이 되어 횡성(橫城)·우천(隅川)·정곡(井谷)·둔내(屯內)·갑천(甲川)·청일(晴日)·공근(公根)면과 함께 8개면이 되었다. 정곡면은 1937년 4월 1일 소재지 명칭을 따라 지금의 안흥면으로 바뀌었다. 지금의 횡성읍은 1414년부터 현내면으로 불리다 1900년 군내(郡內)면, 1902년 면 통합으로 청룡(靑龍)면, 1916년부터 횡성면으로 불렸다 횡성읍은 영동과 영서를 연결하고 경기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요지이다. 제1회 강원기자대회가 당초 경치 수려한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했다가 이후 회원 요구로 횡성으로 대회 장소를 변경할 정

도다.(중외일보, 1928. 4. 24)

교통 요충지인 특성과 근대 신문물에 맞물려 일찍부터 상업도시로 부각된 횡성은 도로 개설에 따라 식당과 숙박업 등이 성행하고 금광 개발로 농촌이 변화가로 변하기도 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신 규약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의식과 문명 도입은 전통사회에 비해 다양한 사건 사고를 불렀다. 사건 기사는 주로 살인과 자살, 강도, 성폭력, 유괴, 구타, 방화 등이 강력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사람을 납치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대상은 당시 효심을 반영한 듯 어린이가 뿐 아니라 노인도 납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우차를 끌던 이가 졸음운전으로 추락사 한 1건으로 지금과는 다른 사회상을 엿보게 한다.

1902년에 횡성군수가 빈민을 구제한다는 핑계로 1천여 포대의 곡식을 가져가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고(황성신문, 1902. 1. 15) 딸을 찢어 혼인한 뒤 가산을 탕진한 사위 보호할 시 사단이 벌어질 것이라는 장모의 광고도 있다.(황성신문, 1902. 5. 21) 횡성 접다리재에서 도적들이 행인의 술과 떡을 빼먹거나 강릉군수의 봉물을 빼고 성폭력을 가하고(대한매일신보 1905. 1. 5)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고있다.(황성신문 1906. 4. 6) 등이 있었다.

1910년 식민지가 된 후에 전통사회 가부장제 폐습이 그대로 방치된 결과 축첩 문제, 남아 선호, 여성 재가를 둘러싸고 근대 가치관과의 갈등이 사건으로 표출되고 있다. 재가한 어머니가 보고 싶어 찾아간 어린 아들이 가라고 해도 계속 매달리자 때려 죽게 한 사건(중외일보, 1928. 5. 17일자), 자식이 없자 남편이 첩을 얻은 데 절망하여 자살한 여성(중외일보 1928. 8. 27) 모자가 협력해 건디다 못해 도망친 며느리이자 아내를 난타하여 사망하였다.(중외일보, 1929. 11. 17일자) 이혼을 요구한 여성은 피살되거나 무차별 폭력을 당했으며, 남편의 축첩에 항의하며 당당하게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요구한 여성도 있었다.

1922년에 횡성향교당시 문묘 장의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둘러싸고 신분 차별 유지와 탈피 세력이 맞서는 양반과 중인층간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빚어지고 있다.(매일신보, 1923. 1. 10)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 서울로 가 공부하던 중 아버지에 이끌려 고향 횡성에 돌아와 야학을 운영하다가 결국 그 활동마저 아버지에 압박을 받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18세 청년 이야기(시대일보, 1924. 10. 27일자)나 가출한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함남선 기차에 치어 불행한 삶을 마감(중외일보 1929. 11.17)한 아버지 두 모습이 상반되게 그려지고 있다.

횡성지역 금광에 대한 관심은 1897년 첫 보도되고 있는데 본격 개발된 것은 1920년대 들어서이다. 황금을 캐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금광으로 몰리면서 금광 개발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터져 나왔다. 금광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의 송사 사건이 벌어지고, 노동자 임금 체불 및 노동자와 자본주간 쟁의가 벌어지는 등 사건이 연달은 가운데도 새로운 금광 출현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1929년 한겨울인 2월 황성지역에서 황성면 38명을 비롯 8개면에서 총72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80년 후인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결핵과 같은 질병 사망과 풍수해, 홍수, 우박 등 기상으로 인한 재해 사고도 적지 않다.

1930년대 유행한 백백교의 교주가 황성에 은신해있었는데, 장사라는 소문이 퍼져 황성지역 경찰이 다섯명씩 열명씩 떼지어 다녔고 동네 사람들 전부 백백교에 빠져 교도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 지원병 시험에 불합격하자 자살한 19세의 가난한 청년 이창만 이야기는 조선총독부 현안인 지원병 모집을 전국적으로 촉진하게 될 특별한 사례로 <매일신보> 본사 기자가 황성 현지까지 출장 와 현장 취재기사로 두 차례 대서특필되었다.(매일신보, 1940. 5. 28~29) 전시체제 하 군수품 공출이 잦아지고 전쟁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지역민들은 쌀 생산은 물론 새끼줄, 대자리, 가마니 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진회, 품평회에 동원되고 있다. 강원도를 비하해 '감자바위'라고 부르고 있어 마치 감자바위의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황성지역만 해도 1938년에서야 감자 재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정계급 지위 향상 '형평사' 운동 주역 독립운동가 李東求

1917년부터 20여 년간 영영포리를 혁신시킨 魏昌來 님의 이름을 불러내다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민족 분열책으로 언론 창간과 민간 단체 활동을 허용한 1920년대 들어 황성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이들이 있다. 항일의병전쟁과 3·1 독립운동은 연구 성과가 축적돼 잘 알려진 반면 1920~30년대 활동 내용과 인물에 대해서는 생소한 편이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동구(李東求·1886~1933)는 황성 영영포리 출생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천도교(동학)사상에 매료된 뒤 사회로부터 멸시받던 백정 계급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형평사(衡平社) 운동을 전개한 인물. 만주 독립운동단체 정의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된 이들 중 가장 많은 5년형을 받았다. 모진 고문과 형기를 치르면서 겨우 병보석으로 풀려나 곧 순국했다. 형평운동은 강원도내에서는 황성을 중심으로 평창, 원주 등지에서 가장 활발했는데 황성지역 형평 운동에 李東求와 함께 조쟁(趙錚) 이일선(李日善) 조만봉(趙萬奉) 이태평(李太平) 조선봉(趙先奉) 길학성(吉學成) 조영준(趙英俊) 등 많은 인명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광수(高光洙·1900~1930)는 황성에서 노동농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으며 이후 독립운동 사건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 끝에 순국했다. 고광수 병보석금을 치르고 사망 직전까지 돌본 이는 교육사업가 고창한(高昌漢)이다. 고창한은 인력거꾼들 자녀를 위한 대동상업학교와 화성유치원에 재산을 기부하고 황성공회당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한 토지를 내놓는 등 베풀었는데 당시 국내외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서중석(徐重錫·1904~?)과 서완석(徐完錫·1906~?) 형제 모두 독립운동 일환으로 사회주

의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서중석은 이미 학생 신분 때 친일 소설가 이광수를 야유한 사건으로 구류를 처분 받았다.(시대일보 1925. 11. 8일자) 1932년 평남 덕천폭탄사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황성 출신 박봉수(朴鳳洙, 1898~1974)의 당시 사건도 기록되었다.(매일신보 1933. 8. 11일자)

위창래(魏昌來)는 1917년부터 20여 년간 고향 황성 영영포리에 머물면서 이곳 사람들로 마을을 제대로 변화시킨 농촌혁신운동의 선구자라 할 만한 인물이다. <매일신보> 1939년 1월 6일자에 실린 위창래 이야기는 타성과 주색에 빠지고 가난에 찌든 마을사람들 의식을 새롭게 하고 이론과 실천 모두 혁신적이고 계획적 방법으로 술선수범과 자기현신으로 주민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고 잘 사는 마을로 변화시켰다. 위창래가 추진한 것은 바로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작농을 목표로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금융공동체를 지향한 실천적 삶을 보여준다. 위창래의 삶과 그 후 마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조사해 현대적 의의와 가치를 매김 할 필요가 있다.

황성 3.1독립운동 보도한 在美 신문 <신한민보>

신출귀몰 권총단 사건 최양옥 독립운동 <중외일보> <매일신보> 특집면 보도

최양옥(崔養玉, 1893~1983)이 1929년 4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전개한 대한독립군 공명단 사건 당시 현 거주지를 황성에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양옥은 중동중학교 재학 중 서울에서 3·1운동에 참가한 후 황성으로 와 천도교도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했으며 검거를 피해 서울로 와 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일본경찰에 잡혀 대구에서 5년간 복역한 뒤 출옥하자마자 중국으로 건너가 산시성에서 대한독립군 공명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최양옥은 1929년 4월 18일 마치현에서 우편자동차를 습격에 금품을 확보하고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20일 망우현에서 자동차를 습격해 경성에 들어왔다가 21일 여명 무렵 체포됐다.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각테 안경을 쓰고 장대한 체구의 최양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태연자약한 태도였으며 ‘조금도 겁이 나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경찰부 문전에서는 최양옥 가족들이 면회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기사도 실렸다. 전매국에 다니며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는 동생 최양길과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소녀 등 모두 7, 8명이 면회 한 번 시켜달라고 애원했으나 유치장 편만 바라보다가 되돌아간 상황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최양옥은 담배도 피지 않고 과묵한 성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한민보>는 ‘세상을 놀라게 한 권총단 신출귀몰케 하던 공명단 사건’으로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다. 최양옥이 수감된 후 구출을 위해 공명단원이 파견된 가운데 최양옥의 여동생 崔姓女가 권총과 탄환을 몰래 받아 건네줬다가 검거됐다(중외일보, 1929. 07. 06)는 사실도 밝혀졌다.

**〈중외일보〉 1928년 12월 5일자와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6일자
전면 보도된 ‘횡성소개관’ 횡성사회 경제상 한 눈에 조망**

1920년대와 30년대 상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횡성지역 특집관이 〈중외일보〉에 1928년 12월 5일자, 〈조선중앙일보〉에 1935년 3월 16일자 1개면에 전면으로 보도되어 당시 행정 경제 교육 종교 교통 의료 단체 문화 등의 상황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중외일보〉 12월 5일자의 ‘횡성소개관’에는 당시 횡성 인구는 58,000명으로 전체 10,300호 중 일본인 호수는 59호였다. 교육시설이 열안한데 특히 상업학교와 유치원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민간단체로는 횡성청년회, 횡성노동동맹, 횡성형평지부, 둔내청년회, 우천진흥청년회, 금강소년회, 횡성보교동창회, 횡성상업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 횡성지역 명소로는 덕고산, 용암, 약수, 여의계, 횡성공원, 한강대, 반구정을 꼽고있다. 하단 광고면에 각종 기관, 운수업체, 음식점, 포목점, 주요 인사 등이 망라돼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6일자 4면에는 횡성소개관이 특집으로 꾸며져있다. 조선중앙일보 지국장인 申永淳의 머릿글이 보인다. 신영순은 〈중외일보〉에서 근무했으며 횡성기재단 창립 때 참여하는등 민간신문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언론인으로 보인다. 대중 생활을 위협하는 의료기관의 불비, 의사 2인 의생 9명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교통운수 상황 역시 자동차 연락뿐일 정도이며 횡성 충주간 철도가 1936년도에 기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횡성 사회 각계의 중요한 활동가들로 소개한 사람은 ‘교통계의 선구 윤태년’ ‘횡성상업조합장 방현영’ ‘횡성교회창설자 명예목사 탁영재’ ‘상업계의 거성탁명수’ ‘강원도회 의원 신현만’ ‘운수계 활동가 정동호’ ‘청년실업가 김윤수’ ‘양조계의 원로 함기남’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지역을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로 8개 면의 면장 조규봉, 안달선, 원용균, 오연수, 박순봉, 유명은, 한희동 등이 등장하고 있다. 위생시설, 화전민의 구제책, 빈민 아동 교육, 농가부업, 교통 시설 확충, 보통학교 설치, 풍암선 개통이 현안으로 등장하고있다. 경제 관련 단체로 횡성상업조합, 횡성주조조합, 내선자동차운수주식회사, 춘천자동차회사, 경강화물운수주식회사, 영서화물회사, 강릉상사주식회사, 경성제삼상회가 진출해 있고 이종환, 방기범, 신상순이 등장한다. 사회단체로는 1928년 〈중외일보〉 보도 때에 비해 훨씬 더 축소되어 횡성청년회, 원주청년회, 신간회 원주지회, 복원동맹에 제한돼있다.

한편 횡성지역에 시내 전화가 가설된 시기(중외일보 1928. 8. 31일자)를 알 수 있고, ‘횡성8경’자료가 발견된 것은 수확이다. 〈중외일보〉 1928년 12월 6일자 4면에 보도된 횡성8경은 7언 율시 한시로 소개되어 있는데, 심층 연구가 뒤따르면 횡성지역 경관 이해에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갱생’ ‘총후보국’ ‘납세보국’ ‘국민총력’ ‘적성’ ‘배급’ 신 표제 등장
‘국어’는 ‘일본어’, 국민은 ‘일본국민’ 전쟁 자금 마련 위해 강제 저금**

가장 많은 기사를 발췌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를 분석해보면 처음엔 춘천 지사에서 횡성 기사를 쓰지 않다가 1920년대에 쓰기 시작한다. 기사 작성 구역을 알리는 기사 맨 앞의 【 】 속의 지명이 처음 【춘천】에서 【횡성】으로 바뀌는 시점에 현지 주재기자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다 재차 【횡성은 사라지고 【춘천】에서 【강원지사발】로 바뀌어 주재 기자 활동이 끊어졌으며 1942년 이후엔 전쟁 속보가 주를 이루면서 【강원지사발】마저 사라지며 신문 고유 기능을 잃을 정도로 변질된다.

애국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며 기사 속 ‘국어’는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를 지칭한다. 일제 말기엔 전시 상황과 전쟁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전하고 있으며 1942년 이후로는 현금 헌납 등이 소개되고 있다. 묘대, 잠업, 건건, 울건 등의 생산을 촉구하기 위한 시군단위 경쟁을 자극하는 실적, 성적, 할당 나열이 부쩍 늘었다. 특히 군사 수출로 외화를 벌기 위해 잠업을 누에고치 사육을 전초등학교 아동에게 권장하기 위해 1942년부터 본격 장려하고 각 군별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매일신보, 1942. 4.23) ‘부진하는면 공관 강원도민의 분기 촉진’ ‘면화 공관 기일 연기’등등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마니 짜기, 송진 채취, 새끼 꼬기, 울건 채집 등 군수품 조달을 하고 있다. ‘保國運動’이라는 미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물적, 인적 수탈과 동원에 주로 군청을 비롯 주요 기관 직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일선 행정인 면사무소와 면장은 각종 수탈 최일선 공무원으로 변질되고, 관변 민간단체와 경제 관련 조합들이 속속 창설되는 가운데 과거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변절하였다. 횡성군수 황항근(黃恒根)이 창씨했다는 기사가 1940년 4월 21일 3면에 보도됐으며 횡성경찰서 서원 전체가 4월 27일 창씨를 완료했다며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에도 창씨열 고조’(1940. 7. 16)에 이어 강원도민 50만명이 창씨했으며 그중 횡성은 4,094호에 32,695명이었고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서 강원도내 66%가 창씨했으며 횡성은 9242호 49,921명이 창씨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인적 동원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횡성 417명을 비롯 강원도내 지원병이 1만명을 돌파했으며 (매일신보 1942. 2. 11) 지원병 모집 시험에 불합격을 했다고 자살한 청년을 두고 방문 인터뷰 기사로 ‘지원병 불합격되자 순사한 애국청년’으로 대서특필된다.(매일신보, 1940. 5. 28) 각 학교를 순시하여 교사를 감시하고 교육 전반에 전시 교육의 철저를 기하는 ‘군시학’을 신설해 횡성을 비롯 강릉 삼척 고성 철원 김화 원주 평창 등 8개 군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각종 쌀, 콩, 조 등 농산물은 물론 옷감, 기름 등 생활 자재에 대해 일일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퇴비 제조량 증산의 실적표 공개 및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납세 선전표어 모집(매일신보, 1941. 6. 13), 납세근로자에 대한 표창(매일신보 1941. 11. 2) 납세

와 함께 금융조합 육성, 납세보국 징수 성적은 분기별로 각 군별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각계 우량 애국반원 표창자 이름을 일일이 적고, 영예의 치안전사 표창식을 통해 경찰은 물론 민간 공로와 가족공로자까지 표창하고 있으며 납세자 공로자 표창, 자복가정 표창, 저축장려 공로자와 모범 저축 조합 표창 등 표창이 줄을 잇는다.

부인추진대원 모집 및 여성들 모내기 경진회 여성에 대한 노동력 동원에 이어 어린이와 노인들이 동원되고 있다. 父老견학단이 파견되고(1942. 9. 27) 유아들은 우량유아로 선발 대회가 열리고 있다. 물자 부족 현상을 빚자 1940년 광목, 당복, 옥양목 등을 배급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식량난 해결을 위한 감자 고구마 우량 품종이 개발에 나선다. 1942년 국민 채권 판매를 할당하고 있으며 1945년 2월 8일자의 '횡성서 애국기'라는 제하 아래 횡성면민 일동으로 12만원을 전투기 구입비 등으로 써달라고 헌납했다는 기사가 등장하였다.

기록을 남긴 횡성지역 언론인들 사회운동과 정치문제까지 관심 가져

횡성읍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등 3개 신문 지국에서는 횡성언론의 통일 기하며 횡성 신장,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1929년 7월 10일 횡성연합기자 간담회가 개최된다. (중외일보, 1929. 7. 14) 창립대회 준비위원으로는 서무계위원으로 吳智善(조선) 申永淳(중외) 權台鳳(동아) 趙錚(중외), 준비위원으로 鄭斗撤(조선) 柳命福(동아) 韓哲洙(중외), 유지위원회로 朴星奎(중외) 權台鳳(동아) 吉銀聲(중외) 鄭時和(중외)가 참여하고 있어 언론인 인명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언론인은 지역사회 영향력이 컸다. 제1회 강원기자대회에서 다뤄진 토론 안건을 보면 기자 채용과 기사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중국 동포 등 정치문제도 다루고 있다. 주요 언론인 신영순은 강원도회의원, 배영 [영국 배척]동지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지 않은 언론인이 제 각각 다른 길, 다른 모습으로 격동기를 보냈다.

이번에 조사한 12종의 신문 이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별도의 책으로 발행해도 충분할 정도로 기사 분량이 많아 후속 발간이 필요한 것과 <매일신문> 등 횡성 관련 기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책 분량의 제한으로 <횡성신문> 과 쌍벽을 이루는 <제국신문> 등 이외 신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 흐릿한 활자 신문을 육안으로 검색하다보니 성글게 된 측면이 있으며,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보완의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독자의 질정을 기다린다.

발취 신문 개요

독립신문(1896~1899)

1896년 독립 협회의 서재필, 윤치호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순 한글 신문으로 영자판과 함께 발간하여 처음에는 격일간으로 펴내던 것을 1898년 7월부터 매일 발간하다가 1899년에 폐간되었다.

황성신문(1898~1910)

皇城新聞은 한말 1898년 9월 5일에 창간된 일간 신문. 주 2회 발행되던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황성신문>이라고 개제했다. 사장은 남궁억(南宮億), 총무는 나수연(羅壽淵)이었고 편집진은 한국학에 조예가 깊고 민족주의적 사관을 지닌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이었다.

창간사를 통해 한문을 이해하는 특권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한문을 써서 일반대중의 지식계발을 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대 독자들은 한글 전용의 <제국신문>을 '암(雌)신문', 한문을 섞어 쓰는 <황성신문>을 '수(雄)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타블로이드판 전체 4면으로, 1면은 논설, 2면은 국내외 기사 및 잡보, 3~4면은 광고로 꾸민 결과 광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1900년 8월 8일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분할·점령하고자 논의했다는 내용을 다룬 <청자(請者)나 절자(絶者)나>라는 논설 때문에 남궁억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정치문제로 법적 판결을 받은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1902년 9월 11~20일 동안 휴간했고 그후 재정이 회복되지 않자 '대호척필(大呼擲筆)'이라는 논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재정궁핍을 호소했다. 1903년 2월 6~8일 다시 휴간하자 <황성신문> 재발간운동이 전개되어 성금 1,000원이 걸려 그 돈으로 한동안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1904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5월 17~26일까지 또다시 휴간하게 되자, 고종이 훈령을 내려 신문값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보신각 근처에 있는 관청 건물을 하사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2대 장지연 사장, 3대 사장에 남궁훈, 1907년 5월 4대 사장에 김상천, 그해 9월 5대 사장에 유근, 1910년 6월 6대 사장에 성선경이 취임했다. 1910년 한일강제합병 이후 일제가 '대한'이나 '황성'과 같은 단어를 못 쓰게 하자 <한성신문 漢城新聞>으로 바꾸었다가 1개월도 안 된 9월 15일 제3470호로 폐간되었다. <제국신문>과 함께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였다.

대한매일신보(1904~1910)

大韓每日申報는 1904년 7월 18일 창간되어 1910년 8월 28일 종간되었다. 창간 때는 타블로이드판 6면으로 한글 2면, 영문 4면이었으나, 1905년 3월 10일 잠시 휴간되었다가 1905년 8월 11일 혁신호를 내면서 국한문판과 영문판으로 나누었다. 독립된 영문판은 〈The Korea Daily News〉라는 제호로 펴냈다. 그 뒤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을 따로 창간해 이때부터 한글판·국한문판·영문판의 3가지 신문을 발행했다. 종간호의 지령은 국한문판이 제1464호, 한글판이 제938호였고 혁신호부터는 지령을 제1호부터 다시 시작했으므로 실제 발행호수는 이보다 많다. 창간 이래 영국인 E. T. 베셀(한국 이름은 裴說)이 줄곧 맡아오다가 1908년 5월 27일부터 1910년 6월 9일까지는 A. 만함(한국 이름은 萬咸)이 맡았다. 1910년 6월 14일부터 이장훈이 인수해 발행했으나 한일합병이 되면서 곧 종간했다. 사고(社告)·논설·관보·잡보·외보 등으로 꾸몄다. 속간사를 살펴보면, 첫째, 뜻있는 인사들의 문명 지식을 계발하고, 둘째, 세계 각국의 건물을 도입해 알리기 위해 이 신문을 속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순한글판을 펴내어 조선인의 자주독립을 돕는 데 힘이 되려고 했다.

발행 초기에는 발행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으나 1908년 신문지법이 개정되어 탄압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베셀은 1908년 6월 재판에 회부되어 금고형을 받기도 했다. 양기탁이 편집과 경영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 신문의 중요 논설은 대부분 그가 집필했고 박은식·신채호 등 애국지사들의 논설도 실었다. 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 애국운동에 앞장섰다.

공립신보(1905~)

公立新報는 1905년 안창호를 중심으로 재미교포들이 조직한 한인공립협회의 기관지로 1905년 11월 20일 창간했으며 사장은 안창호, 편집겸 발행인(주필)은 송석준이었다. 창간 당시에는 활자를 갖추지 못해 직접 붓으로 쓴 순국문체를 석판인쇄했다. 월 2회 발행. ‘공립신보’라는 제호는 동포가 서로 돕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1907년 4월 26일 활자인쇄를 시작했으며, 주필인 송석준이 병으로 죽자 편집인 겸 발행인은 정재관, 인쇄인은 이교담으로 바뀌어 주일에 1호씩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본토 외에도 하와이에 1곳, 블라디보스토크에 4곳,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32곳의 보급소를 두고 국내 독자들에게도 배포했다. 창간 때의 발행부수는 300부, 나중에는 5,000부까지 늘어났다. 국내 민족지에도 관심을 갖고 1907년 〈제국신문〉이 재정난에 빠지자 앞장서서 의연금을 모금하거나 〈대한매일신보〉의 애국정신을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1908년 3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전명운에 의해 일본을 두둔했던 D. W. 스티븐스가 피살되자, 3월 25일자 1면 전면이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1908년 4월 일제 통감부가 신문지법의 단속규정을 강화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교포신문

도 통제함에 따라 1908년 3월 20일 제75호가 압수당한 것을 시작으로, 총22회 1만 300부가 압수·발행금지되었다. 1909년 2월 공립협회가 국민회로 바뀌자 <대동공보>와 통합하여 그해 2월 10일에 <신한민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해조신문(해조신문-해도신문, 1908)

海潮新聞은 1908년 2월 26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호를 발간하고 같은 해 5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총 75호를 간행하였다. 해조신문이라는 이름은 해삼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만든 신문이라는 의미이다. 국권의 회복과 동포의 구제를 발간목적으로 내걸고 신민회 지부 활동을 하던 이강 등이 주도하여 발행하였다. 러시아 거주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한민보(1909~)

新韓民報는 1909년 2월 10일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대한국민회의 기관지이다. 공립협회의 기관지인 <공립신보>와 대동보국회의 기관지인 <대동공보>를 통합하고 <공립신보>의 지령을 이어서 창간했다.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최정익(崔正益)이었고, 그뒤 박용만(朴容萬)·이항우(李恒愚) 등으로 바뀌었다. 전체 4면으로, 1~3면은 순국문판, 4면은 영문판이었다. 매주 수요일에 발행했으며 3·1 운동 때는 격일간으로 발행했다. 창간사에서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된 신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신문”이라고 하여 민족 전체의 대변지임을 스스로 주장했다. 주로 자주 독립과 국권회복에 관한 논설과 기사를 실었고, 국내 소식과 미국에 사는 동포들의 소식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1909년 10월 27일 제156호에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1910년 3월 30일 제178호에는 안중근의 처형을 애도하는 글을 실었다. 국내에도 배포되어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일제에 의해 1909년 3월 26일자 신문을 압수를 당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까지 무려 54회 발매금지 및 압수를 당했다. 창간 초기부터 책 광고를 많이 했으며, 1915년 3월 11일부터 이대위(李大爲)가 고안한 인터 타입의 식자기로 신문을 제작했다. 재정난으로 자주 휴간하다가, 1922년 대한국민회가 분리되자 그해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휴간했다. 그뒤 속간하여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독립신문(상해발행)(1919~1925)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 직후에 신문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당시 상하이에는 한글활자가 없어 신문발행이 늦어지다가 조동호(趙東祐)가 한글성서에서 글자체를 본떠서 활자를 만듦으로써 1919년 8월 21일에 비로소 창간되었다. 이 신문이 나오기 전에 임시정부에서

는 1주일에 3번씩 내는 등사판 인쇄의 〈우리 消息〉이라는 통신을 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독립 獨立〉이라는 제호로 21호까지 내다가 1919년 10월 15일자 제22호부터 ‘독립신문’으로 개칭되었다. 제호는 본디 한자였는데, 1924년 1월 1일자 제169호부터는 〈독립신문〉이라고 한글로 표기했다. 발행장소는 프랑스 법조계 녹로동익리(勒路同益里) 5호였고, 4면 6단체로 매주 화·목·토요일 3회 국한문 혼용으로 발행했다.

시대일보(1924~1926)

時代日報는 최남선과 진학문이 1922년 9월부터 펴내던 시사주간지 〈동명 東明〉을 1923년 6월 30일에 폐간한 뒤, 같은 해 7월 17일 일간지 발행허가를 얻어 1924년 3월 31일 창간했다. 사장 겸 주간은 최남선, 전무이사는 서상호, 편집국장은 진학문, 정치부장은 안재홍, 사회부장은 염상섭 등이었다.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했고, 크기는 대형판 4면으로 1행은 14자, 1단은 124행, 1면은 12단으로 꾸몄다.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첫번째 사명으로 삼았고, 당시 발행되던 신문들과는 달리 1면에 정치기사가 아닌 사회기사를 실었다. 또 1면 머리에 ‘오늘 일 내일 일’이라는 시평 칼럼을 두고 논설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영석바지’라는 미국 만화를 특약, 6단폭의 6컷으로 연재했다. 초기의 발행부수가 2만 부에 이르러 당시 〈조선일보〉·〈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창간 2개월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경영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사장이 몇 차례 바뀌다가, 1925년 4월 〈동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이었던 홍명희를 사장으로 맞아들이고 편집진용을 가다듬은 뒤 혁신호를 펴냈다. 이때부터 제호의 밑바탕에 그려진 무궁화 모양을 빼고, 다른 신문과 같이 1면에 정치기사를 실었다. 그해 대홍수가 일어나자 이재민 돕기 구호품을 모집하고, 학술강연회·전국농구선수권대회·자전거대회 등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 30일 발행인은 조준호, 편집인은 한기약, 인쇄인은 홍성희로 바꾸고, 1926년 8월 중순까지 발행했다. 사원 전원이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신문사가 해산되었는데, 정확한 폐간날짜는 알 수 없다. 1926년 9월 18일 이상협이 〈시대일보〉의 판권을 넘겨받아 〈중외일보 中外日報〉라는 이름으로 새 신문을 창간했다.

중외일보(1926~1931)

中外日報는 1926년 11월 15일 창간, 1931년 6월 29일 제1492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시대일보〉의 후신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낸 이상협(李相協), 인쇄인은 김정기였고, 백연기가 출자했다. 창간사에서 “대중의 충실한 동무로서 백의(白衣) 대중의 행복을 회구하여 진두에 나서는 선봉이 될 것과 척후자가 될 것을 원한다”고 했다. 당시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신문’을 내세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항했다. 일제강점기에 모든 신문들이 그랬듯이 이 신문도 언론탄압

을 받았으며 고질적인 재정난으로 1930년 10월 13일 자진 휴간했다. 그 뒤 2~3명의 사원들의 노력으로 속간되었으나 얼마 가지 못해 폐간되었다. 1931년 11월 27일 제호가 〈중앙일보〉로 바뀌었다.

중앙일보(1931~1933)

中央日報는 1931년 11월 27일에 《중외일보》의 후신(後身)으로 간행된 일간 신문. 문예면에 특히 중점을 두어 신문화 운동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933년 2월에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하다가 1937년 11월에 폐간되었다

조선중앙일보(1933~1937)

朝鮮中央日報 1933년 3월 7일 창간되어 1937년 11월 5일 폐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선익(崔善益), 사장은 여운형(呂運亨), 전무는 윤희중(尹希重), 편집국장은 김동성(金東成)이었고, 편집인으로 박팔양·이태준 등이 참여했다. 체제는 대형판 13단제로, 1934년 7월 15일부터 조간 4면, 석간 4면의 8면을 발행했다. 1933년 7월에 자본금 30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1936년 2월에는 자본금 20만 원을 더 늘렸다. 또 윤전기를 늘리고 최신식 비행기 3대를 구입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백두산 사진과 탐험비행기록을 실었다. 1936년 7월 1일부터 조간 4면, 석간 8면의 12면을 발행했다. 1936년 8월 13일자 신문에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 문제 되어, 같은 해 9월 5일부터 일제의 압력에 못 이겨 자진휴간에 들어갔다. 그 뒤 조선총독부가 사장 여운형에게 사임을 강요하여 발행을 못하다가 1937년 11월 5일 발행허가가 자연적으로 상실되어 폐간되었다. 자매지로는 월간잡지 〈중앙〉·〈소년중앙〉을 펴냈다.

매일신보(1910~1945)

每日申報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대한제국 말기 조선총독부는 영국인 E. T. 베셀이 펴내고 있던 〈대한매일신보〉를 강제로 매수하여, 1910년 8월 28일까지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한일합병 다음날부터 ‘대한’이란 두 자를 떼어내고 〈매일신보〉로 바꾸었다. 사장과 편집국장은 일본인이었고,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와는 정반대로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일제침략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경성일보〉를 통합했다가 1938년 4월 다시 분리했다. 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뒤, 한글로 발행되는 유일한 일간신문이었다.

차 례

발간사·김광수 황성문화원장) / 3

편저자의 글·박미현 / 4

발췌 신문 개요 / 14

1920년대 이전

관보 4월12일 세무주사 황성군 홍순혁 (독립신문 1896-04-14 / 2면)	41
논설 전국 이십삼부를 십삼도로 고쳐 정하고 (독립신문 1896-08-08 / 1면)	41
시월십이일 도지휘관 김재은씨가 군부에 (독립신문 1896-10-24 / 2면)	42
관보 유월 팔일 황성군수 유성원 (독립신문 1897-06-10 / 2면)	42
관보 유월 팔일 황성군수 이필영 (독립신문 1897-06-10 / 2면)	42
내부참서관 정준씨씨의 본집이 황성군 땅에 (독립신문 1897-07-06 / 3면)	43
강원도 관하 철원군 황성군 강릉군에 (독립신문 1897-07-08 / 2면)	43
각도 각 군에 지금 금 캐는 광소는 (독립신문 1897-09-18 / 3면)	44
황성군 동평 금광은 농상공부 파원 (독립신문 1897-09-28 / 3면)	44
金礦 稅入 (황성신문 1899-02-04 / 3면)	45
관보 초록 2월 2일 (연속)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황성신문 1899-02-06 / 2면)	45
농상공부 각광 각도 각군 지방에 있는 각광을 (독립신문 1899-04-12 / 2면)	45
황성군수 유성원 (독립신문 1899-05-31 / 2면)	46
군수 신임 (독립신문 1899-06-30 / 3면)	46
사법 황성군수 朴周憲 (황성신문 1900-06-02 / 1면)	46
황성민의 防礦 (황성신문 1900-06-29 / 2면)	47
관청사항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황성신문 1900-08-22 / 1면)	47
訴推執穀 (황성신문 1902-01-15 / 2면)	48
각처 화재 (황성신문 1902-05-06 / 2면)	48
황성에 사는 李龍雨가 유인하여 (황성신문 1902-05-21 / 3면)	48
僞啣討錢 (황성신문 1902-06-10 / 2면)	49
橫郡捉賊 (황성신문 1902-08-08 / 2면)	49
군수 秦本 (황성신문 1902-08-27 / 2면)	49

강원도관하 군수치적 (황성신문 1904-04-01 / 1면)	50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황성신문 1904-10-14 / 1면)	50
일거양득 (대한매일신보 1905-01-05 / 1면)	50
양근적경 (대한매일신보 1905-01-05 / 1면)	50
老幼矜憫 (황성신문 1906-04-06 / 3면)	51
檢官論警 (황성신문 1906-05-29 / 2면)	51
江伴貪贓 (황성신문 1906-06-21 / 2면)	52
奏叙 7군 (황성신문 1906-06-21 / 2면)	52
대동고사 (황성신문 1906-07-25 / 1면)	53
관청사항 강원도관하 군수치적 (황성신문 1906-09-01 / 1면)	53
서임 및 사령 황성군수 金炳興 (황성신문 1906-10-17 / 1면)	53
26군 主要報 (황성신문 1906-10-30 / 2면)	53
관세관 위치 및 관할구역표 (황성신문 1906-11-27 / 1면)	54
국채보상 의무금 집행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5-11 / 3면)	54
국채보상의무금 집행 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5-13 / 3면)	56
국채보상의무금 집행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6-24 / 3면)	56
심군수 피착 (대한매일신보 1907-08-11 / 2면)	57
지방정형 지방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 (대한매일신보 1907-08-14 / 3면)	57
군수 放送 (대한매일신보 1907-08-16 / 3면)	58
홍천군에서 의병이 습격한 (대한매일신보 1907-08-22 / 3면)	58
8월 8일에 원주군에서 (대한매일신보 1907-08-24 / 3면)	59
황성 평창 등지에 의병이 출몰하여 (대한매일신보 1907-08-24 / 3면)	59
지방정형 평창과 황성방면에는 의병이 (대한매일신보 1907-08-29 / 3면)	59
군수 상경 (대한매일신보 1907-09-15 / 2면)	60
홍천접전 (대한매일신보 1907-09-21 / 3면)	60
춘찰 보고 (대한매일신보 1907-10-23 / 3면)	61
지난15일에 황성군 우천면 덕가리에서 (대한매일신보 1907-10-30 / 3면)	61
강원도의병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씨가 (대한매일신보 1907-10-31 / 3면)	61
황성군 근처에서 의병이 겨울을 (대한매일신보 1907-11-03 / 3면)	62
황성군 근처에는 의병 수천명이 (대한매일신보 1907-11-06 / 3면)	62
결전능봉 (대한매일신보 1907-11-13 / 2면)	62
의병장 민궁호씨가 강원도관찰사 황열씨의(대한매일신보 1907-11-28 / 1면)	63
황성 지평 양근 중간 고둔골에 (공립신보 1907-12-06 / 2면)	63
원주군 근처에 의병 사오백명이 둔취하므로 (대한매일신보 1907-12-17 / 3면)	64
10일에 황성군 동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7-12-18 / 3면)	64
3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01-12 / 3면)	64
4일에 의병 50명이 황성에서 지평 상동면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01-12 / 3면)	65

12일 오후 11시에 황성군 서방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1-18/ 3면)	65
원주 일병이 본월 10일에 (황성신문 1908-01-18/ 2면)	65
원주 황성 춘천 등 군에 의병이 (대한매일신보 1908-01-31/ 3면)	66
원주 황성 영월 평창 정선 각군의 인민 등이 자위단 조직함을 (황성신문 1908-02-22/ 2면)	66
황성군 북방 3리에서 일병 칠팔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3-10/ 3면)	66
지방소식 일통 황성에 주재하는 일본병이 (황성신문 1908-03-10/ 2면)	67
본월 5일에 일병이 황성 절동에서 (황성신문 1908-03-12/ 2면)	67
본월 9일에 의병 17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3-13/ 3면)	67
본월 8일에 일병이 황성 동방에서 (황성신문 1908-03-13/ 2면)	68
본월 13일에 황성군 수비대의 보병 분대가 (대한매일신보 1908-03-18/ 3면)	68
황성수비대에서 파송한 분견대가 (황성신문 1908-03-18/ 2면)	68
본월 14일에 황성 동북방에서 의병들 (황성신문 1908-03-20/ 2면)	69
본월 13일에 일병이 황성 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3-21/ 2면)	69
13일에 황성군수비대가 황성군 북방 사리허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3-21/ 3면)	69
거월 22일에 충주순사대가 홍주군 적면 부근에 (황성신문 1908-04-02/ 2면)	70
지방정형 거월 25일 황성군 동부 마암 근처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4-05/ 3면)	70
충주전을 거한 즉 거월 19일 경시 李南寧씨가 (황성신문 1908-04-05/ 2면)	70
各處戰塵 황성 북편 4리 되는 땅에서는 (해조신문 1908-04-09/ 1면)	71
황성군분견소에서 의병장 尹成玉을 체포하였는데 (황성신문 1908-04-15/ 2면)	71
戰信一通 (해조신문 1908-04-21/ 2면)	71
본월 19일 밤에 의병들이 황성에 (황성신문 1908-04-24/ 2면)	72
황성 소식 (해조신문 1908-04-26/ 3면)	72
황성 교전 (황성신문 1908-04-28/ 2면)	72
19일에 의병 300여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4-29/ 3면)	73
본월 19일에 원주군 동북방 학곡 근처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4-30/ 3면)	73
본월 20일에 의병들 50명이 (황성신문 1908-04-30/ 2면)	73
거월 7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문막 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5-22/ 2면)	74
본월 16일 황성군 산내리에서 황재석이 거느린 (대한매일신보 1908-06-26/ 3면)	74
거월 27일에 황성수비대 및 순사 3명이 (황성신문 1908-07-09/ 2면)	74
거월 28일에 원주수비대가 황성 동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7-11/ 2면)	75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70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7-14/ 3면)	75
관동지회 (황성신문 1908-07-23/ 1면)	75
본월 12일에 황성분견대 일병이 (황성신문 1908-07-25/ 2면)	76
飲鴆自斃 (황성신문 1908-07-31/ 2면)	76
거월 17일 및 26일에 홍천수비대가 황성군에 (황성신문 1908-08-02/ 2면)	76
본월 2일에 황성수비대가 황성군내에서 (황성신문 1908-08-08/ 2면)	77
황성 興學 (황성신문 1908-08-26/ 1면)	77

전화 개통 구역 (황성신문 1908-08-30 / 2면)	78
황성 흥천 등 군에 의병 십수여명이 (황성신문 1908-09-25 / 2면)	78
관동지회 관동학회 황성지회 취지서가 좌와 같으니 (황성신문 1908-10-01 / 1면)	78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전보다 더 성하는 모양이며 (대한매일신보 1908-10-22 / 3면)	79
개성관내에는 의병이 자주 출몰하는데 (대한매일신보 1908-11-04 / 3면)	80
황성군 남북방 안흥분견소 헌병 1명과 (황성신문 1908-11-10 / 2면)	80
거월 23일 황성군내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11-11 / 3면)	80
본월 12일 황성군 동방으로 50리 가량 되는 (대한매일신보 1908-11-25 / 3면)	81
거월 16일 황성군 울살리에서 의병 몇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12-02 / 3면)	81
본월 7일에 황성군 부근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12-18 / 3면)	81
화성교 시험 (대한매일신보 1909-02-15 / 3면)	82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황성군 지방에만 (대한매일신보 1909-05-22 / 3면)	82
못살겠다 못살어 (대한매일신보 1909-10-02 / 2면)	82
잡아넌졌다 (대한매일신보 1910-02-05 / 2면)	83
教師其人 (황성신문 1910-03-23 / 1면)	83
가상한 일 (대한매일신보 1910-04-09 / 1면)	83
橫城의 36契 (매일신보 1911-05-28 / 2면)	84
황성의 火事 (매일신보 1912-02-16 / 3면)	84
살인범을 심사 (매일신보 1912-12-05 / 3면)	84
부군·폐 발표 강원도 (매일신보 1913-12-29 / 3면)	85
춘천 李 참여관 귀청 (매일신보 1919-04-02 / 4면)	86
황성 (신한민보 1919-07-08 / 2면)	86

1920년대

의병전 (9) 강원도에는 평강에 (독립신문 1920-05-22 / 1면)	89
양구 황성에 강풍과 우박 (매일신보 1920-05-24 / 3면)	89
황성군 신구과 戰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3-01-10 / 4면)	90
황성 근황 시설 방침을 수립 (매일신보 1923-05-02 / 4면)	91
재만 유지의 경고서 (신한민보 1923-06-28 / 4면)	92
동서남북 구도덕 압박에 (시대일보 1924-10-27 / 4면)	94
황성 둔내간 等外 도로 개수 (매일신보 1925-04-27 / 3면)	94
軍資로 3천원모집 해주 모 부호를 협박한 자 (시대일보 1925-06-27 / 2면)	95
중국 가는 여자, 인천에 또 1명 (시대일보 1925-08-13 / 2면)	95
嘲罵者 7명 검속 조선문단 기념 강연장에서 (시대일보 1925-11-07 / 2면)	96
황성 봉평간 도로 둔내까지 일부 개통 (매일신보 1925-11-20 / 3면)	96

3명을 說諭 방환, 그 외는 모두 일주일 구류 (시대일보 1925-11-08 / 2면)	97
을축기자대회 (시대일보 1925-12-24 / 3면)	97
절벽상에 결박 行凶 우괴를 가지고 (시대일보 1926-01-29 / 2면)	99
조선 인구 통계 각군도별 (기12) 강원도 (시대일보 1926-01-29 / 3면)	99
강원도 이양상황 지난20일 현재 (시대일보 1926-06-26 / 3면)	100
신견 취인 상황 (시대일보 1926-07-08 / 4면)	100
횡성군청 개축공사 착수 공비 1만4천원 (매일신보 1926-10-25 / 2면)	101
소문의 소문 (중외일보 1926-12-20 / 2면)	101
형평사위원 지방 정상 조사 조사차로 출발 (중외일보 1926-12-24 / 2면)	102
지폐 위조범 횡성서에 피착 정교한 기계도 압수 (매일신보 1927-02-04 / 3면)	102
계획 중의 제2차 조선철도망 건설비 3억원을 예상 (중외일보 1927-06-04 / 4면)	103
전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 來 7월 10일 춘천에서 (중외일보 1927-06-05 / 4면)	104
하기교원강습原橫 양교육회연합 주최 (중외일보 1927-08-06 / 4면)	105
제3회 中鮮 정축구대회 성황으로 종막 (중외일보 1927-08-12 / 4면)	106
길림 양기탁 저에 회집 대표 13명 (중외일보 1927-11-04 / 2면)	106
李東洛 체포로 정체가 露現 (중외일보 1927-11-04 / 2면)	107
형평운동의 선구, 李東求가 산파역 (중외일보 1927-11-04 / 2면)	107
전강원도 手稻 수확 예상 84만석 (중외일보 1927-11-18 / 4면)	108
강원도 본년 축산 상황 (중외일보 1927-11-19 / 4면)	109
혹한의 국경 신의주에서 본사특파원 尹薰 발전 (중외일보 1928-02-09 / 2면)	109
경계의 불비를 이유로 (중외일보 1928-02-10 / 2면)	110
각지 道議 소식 (중외일보 1928-02-25 / 3면)	111
고려공산당 제2공관-공술을 거절 (신한민보 1928-03-08 / 2면)	113
무산아동학교 대동학원의 복음 고창한씨가 십만원 기부 (중외일보 1928-03-09 / 2면)	114
살인범으로 법정에 설 가련한 16세 소년 (중외일보 1928-03-09 / 2면)	115
이동구 외 9 피고 심리 (중외일보 1928-03-11 / 2면)	116
공산주의 이론 재판장과 사이에 교환 이동구 공술 내용 (중외일보 1928-03-12 / 2면)	116
家人의 사주 받아 無實의 범행 시인? (중외일보 1928-03-14 / 2면)	117
전화가설 예정지 16개소를 내정 (중외일보 1928-03-16 / 1면)	118
횡성에도 殖銀지점 운동 도당국에 진정 (매일신보 1928-03-27 / 4면)	118
형평정기대회 준비위원회 (중외일보 1928-04-01 / 2면)	118
고려혁명당사건, 來이십일에 판결 언도 (중외일보 1928-04-09 / 2면)	119
횡성노농동맹 창립 벽두 중대사항 결의 (중외일보 1928-04-11 / 4면)	120
우차에서 甘睡 중 교하에 추락 즉사 (중외일보 1928-04-23 / 2면)	122
社告 강원기자대회 (중외일보 1928-04-24 / 4면)	122
강원청년연맹 강원도 정기대회 개최 (매일신보 1928-04-24 / 4면)	122
강원기자대회 장소 시일 변경 (중외일보 1928-04-24 / 4면)	123

그리워 안 떨어지는 자식 타살한 친모 (중외일보 1928-04-25 / 2면)	124
황성노맹입총 (중외일보 1928-04-26 / 4면)	124
암야 산중에서 인처를 윤간 (중외일보 1928-04-26 / 2면)	125
전화 교환 개시 1928년도 10개소 (중외일보 1928-05-07 / 1면)	126
아들 죽인 어머니 징역4년을 언도 (중외일보 1928-05-17 / 2면)	126
소년 살인범 조천수 (중외일보 1928-05-26 / 2면)	126
채무 못갚아 숙부를 살해코저 (중외일보 1928-07-15 / 2면)	127
본년도 전화 교환 개시 계획 (중외일보 1928-07-23 / 1면)	127
황성보교 동창 (중외일보 1928-08-25 / 4면)	128
시앗보고 음독 자살한 처 (중외일보 1928-08-27 / 2면)	128
황성도 흉년 난망 (중외일보 1928-08-28 / 4면)	129
황성시내 전화 가설 실현 (중외일보 1928-08-31 / 4면)	129
황성군의 군민 합동 운동 (중외일보 1928-10-07 / 4면)	129
연기 거둬 7삭 만에 공소판결 근 개정 (중외일보 1928-10-08 / 2면)	130
「東西離散하는 무산군을 구원함이 목적이다」이동구 심리 (1) (중외일보 1928-10-08 / 2면)	131
통역의 불충분을 입회 변호인이 항의 장래방침 등을 웃고 종결 이동구 심리 (2) (중외일보 1928-10-08 / 2면)	131
황성교 낙성 협찬위원회 (중외일보 1928-10-11 / 4면)	132
지방시론 황성 청년 제군에게! 황성지국 又堂 (중외일보 1928-10-12 / 4면)	133
도박술로 금전 사취 도주 경찰은 진범 엄탐 (중외일보 1928-10-19 / 4면)	133
고려혁명당원 복심판결 언도 (중외일보 1928-10-20 / 2면)	134
수재 구제, 구제 음악성황 (중외일보 1928-10-23 / 4면)	135
황성시내전화 내월 준송 개통 (중외일보 1928-10-28 / 4면)	135
황성군의 축산품평회 동업조 주최 (중외일보 1928-11-12 / 4면)	136
황성노맹 임총 (중외일보 1928-11-12 / 4면)	136
황성보교 학예품전람회 (중외일보 1928-11-18 / 4면)	137
황성소개관 고구려시 황천현이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39
1만300호 5만8천여인 日人 호수 59호 (매일신보 1928-12-05 / 4면)	139
경강선 중앙차로 교통은 4통5달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0
도로 개수를 따라 산업이 점차 흥왕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0
교육시설 불비 전군 8개면에보교가4개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1
전부 8개의 사회단체 그 연혁과 현상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2
송림공원 반송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4
단결력 굳은 商界 현상 외인들은 부지 불능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4
8할 이상 소작농 사음 횡포에 신음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4
승지와 고적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5

종교계는 쇠퇴상태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6
횡성소개관 광고 (중외일보 1928-12-05 / 4면)	147
횡성팔경 (중외일보 1928-12-06 / 4면)	148
횡성면의 개선 내 5월에 시행 (중외일보 1929-02-10 / 3면)	149
횡성에서 대금광 발현 (중외일보 1929-02-17 / 3면)	149
횡성여자야학 (중외일보 1929-02-25 / 3면)	150
횡성의 독감 (중외일보 1929-02-25 / 3면)	150
횡성보교 학예회 (중외일보 1929-03-01 / 3면)	151
박효자의 단지 (중외일보 1929-03-02 / 3면)	151
횡성에 에헛 청년, 음악대회 금지 (중외일보 1929-03-04 / 3면)	151
지방시론 횡성사회의 급무 횡성 지국 又堂 (중외일보 1929-03-08 / 3면)	152
2대 문제로 둔내면민대회 (중외일보 1929-03-18 / 3면)	153
고령 열부 표창 (중외일보 1929-03-18 / 3면)	154
청원우편소 신설 (중외일보 1929-03-19 / 1면)	154
6개소 우편소 26일 사무 개시 (중외일보 1929-03-25 / 3면)	154
횡성 衡支 정총 (중외일보 1929-03-27 / 3면)	155
춘기 청결일속 (중외일보 1929-04-02 / 3면)	156
횡성 商組 정총 (중외일보 1929-04-03 / 3면)	156
횡성시민 위안 연주회 (중외일보 1929-04-03 / 3면)	156
昨曉頭까지 순차로 전부 피착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58
경기관총대도 출동하여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58
돌입형사의 위협을 비소하며 중용 취박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59
체포 時所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0
장대한 체구 물결치는 군중 사이로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0
“양 최의 관계 전혀 몰랐다” 주인 朴寅緒 談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1
숙소는 당질가, 일주일전에 왔다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1
酒草도 접구치 않고 침묵 일관의 성질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2
전후범행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62
7개년 장기 복역 출옥 후 결사 조직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3
목적은 군자 모집 대거 재기를 계획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3
산중의 유물 麵포도 발견 (중외일보 1929-04-22 / 2면)	164
사진 설명 수범 최양옥 호송광경 (중외일보 1929-04-22 / 3면)	165
행방발각의 동기 金李崔의 순서 (매일신보 1929-04-22 / 3면)	166
자동차 급격 강탈단 3면 전부 체포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67
비내리는 하룻밤에 범인을 차례로 검거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67
자다가 잡힌 최양옥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68
일기는 분산코 국외로 방랑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69

심야혼수중분부름곤봉으로 타살 압장 (중외일보 1929-04-28 / 3면)	169
경찰부 문전에 최양옥 가족 면회 청하여 거절당해 (중외일보 1929-05-01 / 2면)	170
황성군에 面區 문제 도당국에 진정 (매일신보 1929-05-03 / 3면)	170
최양옥 입경과 거사 경로 (중외일보 1929-05-10 / 2면)	171
세상을 놀라게 한 권총단 (신한민보 1929-05-23 / 2면)	172
최양옥 등 3명 기소 죄명 경찰부에서 부쳐 (중외일보 1929-05-24 / 2면)	173
임시정부사건으로 2도 9군에 대수색 (신한민보 1929-06-20 / 2면)	174
둔내 소년 창립 (중외일보 1929-06-30 / 3면)	175
최양옥 공판 10일 (중외일보 1929-06-30 / 2면)	175
정조식 감시원이 면민구타 치상 (중외일보 1929-07-02 / 3면)	176
경찰부 형사대 출동 최양옥 매써 검거 (중외일보 1929-07-03 / 2면)	176
공명단이 국내에 잠입했다고 (신한민보 1929-07-04 / 2면)	177
공명단에서 밀송한 권총, 실탄의 행방 (중외일보 1929-07-06 / 2면)	177
금조총회 일속 (중외일보 1929-07-09 / 3면)	178
지폐위조의 범인을 폭탄범으로 오인코 (중외일보 1929-07-12 / 2면)	178
황성기자단 창립 준비 간담 (중외일보 1929-07-14 / 3면)	179
살부녀 역시 사형 (중외일보 1929-09-03 / 2면)	180
남편을 독살 미수 음란한 계집이 (중외일보 1929-09-09 / 3면)	180
강원 8군 1년간 煙 소비액 23만8천원 (중외일보 1929-10-03 / 4면)	180
모자 협력 자부 타살 暗葬 (중외일보 1929-11-17 / 4면)	181
함남선에서 기차 又復 살인 (중외일보 1929-11-17 / 4면)	181

1930년대

도적하고 방화 (중외일보 1930-01-10 / 2면)	185
고광수 위증 보석 출원 (중외일보 1930-01-22 / 3면)	185
間共 고광수 보석 (중외일보 1930-02-01 / 2면)	186
동지장은 불허, 고광수의 장의 (중외일보 1930-02-08 / 2면)	186
황성 군내의 효자 절부 표창 (매일신보 1930-05-01 / 6면)	187
강원도주요 간선도로 개수공사를 개시 (매일신보 1930-05-06 / 3면)	188
황성군의 징세 성적 극히 양호 (매일신보 1930-05-08 / 6면)	189
강원도의 농업 실습생 각군 1명 선발 (매일신보 1930-05-20 / 6면)	189
제9회 미전과 조선화단 (중외일보 1930-05-23 / 1면)	190
시모가 미워서 자가에 방화 한 여자 (중외일보 1930-09-09 / 4면)	190
황성에서 대금광개발 (중외일보 1930-09-22 / 4면)	191
전강원도내 수해제제비 할당 (중외일보 1930-09-23 / 4면)	191

강원도내 광산개척상황 (중외일보 1930-09-29 / 4면)	192
선만척석회사의 협잡 (신한민보 1930-10-30 / 2면)	192
강원도 추진 공판 종료 (매일신보 1930-11-01 / 3면)	193
황성 정곡면 鐵山騷動 (매일신보 1931-01-14 / 2면)	194
세인 이목을 용동하는 황성 광산 사건 그 내용과 피검자 (1) (매일신보 1931 01-20 / 3면)	194
세인 이목을 용동하는 황성 광산 사건 그 내용과 피검자 (2) (매일신보 1931-01-21 / 3면)	197
황성군하에 흥기강도단 (매일신보 1931-03-24 / 7면)	199
강원도 황성군 大火 20여호 35동 소실 (매일신보 1931-04-05 / 2면)	199
황성 양평 접계에서 대금광 발견 (매일신보 1931-05-17 / 3면)	200
酒食에 금전비용 강도로 허위신고 (중앙일보 1932-01-16 / 3면)	200
광명을 맞는 대동상업전수 (완) (중앙일보 1932-03-14 / 2면)	201
본국시사 강원도의 유리군 증가 (신한민보 1932-03-17 / 2면)	202
지방제도 개정 1주년의 기념 강원도의 독특한 시정 (2) (매일신보 1932-04-20 / 3면)	202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경성일보 1932-06-08 / 7면)	203
본국시사 (신한민보 1932-09-01 / 2면)	203
강원도의 묘대품평회 심사결과 발표 (매일신보 1932-11-26 / 3면)	204
大東학원이 갑종상업교로 (중앙일보 1933-01-30 / 2면)	204
평창군 봉평 둔내 간 도로 공사 기공 (매일신보 1933-04-05 / 5면)	205
遠東소식 덕천 독립당 사건의주범 폭탄 (신한민보 1933-05-11 / 3면)	205
황성 서원면 大火, 10호 15동 전소 (조선중앙일보 1933-05-17 / 3면)	206
덕천 폭탄 사건 주범 등 송국 변낙규 외 16명을 (조선중앙일보 1933-05-17 / 3면)	207
황성에는 霍災 (매일신보 1933-07-05 / 2면)	207
황성 입구 북한강에 철교 가설 운동 (매일신보 1933-07-25 / 5면)	208
좁눗게 오는 것을 대금분실이라 소동 (조선중앙일보 1933-08-10 / 2면)	208
덕천폭탄사건의 邊洛奎 등의 판결 (조선중앙일보 1933-08-11 / 2면)	209
양강철교 가설 흥천기성회의 활동 (조선중앙일보 1933-08-22 / 2면)	209
양친 없음을 비판코 18세 소년 액사 (조선중앙일보 1933-09-01 / 4면)	210
도내 각군에서 강원염색 강습 (매일신보 1933-10-06 / 5면)	210
李東求씨 영면 (조선중앙일보 1933-10-11 / 2면)	211
황성 갑천면민 金組 설치 운동 (매일신보 1933-10-14 / 5면)	211
대동상업학교 재단법인 수 인가 (조선중앙일보 1933-10-25 / 2면)	212
강원도내 자작농 창안 (매일신보 1933-12-10 / 4면)	213
원주발전소 고장 (조선중앙일보 1934-01-26 / 5면)	213
강원도 남부 4군 맥자조합 창립 (매일신보 1934-04-25 / 4면)	214

강원도주조협회 주류 품평 현황 (매일신보 1934-05-02 / 4면)	215
강원도 자작농가 저축상황 일람 (매일신보 1934-06-05 / 4면)	215
10일 현재의 강원도 이양상황 (매일신보 1934-06-17 / 4면)	216
강원도 춘잠견 표준가격협정 (매일신보 1934-06-19 / 4면)	217
머슴놈과 붙어 땅 팔아 출분 (매일신보 1934-06-23 / 7면)	217
근고 (조선중앙일보 1934-06-24 / 5면)	218
황성면에서 朝市 계획, 7월 1일부터 (조선중앙일보 1934-06-24 / 3면)	218
황성노농동맹 원유회 (조선중앙일보 1934-06-25 / 4면)	218
황성에 풍재 (매일신보 1934-06-25 / 4면)	218
강원도 해제조 3만석 정도 (매일신보 1934-06-30 / 5면)	219
4천원 공사비로 황성 공회당 建築 (조선중앙일보 1934-07-01 / 5면)	219
황성금광의 태업 (조선중앙일보 1934-07-07 / 2면)	220
황성의 광산액 10만5천원 돌파 (조선중앙일보 1934-07-09 / 4면)	221
황성금용사건 後報 그 금광주와는 (조선중앙일보 1934-07-12 / 2면)	221
황성면장 회의 (매일신보 1934-07-22 / 5면)	222
자급 비료 장려에 보조금을 하부 (매일신보 1934-08-12 / 4면)	222
황성에도 희유한 幽雅한 산수풍경 (조선중앙일보 1934-08-28)	222
황성군 농회 소맥 공판 실적 (매일신보 1934-09-01 / 4면)	223
황성군농회 1933년도 수지 결산 (매일신보 1934-09-01 / 4면)	223
황성군농회 總動 해아리벳치 장려 (매일신보 1934-09-01 / 4면)	223
京東철도의 연장 원주 황성을 관통 (매일신보 1934-09-12 / 5면)	224
황성 둔내면 조항리 진흥회의 의거 (매일신보 1934-09-21 / 7면)	225
황성군 율동선 等外路 자발적으로개수 (매일신보 1934-09-23 / 4면)	225
황성 중견인물 지도 강습회 (매일신보 1934-11-19 / 4면)	226
강원도 9년도 호세 징수 상황 (매일신보 1934-11-20 / 5면)	226
지난날 호화도 금일 춘몽 본가생활은 (조선중앙일보 1934-11-29 / 2면)	227
강원도 맥작 파종법 지도 (매일신보 1934-11-30 / 4면)	228
격문살포사건, 姜進 10년役 구형 (조선중앙일보 1934-12-22 / 2면)	228
황성에 3인조 강도 2처에서 奪金 (매일신보 1934-12-27 / 6면)	230
학대하는 남편과 같이 살수가 없소 (조선중앙일보 1935-02-03)	230
황성소개관을 발행하면서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2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교통계의 선구 尹泰年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2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황성군 상업 조합장 방현영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3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황성교회 창설자 명예목사 탁영재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4

황성읍의 전경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4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상업계의 거성 卓命洙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4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강원도의회의원 신현만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5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운수계 활동가 鄭東溥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5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청년실업가 김윤수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6
황성군의 산업계 진조선 굴지의 광업지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6
자동차 연락 뿐인 교통운수의 불편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8
통신기관 (조선중앙일보 1935년-03-16 / 4면)	238
순전한 민간기관인 황성의 사회단체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9
장래계획의 일단과 8개 면장의 의견 위생시설 급무 황성면장 曹圭鳳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39
화전민의 구제책과 무산아동의 교육 둔내면장 安達善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0
교육기관 부족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1
춘공기의 식량난과 농가의 부업장려 우천면장 元容均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1
교통사업 확충 공근면장 박순봉 (朴淳鵬)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2
비료의 지급책 정곡면장 吳彦洙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3
공립보교 설립 서원면장 柳炳殷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3
풍암선의 개통, 청일면장 韓熙東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4
대중생활을 위협하는 의료기관의 불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5
종교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5
연초 소비 통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6
주류생산 통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6
황성군의 연혁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7
역대 군수 업적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247
7만원을 내라고 巨富된 동료 고소 (조선중앙일보 1935-04-14 / 2면)	248
아편 밀매자에 20원 벌금형 (조선중앙일보 1935-09-20 / 3면)	248
강원도내 가로수 43만3천본 (매일신보 1936-06-25 / 5면)	249
축 매일신보 창업 30주년 (매일신보 1936-07-06 / 6면)	249
강원 전도에 소맥공판 실시 (매일신보 1936-07-16 / 5면)	250
14일 현재의 강원도 수해상황인명 사상도 불소 (매일신보 1936-08-16 / 5면)	250

강원도 금광 현세 (매일신보 1936-08-28 / 4면)	251
횡성 전천교 부근 피해상황을 시찰 (매일신보 1936-09-03 / 2면)	252
강원도 교통상황 (지난3일 현재) (매일신보 1936-09-06 / 5면)	252
횡성의 농작물 피해 (매일신보 1936-09-15 / 11면)	253
어허사금 각지전달식 (매일신보 1936-10-03 / 5면)	253
강원도내 초등교장 회의 일정 (매일신보 1936-10-09 / 5면)	253
강원미작 1회 예상 90만1천여석 (매일신보 1936-10-09 / 5면)	254
횡성서 해주에 노동자를 이민 (매일신보 1936-10-19 / 4면)	255
각지 미곡 통제 조합설립공작 (매일신보 1936-10-24 / 5면)	255
횡성읍면장 회의 (매일신보 1936-10-24 / 5면)	256
횡성에 냉해 농작물 피해 심대 (매일신보 1936-10-28 / 11면)	256
강원 36 초등교 칩어역본 전달식 (매일신보 1936-11-06 / 5면)	256
강원도의 결핵환자 남자가 여자의 근배 (매일신보 1936-11-10 / 3면)	257
강원도 사령 (매일신보 1936-11-21 / 5면)	258
중방 여공 모집에 횡성서 26명 (매일신보 1936-11-21 / 5면)	258
대두도 대감수 비 거년 8만석 감 (매일신보 1936-11-24 / 4면)	258
홍작은 전곡에도 강원 속작 대감수 (매일신보 1936-11-24 / 4면)	259
이재지 조합원에 대금 회수 완화책 (매일신보 1936-11-29 / 4면)	259
강원도 각군 순회로 사회교화 강연회 (매일신보 1937-02-18 / 3면)	260
횡성군 수의 축산학 강습 (매일신보 1937-02-21 / 3면)	261
중앙선 신설에 추수 마룻역 유치 맹열 (매일신보 1937-02-24 / 3면)	261
강원 속작 대감수 (매일신보 1937-03-13 / 3면)	262
농사와 면작 양 품평회 포상식 (매일신보 1937-03-13 / 3면)	262
강원도채지 금조에 구제자금을 융통 (매일신보 1937-03-25 / 3면)	263
청춘의 피를 빼앗는 몸서리 칠 결핵병 (매일신보 1937-03-25 / 4면)	263
영춘갱신의 초등교단 초임교원들 부임 (매일신보 1937-04-06 / 3면)	264
강원의식상독려 도 간부 각 군에 총동 (매일신보 1937-04-09 / 3면)	264
政戰 각지에 방감 (매일신보 1937-04-15 / 3면)	265
강원도이재민 4만6천여 출역 (매일신보 1937-04-16 / 3면)	265
강원의축록전도백열신구의 도전 격렬 (매일신보 1937-04-17 / 3면)	266
강원이발시험 합격자 횡성 (매일신보 1937-04-17 / 3면)	267
단당 3백관 목표로 퇴비 증조를 지도 (매일신보 1937-04-17 / 3면)	268
강원도의 선거전 격화 신진의 출마다수 (매일신보 1937-04-22 / 3면)	268
강원입후보 72명 공방의 전운 백열 (매일신보 1937-05-07 / 3면)	269
강원 정전 심판 금10일에 일제투표 개표는 11일에 (매일신보 1937-05-11 / 3면)	270
관명되는 新道議 11일 오후 6시 현재 (매일신보 1937-05-12 / 2면)	271
강원도청원 총동원 퇴비장 개축지도 (매일신보 1937-05-16 / 3면)	272

황성군 작년 수해지 대사방공사 착공 (매일신보 1937-06-05 / 3면)	272
농번기 박두함을 따라 (매일신보 1937-06-07 / 4면)	273
5월 회우의 혜택입어 강원도이양 진척 (매일신보 1937-06-29 / 3면)	273
황성군 안흥 제방 개축 요망 漸白熱 (매일신보 1937-07-20 / 3면)	274
강원도처에 풍년송 이양은 9할9분 (매일신보 1937-07-24 / 3면)	275
강원국방헌금 (매일신보 1937-08-04 / 3면)	276
강원 남부 4군 연합 기관총헌납 결의 (매일신보 1937-08-25 / 3면)	276
강원도경찰관 표창 (매일신보 1937-08-29 / 3면)	277
'강원호'기 헌납에 성금 벌써 10만여원 (매일신보 1937-09-23 / 3면)	278
명치절에 가진기하여 납세자 공로표창 (매일신보 1937-11-03 / 3면)	279
남총독 경로회 강원도 출석자 (매일신보 1937-11-05 / 3면)	280
강원도의 승압연 판매 통제 강력화 (매일신보 1937-11-23 / 3면)	280
생활개선 제일보 양력 開市 일제 시행 (매일신보 1938-01-07 / 4면)	281
4백여부락 만2천호 갱생부락으로 설정 (매일신보 1938-01-25 / 3면)	282
강원도의 미작 실수 134만여석 (매일신보 1938-01-28 / 3면)	282
강원도의 지원병 2일 현재 82명의 다수 (매일신보 1938-02-05 / 3면)	283
우량청년부인회에 강원도서 보조금 (매일신보 1938-02-05 / 3면)	284
춘천, 황성, 홍천, 원주에 (매일신보 1938-02-18 / 3면)	284
좌담회 개최 2천회에 동원인수 11만명 (매일신보 1938-02-25 / 4면)	285
강원도에 공사폭주 노동자 대량 수요 (매일신보 1938-03-10 / 3면)	286
강원도 6개군에서 면작강습회 개최 (매일신보 1938-03-17 / 3면)	286
영동 영서를 2조로 초등학교장회의 (매일신보 1938-03-17 / 3면)	287
강원도 5개군연합 입직 경기회 성황 23일에 시상식 (매일신보 1938-03-26 / 3면)	287
670여 단체에 단원만 1만8천 강원청년단 총계 (매일신보 1938-04-05 / 3면)	288
강원도 교명을 일제변경 (매일신문 1938-04-05 / 3면)	289
강원도지방이원 양성소 입소식 (매일신보 1938-04-07 / 3면)	292
저수지를 이용하여 담수어 양식 계획 (매일신보 1938-04-11 / 4면)	292
강원도사령 (매일신보 1938-04-14 / 3면)	293
부인의 면작지도 장려 (매일신보 1938-04-15 / 3면)	294
강원도의 자유이민 백호를 우복수송 (매일신보 1938-04-28 / 3면)	294
강원대사방공사 24만여원 공비로 (매일신보 1938-05-07 / 3면)	295
4천5백여부락에 타아소개설계획 (매일신보 1938-05-13 / 3면)	295
4천여 부락에 실시한 비행저국 3만여석 (매일신보 1938-05-14 / 3면)	296
강원도 춘잠소립 비전연 2천여매증 (매일신보 1938-05-19 / 3면)	297
강원도 인구증가율 매년1만2천 (매일신보 1938-06-07 / 3면)	298
강원이발사시험 합격자 (매일신보 1938-06-10 / 3면)	299
강원춘권공판출회고 34만관 예상 (매일신보 1938-06-12 / 3면)	299

2천100여대에 대원 11만7천 (매일신보 1938-07-24 / 3면)	300
강원도 4개군에 감저재배조합 (매일신보 1938-08-02 / 3면)	300
주재소 중심 좌담회에 출석자 13만명 (매일신보 1938-08-02 / 3면)	301
황성근로보국대 애국일에 작업 (매일신보 1938-08-02 / 3면)	301
황성단발열 (매일신보 1938-08-02 / 4면)	302
황성군 춘당리에 간이학교 신설 (매일신보 1938-08-05 / 3면)	302
황성과 이천에도 한발 농작물고사상태 (매일신보 1938-08-09 / 4면)	303
강원 소농의 갱생 (매일신보 1938-08-18 / 3면)	303
경제 강조 주간 황성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8-08-19 / 3면)	304
황성 추잠적 배포 (매일신보 1938-08-19 / 3면)	305
황성과 개풍지방에 대망의 감우포연 (매일신보 1938-08-20 / 4면)	305
황성군근로대 도로개수작업 (매일신보 1938-08-20 / 4면)	305
서당 강사 강습 황성군서 개최 (매일신보 1938-08-23 / 3면)	306
황성 부인 강화회 (매일신보 1938-08-23 / 3면)	306
사기복술사 황성서 피해 不少 (매일신보 1938-08-25 / 4면)	306
가축금 구입자금 청년단원에 교부 (매일신보 1938-08-27 / 3면)	307
황성군 중견 강습 (매일신보 1938-08-28 / 3면)	307
황성군 무도납회 (매일신보 1938-08-30 / 3면)	308
황성남소학교 초예주간 실시 (매일신보 1938-08-30 / 3면)	308
강원도의수도 작황은 평년작만은 확실 (매일신보 1938-08-31 / 4면)	308
황성경찰서원 근로보국 작업 (매일신보 1938-08-31 / 3면)	309
황성군학교 증축 기채인가 고대 (매일신보 1938-08-31 / 3면)	309
5개년 계획 세우고 황성군 식상장려 (매일신보 1938-09-02 / 3면)	309
황성군직원 총동 퇴비 면작 등 독려 (매일신보 1938-09-02 / 3면)	310
위문대 1천개 황성군서 수집 (매일신보 1938-09-03 / 3면)	310
황성군 각 면에 사무주임 배치 (매일신보 1938-09-04 / 3면)	310
둔내소학교생 정기신체검사 (매일신보 1938-09-07 / 3면)	311
강원도의 근로보국대 무려 2천600여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1
강원시국 강연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2
강원의 추천공관고 16만관을 예상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2
황성읍 정신연맹 지난5일 결성식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3
황성추잠공관 14일부터 개시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3
황성퇴비 품평회 (매일신보 1938-09-09 / 3면)	313
강원도지원병 후기생 32명 대기중 (매일신보 1938-09-10 / 4면)	314
황성군내 8개면의 화전민 정리계획 (매일신보 1938-09-12 / 4면)	315
국민정신동원 황성군연맹 결성 (매일신보 1938-09-13 / 3면)	315
황성지방의 농형 (매일신보 1938-9-13 / 4면)	315

연산10만俵 목표 황성목탄조 창립 (매일신보 1938-09-13 / 3면)	316
황성군 관하 임산물 연산 47만원 (매일신보 1938-09-15 / 4면)	316
강원도청년단 대회 21일부터 개최 (매일신보 1938-09-15 / 4면)	317
황성축산품평 10월 상순에 개최 (매일신보 1938-09-17 / 3면)	317
황성방공협회 내27일 결성식 (매일신보 1938-09-21 / 3면)	318
순시중의 김지사 황성서 석쇄작업 (매일신보 1938-09-22 / 3면)	318
황성피발경진회 (매일신보 1938-09-23 / 3면)	319
황성 시국 강연회 (매일신보 1938-09-23 / 3면)	319
강원전도를 3구로 금융조합 이사회의 (매일신보 1938-09-27 / 3면)	319
도로 개수에 출역하여 (매일신보 1938-09-27 / 3면)	320
황성 곡검 협의 (매일신보 1938-09-27 / 3면)	320
황성 추계청결 (매일신보 1938-09-27 / 3면)	321
황성 중견강습 (매일신보 1938-09-27 / 3면)	321
사상보국의 철벽진 방공협회 지부결성 (매일신보 1938-10-01 / 3면)	322
안흥청결 및 중두 (매일신보 1938-10-01 / 3면)	322
황성소조 역원회 (매일신보 1938-10-01 / 3면)	323
황성각교 증축 공사제부입찰 (매일신보 1938-10-04 / 3면)	323
황성체육협회 결성 (매일신보 1938-10-04 / 3면)	323
강원도내 부인단체 공동저축액만원 (매일신보 1938-10-04 / 4면)	324
각 학교 운동회 황성남소교 (매일신보 1938-10-04 / 3면)	324
강원미수확 1회 예상 8만5천여석 (매일신보 1938-10-06 / 3면)	325
황성군 면 사무 검열 (매일신보 1938-10-06 / 3면)	325
황성 각 근로대 적성 (매일신보 1938-10-16 / 4면)	326
50여 방공단 결성 단위 2천명 돌파 (매일신보 1938-11-05 / 3면)	326
제1회 중선축구대회 (매일신보 1938-11-08 / 3면)	327
중선축구대회 내 13일에 (매일신보 1938-11-08 / 3면)	327
정신 좌흥 주간 중 각지의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8-11-08 / 3면)	327
강원도내 20교에 칩어등본을 하루 (매일신보 1938-11-09 / 3면)	328
강원도의 근로보국대 무려 3천800여 (매일신보 1938-11-16 / 3면)	328
뫼대좌는 14일 (매일신보 1938-11-18 / 3면)	329
강원의 추잠공관 44만5천여킬로그램 (매일신보 1938-11-18 / 3면)	329
황성군농회 인, 대두 공관 (매일신보 1938-11-19 / 3면)	330
갑천소학교 증흔비 제막 (매일신보 1938-11-20 / 3면)	330
황성농잠 주취 번식 빈우 품평 (매일신보 1938-11-20 / 3면)	330
황성보국저금 13만9천원 (매일신보 1938-11-22 / 3면)	331
만주 이민 지원자 황성군에서 7명 (매일신보 1938-11-22 / 3면)	331
강원 중소하천 개수 (매일신보 1938-11-29 / 3면)	331

황성면화공관 출회 성적 부진 (매일신보 1938-12-02 / 3면)	332
황성군 각 부락 생업 報國田 (매일신보 1938-12-04 / 3면)	333
각지 방화일 행사 황성 (매일신보 1938-12-05 / 4면)	333
헌금과 위문대 황성 (매일신보 1938-12-05 / 4면)	333
29개소 부락 문맹 계발 야학회 (매일신보 1938-12-06 / 3면)	334
갑천공영회 생산자 편의 도모 (매일신보 1938-12-10 / 3면)	334
황성 시국 좌담회 (매일신보 1938-12-11 / 4면)	335
통천 황성 양군 총후보국 주간 (매일신보 1938-12-11 / 3면)	335
저축보국실행 황성군서 협의 (매일신보 1938-12-20 / 3면)	335
황성國婦 역원회 (매일신보 1938-12-20 / 3면)	336
12만매 목표로 황성군 입직 장려 (매일신보 1938-12-27 / 3면)	336
강원 황성군 부락 중심인물의 (매일신보 1939-01-06 / 3면)	337
황성경찰서서 (매일신보 1939-01-07 / 3면)	338
황성군면에 ○봉을 봉안 (매일신보 1939-01-07 / 3면)	339
지원병 모집 협의 (매일신보 1939-01-08 / 3면)	339
황성군 각 면에 군용모피 배정 (매일신보 1939-01-17 / 3면)	340
일본정신 발양주간 각지의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9-02-05 / 3면)	340
지원병 출원자 황성 38명 (매일신보 1939-02-08 / 3면)	340
농진공로자 황성서 표창 (매일신보 1939-02-09 / 4면)	341
비상시를 반영하여 소작쟁의 감소 (매일신보 1939-02-09 / 4면)	341
황성군 각면서 면작 야간 강화 (매일신보 1939-02-10 / 3면)	342
황성 면의개선 (매일신보 1939-2-10 / 3면)	342
황성군 각 면에 농진 지도 실시 (매일신보 1939-03-14 / 3면)	343
황성면 사무검열 (매일신보 1939-03-14 / 3면)	343
황성군당의회 (매일신보 1939-03-26 / 3면)	343
황성농진 사무 심사 결과 양호 (매일신보 1939-04-01 / 3면)	344
황성농촌진흥사무심사 종료 (매일신보 1939-04-01 / 3면)	344
각군 농회 총회 황성농회 (매일신보 1939-04-01 / 3면)	344
강원서 3개년계획 피마 재배를 장려 (매일신보 1939-04-11 / 3면)	345
지하 자원 조사대 (매일신보 1939-04-14 / 3면)	345
면양부락중심인물 (매일신보 1939-4-14 / 3면)	346
면작 과중 독려반 (매일신보 1939-04-21 / 3면)	347
폐품 회수 운동 강화 (매일신보 1939-04-21 / 3면)	347
제7차갱생지도부락488부락에 1만여호 (매일신보 1939-04-22 / 3면)	348
공채구입은 8천원 (매일신보 1939-04-22 / 3면)	348
강원도 입후보 읍은 만원, 면은 상부족 (매일신보 1939-05-13 / 3면)	349
각 면협의회원 당선자 황성군 (매일신보 1939-05-26 / 3면)	349

각지 춘건 공판 고가로 출회 양호 (매일신보 1939-06-23 / 3면)	350
1만여명이 동원될 강원청년단대회 (매일신보 1939-07-30 / 3면)	350
황성의 울건 채취무려! 2천톤 (䟽) 예상 (매일신보 1939-08-04 / 3면)	351
2만2천kg 송지 생산을 계획 (매일신보 1939-08-15 / 3면)	351
도내를 3구로 강원 전작 품평회 (매일신보 1939-08-15 / 3면)	351
홍천축구대회 황성군이 우승 (매일신보 1939-08-17 / 3면)	352
강원도 소농의 갱생 대부된 (매일신보 1939-08-18 / 3면)	352
각지 방공기념 황성 (매일신보 1939-08-22 / 3면)	353
황성경찰서 무도납회식 (매일신보 1939-08-26 / 3면)	353
3천명 시위 행진 황성 배영동지회 결성 (매일신보 1939-08-27 / 3면)	354
아들 싸움 말리고자 자가 방화한 우부 (매일신보 1939-09-09 / 3면)	354
황성체협 주최 시민운동회 개최 (매일신보 1939-09-19 / 3면)	355
한해 대책 협의코자 각군 지주 간담회 (매일신보 1939-09-22 / 3면)	356
황성운동 기부 속지 (매일신보 1939-09-29 / 3면)	356
황성 충후 주간 실시 (매일신보 1939-09-29 / 3면)	357
축산 공진회 원주서 성황 (매일신보 1939-11-07 / 3면)	357
강원의 축우 증식 27만두를 목표로 (매일신보 1939-11-24 / 3면)	357
강원의 면화 공판량 365만근 (매일신보 1939-11-26 / 3면)	358
전시하 중요 자원으로강원산 송지 등장 (매일신보 1939-12-14 / 3면)	359
강원의 면화 공판량 400만근들과 예상 (매일신보 1939-12-16 / 3면)	360
농촌야학회 황성서 개강 (매일신보 1939-12-20 / 3면)	360
면화 70만근 돌파 강원수위를 자랑 (매일신보 1939-12-20 / 3면)	361

1940년대

조선최대의사방언제 황성군일대에 출현 (매일신보 1940-01-07 / 3면)	365
기원가절을 봉축 (매일신보 1940-02-13 / 3면)	365
저축 장려에 박차 (매일신보 1940-02-13 / 3면)	366
황성서 면작 장려 100만근 생산을 목표 (매일신보 1940-03-27 / 3면)	366
춘궁기를 극복하고 한해 구제토목공사 (매일신보 1940-04-03 / 3면)	367
황성군수 창씨 (매일신보 1940-04-21 / 3면)	367
중돈생산 부락설치 양돈을 적극장려 (매일신보 1940-04-24 / 3면)	368
영예의 593명 강원지원병 추천자 (매일신보 1940-04-27 / 3면)	368
황성뽕잎 일제 창씨개명 (매일신보 1940-04-27 / 3면)	369
원주 황성에 건묘관 설치 (매일신보 1940-05-18 / 4면)	369
애국의 열정에 순사 (매일신보 1940-05-19 / 3면)	370

가마니 보국운동 (매일신보 1940-05-28 / 3면)	371
지원병 불합격 퇴사 순사한 애국청년 (매일신보 1940-05-28 / 3면)	371
아버지도 애국용 (매일신보 1940-05-29 / 3면)	374
지하자원의 표본실① 무익의 보고 광업 강원 전모 (매일신보 1940-06-04 / 3면)	377
최고는 올진75m 평균 35m정도 (매일신보 1940-06-04 / 3면)	377
15세 어린소부가 남편을 독살 미수 (매일신보 1940-06-11 / 3면)	378
잠견증산을 계획 황성생업보국운동 (매일신보 1940-06-11 / 3면)	378
작년 퇴비 제조량 7억300여만관 (매일신보 1940-06-26 / 3면)	379
각지의 회우 황성 (매일신보 1940-06-28 / 3면)	379
광목당목옥양목등 6월중 만여필 배급 (매일신보 1940-06-28 / 3면)	379
500부락에만여호갱생 농가 설정완료 (매일신보 1940-07-03 / 3면)	380
강원도 국세조사 실사 앞두고 준비회 (매일신보 1940-07-06 / 3면)	380
수급의 원활기코저 강원서 공업회수 (매일신보 1940-07-06 / 3면)	381
강원도내 각지의 자동차선 불통 (매일신보 1940-07-09 / 3면)	381
풍작의 적'병충해'철저 구멸을 기도 (매일신보 1940-07-13 / 3면)	382
도민의 3분의1 계출 설정자 50만명 (매일신보 1940-07-16 / 4면)	382
18개 자동차선 의연 불통 (매일신보 1940-07-20 / 3면)	383
양잠농가에 화색 (매일신보 1940-07-24 / 3면)	383
호우 2천600mm (매일신보 1940-07-24 / 3면)	384
강원도내 각군수 전부 창씨를 완료 (매일신보 1940-07-31 / 3면)	384
납세보국에 강원도내 제1기분 (매일신보 1940-07-31 / 3면)	385
춘잠뒤에 추잠 금년 소립 5만7천장 (매일신보 1940-07-31 / 3면)	385
영예를 쌓건에 강원도 지원병 112명 (매일신보 1940-08-02 / 3면)	386
문맹 퇴치의 이 실적 (매일신보 1940-08-04 / 3면)	386
드러난 각지 창씨의 총결산 (매일신보 1940-08-13 / 3면)	387
강원도지사 황성을 시찰 (매일신보 1940-09-08 / 3면)	387
강원도 목탄 반출 계획 (매일신보 1940-10-05 / 3면)	388
강원도 대마 공판 400만근 돌파 예상 (매일신보 1940-10-09 / 3면)	388
강원도 면화공판 (매일신보 1940년 10월 12일 / 3면)	389
강원도미 수확 예상 93만4천여석 (매일신보 1940-10-12 / 3면)	389
강원도 잠업 품평회 (매일신보 1940-10-20 / 3면)	390
우돈육판매 가격 강원도 각군별로 지정 (매일신보 1940-10-20 / 3면)	390
황성군민체육제전 (매일신보 1940-10-20 / 3면)	391
황성군민 체육대회 (매일신보 1940-11-02 / 3면)	391
황성, 김화군 聯盟 총회 (매일신보 1940-11-30 / 3면)	392
자원 애호 사상 고취 (매일신보 1940-12-05 / 3면)	392
강원도 묘대 품평회 성적 (매일신보 1941-01-08 / 3면)	392

적기 이양 독려 강원도 간부 총출동 (매일신보 1941-01-08 / 3면)	393
검거만 1천700여건 (매일신보 1941-01-18 / 3면)	393
면화공관실적 불량 (매일신보 1941-01-18 / 3면)	393
내선일체는 피의 결합에서 (매일신보 1941-01-26 / 3면)	394
강원도 만명을 돌파 (매일신보 1941-02-08 / 3면)	394
대두, 속관매가격 강원도10일부터 실시 (매일신보 1941-04-18 / 3면)	395
순鮮 각도회 의원 일람 (매일신보 1941-05-13 / 3면)	395
목표액 53만원 횡성군 각 면에 배정 (매일신보 1941-05-23 / 3면)	395
도연맹계원 총출동 애국일상회 지도 (매일신보 1941-05-23 / 3면)	396
도작 개선 강습회 (매일신보 1941-05-23 / 3면)	396
부인 추진대원 (매일신보 1941-06-20 / 3면)	397
횡성 울진 부인 이양 경진회 (매일신보 1941-06-20 / 3면)	397
세나는 강원도 목탄 76만표를 도외로 반출계획 (매일신보 1941-07-31 / 3면)	398
횡성수조 준공 등 (매일신보 1941-07-31 / 3면)	398
1941년도 읍면 유입야 시업 계획 실적 (매일신보 1941-09-27 / 3면)	399
횡성면 체육 단련회 (매일신보 1941-10-10 / 3면)	399
횡성에 개로전 관민일체로 전개 (매일신보 1941-10-14 / 3면)	399
잠건 공출 성적부진 (매일신보 1941-10-22 / 3면)	400
입 320만매, 승 190만관 등 (매일신보 1941-11-02 / 3면)	400
납세공로자 55명 (매일신보 1941-11-02 / 3면)	401
도전형 신체검사 16일부터 (매일신보 1941-11-12 / 3면)	401
총수2만명 돌파 적격자만 9,200여명 (매일신보 1941-11-12 / 3면)	402
늘고먹는 유한남녀 농촌에만 1만8천여 (매일신보 1941-11-16 / 7면)	402
군마다 국민대회 (매일신보 1941-11-20 / 7면)	403
신사작법 강습회 (매일신보 1941-11-20 / 3면)	403
채권 예약 개시 (매일신보 1941-11-25 / 3면)	403
부진하는 면공관 강원도민의 분기촉진 (매일신보 1941-12-06 / 3면)	404
초수봉납 명년은 양구군서 (매일신보 1941-12-13 / 3면)	404
과중용 면화 종자 보관에 노력하라 (매일신보 1941-12-24 / 3면)	405
환지하는 현금과 현품 (매일신보 1942-01-07 / 3면)	405
면화 공관 기일 2월말까지 연기 (매일신보 1942-01-11 / 3면)	406
과학교육강습회 강원도를 5구로 분할, 순회 개강 (매일신보 1942-02-08 / 3면)	406
청년훈련소 교육연구회 (매일신보 1942-02-08 / 3면)	406
각계 공로자 표창 경기, 강원서 기원가절에 (매일신보 1942-02-11 / 3면)	407
영예의 지원병 강원서 417명 추천 (매일신보 1942-02-11 / 3면)	407
160만표 목표 강원도 목탄 증산 계획 (매일신보 1942-03-07 / 3면)	408
단기농민 도장 모집 인원을 배정 (매일신보 1942-03-08 / 3면)	408

도외에 1천500만관 (매일신보 1942-03-08 / 3면)	408
대마 증산에 박차 채종전을 새로 설치 (매일신보 1942-03-27 / 3면)	409
8개군에 군사학 전시교육의 철저를 (매일신보 1942-04-02 / 3면)	409
우량 애국반원 21명 강원도연맹에서 표창 (매일신보 1942-04-03 / 3면)	410
저축 장려 공로자와 모범 저축 조합 표창 (매일신보 1942-04-03 / 3면)	410
부락 입지 연구회 (매일신보 1942-04-09 / 3면)	410
○○잠사육 권장 전국민학교 아동에게 (매일신보 1942-04-23 / 4면)	411
적성의 현금 (매일신보 1942-04-23 / 4면)	411
황성남국민학교 후원회 정기총회 (매일신보 1942-04-23 / 4면)	411
강릉이재민에 황성서 동정금 (매일신보 1942-04-28 / 4면)	412
영예의 치안전사 강원도에서 표창식 (매일신보 1942-05-01 / 4면)	412
국채소화 목표액 금년도는 214만3천원 (매일신보 1942-05-05 / 4면)	413
각지에서 건민운동 (매일신보 1942-05-05 / 4면)	413
새 제염 최고가 강원도서 지정 (매일신보 1942-05-09 / 4면)	413
황성 각 시장 감회 매월 6회를 3회씩 개시 (매일신보 1942-05-10 / 6면)	414
농업보국청년대 강원서 예비조련 (매일신보 1942-05-20 / 4면)	414
군국부인의 단결 각지 대일본부인회 결성 (매일신보 1942-06-12 / 4면)	415
새끼를 응급 증산 (매일신보 1942-07-18 / 4면)	415
춘감공판 총결산 (매일신보 1942-07-18 / 4면)	416
강원도우량유아 도대표 3명, 군대표 (매일신보 1942-07-19 / 4면)	416
초수 봉납답 봉경 (매일신보 1942-07-19 / 4면)	416
각지 면작 품평회 강원도농회 주최로 (매일신보 1942-08-27 / 4면)	417
종저 저장을 확보 (매일신보 1942-09-12 / 4면)	417
강원도의 대마공판 (매일신보 1942-09-18 / 4면)	418
황성축구단 원정 (매일신보 1942-09-18 / 4면)	418
본사 주최 부로 견학단강원도반을 모집 (매일신보 1942-09-27 / 4면)	419
축우품평회 개최 (매일신보 1942-10-11 / 4면)	419
거세우 경이회 (매일신보 1942-10-14 / 4면)	419
강원도 입직을 적극 장려 (매일신문 1942-10-31 / 4면)	420
저축공로자 표창 각지서 표창 전달식 거행 (매일신보 1942-11-05 / 4면)	420
종저 저장을 확보 (매일신보 1942-11-08 / 4면)	421
특별청년연성소 건병으로 대진군 (매일신보 1942-12-02 / 4면)	421
황성서 愛國機 (매일신보 1945-02-08 / 2면)	422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1920년대 이전

황성 관련기사

시월십이일 도지휘관 김재은씨가 군부에
(독립신문 1896-10-24 / 2면)

○ 심월십이일 도지휘관 김재은씨가 군부에 보고하였는데 의병* 700여명이 황성군에 들어 온다고 병정 두 소대를 급히 보내달라고 하였더라

10월12일 도지휘관 김재은씨가 군부에 보고하였는데 의병* 700여명이 황성군에 들어 온다고 병정 두 소대를 급히 보내달라고 하였더라

[*]미도는 의병

관보 6월8일
황해도 관찰부 주사 민설호, 시종원 시어 원익상 (중략) 황성군수 유성원 (중략)

관보 유월 팔일 황성군수 이필영
(독립신문 1897-06-10 / 2면)

상북도 관찰부 주사 홍정후 궁내부 종목과 주사 리유관 의능 황성후계구 태인 군수 리경익 회담 군수 조유희 재현 군수 리필영 성서유 군수 리규환 황성 군수 리필영 류담 군수 주철준 강릉 군수 리비홍 문필 군수 조비홍 진안 군수 리척두산 군수 허진상인 후창 군수 신명연 영탄 군수 허석성 군수 한덕나 립탄 군수 유진옥 윤성 군수 류성원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 정병은 의원 면 본관 호외 육월 팔일

황해도 관찰부 주사 홍정후 궁내부 종목과 주사 리유관 (중략) 승서 황성군수 이필영 용담군수 주철준 강릉군수 이계홍 (중략) 의원 면 본관 호외 6월8일

관보 유월 팔일 황성군수 유성원
(독립신문 1897-06-10 / 2면)

관보 유월 팔일
○ 황해도 관찰부 주사 민설호 시종원 시어 원익상 궁내부 종목과 주사 리유관 의능 황성후계구 태인 군수 리경익 회담 군수 조유희 재현 군수 리필영 성서유 군수 리규환 황성 군수 리필영 류담 군수 주철준 강릉 군수 리비홍 문필 군수 조비홍 진안 군수 리척두산 군수 허진상인 후창 군수 신명연 영탄 군수 허석성 군수 한덕나 립탄 군수 유진옥 윤성 군수 류성원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 정병은 의원 면 본관 호외 육월 팔일

내부참서관 정준시씨의 본집이
 황성군 땅에
 (독립신문 1897-07-06 / 3면)

○ 내부참서관 정준시씨의 본집이 황성군 땅에 있는데 처음에는 수유하고 본 집에 다니러 간 줄로 알았더니 다시 들은즉 강원도내에 시찰의 직무를 맡아 갔다더라

내부참서관 정준시씨의 본집이 황성군 땅에 있는데 처음에는 수유하고 본 집에 다니러 간 줄로 알았더니 다시 들은즉 강원도내에 시찰의 직무를 맡아 갔다더라

강원도 관하 철원군 횡성군 강릉군에
 순교와 밀 청사를 더 두고
 (독립신문 1897-07-08 / 2면)

최령이 내리셨더라 ○ 경기 관하 삼군과 충청북도 관하 이군과 황해도 관하 삼군과 강원도 관하 삼군에 별 순교와 밀 청사를 더 두라고 칙령이 내리셨는데 제 일조는 경기 관하 광주부 양죽군 파주군 안성군과 충청북도 관하 옥천군 제천군과 충청남도 관하 홍주군 천안군과 황해도 관하 평산군 곡산군 안악군과 강원도 관하 철원군 횡성군 강릉군에 순교와 밀 청사를 더 두고 각 해당군 원익 순교와 합병하여 별 순교라 칭하고 해당도 관찰사와 각 해당 군수의 명령을 이어 도적 잡을 사무를 전해 담당케 하되 증설 액수와 경비는 좌와 같은데 일체에 별 순교 10인, 청사 5인씩 인데 별순교 1인 한달 료가 4원씩이요, 청사 1인 한달 료가 2원씩 인데 각처 도 합계한 즉 일년조가 9,744 원이라. 제 이조는 도적 잡는데 관계된 세칙은 내부대신이 정하며, 제 삼은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더라

경기관하 일부 삼군과 충청북도 관하 이군과 충청남도 관하 이군과 황해도 관하 삼군과 강원도 관하 삼군에 별 순교와 밀 청사를 더 두라고 칙령이 내리셨는데 제 일조는 경기 관하 광주부 양죽군 파주군 안성군과 충청북도 관하 옥천군 제천군과 충청남도 관하 홍주군 천안군과 황해도 관하 평산군 곡산군 안악군과 강원도 관하 철원군 횡성군 강릉군에 순교와 밀 청사를 더 두고 각 해당군 원익 순교와 합병하여 별 순교라 칭하고 해당도 관찰사와 각 해당 군수의 명령을 이어 도적 잡을 사무를 전해 담당케 하되 증설 액수와 경비는 좌와 같은데 일체에 별 순교 10인, 청사 5인씩 인데 별순교 1인 한달 료가 4원씩이요, 청사 1인 한달 료가 2원씩 인데 각처 도 합계한 즉 일년조가 9,744 원이라. 제 이조는 도적 잡는데 관계된 세칙은 내부대신이 정하며, 제 삼은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더라

각도 각 군에 지금 금 캐는 광소는
(독립신문 1897-09-18 / 3면)

○ 각도 각 군에 지금 금 캐는 광소는 평양 안도 평양 순안 영유 숙련 안주 박련 가산 정주 관산 선련 철산 의주 구성 태련 삭주 참성 위현 벽동 운산 초산 령변 회련 강계 후창 자성 기련 성련 은산 자산 령원 ○ 경기도 양근 안성 영평 포천 디평 남양 대부도 ○ 충청도 진천 청주 충주 직산 단안 목련 ○ 강원도 춘천 인제 랑련 평선 원주 회성 홍천 ○ 전라도 여수 돌산 순원 곡성 남원 ○ 황해도 수안 ○ 함경도 단천 갑산 ○ 경상도 경주 의성 영천 청송이요 이외에 함경도 삼주 장진 영흥 정평 안변 북청 온성 부령 황해도 송화 해주 장연 강원도 회양 금성 등지에 금이 많이 난다더라

각도 각 군에 지금 금 캐는 광소는 평양 안도 평양 순안 (중략) 강원도 춘천 인제 낭천 정선 원주 황성 홍천, 전라도 여수 돌산 순천 곡성 남원, 황해도 수안, 함경도 단천 갑산, 경상도 경주 의성 영천 청송이요 이외에 함경도 삼주 장진 영흥 정평 안변 북청 온성 부령, 황해도 송화 해주 장연, 강원도 회양, 금성 등지에 금이 많이 난다더라.

황성군 동평 금광은 농상공부 파원
서울 사는 황석년이가

(독립신문 1897-09-28 / 3면)

에 지내지 아니 할요 ○ 황성군 동평 금광은 농상공부 파원 서울 사는 황석년이가 못하이년을 기형 하였는데 금년 반년조 세금 받은 것 만 가지고 말 할지리라도 8냥2전7푼5리쫘이거늘 그간 해해마다 온 일년조로 세금 상납한 것이 겨우 1냥쫘 혹 7전쫘 썩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황성군 동평 금광은 농상공부 파원 서울 사는 황석년이가 말아 2년을 거행하였는데 금년 반년조 세금 받은 것 만 가지고 말 할지리라도 8냥2전7푼5리쫘이거늘 그간 해해마다 온 일년조로 세금 상납한 것이 겨우 1냥쫘 혹 7전쫘 썩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金礦 稅入

(황성신문 1899-02-04 / 3면)

○(金礦稅入)農商工部에서 金礦派員을 差送하고 兼야 稅金을 定하엿다 是는 驪州 楊根은 金始東이오 新溪는 李寅旭이오 安州 嘉山은 李奉俊이니 稅金은 隨其高下 每朔 幾許式이오 寧越 旌善은 尹春培니 朔稅 金이 三兩八錢五分重이오 原州 橫城은 張泓植이오 北清 安邊 三水은 任百禹니 每朔 稅金이 三兩五錢重式이오 永春 奉化은 金鐵萬이니 每朔 七兩重式 四個月 의 合二十八兩重式 一次 上納 是다 더라

농상공부에서 금광 派員을 차송하고 겸하여 세금을 정하였는데 광주 양근은 金始東이오 신계는 李寅旭이오, 안주 가산은 李奉俊이니 세금은 수기고하하여 매삭기허식이오, 영월 정선은 尹春培니 매삭세금이 3냥8전5분중이오, 원주 횡성은 張泓植이오, 북청 안변 삼수는 任百禹니 매삭 세금이 3냥5전중씩이오, 영춘 봉화는 金鐵萬이니 매삭 7냥중씩 4개월의 합 28냥중씩 1차 상납한다더라

관보 초록 2월 2일(연속)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황성신문 1899-02-06 / 2면)

官報 抄錄
二月二日 (運續)
江原道管下郡守治蹟
春川郡守權直相 鉅弊當矯하니 良手亦 勞라 宮粟之 減定에 監莫售奸하고 山訟 之親審에 民不稱冤호
洪川郡守李濟應 花民寬仁하고 吏更嚴 明하야 簿領審而 鉅細舉하고 道路 修而 商旅 獨하니 幸得老成하야 重 整敬器호
橫城郡守劉聖元 奉公必謹하고 御史有 法이라 糶糴平而 民歌來暮하고 恩威 行而 盜斂其跡호

관보 초록 2월 2일(연속)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중략) 횡성군수 劉聖元 奉公必謹하고 御史有法이라 糶糴 平而 民歌來暮하고 恩威行而 盜斂其跡함.

농상공부 각광

각도 각군 지방에 있는 각광을

(독립신문 1899-04-12 / 2면)

○ 농상공부 각광(각도 각군 방에 있는 각광을 중정부에서 구 관하고 四十三군 외에 농상공부 에서 구 관한다)는 각광은 좌와 又 다더라
무천 당산 디평 연천 정성 모면 영평 포천 횡성 원주 평원 평선 신계 가산 안주 가평 (송돌) 양구 당천 감동 기천 평산 해주 청산

농상공부 각광) 각도 각군 지방에 있는 각광을 궁내부에서 구관하는 43군 외에 농상공부에서 구관한다는 각광은 좌와 같다더라. 목천, 정산, 지평, 연천, 적성, 마정, 영평, 포천, 횡성, 원주, 영월, 정선, 신계, 가산 (중략)

횡성군수 유성원
(독립신문 1899-05-31 / 2면)

호예에 첨사가 봉심하고 오라
 호읍서다라 ○ 횡성군수 류성원과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 김영현과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 최봉식은
 다 의원면본관하고 영선사 주사
 이종운과 태복사 주사 이주현은
 면본관하고 박윤상은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를 임하고 원계봉은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를 임한다

횡성군수 유성원과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 김영현과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 최봉식은 다 의원면본관하고 영선사 주사 이종운과 태복사 주사 이주현은 면본관하고, 박윤상은 경상북도 관찰부 주사를 임하고 원계봉은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를 임하다.

군수 신임
(독립신문 1899-06-30 / 3면)

○군수 신임) 내부 대신이 그셋기
 밤에 각군군수 주본을 올렸다는
 티술단 順天에 리저현 청양에 리
 법학 등주에 조용희 강진에 정인
 국담천에 김용범 보은에 리철화
 삼가에 엄주영 진주에 윤우선한
 산에 신건학 신계에 성석영청도
 에 리건용고양에 구본술 양덕에
 리희인고성 高城에 최호 동진에
 리규중정평에 김동규 동북에 김
 영학 인동에 리장진 신령에 리필
 표부외에 리강하 영유에 리용표
 리안의 윤영한 기천에 조선영백
 동에 리원희 대정에 최구석 허남
 에 조준영 을진에 김용기 연동에
 임영호와도에 신과의 횡성에 박
 주존 교하에 황궁연 이천에 리
 표영평현에 홍일섭 영덕에 권중
 철 시흥에 리병의 제씨가 다 서임
 이 되었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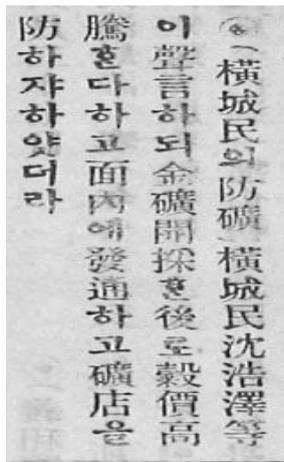
군수 신임) 내부 대신이 그저께 밤에 각군군수 주본을 올렸는데 순천에 이재현, 청양에 이법학, 능주에 조용희 (중략) 횡성에 박주현, 교하에 황궁연, 이천에 이교영, 평해에 홍일섭, 영덕에 권중철, 시흥에 이병의 제시가 다 서임이 되었다더라.

사법 횡성군수 朴周憲
(황성신문 1900-06-02 / 1면)

●司法
 橫城郡守朴周憲自現就因之由業經
 下而接准平理院檢事韓東履報告書內開
 被告朴周憲案件審查則被告在橫城郡守
 而陰曆今年三月初六日 莊陵清明祭獻
 官該道觀察使以寒食祭獻官指飭故未即
 逾期將事云則此乃觀察使之失措故被告
 朴周憲放免之意로 法部大臣이上
 奏하와奉 旨依奏 五月二十七日

횡성군수 박주헌 自現就囚之由業經 奏下
而接准 平理院 飭 韓東履 보고서 內開
피고 박주헌 안건 심사 즉 피고 在 횡성
군수 而음력 금년 3월 초6일 장릉 청명제
헌관 該道관찰사以한식제 헌관 指飭故永
卽 趨期將事云則此乃 관찰사 之失措故 피
고 박주헌을 방면할 뜻으로 범부대신이
올림 5월27일

횡성민의 防礦
(황성신문 1900-06-29 / 2면)



횡성민 沈浩澤 등이 성인하되 금광 개
채한 후 곡물가가 매우 올라간다 하고
면내에 소식을 전하고 광점을 막자고 하
였더라.

관청사항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황성신문 1900-08-22 / 1면)



횡성군수 朴周憲은 切求芻하고 戒在東薪
이라 社還之虛留는 方圖充完之策하고 稅
納之無愆은 可見責成之效함.

訴推執穀

(황성신문 1902-01-15 / 2면)



황성군민 金重輝 등이 내부에 호소하되 본 군수가 어려운 빈민을 구제한다는 핑계로 본인 등의 천여 곡물 포대를 한꺼번에 가져갔기로 추운 겨울에 닥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소식을 전하여 모은 그 곡식을 출급케하라 하였더라

각처 화재

(황성신문 1902-05-06 / 2면)



음력 3월 초8일 함흥 남문의중하리에 사는 이소사집에서 실화하여 민가 95호와 시장 5방과 유기점 1곳이 연달아 불에 탔고, 음력 2월 24일 양양군에 15호, 횡성군에 15호, 홍천군에 13호와 음력 2월12일 김화 28호가 回祿하였다 하더라.

횡성에 사는 李龍雨가 유인하여

(황성신문 1902-05-21 / 3면)



횡성에 사는 李龍雨가 유인하여 여식을 처로 삼은 후에 처가의 처가 문서와 물건을 훔쳐내어 전용하여 가산을 탕진하던 중 여식이 憂炳에 걸려 죽은 고로 범죄자와 다름 없으므로 재판소에서 법에 비취가두려고 하니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자를 보방하는 자가 있으면 본인과 生梗之端이 있으리니 잘 살펴보기바람. 이소사 알림.*

[*광고로 실림]

僞啣討錢

(황성신문 1902-06-10 / 2면)

◎僞啣討錢 春川觀察使金禎根氏
가 朱承의 請願書據에 法部에 報
告되 橫城永郎里居安友承의 甲
山郡守借啣로 僞造 勅旨와 朱雲
의 札로 同封을 하 江陵蓬坪居朱錫
仁處에 傳言 錢三千七百兩을 捧
貢하오니 安友承을 提致하야 照律懲
罰하라 함이니라

춘천관찰사 金禎根씨가 朱圭承의 청원을 의거하여 법부에 보고하되 황성 영랑리에 사는 安禹承이가 갑산군수 借啣를 위조해 勅旨와 주운환의 서찰을 같이 봉하여 강릉 봉평에 사는 朱錫仁에 전하고 돈 3700냥을 받아 챙겼으니 안우승을 잡아들여 법에 비취 징벌하라 하였더라.

橫郡捉賊

(황성신문 1902-08-08 / 2면)

◎橫郡捉賊 橫城郡報 據 則賊
黨 宣化先等數十名이 作黨 橫行
村間에 各持銃劍 且殺人奪財가 繼
所不至하거로 發校 講調하야 舍漢一
名과 銃五柄과 軍刀二柄을 捉得하
노니 餘黨은 皆逃竄함이라

황성군보에 의거한 즉 적당 金化先 등 수 십명이 작당하여 횡행촌리에 각 총검을 들고 살인과 재산을 빼앗기가 이르지 않은 데가 없으므로 기관에 알려 金漢 1명과 총 5자루, 군도 2자루를 압수하였는데 나머지 무리들은 대개 몸을 피하였다더라.

군수 秦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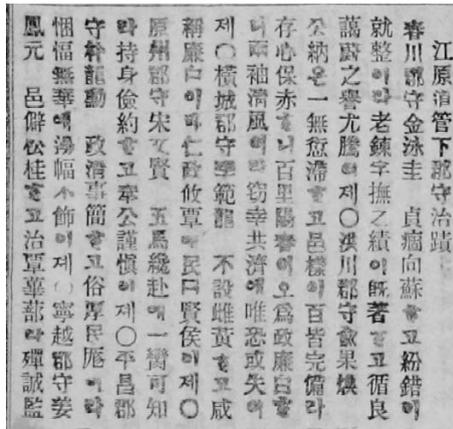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2-08-27 / 2면)

◎郡守秦本 再昨日內部에서 郡守
秦本을 上言하야 蒙 載호어 如左
定州申秦哲 彦陽安鍾 島順天崔正益
青陽沈在淑 鴻山洪應周 臨陂白兩圭
泰安俞致履 定平金容培 高敞李基
海美李寬 鍾清安金一 鏡碧 趙具範 書
領山朴準成 穩城權宅 株井邑趙漢箕
龍潭李景相 高山金奎鉉 成從安 羽煥
郭山尹榮升 鐵原高運河 鳴竹李範壽
驪州李載夏 高城李明來 橫城李範龍
龍仁申泰均 旌義蔡洙 康宜寧 金永基

엇그저께 내부에서 군수 주본을 올려 받으니 왼쪽과 같으니 지평 申秦哲 (중략) 횡성 李範龍 (중략)

강원도관하 군수치적

(황성신문 1904-04-01 / 1면)



황성군수 李範龍 不設雌黃하고 모두 청렴하다고 칭찬한다. 仁政攸覃에 民口賢候이제.

강원도 관하 군수 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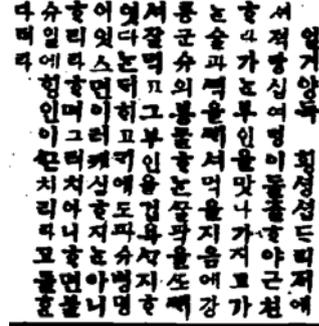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4-10-14 / 1면)



황성 李範龍 人地有望하니 更鄉咸孚함

일거양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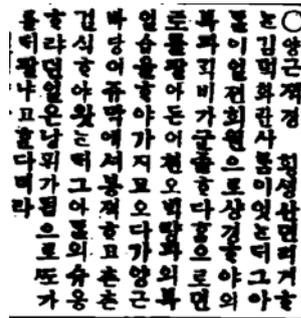
(대한매일신보 1905-01-05 / 1면)



황성 십다리재에서 적당 10여명이 돌출하여 근친하러 가는 부인을 만나 가지고 가는 술과 떡을 뺏어 먹을 즈음에 강릉군수의 봉물하는 꿀곽을 또 뺏어 잘 먹고 그 부인을 검옥까지 하였다는데 해당 고개에도 파수 병정이 있으면 이렇게 심하지는 아니하리다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불과 수일에 행인이 끊키리라고들 한다더라.

양근적경

(대한매일신보 1905-01-05 / 1면)



횡성 산전리에 사는 김덕화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일진회원으로 상경하여 의복과 객비가 궁졸하다 하므로 전토를 팔아 돈 이천오백냥과 의복 일습을 하여 가지고 오다가 양근 바다가 주막에서 봉적하고 촌촌 걸식하여 왔는데 그 아들의 수용하려던 일은 낭패가 됨으로 또 집을 되팔라고 한다더라

老幼矜惻

(황성신문 1906-04-06 / 3면)

●老幼矜惻 賊警之熾盛은 每日 報 道는 바어 이 외 傳說을 詳聞을 則 橫 城郡에서는 老人 一名을 捉去한 使 其子 侄로 錢幾 萬兩을 某處로 持來한 小兒을 負去한 使 其父兄으로 幼 千兩을 某處로 持來한 該兒를 出給 이라 한 許多 竅端이 比比 有之 喜 으로 人心 物情이 因此 沸騰한 야 民難 支保라더라

賊警之熾盛은 매일 보도하는 바이거니와 전설을 자세히 들어본 즉 횡성군에서는 노인 1명을 끌고 가 두고는 그 자식으로 하여금 돈 만냥을 모쳐로 가져오라하며 안성군에서는 적당이 나이 어린 아이를 모쳐로 데리고 가 그 부형으로 하여금 돈 기천냥을 모쳐로 가져오라하면 해당 아이

를 풀어준다 하는 허다한 꾀단이 비일비재 있으므로 인심물정이 이로 인해 비등하여 民難支保라더라.

檢官論警

(황성신문 1906-05-29 / 2면)

●檢官論警 法部에서 內部에 照會 하되 橫城郡 晴日 面 岷里에 致死 男 人 宋錫泰 獄事에 對하야 初 檢官 該郡 守 李範龍과 覆 檢官 原州郡 守 金泳圭 가 該 檢查 情實을 橫 懸 錄하니 莫重 命案에 疎忽이 莫甚하니 揆以 事體에 不可 尋常 眞之이기 茲以 仰照하오니 從重 論警하라 하얏더라

법부에서 내부에 조회하되 횡성군 청일면 초현리에 죽음에 이른 남자 宋錫泰 옥사에 대하여 초검관 해당군수 이범용과 이검관 원주군수 金泳圭가 해당 검사 정실을 횡건현록하니 막중명안에 소홀이 막심하니 揆以事體에 불가尋常眞之이기 茲以仰照하오니 從重論警하라 하얏더라.

江倅貪贓

(황성신문 1906-06-21 / 2면)

◎江倅貪贓 江陵郡民人等以該郡前前郡守朴基鉉氏의 贓錢을 枚擧하야 平理院에 稟訴함이 如左하니(續) 同面 權光道處에 十三歲女婢을 無價奪去하야 仍作自家之婢하얏고 內面 朴春實處에 白錢一千兩은 東方哥로 訟辨時 捏因勒拷하얏고 金春一四寸處에 白錢二千兩은 以傷命不美事로 就頭勒拷하얏고 邱非面 金光里全士奎處에 白錢一千兩은 以與金光里全乾波罪로 因全民等 詐하야 勒徵獨食하얏고 正東津李元甫處에 白錢三百兩은 以該津尊位 勒差後 捧食하얏고 招人官房하야 賄賂 做謀하야 圖得石碑하얏고 梧里津尊位 林景秀處에 白錢一千兩은 該津尊位 差出而 徵擄하얏고 海產之物을 欺價收納하니 津民의 怨聲이 載路하얏고 雲山居 崔京七處에

강릉군 민인 등이 강릉군의 전전 군수 朴基鉉씨의 뇌물을 줄줄이 받아 평리원에 고하여 판결을 청하는 것이 아래와 같으니(계속) 같은 면에 사는 權光道の 13세 된 여비를 뺏가도 치르지 않고 빼앗아 자기네 집 종으로 삼았고, 내면에 사는 朴春實에게서는 백전 1천량은 方가와 함께 송사를 벌일 때 죄인으로 몰아 강제로 바치게 하고 金春一 4촌에 백전 2천량은 잘못된 명을 내려 불미스런 일로 강제로 바치게 하였고, 구정면 금광리 全士奎에게는 백전 2천량은 도량에 곡식을 없앤 죄로 전 군민으로 하여금 송사하게 하여 굴레를 씌워 독식하였고, 정동진 李元甫에게는 백전 3백량은 정동진 존위에 억지로 어긋나게해 식량을 바치게하고 관방으로 불려 몰래 做謀하여 돌비석을 얻으려 도모하였고 오리진 존위 林景秀에게는 백전 1천량은 오리진 존위에서 내보내 해산물을 바치게 하니 진민의 원성이 가득하였고 운산에 사는 崔京七에게는 (중략) 황

성 본가에 있는 3면민 사람들로 하여금 수송한 즉 운송비가 기백 냥에 이르러 해당 3면민 사람들이 각기 분징에 원성이 가득하고 (중략)

奏叙 7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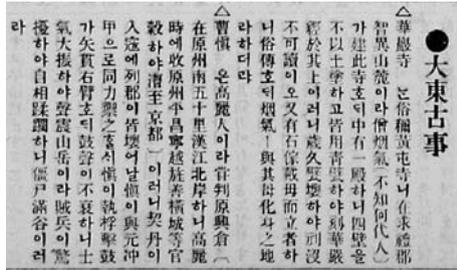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6-06-21 / 2면)

◎奏叙七郡 再昨日內部에서 郡守 奏本을 經議 奏裁하얏는디 橫城 金炳興 伊川 石明 瑄巨濟 李敦承 豐德 安璟烈 洪州 劉猛 海州 呂仁燮 保寧 李奎白氏等 이더라

엇그저께 내부에서 군수 주본을 경의 주재하였는데 황성 김병홍, 이천 석명선, 거제 이교승, 풍덕 안경열, 홍주 유맹, 해주 여인섭, 보령 이규백씨 등이더라.

대동고사

(황성신문 1906-07-25 / 1면)



△曹愼은 고려인이라 일찍이 관원홍창(원주 남쪽 5리 한강 북안에 있으니 평창 영월 정선 황성 등지의 관 곡식을 거둬들여 서울로 운송)이더니 거란이 쳐들어와 여러 고을이 파괴되거늘 조신이 元沖甲과 더불어 함께 힘을 모아 맞설 때 조신이 執桴擊鼓가 矢貫石擘하되 북소리가 쇠약하지 않으니 사기를 크게 떨쳐 그 소리가 산악을 움직였더라. 적병이 놀라 서로 도망하니 시체들이 골짜기에 널렸다.

관청사항 강원도관하 군수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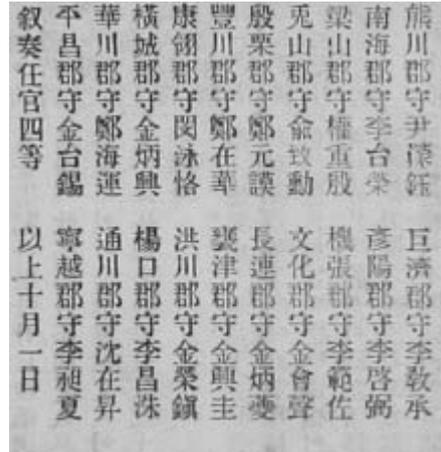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6-09-01 / 1면)



△황성군수 金炳興 미 부임 (중략)

서임 및 사령 황성군수 金炳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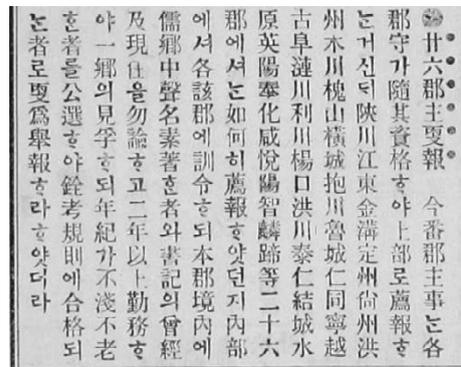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6-10-17 / 1면)



(중략) △홍천군수 金榮鎭 △황성군수 金炳興 (중략) 叙奏 임관 4등 이상 10월1일

26군 主要報

(황성신문 1906-10-30 / 2면)



금번 군의 주요한 일은 각 군수가 그 자격에 따라 상부로 천보하는 것인데 협천 강동 금구 정주 상주 홍주 목천 괴산 횡성 포천 노성 인동 영월 (중략) 등 26군에서는 여하히 천보하였던지 내부에서 각 해당 군에 훈령하되 본군 경내에 유향 중성명 소저한 자와 서기의 역대 및 현임을 물론하고 2년 이상 근무하여 일향의 신용을 얻되 나이가 젊지도 늙지도 않은자를 공천하여 규칙에 맞게 선발하는데 합격한 자로 다시 천거해 보고하라 하였더라

관세관 위치 및 관할구역표
(황성신문 1906-11-27 / 1면)

관세관 위신 및 관할구역표 【속】
 세무관관할구역
 강원도(각도세무감위신)
 춘천(세무관위신)
 (세무관할하)
 춘천: 춘천 회양 금성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안협 흡곡 통천
 원주: 원주 흥천 횡성 평창 정선 영월
 양구 인제
 강릉: 강릉 삼척 평해 울진 양양 고성
 간성

국채보상 의무금 집송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5-11 / 3면)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부동리
 심용기 정찬기 정חק기 심성택 진영하 진영국 추문영 고종선 고재영 최재영 최좌영 석정렬 석중만 각10전, 최기동 최계환 환배운 이수복 명효기 각 20전, 명란기 1환, 유승렬 각50전, 금완희 30전 합 5환 20전
 구방내 안종국 안승철 각50전, 안시형 이계중 지연재 각30전, 강문영 15전, 강재문 7전5리, 조응열 강은수 최성교 최윤중

이빈원 윤학순 안상윤 각20전, 이의범 김봉제 허항 진덕성 원경의 원후식 김용제 양주희 명철화 이강목 허만중 강주영 강대수 강한수 김명도 윤세모 김범용 강소사 강석영 전봉하 전명삼 안종구 김등 광석진 전세호 최성록 신치균 신경균 최승원 각10전 합6환52전5리

화전리 한상우 김진웅 원지성 리응선 최재진 각50전, 신석용 명환용 김화경 각30전, 정종행 리현익 유치옥 석기승 최학수 허심 각50전, 김재원 7전5리 리교행 최재원 각1환, 윤명의 명환철 원도의 명환두 정환태 최환동 김득련 윤병렬 윤적동 리용길 권규식 윤중현 최윤경 박인호 최종두 심의중 김재수 리용철 박의호 원지홍 명환덕 원교의 각10전 합8환87전5리

최종옥 리응호 김상훈 이보현 이재원 각30전, 최재인 김예배 진종철 리창선 박응희 각20전, 최우범 10전 합 2환60전

창춘리 조장환 김상학 최기하 김영순 김상의 라기원 한춘택 조학모 각 30전, 한필택 리봉구 김병규 각1환 원유성 리병렬 한배원 각50전, 김병석 조봉환 리기봉 권기학 박기호 각20전, 한명수 15전, 배사일 10전 합 8환15전

대관대 홍재준 리동극 엄주성 곽종현 한은명 곽태현 최홀 각 50전, 리상목 신궁수 김희천 각30전, 곽인묵 김건필 조석환 곽효현 곽효봉 김성오 홍복수 조영일 명문기 곽성묵 안재성 곽인모 남궁윤 곽우현 각 20전, 원종시 곽효인 신태희 김교운 김진오 곽효섭 각 10전, 김홍규 40전,

합 8환20전

삽교리 김영근 함치의 김태연 각 1환, ○익선 최봉환 김종용 황치삼 안종국 백락경 김경환 각 50전, 한규석 최정원 김정옥 안영기 각 30전, 한범석 최재성 노계상 김인식 김승보 한인기 김종린 김만성 황성서 안종명 김종석 김지배 안효식 김재선 김치귀 김교준 김평중 각20전, 유영수 정상용 김경숙 고건오 서봉모 김여근 김용상 서봉린 함덕보 정명화 홍만수 강기록 홍선여 이병석 최선경 김수경 황문실 김삼척 김현중 안연주 최재천 최우옥 황인서 김재엽 장운서 김영수 김성주 김영희 차선문 김학벽 김준종 김평심 이낙규 각10전, 정두영 80전, 김병련 60전, 유학서 40전, 한득순 15전, 성연복 5전 합 16환 40전

도합 신화 55환 95전

국채보상의무금 집중 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5-13 / 3면)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員及額數

橫城面三里群英村 俞致冕 安聖心 安鍾道 金成五 李聖澤 各五十錢 李致甫 李致甫 李云善 柳其順 卍成公 金成云 李命集 金善一 金東栗 金德甫 安善一 李春西 吳化善 安汝買 金大賢 李奎振 金化善 安千萬 各廿錢 崔源基 許德興 尹君明 安永善 金元先 卍順道 金春先 金大景 李仕交 安順一 卍七年 崔鳳瑞 崔養善 金致三 金聖五 金星七 黃永守 金仁守 金春日 金永五 金成伯 金養善 卍致伯 咸敬五 吳汝老 各十五錢

황성군 右社商都中
조준태 한봉구 유경래 각5환, 이정완 4환,
한춘삼 박내문 홍성순 각3환, 김공민 유
시동 한춘명 각2환50전, 박기련 김상유
탁영익 고영국 방한창 김경현 신옥현 한
중문 홍덕여 한근삼 방창영 박봉구 박윤
화 각2환, 권중구 1환50전, 오경고 황수
일 오창선 조계홍 오재익 윤화경 오재홍
조내익 남문재 유두백 함치서 방한희 방
조영 윤석환 모 이씨 이정익 유화서 박경
화 엄복여 윤근옥 김홍엽 각1환, 이종의
안공식 한선필 김공선 박희도 유화실 이
준명 김정일 안익선 공주보 노정오 피자
삼 한경수 손치운 안공필 유희동 정현준
윤성유 신희수 김성삼 이규배 이우응 각
50전, 차국보 고사연 김성재 이화일 이원
삼 홍순서 김경좌 한도심 임춘서 박성혁

김성원 권병룡 주원서 각30전, 이덕홍 김
부성 신원보 조경문 주성화 서공삼 함사
범 신치명 이원고 박영근 양경식 서소사
강차수 이어봉 이영서 김원선 정도경 조
성배 김군칠 김관민 최학서 김성백 김성
관 장인수 김선배 김춘서 권인수 김석구
최창선 각 20전, 하덕천 김공첨 이병일
박자선 김덕삼 박재원 각10전, 최학수 박
수명 각50전, 김봉길 이선덕 각30전, 이
정학 지중룡 함복인 김만복 각 20전, 피
칠석 15전, 엄천오 50전, 차경문 1환
합 신화 108환35전

국채보상의무금 집중인원 및 액수
(황성신문 1907-06-24 / 3면)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員及額數

橫城面三里群英村 俞致冕 安聖心 安鍾道 金成五 李聖澤 各五十錢 李致甫 李致甫 李云善 柳其順 卍成公 金成云 李命集 金善一 金東栗 金德甫 安善一 李春西 吳化善 安汝買 金大賢 李奎振 金化善 安千萬 各廿錢 崔源基 許德興 尹君明 安永善 金元先 卍順道 金春先 金大景 李仕交 安順一 卍七年 崔鳳瑞 崔養善 金致三 金聖五 金星七 黃永守 金仁守 金春日 金永五 金成伯 金養善 卍致伯 咸敬五 吳汝老 各十五錢

황성면 3리 군영촌
 유치면 안성심 안중도 김성오 이성택 각
 50전, 이흥선 이치보 이운선 류기순 김성
 공 김성운 이명집 김선일 김동률 김덕보
 안선일 이춘서 김치교 안여실 김대현 이
 규진 오화선 안천만 각 20전, 최원기 허
 덕홍 윤군명 안영선 김원선 이순도 김춘
 선 김대경 이임교 안순임 이사년 최봉서
 최양선 김치삼 김성오 김성철 황영주 김
 인수 김춘일 김영오 김성백 김양선 박치
 백 함경오 오여로 각 15전
 합 신화 9원85전

심군수 피착
 (대한매일신보 1907-08-11 / 2면)

● 심군수 피착 저작일에
 천관찰사 황열씨가 내부에
 면보하였는데 황성군수 심
 홍택씨를 본월칠달에 포군
 이잡아 갖다더라

재작일에 춘천관찰사 황열씨가 내부에
 전보하였는데 황성군수 심홍택씨를 8월 7
 일에 포군이 잡아갔다더라.

지방정형 지방 각 군의 통신을 거한 즉
 (대한매일신보 1907-08-14 / 3면)

속기 안명일
 이대령은 원주에서부터 와서 가평군을 쳤다 하였고, 원주에서는 해산한 병정이 화적당과 합하여 300여명이 영천군에 모여서 점점 창궐한다하고, 안동 진위대 병정은 아직도 해산치 아니하고 의병과 합세하랴 한다 하였고, 통진군은本月 11일에 강화에 패한 병정들이 통진군수에게 와서 총과 탄약을 달라하기로 위협을 당치 못하여 군수와 순검은 촌집에 가서 숨으매 인심이 흉흉하다 하였고, 금산군은 배일하는 주의를 품은 군수가 안장을 더 지고 갔는데 군수를 잃은 백성들은 어느 때에 폭동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하였고, 여주군은 대단히 위험한 형세가 있어서 길에 행인이 끊어지고, 원주의 진위대는 인민 수백명과 협력하여 주천과 황성의 두 길로 분파하여 나아갔다하고,本月 10일에 의병 300여명이 제천군에 들어왔고, 강릉군에서는 평창군으로 가는 체전부는 종적이 불명하며 두 고을 사이에 의병 수효가

지방 각군의 통신을 거한 즉 의병이 춘천군으로부터 와서 가평군을 쳤다 하였고, 원주에서는 해산한 병정이 화적당과 합하여 300여명이 영천군에 모여서 점점 창궐한다하고, 안동 진위대 병정은 아직도 해산치 아니하고 의병과 합세하랴 한다 하였고, 통진군은本月 11일에 강화에 패한 병정들이 통진군수에게 와서 총과 탄약을 달라하기로 위협을 당치 못하여 군수와 순검은 촌집에 가서 숨으매 인심이 흉흉하다 하였고, 금산군은 배일하는 주의를 품은 군수가 안장을 더 지고 갔는데 군수를 잃은 백성들은 어느 때에 폭동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하였고, 여주군은 대단히 위험한 형세가 있어서 길에 행인이 끊어지고, 원주의 진위대는 인민 수백명과 협력하여 주천과 황성의 두 길로 분파하여 나아갔다하고,本月 10일에 의병 300여명이 제천군에 들어왔고, 강릉군에서는 평창군으로 가는 체전부는 종적이 불명하며 두 고을 사이에 의병 수효가

600여명인데 강릉군을 근거지로 정하고 다시 크게 모여 경성을 도륙한다고 각 군에 격서를 돌리는데 형세가 심히 급한지라 원산에 있는 일본군대에서 1중대를 그 지방으로 보내어 접전케 한다 하며, 원주군에서는 의병이 나아간 후로 인민이 환산하매 일병*이 엄절히 수탐한다 하였고, 원주에서 나아간 한병*과 의병은 어제 흥천군에서 합하여 총과 탄환을 가지고 평창군 방면으로 향하였는데 그 수효가 1천 명이상 이라 하였고 (중략)

[*일병은 일본군인]

[*한병은 대한제국군인]

군수 放送

(대한매일신보 1907-08-16 / 3면)

● 군수방송 황성군수 심흥택씨가 포군에게 잡혀갔단 말은 이전 보도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이유를 들은즉 원주 포병들이 황성군으로 와서 군수를 대하여 군량군기를 곧 내라 하매 그 군수의 대답이 관장이 되어 곡식 한말이라도 지금 사태에 거들 수 없고 군수업고 군기도 없다 하였고 더니 곳 원주읍으로 잡아 고일제히 발송하고 포군 모원곳에 가서 판장을 잡아 오온것은 온당치 못하니 유를 설명하야 발송하였더라

황성군수 심흥택씨가 포군에게 잡혀갔단 말은 이전 보도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이유를 들은즉 원주 포병들이 황성군으로 와서 군수를 대하여 군량군기를 곧 내라 하매 그 군수의 대답이 관장이 되어 곡식 한말이라도 지금 사태에 거들 수 없고 군

기도 없다하였더니 곧 원주읍으로 잡아가매 그 고을 유생들이 듣고 일제히 소식을 전하고 포군 모인 곳에 가서 관장을 잡아 오는 것이 온당치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풀어 보냈다더라.

홍천군에서 의병이 습격한

(대한매일신보 1907-08-22 / 3면)

▲ 홍천군에서 의병이 습격하
 소문들드른즉 삼삼일오
 후삼시에 군기를 가진 의
 병 칠팔십명이 회성 방면으
 로 회군에 이르러 일인의
 집을 파쇄하고 전채를 탈
 취하며 오후팔시에 또 친
 다하는 고로 일인은
 내삼포로 도주하였다 하고

홍천군에서 의병이 습격한 소문을 들은 즉 13일 오후 3시에 군 무기를 가진 의병 70~80명이 회성 방면으로 홍천군에 이르러 일인*의 집을 파쇄하고 전채를 탈취하며 오후 8시에 또 친다하는 고로 일인은 내삼포로 도주하였다 하고.

[*일인은 일본인]

8월 8일에 원주군에서
(대한매일신보 1907-08-24 / 3면)

횡성 평창 등지에 의병이 출몰하여
(대한매일신보 1907-08-24 / 3면)

▲팔월팔일에 원주군에서 온
▲지방정형

연보할 거흔주 원주 진위
터 장교 휘하에 있는 군
인 삼명이 비일후는 목덕
으로 그 지방에서 의병 삼
백여명을 모집하였는데 이
터로 분홍야 일터는 대천
으로 향하고 일터는 횡성
으로 향하였코

8월 8일에 원주군에서 온 전보를 거한
즉 원주진위대 장교 휘하에 있는 군인 3
명이 배일하는 목적으로 그 지방에서 의
병 300여명을 모집하였는데 2대로 나누
어 1대는 제천으로 향하고, 1대는 횡성으
로 향하였고.

▲횡성 평창 등지에 의병
이 출몰하여 주척이 현황하
더니 지난 심오일에 일인
말안중위 이하 이십구명 정
찰다가 충주 원주등지로 출
행하다가 그날 오시에 대천
에 이르러 의병으로 대천
에서 뜻없이나 접전하고
심철일 오전구시에 충주로
도주하였는데 이 전쟁에는
일인의 죽고 상한자가 많
았다고

횡성 평창 등지에 의병이 출몰하여 종적
이 현황하더니 지난 15일에 일인 말안 중
위 이하 29명 정찰대가 충주, 원주 등지
로 출행하다가 그날 5시에 제천에 이르러
의병과 4시간 동안 접전하고 7일 오전9시
에 충주로 도주하였는데 이 전쟁에는 일
인의 죽고 상한자가 많았다 하였고.

지방정형
평창과 횡성방면에는 의병이
(대한매일신보 1907-08-29 / 3면)

▲지방정형
평창과 횡성방면에는 의
병이 두길노 분홍야 흥
는 청풍군으로 드러가 흥
거하고 흥씨는 일본 서촌
대위를 응접코저야 충주
로 향하고 대진은 박달지
근처 삼리되는 수풀속에
터져 있고 일병의 지터는
이십사일 오후에 단양지방
으로 향하고 대오중터는 영
춘지방으로 향하고 대천지
방에는 일선서촌의 중터가
있어서 두진이 서로 상지
는중이오

평창과 횡성방면에는 의병이 두길로 나뉘어 한 때는 청풍군으로 들어가 웅거하고, 한 때는 일본 서촌 대위를 응접코자 하여 충주로향하고, 대진은 박달재 근처 3리 되는 수풀속에서 흩어져 있고 일병의 지대는 24일 오후에 단양지방으로 향하고, 제5중대는 영춘지방으로 향하고, 제천 지방에는 일인 서촌의 중대가 있어서 두 진이 서로 상지하는 중이오

군수 상경

(대한매일신보 1907-09-15 / 2면)

●군수상경
 횡성군수 심홍택씨는 의병의 소요를
 인정을 가리고 서울로 올라왔다더라

횡성군수 심홍택씨는 의병의 소요로 인하여 인장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더라

홍천접전

(대한매일신보 1907-09-21 / 3면)

●홍천접전
 홍천군의 의병은 21일 오후 5시에 홍천에서 의병과 접전하여 양측의 사상자가 50여명이라고 한다. 홍천군의 의병은 21일 오후 5시에 홍천에서 의병과 접전하여 양측의 사상자가 50여명이라고 한다. 홍천군의 의병은 21일 오후 5시에 홍천에서 의병과 접전하여 양측의 사상자가 50여명이라고 한다.

홍천군에는 횡성, 인제, 원주 등지에 있던 의병 500, 600여명이 모였는데 원주에서 해산한 병정 300여명과 서울서 해산한 병정 300여명이 합세하여 양총과 탄환을 구비하고 기세가 당당하여 홍천군 10리 허성전 민씨촌에 주둔하였다니 일병 50여명이 춘천에서 와서 홍천읍에 주둔하였다가 7월 회일에 의병과 접전하여 사소한 자는 없으나 읍내 집 300여호가 불에 타 전소되었고, 8월 2일에 일병은 춘천으로 퇴각하고, 의병은 산면으로 퇴각하였다 하고 백성들은 산곡 중으로 피란하였다더라.

춘철* 보고
(대한매일신보 1907-10-23 / 3면)

●출찰보고 횡성군수 심홍
택씨는 천단히 고을을 떠
났다 고 면판하라고 하도 관찰
사가 내부에 보고하였다더라

횡성군수 심홍택씨는 천단히 고을을 떠
났다 고 관직을 면직하라고 강원도 관찰사
가 내부에 보고하였다더라.

[*춘철은 춘천관찰사]

지난 15일에 횡성군 우천면 덕가리에서
(대한매일신보 1907-10-30 / 3면)

●다 방 쇼 식
▲지난 심오일에 횡성군 우
천면 덕가리에서 의병이 일
진회원 이명을 살해하였다
고

지난 15일에 횡성군 우천면 덕가리에서
의병이 일진회원 2명을 살해하였다하고.

강원도의병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씨가
(대한매일신보 1907-10-31 / 3면)

●집 보
강원도의병 강원도 선유
사 홍우석씨가 횡성군
정황을 조사하여 내부에 보
고하였던 의병의병의병의
원주진위대 전 특무정
교 민공호인데 그 부하가 다
해산한 병
정이고 홍천군에서는 수서기와 이속들이
다 도망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순검 3명
은 위협을 못이겨 따라갔다 하면서 불려
도 오지 아니하고, 횡성군 수서기 오택선
의 아버지 정목이는 일찌기 완만한 아전
으로 산포수를 많이 도왔으며 또 노동자
6, 7명을 거느려 작폐가 무수하고 지평군
에 사는 이인영과 이기준과 원주에 사는
장경환이 산포수 수백명을 거느리고 홍

강원도 선유사 홍우석씨가 강원도 각군
정황을 조사하여 내부에 보고하였는데
도내 의병괴수*는 원주진위대 전 특무정
교 민공호인데 그 부하가 다 해산한 병
정이고 홍천군에서는 수서기와 이속들이
다 도망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순검 3명
은 위협을 못이겨 따라갔다 하면서 불려
도 오지 아니하고, 횡성군 수서기 오택선
의 아버지 정목이는 일찌기 완만한 아전
으로 산포수를 많이 도왔으며 또 노동자
6, 7명을 거느려 작폐가 무수하고 지평군
에 사는 이인영과 이기준과 원주에 사는
장경환이 산포수 수백명을 거느리고 홍

천과 인제 지경에 왕래하다가 이제는 절 반이나 해산하고, 홍천 사는 박양직과 이 한재가 홍릉 사는 주가와 더불어 산포수 300여명을 거느리고 인제로 들어가다가 일병을 만나 도망하고 양근 사는 전 참령 심상희가 해산 병정 수백명을 거느리고 홍천에서 인제에 들어가다가 일병을 만나 흩어졌다더라.

[*의병괴수는 의병장]

횡성군 근처에서 의병이 겨울을
(대한매일신보 1907-11-03 / 3면)

▲ 횡성군 근처에서 의병이
겨울에 지낼 처소를 예비한다
고 원주로서 올라온 일본
장사의 전설이 있다 하고

횡성군 근처에서 의병이 겨울을 지낼 처소를 예비한다고 원주에서 올라온 일본 장사의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고

횡성군 근처에는 의병 수천명이
(대한매일신보 1907-11-06 / 3면)

▲ 횡성군 근처에는 의병 수
천명이 파동할 처소를 준비
할 준비 중이라 함다

횡성군 근처에는 의병 수천명이 겨울을 지낼 처소를 준비하는 중이라 하며

결전능봉
(대한매일신보 1907-11-13 / 2면)

▲ 결전능봉 횡성군에서 의병이
둔취하여 휴일 결전은
낮낮치 참의소로 갔다 밧치
라고 전령하였다더라
예셔도대셔도 지나간일요
일에 의병이 만히 장단군에
드러가서 공격하고 풍덕으로
로 가서 냉담포병의 집
들을 추화하였다더라

횡성군에서는 의병이 둔취하여 횡성읍 결전은 날날이 창의소로 갖다 바치라고 전령하였다더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나간 일요일에 의병이 많이 장단군에 들어가서 공격하고 풍덕으로 가서 영정포 백성의 집들을 총화하였다더라.

의병장 민공호씨가 강원도관찰사 황열씨의 재차 공함에 대하여
(대한매일신보 1907-11-28 / 1면)



의병장 민공호씨가 강원도관찰사 황열씨의 재차 공함에 대하여 답장한 글이 이와 같으니

전일에 효유하신 말씀을 울며 답장합니다. 각하가 권권하심을 말지 아니하여 위로 국가를 근심하고 아래로 민정을 염려하여 횡성군수 심홍택을 파송하여 한봉글

로 다시 권면하고 효유하시니 공호는 비록 어리석으나 어찌 지성으로 하고 간절하게 하시는 지극한 뜻을 알지 못하리오 만은 다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호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저 왜가 비록 강하나 그 반드시 망할 것은 밝히 알지라 6국을 병탄하던 강한 진나라가 오래지 못하였고 삼진에 땅을 구하던 지백이 먼저 망하였으니 이는 어찌 병서에 말한바 땅만 넓히기를 힘쓰는 자는 망한다는 이치가 아니리오 그런즉 오늘날 (중략)

공호의 붓대를 잡고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못함이로데 말이 차례가 없으니 바라건데 용서하여 살피소서 하였습니다.

횡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에
(공립신보 1907-12-06 / 2면)

● 횡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에 의병이 둔취하야 망타를 짓고 영답군을 두어 경계를 엄히 하고 파동홍량 식과 군막을 준비하고 고경군을 들너 관사를 모집하노라 그 수효는 六千 인이라더라

황성 지평 양군 중간 고둔골에 의병이 주둔하여 망루를 설치하고, 정탐병을 두어 경계를 엄히 하고, 겨울을 날 양식과 막사를 준비하고, 격문을 돌려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수효는 8,000명이라더라.

원주군 근처에 의병 사오백명이
둔취하므로
(대한매일신보 1907-12-17 / 3면)

▲원주군 근처에 의병 사오백명이 둔취하므로 일병이 가서 접전하려 함을 타처로 퇴진하였는데 원주, 황성, 영월, 정선, 평창군 등 각처에 흩어져있는 의병이 총 6,000 7,000명이라더라

원주군 근처에 의병 400, 500명이 둔취하므로 일병이 가서 접전하려 한 즉 타처로 퇴진하였는데 원주, 황성, 영월, 정선, 평창군 등 각처에 흩어져있는 의병이 6,000 7,000명이라더라

10일에 황성군 동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7-12-18 / 3면)

▲십일일에 황성군 동방으로 육십리허에서 의병 삼백여 명이 충주군 일본소대와 삼시간을 접전하였다 하였고

10일에 황성군 동방으로 60리허에서 의병 300여명이 충주군 일본 소대와 3시간을 접전하였다 하였고.

3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01-12 / 3면)

▲삼일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이십리되는 땅에 의병이 군기를 가지고 매복하였다 함을 일병이 탐지하고 순사 3명과 통변 1인과 순검 1명을 거느리고 급히 가서 접전하였다 하였고

3일에 갑천면 지점의 서북방으로 이십리 되는 땅에 의병이 군기를 가지고 매복하였다 함을 일병이 탐지하고 순사 3명과 통변 1인과 순검 1명을 거느리고 급히 가서 접전하였다 하였고

4일에 의병 50명이 황성에서
지평 상동면으로
(대한매일신보 1908-01-12 / 3면)

▲사일에 의병오십명이 황
성에서 지평상동면으로 지
났다노말을 듯고 일병이가
서 정담할족 의병은 부지
거처라 본토사들의말이 류
일에 의병오십명이 려주군
이포에 드러왔다가 양근으
로가고 또 이천군 송보동에
의병오십명이 둔취하였다함
으로 일병이 급히갔다함고

4일에 의병 50명이 황성에서 지평 상동
면으로 지났다는 말을 듣고 일병이 가서
정담한 즉 의병은 부지 거처라 본토 사람
의 말이 6일에 의병 50명이 여주군 이포
에 들어왔다가 양근으로 가고 또 이천군
송보동에 의병 40명이 둔취하였다함으로
일병이 급히 갔다 하고

12일 오후 11시에 황성군 서방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1-18/ 3면)

▲십이일 오후십일시에 황
성군 서방에서 의병오십명
이 원주수비대 일병과 접
전하였다함고

12일 오후 11시에 황성군 서방에서 의병
40명이 원주수비대 일병*과 접전하였다
하고

[*일병은 일본병]

원주 일병이 본월 10일에
(황성신문 1908-01-18 / 2면)

△原州日兵이本月十日에橫城西方
에서義徒四拾餘名과交戰하였다함
고
慶尙北道、忠清北道、江原道地方
에 出沒하는義徒魁首曹秉軫이本月
四日에巡查隊에捕縛되었다함고

원주 일본병이 1월 10일에 황성 서방에
서 의병 40여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지방에 출몰
하는 의병 지도자 曹秉軫이 1월 4일에 순
사대에 포박되었다 하고

원주 횡성 춘천 등 군에 의병이
(대한매일신보 1908-01-31 / 3면)

디 방 정 형

▲원주 횡성 춘천등군에 의
병이 영평 포천등군에 와
서 일본 슈비대와 적자일
에 접전하기로 선전서를 보
내었다는 풍설이잇는터 전
장터는 영평군 양문장터로
정하였다 하고

원주 횡성 춘천 등 군에 의병이 영평 포
천 등 군에 와서 일본 수비대와 2일 전에
접전하기로 선전서를 보내었다는 풍설이
있는데 전쟁터는 양평군 양문장터로 정하
였다 하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각군의
인민 등이 자위단 조직함을
(황성신문 1908-02-22 / 2면)

△原州橫城寧越平昌旌善各郡의 인
民等이自衛團組織을不肯하는故
로原州分署長이該郡守와協議하고
各面長을召集하여自衛團의趣旨를
說明하고該團을組織하였다라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각군의 인민
등이 자위단 조직함을 옹계 여기지 않으
므로 원주분서장이 해당 군수와 협의하고
각 면장을 소집하여 자위단의 취지를 설
명하고 해당 단체를 조직하였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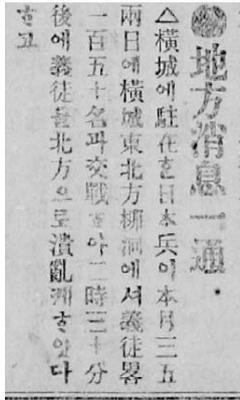
횡성군 북방 3리에서 일병 칠팔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3-10 / 3면)

디 방 정 형

▲횡성군 북방삼리에서 일
병 칠팔명이 의병 일백오
십명과 접전하였는데 사
상은 미상이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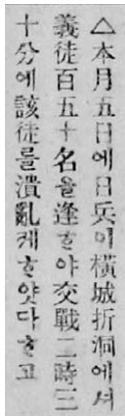
횡성군 북방 3리에서 일본병 7, 8명이
의병 150명과 접전하였는데 사상은 미상
이라 하고

지방소식 일통
횡성에 주재하는 일본병이
(황성신문 1908-03-10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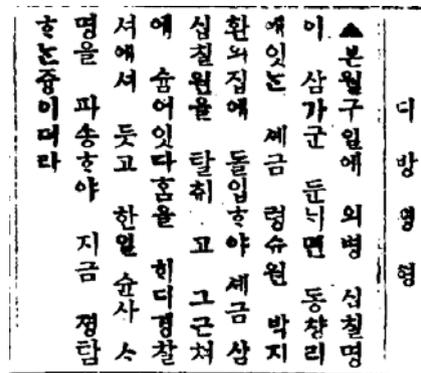
횡성에 주재하는 일본병이 이달 3, 5일 양일에 횡성 동북방 유동에서 의병 150명과 교전하여 2시간 30분후에 의병들을 북방으로 쫓아내었다 하고

본월 5일에 일병이 횡성 절동에서
(황성신문 1908-03-12 / 2면)



이달 5일에 일본병이 횡성 절동에서 의병 150명을 만나 교전 2시간30분에 의병을 潰亂케 하였다고

본월 9일에 의병 17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3-13 / 3면)



이달 9일에 의병 17명이 횡성군 둔내면 동창리에 있는 세금 영수원 박지환의 집에 들어가 세금 37원을 탈취하고 그 근처에 숨어있다 함을 그곳 경찰서에서 듣고 한일 순사 4명을 파송하여 지금 정탐하는 중이더라

본월 8일에 일병이 황성 동방에서
(황성신문 1908-03-13 / 2면)

△本月八日 日兵が横城東方에서
義徒畧六十名을襲擊하여潰亂케
하였다

이달 8일에 일본병이 황성 동쪽에서 의
병들 약 60명을 습격하여 궤란케 하였고

본월 13일에 황성군 수비대의
보병 분대가
(대한매일신보 1908-03-18 / 3면)

地方消息
▲本月十三日 日兵가 横城군 수
비대의 보병분대가 該地北方에서
義徒百五十名을襲擊하였다

이달 13일에 황성군 수비대의 보병 분대
가 황성군 북방 4리 되는 땅에서 의병
150명과 접전하였다 하고.

황성수비대에서 파송한 분견대가
(황성신문 1908-03-18 / 2면)

地方消息一通
△横城守備隊에서派送한分遣隊가
本月十三日에該地北方에서義徒百
五十名을襲擊하였다

황성수비대에서 파송한 분견대가 이달
13일에 해당 지역 북방에서 의병 150명을
습격하였다 하고

본월 14일에 횡성 동북방에서 의병들
(황성신문 1908-03-20 / 2면)

△本月十四日
徒畧百名을襲擊
橫城東北方에서
義

이달 14일에 횡성 동방에서 의병들 약
100명을 습격하였다 하고

본월 13일에 일병이 횡성 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3-21 / 2면)

△本月十三日
日兵이橫城
東方에서
義徒畧百名을襲擊
其
十二名은殺
十九名은被傷
ケ
고

본월 13일에 일본병이 횡성 북방에서 의
병들을 습격하고, 다시 같은 날 밤에 그
동방에서 의병들 100명을 습격하여 32명
은 살해하고 19명은 부상케 하였다 하고

13일에 횡성군수비대가
횡성군 북방 사리허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3-21 / 3면)

▲심삼일에
횡성군 슈비터
가 허군 북방 사리허에서
의병을 만나 충돌하였는데
양진에 사상이 잇다 하고

13일에 횡성군수비대가 횡성군 북방 4리
허에서 의병을 만나 충돌하였는데 양진에
사상이 있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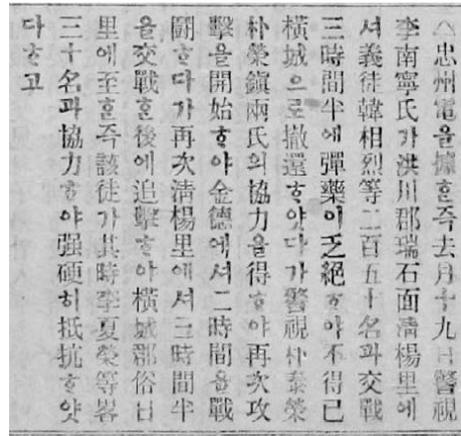
거월 22일에 충주순사대가
홍주군 적면 부근에
(황성신문 1908-04-02 / 2면)

지난달 25일 황성군 동부 마암 근처에서
韓相烈이 거느린 의병이 일본 수비대와
접전하였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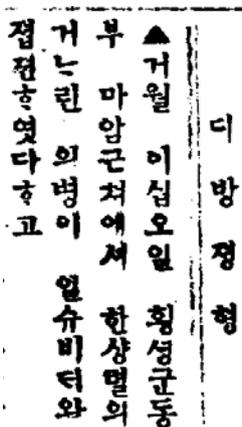
지난달 22일에 충주순사대가 홍주군 적
면 부근에 잠복한 의병지도자 韓相烈 등
과 3시간 교전하고 24일 황성군 동평 부
근에서 의병들 20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충주전을 거한 즉 거월 19일 경시
李南寧씨가
(황성신문 1908-04-05 / 2면)



지방정형 거월 25일
황성군 동부 마암 근처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4-05 / 3면)

홍천군 서석면 청양리에서 의병* 韓相烈
등 250명과 교전 3시간 반에 탄약이 꺾절
하여 부득이 황성으로 철환하였다가 경시
朴泰榮, 朴榮鎭 양씨의 협력을 얻어 재차
공격을 개시하여 금덕에서 2시간을 전투
하다가 재차 청양리에서 3시간 반을 교전
한 후에 추격하여 황성군 곡일리에 이른
즉 의병들이 그 때 李夏榮 등 약30명과
협력하여 강경히 저항하였다 하고



[*의도는 의병]

各處戰塵 횡성 북편 4리 되는 땅에서는

(해조신문 1908-04-09 / 1면)

▲各處戰塵 新新軍二리가
 랑되는 촌리에서 의병七八
 명이 일본兵과 格전하였
 다하고
 ▲안성군 북방六리되는 사
 예서는 의병百餘명이 일
 병 함양 수비대를 만나 격
 시전을 격전하였다하고
 ▲횡성 북편 소리되는 사예
 서는 의병百餘명과 일본이
 크게 격전하였다하고
 ▲해주군에서는 의병 수백
 명이 일본兵十六명과 寸수의
 격전을 공격하였다는 사
 상은 다 알 수 없다더라

(중략)

횡성 북편 4리 되는 땅에서는 의병 백여 명과 일본병이 크게 접전하였다 하고, 해주군에서는 의병 수백 명이 일본병 16 명과 순사 기십명을 공격하였다는데 사상은 다 알 수 없다더라.

횡성군분견소에서 의병장 尹成玉을 체포하였는데

(황성신문 1908-04-15 / 2면)

△橫城分遣所에서 義魁 尹成玉을 逮
 捕하였는디 其子 成旭이 本月 七日에
 橫城에 來호야 其父를 奪還하랴다가
 守備隊에 被捉호얏는디 其時 日兵一
 名이 負傷호얏다하고

횡성군분견소에서 의병장 尹成玉을 체포 하였는데 그 자녀 成旭이本月 7일에 횡 성에 들어와 그 아버지를 탈환하려다가 수비대에 잡혔는데 그 때에 일본병 1명이 부상하였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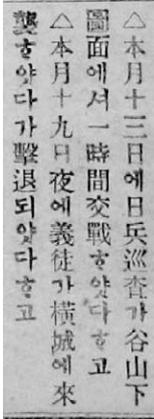
戰信一通

(해조신문 1908-04-21 / 2면)

戰信一通
 ▲강원도 횡성군 동부 마암
 (馬巖) 부근에서 한상렬
 (한상렬) 씨의 영솔한 의
 병과 일본수비대와 교전
 하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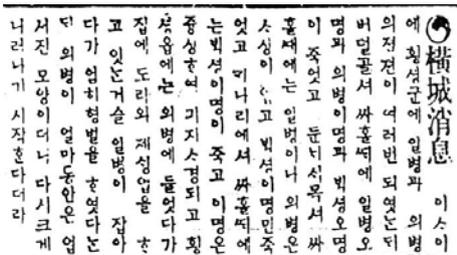
강원도 횡성군 동부 마암(馬巖) 부근에서 한상렬씨의 영솔한 의병과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하고

본월 19일 밤에 의병들이 횡성에
(황성신문 1908-04-24 / 2면)



(중략) △본월 19일 밤에 의병들이 횡성에 내습하였다가 격퇴되었다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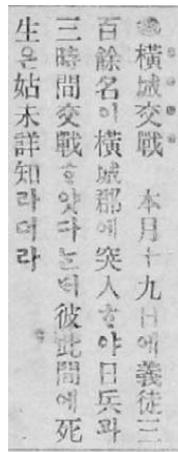
횡성 소식
(해조신문 1908-04-26 / 3면)



이 사이에 횡성군에 일병과 의병의 접전이 여러 번 되었는데 버덜골서 싸울 때에 일본병 5명과 의병 2명과 백성 5명이 죽

었고 둔내 새목서 싸울 때에는 일본병이 나 의병은 사상이 없고 백성 2명만 죽었고 개나리에서 싸울 때에는 백성 2명이 죽고 2명은 중상하여 기지사경되고 횡성 읍에는 의병에 들었다가 집에 돌아와 제 생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일본병이 잡아다가 엄히 형벌을 하였는데 의병이 얼마 동안은 없어진 모양이더니 다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더라.

횡성 교전
(황성신문 1908-04-28 / 2면)



본월 19일에 의병들 300여명이 횡성군에 돌입하여 일본병과 3시간 교전하였다는데 피차간에 사상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더라.

19일에 의병 300여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4-29 / 3면)

▲십구일에 의병삼백여명이
횡성군에 돌입하여 일병과
삼시간을 접전하였는데 피
차간 사상은 미상하다 하더라

19일에 의병 300여명이 횡성군에 돌입하
여 일병과 3시간을 접전하였는데 피차간
사상은 미상하다 하며

본월 19일에 원주군 동북방
학곡 근처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04-30 / 3면)

다 방 정 형
▲본월십구일에 원주군 동
북방 학곡근처에서 의병오
십명이 횡성군 열슈비터와
접전하였다고

본월 19일에 원주군 동북방 학곡 근처에
서 의병 50명이 횡성군 일본 수비대와 접
전하였다 하고

본월 20일에 의병들 50명이
(황성신문 1908-04-30 / 2면)

△本月二十일에義徒五十名이橫城
郡에來襲하여守備兵과交戰하였다
하고
△本月十九일에橫城原州一箇所에
出張한日兵이原州東北方에서義徒
百五十名과交戰하였다더라

△본월 20일에 의병들 50명이 횡성군에
내습하여 수비병과 교전하였다 하고

△본월 19일에 횡성 원주 2개소에 출장
한 일병이 원주 동북방에서 의병들 150명
과 교전하였다더라

거월 7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문막 북방에서

(황성신문 1908-05-22 / 2면)

△去月七日에 橫城分遣所 日兵이 文幕 北方에서 義徒 三十名과 交戰을 하얏다 하얏고
△本月十一日에 原州 日兵이 該郡 西北方에서 義徒 十四五名과 交戰을 하얏다 하얏고
△本月十一日에 橫城分遣所 日兵이 該郡 西北方에서 義徒 七十名과 交戰을 하얏다 하얏고

△지난달 7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문막 북방에서 의병 30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이달 11일에 원주일병이 원주군 서북방에서 의병 14, 15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이달 11일에 황성분견소 일본병이 황성군 서북방에서 의병 70명과 교전하였다 하고.

본월 16일 황성군 산내리에서 황재석이 거느린

(대한매일신보 1908-06-26 / 3면)

▲本月 十六日 黃城郡 산내리에서 황재석의 거느린 의병 삼십명이 북방 산림중에서 현군일수비대와 접전을 하였는데 사상은 알지 못한다 하얏고
本月 十六日 黃城郡에서 의병 삼십명이 현군일수비대와 접전을 하였는데 사상은 알지 못한다 하얏고

이달 16일 황성군 산내리에서 황재석이 거느린 의병 30명이 북방 산림 중에서 황성군 일본수비대와 접전하였는데 사상은 알지 못한다 하고 (중략)

거월 27일에 황성수비대 및 순사 3명이 (황성신문 1908-07-09 / 2면)

△去月 二十七日에 橫城守備隊及 巡查 二名이 該郡 北方에서 暴徒 二名을 殺害하고 一名은 生擒을 하얏다 하얏고

거월 27일에 황성수비대 및 순사 3명이
 황성군 동북방에서 의병 2명을 살해하고
 2명은 생포하였다 하고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70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07-14 / 3면)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칠
 십명이 열슈비대 중위이하
 처십오명과 접전하였다 하고
 ▲소월 황성군 소학리에서
 의병팔십명이 토벌대와 접
 전하였다 하고

거월 28일에 원주수비대가 황성 동북
 방에서
 (황성신문 1908-07-11 / 2면)

△去月二十八日原州守備隊가橫
 城東北方에서暴徒五十名과交戰
 하였다 하고

▲황성군 북방에서 의병 70명이 일본 수
 비대 중위 이하 25명과 접전하였다 하고

▲4일 황성군 소학리에서 의병 80명이
 토벌대와 접전하였다 하고

거월 28일에 원주수비대가 황성 동북방
 에서 의병 50명과 교전을 하였다 하고

관동지회
 (황성신문 1908-07-23 / 1면)

◎關東支會 本月十九日關東學會
 特別總會開會已報矣
 該會에서緊要事務를處理하고橫城郡
 有志人士의支學會請願을決議認許
 하였는데他關東各郡에서支學會請
 願이繼續興起할據라더라

본월 19일 관동학회에서 특별 총회를 개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관동학회에서
긴요사무를 처리하고 횡성군 유지 인사의
지학회 청원을 결의 인허하였는데 외타
관동 각군에서도 지학회 청원이 계속 흥
기할 모양이라더라.

본월 12일에 횡성분견대 일병이
(황성신문 1908-07-25 / 2면)

△本月十二日 該郡北方에서 暴徒三名을 殺하였다 하고

이달 12일에 횡성분견대 일본병이 횡성
군 북방에서 의병 3명을 살해하였다 하고

飲鴆自斃

(황성신문 1908-07-31 / 2면)

●飲鴆自斃 橫城郡人元順白氏는 三清洞居 李永氏家에서 留宿하는 時 李氏가 財産도 無고 住所도 無고 四方으로 徘徊하다 李永氏가 如意 不 處 未 暇 是 日 本月二十四日 上 午 十二時에 飲鴆自斃함으로 該屍體 是 李永氏가 掩埋하였다더라

횡성군인 元順白씨는 삼청동에 사는 李 世永씨 집에서 유숙하는데 원씨가 재산도 없고 주소도 없어 사망으로 배회하다가 세사가 여의치 못함을 개탄하여 본월 24 일 상오 12시에 飲鴆自斃하므로 시체는 이세영씨가 엄장하였다더라

거월 17일 및 26일에 흥천수비대가 횡성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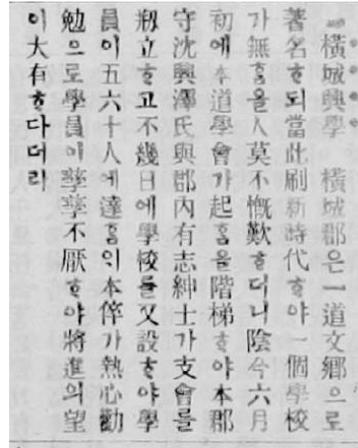
(황성신문 1908-08-02/ 2면)

●地方消息 一 通
△去月十九日 春川 麟蹄 分遣隊長 以下 六名이 沙坪里 東方 四里 地에서 暴徒 二名을 捕得하고 銃 二柄을 押取 하였다 하고
△去月十七日 及 廿六日 洪川 守備 隊가 橫城郡에 行動함으로 暴徒 二名을 捕獲하고 銃 二柄을 押取 하였다더라

거월 17일 및 26일에 흥천수비대가 횡성군에 행동하는 의병 2명을 포획하고 총 3자루를 압수하였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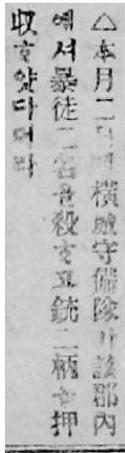
횡성 興學

(황성신문 1908-08-26 / 1면)



본월 2일에 횡성수비대가 횡성군 내에서

(황성신문 1908-08-08 / 2면)



본월 2일에 횡성수비대가 횡성군 내에서 의병 2명을 죽이고 총 2자루를 압수하였다더라

횡성군은 일도 문향으로 저명하되 당차 쇠신 시대하여 한 개의 학교가 없음을 개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니 음력 금6월 초에 본도 학회가 발기함을 개제하여 본군수 沈興澤씨와 군내 유지 신사가 지회를 창립하고 멀지 않는 기일에 학교를 또 설립하여 학원이 50~60인에 달함이 본군수가 열심 권면으로 학원이 孳孳不厭하여 장진의 땅이 대유하다더라

전화 개통 구역

(황성신문 1908-08-30 / 2면)

●電話開通區域 全國各地方에 架設하는 警備電話에 今日까지 開通한 者가 長興, 靈岩間, 錦山, 太田間, 公州, 定山間, 慶州, 延日, 興海, 清河, 盈德, 寧海, 平海, 蔚珍間, 原州, 橫城, 沈川, 春川, 楊口, 麟蹄間, 尙州, 義城間, 安東, 榮川間, 光化門, 議政府, 楊州, 抱川, 永平間, 驪州, 利川間, 長箭, 通川, 歙州, 安邊, 元山間, 咸興, 林道元, 洪東間, 海州, 香山, 歌津間, 黃州, 妙利院, 裁賢, 安岳, 稔運, 殷栗, 松木, 安岳間, 甲山, 新豐里, 黃水院, 城門內里, 北青間, 城津, 黃州間이다.

전국 각지방에 가설하는 경비전화 중에서 금일까지 개통한 자가 (중략) 원주, 황성, 홍주, 춘천, 양구 (중략)

황성 흥천 등 군에 의병 십수여명이

(황성신문 1908-09-25 / 2면)

△橫城, 洪川等郡에 暴徒數十餘名이 出沒하여 人民의 財産을 掠奪하며 或人民을 殺害하는 變도 有하다 하고

황성 흥천 등 군에 의병 십수여명이 출몰하여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며 혹은 인민을 살해하는 폐도 있다 하고

관동학회 관동학회 황성지회 취지서가 좌와 같으니

(황성신문 1908-10-01 /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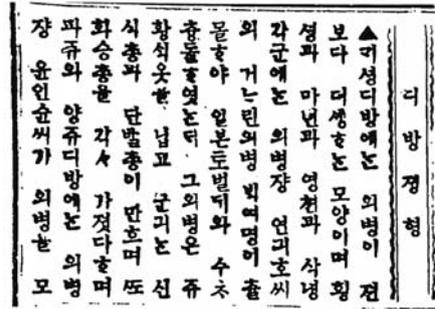
●關東支會 關東學會橫城支會 設一學會 有志數君子自京으로 設一學會 하고 首弃關東二字하여 公函與趣旨書 來到本部 하니 若而人士가 盖首注讀에 略曰 現今西勢東漸風潮震盪하여 日歷數列邦에 我韓顧何如哉며 我韓之內에 關東이 顧何如오 以最味之國民으로 居最味之鄉하여 若不奮發心力에 以握教育이면 難乎勉於奴隸之例은 不得智者而明療也라 하여 奧若巴無非尙苦心熱性而出하니 一經心自에 夜濃春睡가 快然如覺이라 臆와 此世何世며 此日何日이고 大運0關이 天地夷夏은 不必 關縈於莞間之濱하여 以爲天主地軸이 傾摧 垂盡에 良葛而在라도 無可着手則不如牢守 東岡에 自分必落者는 眞言이 冷也오 出入 續粉에 埃擦萬國現狀하여 以爲今日時대가

관동학회 황성지회 취지서가 좌와 같으니

陽九風塵에 큰꿈을 깨지 못하고 高臥華城春色이러니 有志數君子自京으로 設一學會 하고 首弃關東二字하여 公函與趣旨書 來到本部 하니 若而人士가 盖首注讀에 略曰 現今西勢東漸風潮震盪하여 日歷數列邦에 我韓顧何如哉며 我韓之內에 關東이 顧何如오 以最味之國民으로 居最味之鄉하여 若不奮發心力에 以握教育이면 難乎勉於奴隸之例은 不得智者而明療也라 하여 奧若巴無非尙苦心熱性而出하니 一經心自에 夜濃春睡가 快然如覺이라 臆와 此世何世며 此日何日이고 大運0關이 天地夷夏은 不必 關縈於莞間之濱하여 以爲天主地軸이 傾摧 垂盡에 良葛而在라도 無可着手則不如牢守 東岡에 自分必落者는 眞言이 冷也오 出入 續粉에 埃擦萬國現狀하여 以爲今日時대가

非前日時代則不可不傾向維新에 急急進步者는 其言이 熟也니 以鴻濛以後幾千年盛鎖常變으로 觀之하면 冷不如熟이 遠矣乃者數君子가 以熟熱之心으로折衷群會하여 設一丞業於四海之八荒綰縠之地하니 振興教育이 爲一大目的이라 新舊教力에 烝蒸蒸日上하면 精金美玉之品과 揭天掀地之業이 何難做出이리오 回念 祖國전대 當千分地頭하여 最大最急之無出乎 此라 肆鄙等이 不窺万外榮嘲하고 敢同聲攢祝하여 以爲本既立於京師에 支亦暢於各郡이 宜不可緩也라 하여 始維戊申六月丙子에 併設支會하니 嗟吾同郡多士는 必須擱一擊하고 拔芽連進하여 克成團會이여다 臨而泰而大壯而乾이 無非自腹而馴致오 百而千而萬億億梯가 皆是屢一而養成이니 個人個人之教育이 將不爲全國之教育이며 個人個人之發達이 將不爲全國之發達乎아 萬里風濤에 達力이 甚難하니 有初鮮終이 大可懼也로다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전보다 더
성하는 모양이며
(대한매일신보 1908-10-22 / 3면)



개성지방에는 의병이 더 발생하는 모양이며 황성과 마년과 영천과 삭녕 각군에서 의병장 연기호씨의 거느린 의병 백여 명이 출몰하여 일본도발대와 수차 충돌하였는데 그 의병은 주황색 옷을 입고 군기는 신식총과 단발총이 많으며, 또 화승총을 각각 가졌다 하며 과규와 양주지방에는 의병장 윤인순씨가 의병을 모집하는 중이라 하고,

개성 관내에는 의병이 자주 출몰하는데
(대한매일신보 1908-11-04 / 3면)

▲의성관내에는 의병이 자
조 출몰하는지 지금 자
출몰하는 구역은 임진강 동
부 황성 각군 등지로 그
밤에는 의병이 수십명 후
팔십명으로 일터불 조성하
야 지금 접전하는 중이라 하고

개성 관내에는 의병이 자주 출몰하는데
지금 자주 출몰하는 구역은 임진강 동부
황성 각군 등지로. 그 지방에는 의병이
40명 혹은 80명으로 일대를 조성하여 지
금 접전하는 중이라 하고

황성군 남북방 안흥분견소 헌병 1명과
(황성신문 1908-11-10 / 2면)

△橫頭郡南北安興分遣所憲兵
名과補助員五名이平昌郡內에서
月三拾三日에暴徒七名과衝突하
銃二柄과彈丸五拾發을收取하고同
二拾四日에同郡內에서暴徒一拾五
名을擊退次追從하여橫城郡에서畧
四拾名을擊退하였다 하고

황성군 남북방 안흥분견소 헌병 1명과
보조원 5명이 평창군내에서 10월30일에
의병 7명과 충돌하여 총2자루와 탄환 50
발을 수취하고 동 24일에 황성군내에서
의병 25명을 격퇴차 추종하여 황성군에서
약 40명을 격퇴하였다 하고

거월 23일 황성군내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11-11 / 3면)

▲거월이삼삼일 황성군내
서 의병이십여명이 그 고을
일헌병과 접전하였다 하고

지난달 23일 황성군내에서 의병 20여명
이 그 고을 일〇 헌병과 접전하였다 하고

본월 12일 황성군 동방으로 50리
가량 되는
(대한매일신보 1908-11-25 / 3면)

지난달 16일 황성군 울실리에서 의병 몇
명이 황성군 일본 헌병과 보조원으로 더
붙어 접전하였다고

▲본월십이일 황성군 동방
으로 오십리가량되는 땅에서
의병십여명이 허군 분건소
일헌병과 헌병보조원으로 더
붙어 접전하였다고

본월 7일에 황성군 부근에서
(대한매일신보 1908-12-18 / 3면)

본월 12일 황성군 동방으로 50리 가량
되는 땅에서 의병 10여명이 황성군 분건
소 일 헌병과 헌병 보조원으로 더불어 접
전하였다고

▲보월칠일 황성군 부근에
서 의병이십여명이 허군
분건소 일헌병과 헌병보조원
으로더붙어 접전하였다고

거월 16일 황성군 울실리에서 의병
몇명이
(대한매일신보 1908-12-02 / 3면)

본월 7일에 황성군 부근에서 의병 20여
명이 황성군 분건소 일 헌병과 헌병 보조
원으로 더불어 접전하였다 하고

▲거월십육일 황성군 울실
리에서 의병몇명이 허군일
헌병과 보조원으로 더붙어
접전하였다고

화성교 시험
(대한매일신보 1909-02-15 / 3면)

(三) 號 六 十 九 百 四 第

● 화성교 시험 煥성군 화성
학교는 설립호지 오상에 허
군수 심홍택씨의 권면과 임
원재씨의 열심으로 주야학
성도가 특심하였다 년중
시험을 지내었는데 우등생에
오지영, 한상의 등 4인이오
급제생에 신현구, 임덕수 등
8인이오 煥성군 관동지회
에서 상품도 많이 주었다

煥성군 화성학교는 설립한 지 5개월에
煥성군수 심홍택씨의 권면과 임원재씨의
열심으로 주야 학생도가 60여명이라. 연
중 시험을 지내었는데 우등생에 오지영,
한상의 등 4인이오 급제생에 신현구, 임
덕수 등 8인이오 煥성군 관동지회에서 상
품도 많이 주었다더라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煥성군
지방에만

(대한매일신보 1909-05-22 / 3면)

의 방정영

●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
온하고 煥성군지방에만 의
병장 김치영씨의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는데 민정이
오오하여 배일주의가 많으며
이번 발표한 신세법에 대하여
더욱 불을 하다하고

원주지방은 근래에는 안온하고 煥성군
지방에만 의병장 김치영씨의 거느린 의병
몇 명이 종종 출몰하는데 민정이 오오하
여 배일주의가 많으며 이번 발표한 신세
법에 대하여 더욱 불을 하다하고

못살겠다 못살어

(대한매일신보 1909-10-02 / 2면)

● 못살겠다 못살어 방천 횡
성과 흥천군에는 의병소란
이후로 순사와 헌병들이 길
외를 따라다니다 민정 집사군이
명색을 떠명하라고 하노라
안온 농사를 살펴야 하
고 김스짐을 지은다고 그
못살성의 현상도 노획이 되
고 순사와 병정은 잇디에
종과가 낫노라 동여 동창이
낫노라 총포자루나 의복
가지를 가져오면 너 못
노라 총감부 혼맹어 그리
호저 알수업다오 현경이 창
던날다더라

강원 횡성과 흥천군에는 의병 소란 이후로 순사와 헌병들이 길가 동리마다 매일 짐꾼이 명석을 대령하라 하는데 일 많은 농사를 상관치 아니하고 길짐을 지운다고 그곳 백성의 원망하는 말이 개명국 순사와 병정은 어깨에 종기가 났는지 등에 등창이 났는지 총 한 자루나 의복 한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지 통감부 훈령이 그러한지 알 수 없다고 원성이 창천하다더라

教師其人

(황성신문 1910-03-23 / 1면)

●教師其人 橫城郡花城學校는該郡
守沈興澤氏와一般任員의熱心으로稍
稍進就호는中인되教師全郁氏는教育
의熱誠義務로報酬會四十五圓式을每朔
本校에寄付호기로莫不贊頌호다더라

잡아넘겼다

(대한매일신보 1910-02-05 / 2면)

●잡아넘겼다
월전 남문밖에서 일본헌병대에 피착한
학춘식씨는 2일전 경성지
방재판소로 넘겼다더라

월전 남문 밖에서 일본헌병대에 피착한
횡성군 보조원 박춘식씨는 2일전 경성지
방재판소로 넘겼다더라

횡성군 화성학교는 횡성군수 심홍택씨와
일반 임원의 열심히 초초진취하는 중인데
교사 쉰郁씨는 교육의 열성 의무로 보수
금 45원씩을 매월 본교에 기부하기로 찬
송하지 않는 이가 없다더라

가상한 일

(대한매일신보 1910-04-09 / 1면)

●가상한 일
강원도 횡성군 부동리 부
산학교는 본리 심설찬손에
서 설립호바라 저정판
출을방침이 업습은 불언가상
홀바—어너와 신문늘 구람
할다가 타금 성장호일이업
서서 신문늘 등지홀디경이
되엿더니 그학교 여려성도
가 권업덕기를신코 신문늘
배속호야 구람호기로 결심
할리 그학교 임원들노 학
도들의 가상호모음은 찬성키
위호여 일제히 담뱃를 쏘
엿다더라

강원도 횡성군 부동리 부산학교는 본래 십실간촌에서 설립한바라 재정할 판출할 방침이 없음을 불언가상할바거니와 신문을 구람하다가 대금 청장할길이 없어서 신문을 정지할 지경이 되었더니 그 학교 여러 생도가 꺾린 먹기를 끊고 신문을 계속하여 구람하기로 결심하매 그 학교 임원들도 학도들의 가상한 마음을 찬성키 위하여 일제히 담배를 끊었다더라

橫城의 36契

(매일신보 1911-05-28 / 2면)

●橫城의卅六契、江原道橫城境內에近日淸國人の三十六契라호는雜技를設行호야靑年子弟를誘引호야多數를錢財를奪取호는故로敗家流離케되者가不知其數라는데該地官憲은不知而不禁호는도지知而不禁호는지民怨이有호는다고該郡來人の傳說이有호는다

강원도 횡성 경내에서는 근일 청국인의 36계라는 잡기를 설행하여 청년 자제를 유혹하여 많은 돈과 재산을 탈취하는 고로 꽤가 유리게 된 자가 부지기수라서 해당관청은 알고도 금하지 않는지 민원이 있다고 횡성군에서 온 사람의 전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횡성의 火事

(매일신보 1912-02-16 / 3면)

●橫城의火事 去八日午後一時頃에江原道橫城郡古毛谷面五巨里居人民家에서起火호야家屋一棟이沒燒호고人員一名은燒死호았고二名은重傷호았더라
●一月의雲山採金額 去一月度에平安北道雲山郡金礦會社에서採掘호金額이七百八十四斤인데此에對호價格은二十五萬七千圓假量이라더라

지난 8일 오후1시 경에 강원도 횡성군 고모곡면 오거리에 있는 인민가에서 화재가 일어나 가옥 1동이 전부 타고 인원 1명은 죽었고 2명은 중상하였다더라

살인범을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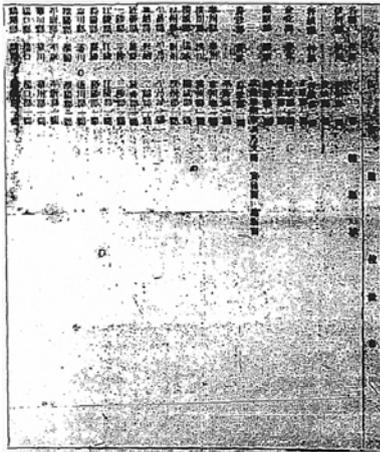
(매일신보 1912-12-05 / 3면)

●殺人犯을密査
▲삼인범 공범사 한도유
기림구일에, 강원도유탁(安肅)현 범마진소에의살인범최홍식(崔興植)을삼심소회된자한,삼아가두고,심문하는중이바도던,그자는,삼년의월십삼일에,그인회집결되거,다른사범과간광호고,그분부잡되호야,리표호기불오우호는반,그것을본한년,다려호는다

◀살인범 금 심사하는 중▶

지난달 19일에 강원도 문막헌병과건소에
서 살인범 최흥○(崔興○) 30세된 자 를
잡아 가두고 심문하는 중이리는데 그 자
는 금년 2월 30일에 그 아내 김청녀가 다
른 사람과 간통하고 그 남편에 대하여 이
혼하기를 요구한 바 그것을 분히 여겨 때
려 죽였다 하더라

부·군·폐 발표 강원도
(매일신보 1913-12-29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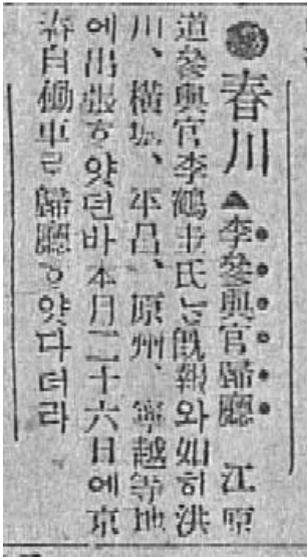


김화군	김화	금성군 일원
		김화군 일원
철원군	철원	철원군 일원
	
울진군	울진	울진군 일원
	
춘천군	춘천	춘천군 일원
홍천군	홍천	홍천군 일원
횡성군	횡성	횡성군 일원
원주군	원주	원주군 일원
평창군	평창	평창군 일원
영월군	영월	영월군 일원
정선군	정선	정선군 일원
삼척군	삼척	삼척군 일원
강릉군	강릉	강릉군 일원
양양군	양양	양양군 일원
통천군	통천	통천군 일원
회양군	회양	회양군 일원
평강군	평강	평강군 일원
화천군	화천	화천군 일원
양구군	양구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인제	인제군 일원

강원도	위치	춘천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이천군	이천	이천군 일원
	
간성군	간성	간성군 일원
	

춘천 李 참여관 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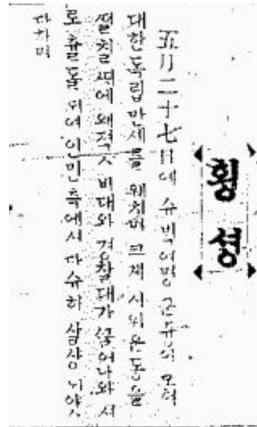
(매일신보 1919-04-02 / 4면)



강원도 참여관 李鶴圭씨는 기보와 같이 홍천, 횡성, 평창, 영월 등지에 출장하였던 바本月 26일에 춘 자동차로 귀청하였다더라.

횡성

(신한민보 1919-07-08 / 2면)



5월 27일에 수백여명 군중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크게 시위운동을 펼칠 때에 왜적수비대와 경찰대가 풀어나와 서로 충돌되어 인민측에서 다수히 살상되었다 하며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1920년대
황성 관련기사

의병전(9) 강원도에는 평강에
(독립신문 1920-05-22 / 1면)

江原道에는 平康에 金正植、
城에 金致榮、金化에 柳學根、安昌
根、洪川에 金春洙、李秉洙、寧海
에 鄭文七 그 다음 蔡應慶、姜斗弼은
伊川에서 部下八十餘人을、盧允善
은 寧越에서 四百軍을、金允若은 關
東總將으로 部下七十餘人을、俞鶴
根、安商根은 鐵原寶蓋山을 根據하
야 部下四百餘人을 거느리고 前參
尉 金奎植도 有하다

강원도에는 평강에 金正植, 황성에 金致榮, 김화에 柳學根, 안창근, 홍천에 金春洙, 李秉洙, 寧海에 鄭文七 그 다음 蔡應慶, 姜斗弼은 이천에서 부하 80여인을, 盧允善은 영월에서 400軍을, 金允若은 關東總將으로 부하 70여인을, 俞鶴根, 安商根은 鐵原寶蓋山을 根據하여 부하 400여인을 거느리고 또 前參尉 金奎植도 있다

양구 황성에 강풍과 우박
오전 백동화와 같은 우박이 한참 동안 와
(매일신보 1920-05-24 / 3면)

楊口橫城에
強風과 雨雹
오전 백동화와 같은
우박이 한참 동안 와
강원도 양구와 황성(江原道楊口
橫城)은 처음에는 오일 심이 일오
후두시 이십분경부터 우뢰가
질러더니 소낙비가 한참
떨어지며 강풍이 지동치듯
하더니 비가 변하여 우박이
크기 오면 10여분의 것
이 오면 10여분의 것
등오십분 경성지 오심으로 농작
물에 다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피해도 적지 아니하다 【춘천】

강원도 양구와 황성 근처에서는 5월 12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우뢰가 시작되더니 소낙비가 한 30분부터 오며 강풍이 지동치 듯 하더니 비가 변하여 우박이 크기와 모양이 오전 백동화와 같은 우박이 2시 50분 경성지 오심으로 농작물에 다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또한 피해도 적지 아니하다 【춘천】

황성군 친구파 戰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3-01-10 / 4면)



【춘천 일기】 근일 황성군에는 친구파 간의 쟁의가 기하여 호상 반목으로 경시하는 악풍이 유하다. 전하는 바 소위 신파는 전일당(구관 중인)으로 금에 신진파라 칭하는 바요 구파는 전일 양반을 칭함인데 분쟁의 원인은 지난해 11월 13일 當地 문묘에서 장의 선거전 행할 시 호상 장의의 욕망으로 쟁의가 일어나 흡사 전일 당파전을 성한 바이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논한 여지가 없고 가히 일소에 귀할 것이나 당금 평화를 주창하는 이때에 역사한 이 작은일로 인리에 현거하여 막불 형제지친이

돌연 반목으로 厚誼를 傷케 되면 하시에 양풍미숙을 난기이며 또는 사회질서상 불가할 뿐 외라 차제 폐풍이 혹은 과급될 려가 불무하므로 언하는 바인 바 가히 장탄할 것은 신진파라 자칭하면서도 그 행동은 구진으로 환작하랴함이다. 신진자라 칭하니 신진의 의의가 하에 재하

는가? 상이 반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진인가 각성한 줄 자처하니 하를 각성하였는가. 장의를 취코자 하는 각성인가 신파 즉 신진자 제군이여 군 등의 욕망이 하에 재하여 군 등의 책임이 여하히 중한지를 각성할지이다. 신진자라 이를하는 때에는 일층 국가나 사회의 중책을 담당하 자라 이를지니 연척 그 욕망은 소하여도 사회 개조에 재할 것이거늘 금일 반상을 쟁론하여 문묘쟁의의 희망한다하면 차 욕망의 협생함과 기 사상의 비열은 고사하고 당차 20세기 신무대에 입각한 신자의 소위라 이르리요. 문묘임원에 대하여 논할지라도 물론 반상의 구별이 무하여 종래로 유림으로 적용케 된 바 그 사회는 아무리 전에는 답답하였으나 사도의 침쇠 부진의 소치로 상히 부패사회라는 소명 하에 수구적 사회라 지목되는 그 사회임은 대히 논한 바가 없거니와 자칭 신진자로 목전에 진진한 신사업은 하에

치하고 상히 퇴보하여 퇴구하라는 취지는 알지못하며 장의를 득하면 상이 반 되는 이유가 하에 재할요. 제군이 약 신진 즉 선각자면 일복일작신을 익면하여 선구되기를 위할지르다. 연이 그신문에 기재된 신과의 투고를 견하면 엄군수*에 대하여 비상한 공격이 있는바 사실 엄군수의 처사나 언동이 이에 이르렀다 하면 그 공격이 오로지 가하다고 이를지나 그 사실에 의하면 전혀 허위의 공격이나 비난이니 역시 신진자의 소위로는 불가라. 이를 것은 물론 일시동인 하에 국민의 책에 재한 군수의 체면으로

그 언사가 이에 이를 리가 만사라 생각하는 동시에 도리어 신진의 미명하에 그 사상이 비열함과 욕망의 천누함을 공포함이 아닌가 의혹 불기인바 혹은 엄군수를 위하여 변명하려는 취지라 생각키 쉬울듯 하나 기지는 결코 편벽된 사상으로 공론함이 아니요 듣는 그 사실을 운함이로다. 들은 사실을 약술컨대 듣는 신파측의 소전을 의할지라도 선거당일에 사회자인 엄군수로는 언사간에 하등 과실이 없는 바 당일의 선구 파간 쟁의는 신파측으로 신파에 대하여 장의 선거 또는 피선거권의 불인으로 인한 바이나 기실은 엄군수의 원만 해결하에 선구 조화로 호상 투표 선거케 된 것은 사실이니 어찌 불공평이라 말하리오. 이는 필연 장의의 욕망을 취득치 못한 개인의 불평으로 몰상식자를 선동하여 전동된 것은 사실로 인정하는 바인즉 여하간 지소지미한 문제도 시대에 부적한

당과전을 환각하는 것은 불가라 생각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신진자라 말할바에는 신사상 신정신으로 보보 전진함에 용력을 위할것이요 구파는 수구적 사상을 타파하고 신정신으로 전진하기를 우리 사회를 위하여 갈망하노라

[*엄군수는 엄형섭]

횡성 근황 시설 방침을 수립 (매일신보 1923-05-02 / 4면)



횡성군의 대체적 근황과 시설 방침을 술하건데

1. 학사

본 군의 교육기관으로는 횡성과 정곡 안흥 2개소의 공립보통학교와 횡성소학교가 있는 바 근시 일반 향학심은 현저히 양양되어 기설 학교로만은 학령 아동의 입학지망자를 수용키 불능하므로 본 년도에 갑천 매일리에 보통학교와 횡성보통학교에 부설 속성학교를 신설하고 취학 불능아동을 교육할 예정이요 공근면에도 일반향학심의 팽창으로 공립보통학교의 설치를

열망하나 경비 불허로 유감이나마 임시 응급책으로 개량서당 설치하여 교육설비의 결핍을 보하라 군당국은 노력중이더라.

2. 교통상황

본군의 교통기관은 김화충주선, 수원강릉선 2등도로는 기히 수락을 료하였으나 황성읍 전천교의 불완전으로 하기 출수제에는 교통두절의 우려가 있을 뿐 불필 다 지방 발전상 팽창 불열하므로 일반이 완전 가설 됴을 열망하는 바요. 읍내 시가는 종래 가건할 市區의 정리가 없어 백방에 불편 또는 장애가 불소하던 바 1922년 4월에 시구 개정 공사에 착수하여 동 10월에 준공된 바 금에는 시가의 체모가 일신케 되었는데 이의 공사는 일반 독지자의 기부로 1만406원에 달하였다더라.

3. 지방 개량의 시설

1) 흥풍회의 설립 : 흥풍회는 우천면 남산리와 갑천면 포동리 2개소가 있는데 시설 사업으로 말하면 실시 일천으로 아직 가시할 성과는 없나 대략 주체로 노력하는 사업은 조립 실시, 묘대 단책형 실행, 우량종묘퇴비사 설치, 모범 뽕나무밭 설치, 개량 계사양, 납세의무 저금 등을 실행하더라.

2) 청년회의 상황 : 청년회는 현재 설립된 것이 황성청년회와 안흥청년회의 2개소가 유한바 그 사업에 대하여는 아직 가거한 바이 무하며, 그 외에는 유도천명회 황성지부가 있으나 이 역시 하등 가건할 바이 무함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이라더라.

재만 유지의 경고서

(신한민보 1923-06-28 / 4면)



이하에 기재한 경고서는 만주에 있는 인사 중에서 국민대표회의에 보낸 글인 바 임시정부의 직원들은 변경할지언정 정부 자체는 절대 유지해야만 된다 강경히 주장함이 대지

오등은 이에 국민대표회의 제군에게 경고하노라. 제군은 어느 가족 대표가 아니요 또는 어느 부락대표가 아님을 경고하노라. 이에 따라서 이리 가족으로 부락을 창립하려거나 부락으로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 회가 아님을 경고하노라. 제군은 각각 다 성명 3자 혹은 2자가 공유하고 계다가 국민대표 4자를 부가하였으니 세계적으로 영, 미, 불 이의 국민을 대표함인가. 민족 덕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민을 대표함인가. 만일 그것이 아님을 제군이 긍정할진데 회의 벽두에서 국호와 연호란 무슨 문제인가.

대한제국이 망하고 왜놈의 식민지된 10년 역사를 어찌 필두로 다시 제기함을 요하리오. 빈 주먹으로 0언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비탈을 받아내며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공약하고 조선총독 정치

는 일본제국의 1919년으로 그 끝을 곧 공
 케할 유일 결심적 운동은 세계 유사 이래
 의 신기록을 작성함은 물론이요 금일의
 국민대표회의는 확실히 그후 5년 동안 비
 태한 사물이 아니다. 지난 2월 20일 국민
 대표회의의 명의로 제군이 발표한 공식
 선언서를 오등을 배독하였노라. '3.1 운동
 으으로써 오족의 정신적 통일을 기히 표명
 되었으니 (중략) 국제적 공정한 여론을
 환기하였도다. (중략) 혈전고투 금일에 지
 하가지가 (중략) 역사의 경연한 행정이
 오인을 계시하며, 민족적 건전한 생명이
 오인을 고려하며, 대세대세 오인을 경당
 하며, 지국이 오인을 재촉하여 본 대표회
 의가 전국민의 공정한 요구와 갈망에 기
 인하여 금에 개최되었나니 (중략) 본대표
 등은 국민의 위탁한 사명을 승하여 국민
 적 대단결을 역도하며 독립전도의 대방책
 을 확립하여 (중략) 통일적 기관 하에서
 대업을 각성코자 하노라.'

대한민국의 5년사를 제군은 이력하여 왔
 도다. 대한민국의 만세혼을 제군이 보답
 하고야 말리도다. 금일 비록 북만주에서
 일우에서 영락 포박한 오등 개인이 광복
 대열에 무슨 큰 보익이나 희망하리오만은
 제군이 결정하여주는 대방침 하에서 약력
 이라도 소유대로 희생하자고 중심으로 선
 사하였노라.

현대문명 기관의 발달로 활판술이 더욱
 성행하여 인쇄 반포하면 길명덕으로 표시
 될 수 있거니와 '국화와 연호'라는 대사의
 의안 순서가 안구에 동락되는 동시에
 오등은 일시로 신경이 아득하여 요령을
 얻지 못하였노라. 저 해제의 아동이라도
 3세, 4세로 5세에 미치면 그 이름이 무슨
 자임을 기송하며,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
 다는 국제 공산당에서도 제3의 번호부터

작성 최고 기관으로 주의를 선전하거든
 국민대표 제군이 어찌 무명색과 무책임을
 회의에 도부하여 비로소 치용을 요구하리
 요. 아마 회의의 범위가 전인류에게 범람
 하여 어는 신흥국의 가명을 조석하려는가
 하는 생각까지 없지아니하였노라. 문제는
 필경 사실로 화하여 본안이 중대건이 되
 고 이로 인하여 정회까지 다일되었으니
 제군은 각기 깊이 반성하라. 이로써 황천
 에 음습하는 영령을 위안할 수 있을까.
 이로써 철창의 신음하는 병골을 소생할
 수 있을까. 전국민의 요구와 갈망과 위탁
 한 사명이 그것인가. 국제여론이 그것인
 가. 독립 대방책이 그것인가. 통일적 기
 관이 그에 있는가. 제군의 최초 선언한
 바 수이 600여인이 모두 무엇임을 기억하
 는가.

오등은 결코 임시정부 그것을 옹호치 아
 니하노라. 따라서 정부 각원 그들도 국민
 옹호를 절망한 지 이구임을 오등은 측명
 하였노라 정부의 제도가 시대의 착오되었
 으면 그것을 개조할 뿐이요 정부의 인물이
 민중의 배척되었으면 그것을 도태할
 뿐이 아닌가. 광무 11년이 별로 영광될
 것 없으며 융희 4년이 더욱 치욕이 극하
 였지만은 대한제국 역사의 그것을 말할
 수 없거든 5년의 전에 무하고 5년의 후에
 일층 더 계속에 노력할 대한민국의 신성
 하고 참절장절한 역사를 120명 제군의 손
 으로 매장한다 할지라도 그 분토 위에는
 2천만 떨기의 무궁화가 피고 짐이 같아지
 는 큰 나무 그늘에서 금일 제도의 평안
 휴식함을 허락지 아니할 줄로 오등은 단
 정하노라.

뿐만 아니라 본안 문제가 한번 토론되는
 동시에 대표의 근본 자격이 애매하여지고
 책임이 허무 하여 제사 구경에는 제군의

○○ 가지에 무하향의 꿈을 세지 못하게 되겠기에 오등은 경고하지 아니할 수 없 도다.

1923년(대한민국5) 4월 8일

이범준, 현천복, 김정의, 남극, 조성환, 김혁, 계획, 양재현, 한상렬, 황현, 양규열, 남상순, 김규식, 권재중, 김좌진, 김성태, 최흥기, 이동원, 안후, 김병락, 송호, 신회경, 김천수, 박주희, 이범석, 이원방, 김태선, 이봉기, 박무건, 오상세, 백종렬, 최관용, 최세진, 장세○, 김윤

동서남북 구도덕 압박에
(시대일보 1924-10-27 / 4면)



구도덕 압박에 견디다 못하여 전도가 만 리 같은 18세 라는 창창한 나이를 가지고 마침내 물귀신이 되고만 소년이 있다.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吳秀泳이라는 소년의 한드메 생장으로 기갈에 줄인 신지식을 얻기 위하여 간신히 그 고을 보통학교를 마치고 어찌어찌 서울까지 올라와 모 중 학교에 통학하기를 채 일년도 못되어 마 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었다. 머리가 썩 을 대로 썩은 그 아버지가 신지식이 다 무엇이나 가사나 보살피고 틈틈이 한문이나 들여봤으면 그만이지 썩 내려오라는

바람에 고만 쓰린 가슴을 움켜 안고 퇴학 을 했다. 할 수 없이 내려간 그는 그래도 힘자라는 대로 그 무엇을 찾으려는 결심 으로 그 근처 어린이들을 모으고 많지 않은 지식을 골고루 나눠주며 침식을 잇다 시피 하었는데 옆친데 덮친 격으로 아버 이의 압박이 갈수록 심한데다 경찰의 감 시까지 여간 혹독치 않으므로 세태에 물 들지 않은 그는 순결한 마음을 호소란 곳 이 없어 그만 그 모양을 지은 것이란다. 아 아! 이 무슨 세상이냐? 도무지 누구의 탓인지 알수가 없다. 옛 늙은이의 죄도 죄려니와 새파란 어린이의 죽음도 용서할 수 없다!

횡성 둔내간 等外 도로 개수
횡성군의 번영책으로 군민이 자발적 단행
(매일신보 1925-04-27 / 3면)



강원도 횡성군은 자고로 산○고○인○이 라는 ○○을 하는 바이나 비교적 인문이 ○○되었고 고야가 ○○○○하니 본군을 각 3개구역으로 분도하여 상부상조를 ○○ 군에 설치하였으나 상히 횡성의 대발전을 ○○함을 횡성군민은 열광적 본선의 ○○ 7리13정을 도로 ○○을 한다더라. 【춘천】

軍資로 3천원모집
 해주 모 부호를 협박한 자
 용산 방면에 잠복했는 듯
 용산서원 변장 활동
 (시대일보 1925-06-27 / 2면)

중국 가는 여자, 인천에 또 1명
 아무도 없는 독신여자,
 중국인의 아이까지
 (시대일보 1925-08-13 / 2면)

軍資로 三千圓募集

**해주 모 부호를 협박한 자
 용산방면에 잠복했는 듯**

龍山署員變裝活動

家役 中重傷

작이산계면에 용산경찰서 출출한 화원이 이송으로 그와 같이 활동을 개시하였다는데
 지금 용산계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특과원인데 군사금을 내라고 한 자 가량되는 식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현
 금 3,000원을 강탈 도주한 원적 강원도
 황성군 우천면* 고정리 趙柄斗(28)가 용산
 경찰서 관내에 잠복한 행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활동을 개시함이라 한다.

작이산계면에 용산경찰서 출출한 화원이 이송으로 그와 같이 활동을 개시하였다는데
 지금 용산계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특과원인데 군사금을 내라고 한 자 가량되는 식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현
 금 3,000원을 강탈 도주한 원적 강원도
 황성군 우천면* 고정리 趙柄斗(28)가 용산
 경찰서 관내에 잠복한 행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활동을 개시함이라 한다.

지난 26일에 용산경찰서 형사들은 모두 변장을 하여가지고 대 활동을 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지난 18일 황해도 해주읍 모 부호의 집에 가서 자기는 상해 임시정부 특과원인데 군사금을 내라고 한 자 가량되는 식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현금 3,000원을 강탈 도주한 원적 강원도 황성군 우천면* 고정리 趙柄斗(28)가 용산 경찰서 관내에 잠복한 행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활동을 개시함이라 한다.

[*리천면은 우천면의 오자]

**中國가는 여자
 仁川에 또 一名**

이 여자는 지난 7월 18일 조선에서 떠나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아무도 없는 독신생활을 하여 오다가 중인인 사인례(邪仁禮)란 사람과 우연한 기회로 정을 통하여 금년 4월부터 부부가 되어 벌써 아이까지 배었다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라도 하여서 중국인을 따라가 재미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천경찰서에 와서 애걸복걸로 가기를 청하는 중이라고 한다.

【인천】 강원도 황성군 지일면 가곡리 사는 어떤 스물일곱살 된 조선여자는 지난 8일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일찍이 부모 형제를 여의고 이래 독신생활을 하여 오다가 중인인 사인례(邪仁禮)란 사람과 우연한 기회로 정을 통하여 금년 4월부터 부부가 되어 벌써 아이까지 배었다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라도 하여서 중국인을 따라가 재미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것으로 인천경찰서에 와서 애걸복걸로 가기를 청하는 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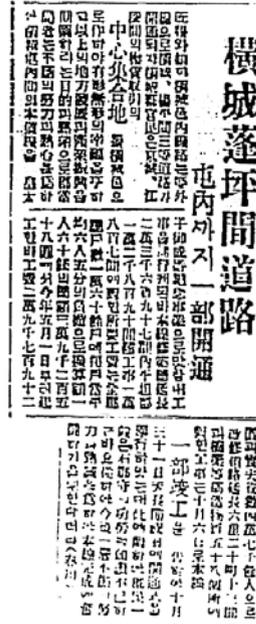
嘲罵者 7명 검속
 조선문단 기념 강연장에서
 (시대일보 1925-11-07 / 2면)



시의 동두리에 있는 조선문단사의 창간일 주년 기념 강연회는 예정과 같이 2일전 5일 오후7시 반부터 시내 중앙예배당 안에서 개최되었는데 개최전부터 500, 600명의 성황을 이룬 속에 방仁根씨의 간단한 개회사가 있고 뒤를 이어 연사 李光洙씨의 '문학의 존재 現由와 그 효과'라는 강연에 들어가 처음에 예술의 기원을 말하려 할 때 들연의 청중 속에서부터 맹렬한 '야지'가 일어나 약 20분 동안이나 연사의 말을 막아서 장내는 자못 혼잡하여 질 때 마침 소관 종로서로부터 20여명의 경관대가 들어와서 '야지'하던 사람 7명을 아래와 같이 검속하여 간 뒤 다시 강연을 계속하였는데 당야에는 시내 배화여학교 학생 10여명의 음악도 있었다고 한다. ▲김혁(29) ▲김구영(24) ▲徐重錫(22)* ▲김지현(22) ▲홍순준 ▲최태원 ▲이만국 등 일곱명인데 모두 사회운동가들이라고 한다.

[*서중석(1906~?)은 황성 출신]

황성 봉평간 도로
 둔내까지 일부 개통
 (매일신보 1925-11-20 / 3면)



이미 보도와 같이 황성읍내 도로는 등의 선으로 황성 양평간 3등 도로가 개통되자 황성군관민을 경성, 강릉간의 물화취인의 중심집합지를 황성읍으로 작하여 유형무형의 행복을 향하고 이상의 지방 발전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열망으로 군 당국자는 불원의 노력과 열심을 위하고 황성 둔내 간의 본도선을 황태자 어성훈 기념사업으로 마침내 공사를 시행케된 바 본선 수축연장 2만3,697 간내 평저부 1만2,890간 난선공사 1만807간에 대한 소요공비는 전군 총호수 1만60여호에 매호당 평균 65푼의 부담으로 환산액 1인 60전의 총액 3만9,258원에서 금년 5월 1일

부터 기공한 바 공비 2만9,692원과 실부 역부 4만7,000 여인으로 개수도로 연장 6 리20정13간과 교량 등 구조물 158개소에 대한 공비는 10월 6일로 본선

일부 준공을 고하여 10월 31일 천장에 개통식을 거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군민 일반은 石군수의 공로를 송찬불기하는 바 요 중하여 금후 일층 부단의 노력과 열성을 위하여 본선 완공에 분투하기를 원한다더라. 【춘천】

3명을 說論 방환,
그 외는 모두 일주일 구류
(시대일보 1925-11-08 / 2면)



이미 보도한 바 지나간 5일 밤의 조선문 단 기념 강연 때에 야지를 하였다고 소관 종로서에 검속된 일곱 사람에게 대하여 회서에서는 2일전 6일밤 일의 세 사람에게 설유를 한 후 돌려보냈으며 그 밖의 네 사람은 1주일씩의 구류에 처했다고 한

다. ▲洪淳俊 ▲金九榮 ▲徐重錫*

【*서중석은 횡성출신】

을축기자대회
민족오욕적 문구를 문부성에 질문 결의
을축기자단 창립 준비
(시대일보 1925-12-24 / 3면)



【원주】 원주에서는 을축기자대회 결정과 같이 지난17일 오전12시에 원주청년관 내에서 개최된바 崔양준씨 개회사와 李동수 취지 설명이 있는 후에 의장 이동수씨의 사회로 의사 진행하였는데 먼저 주비위측에서 정동호씨의 주비회 경과보고와 수지 출계산을 마치고 원으로 최양준, 이동수, 장경식 삼씨를 술하고 좌와 같이 결의안을 통과한 후 기타 사항에 들어가서 본년 9월일 본 동경이 성당 발행일 심상소학교

전과정 오학년 이라는 자습지방제철원의 출판물 비석사건으로 규하여 일시 장내공기는 긴장되어 일동은 흥분된 어조와 장시간 열렬한 토의가 있는 결과 교부성 학무 당국에 할 것과 삼성당에 경고문 발송할 것을 일치 가결하고 말해서 으로 각단체 대표들의 축사로 1시 10분에 폐회되고 즉 열렬 폐회를 개하고 동 오후6시에 만세 삼성으로 무사히 마치었다 한다.

결의사항

1. 언론 권위에 관한 건
일치보조로써 언론권위의 신장을 도모하며 자의 친목과 협동을 주로하여 연시의 위대력을 쇄함.
2. 기사에 관한 건
(가)언론의 공정과 보도의 신속을 도모할일
(나)○○○○의 폭력적 비행을 적○할 일
(다)자본계급의 ○취적 ○행을 ○출할일
(라)민중을 기만하는 종교단체의 죄악을 적시하여 사회적으로 ○○할일
3. 지분국 대 본사에 관한 건
지분국 대 본사에 대하여 지분국 ○○ 개혁과 체면존시를 요구할 일
4. 민중운동에 관한 건
(가)청년운동의 환기를 촉구케할일
(나)소년운동을 조장할 일
(다)여성운동의 해방을 축성케 한일
(라)노동운동의 단체조직을 구성 지휘할 일
5. 동척 또는 수리산립금융조합 대민참행동에 관한 건
동척과 각지에 있는 수리산립금융조합 기관으로써 민중에 대한 행동을 엄정 주시할 일
6. 우편물 취급에 관한 건

신문, 잡지 기타 서류에 대한 우송이 유실 또는 훼손 될 시는 관계 당국에 주의를 촉구할 일

7. 노농계급에 관한 건
농한기 이용하여 신문 강좌 또는 통속적 강화회를 개최할 일
8. 을축기자단 기구에 관한 건
일치단결로 각항 결의를 실현키 위하여 을축기자단을 조직하기로 함.

사회측 동정

본 대회 개최에 대하여 원주사회측으로 원주형평지사에서 축하문 1개소를 건설하였고 임성세철소는 회기 1조와 원주실업가 ○○상묘 과수묘목 낙원○관주 김사원씨는 회원 일동 기념○○을 기증

을축기자단 창립준비

별항보도와 같거니와 본 대회에서는 동일 오후6시 30분부터 다시 동아일보 지국 내에서 창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의장 최양준씨 사회하에 좌와 같이 결의하였다고

1. 본기자단 창립 기일은 내년 음력 정월 15일로 연기함.
2. 본단 참가구역은 종래보다 연장하여 용인, 죽천, 광주, 안성, 양평
3. 여주, 화천, 장호원, 충주, 안성, 진천, 제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영월, 평창, 정선, 대화 이상 20개소로 함
4. 참가자격은 전기 구역에서 좌기한 조선문 지국장및 기자에 임명이 있는 자로함
5. 집행위원 장경식, 최양준, 이동수, 이관기, 정동호 5인을 선정하여 전기구역을 분리선전하기로 함

절벽상에 결박 行凶 우피를 가지고
가는 친구를 죽인 후
우피와 돈을 빼앗아
7년 전 살인강도 체포
(시대일보 1926-01-29 / 2면)

조선 인구 통계 각군도별(기12) 강원도
(시대일보 1926-01-29 / 3면)



伊平康	鐵原	寧邊	平康	三陟	襄陽	通川	楊口	春川	江界	各郡島別
川原	北川	川州	越谷	壽昌	沙梁	陽城	川口	川口	川口	川口
...

춘천	15,181	69,801
인제	11,812	66,599
양구	8,920	48,975
회양	12,303	70,234
통천	8,730	45,885
고성	8,625	46,519
양양	10,274	80,014
강릉	14,375	80,014
삼척	13,886	78,363
울진	11,460	63,017
정선	9,772	53,301
평창	12,392	66,647
영월	12,283	62,960
원주	13,754	69,509
횡성	12,130	63,451
홍천	13,925	73,542
화천	6,683	34,590
김화	13,160	81,184
철원	13,638	69,827
평강	9,749	51,789
이천	12,398가구	66,082명

【평양】 지금부터 7년전 1919년 10월 중순경에 평남 덕천군 태극면 송산리 曹應棹(40)가 우피 백여원 어치를 나귀에 싣고 개천으로 갈 때 종로에서 근방에 가까이 다니는 金贊甫(31)란 자가 달려들어 전기 조응도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목까지 졸은 후 현금 백사십원과 우피와 나귀를 탈취하여가지고 도망하였던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범인은 일체 종적을 감추어 알 수 없었던 바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에 잠복하여있는 것을 덕천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지난 24일 체포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이양상황 지난20일 현재
(시대일보 1926-06-26 / 3면)

군명	면적	할합
춘천	3,386정보	71
인제	1,623同	7
양구	17,551同	75
회양	11,568同	56
통천	4,010同	77
고성	11,664同	68
양양	49,835同	90
강릉	60,651同	87
삼척	18,320同	72
울진	2,638同	80
정선	7,000同	84
평창	12,908同	70
영월	16,692同	71
원주	31,754同	55
횡성	40,720同	78

홍천	4,109同	76
화천	15,922同	76
김화	1,590同	50
철원	70,750同	74
평강	1,278同	50
이천	1,295同	73

강원도 금년도 수답 이양상황을 도 농무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답 총면적의 7할3분이 이미 이양되었는바 이를 작년 기간에 비하면 1할5분이나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한발로 인함이라는 바 이를 다시 군별로 이양 실적과 할합을 하면 좌와 같다고.

신건 취인 상황
(시대일보 1926-07-08 / 4면)

平北萬城郡	五日畝八六圓畝五三圓實
順七四圓畝取引一六三石	
江原春川郡	五日畝高九〇圓畝能五三圓實
順七六圓畝取引三三石、最高八三圓畝能九圓實順六九圓畝取引四七六石	
平北萬州郡	六日畝高八三圓畝能五九圓實順六六圓畝取引三九石
江原橫城郡	四日畝高八三圓畝能九圓實順七三圓畝取引一六五三石畝高九七圓畝能五七圓實順八六圓畝取引一六六二石
平北熙川郡	六日畝高八八圓畝能五五圓實順七四圓畝取引二五石

군별	이양면적	할합(%)
춘천	3,386정보	71
인제	1,623同	7
양구	17,551同	75
회양	11,568同	56
통천	4,010同	77
고성	11,664同	68
양양	49,835同	90
강릉	60,651同	87
삼척	18,320同	72
울진	2,638同	80
정선	7,000同	84
평창	12,908同	70
영월	16,692同	71
원주	31,754同	55
횡성	40,720同	78

- ▲평북 창성군=5일 최고 86환 최저 53환 매가 74호나 총취인 163석
- ▲강원 춘천군=4일 최고 90환 최저 53환 매가 76환 총취인 23석, 최고 83환 최저 49환 매가 69환 총취인 476석
- ▲평북 의주군=6일 신건 최고 84환 최저 59환 매가 76환 총취인 39석
- ▲강원 횡성군=4일 최고 83환 최저 49환 매가 73환 총취인 1653석. 최고 97환 최저 57환 매가 86환 총취인 1662원
- ▲평북 희천군=6일 최고 88환 최저 55환 매가 74환 총취인 125석

횡성군청 개축공사 착수
공비 1만4천원
(매일신보 1926-10-25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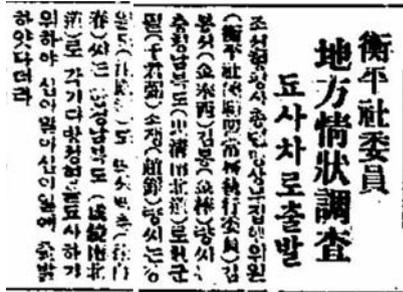
【춘천】 횡성군에서는 강원도 21군 중 특히 협소 퇴패한 고〇로 종래 행정집행상 그 불편을 느낌은 물론이요 횡성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수인 피치자에게 과연 그 체면을 유지키 어려울만 하였다. 연하여 이청사의 개축문제는 군민 동양의 열망하던 현안으로 도당국자는 진력하고 부심한 결과로 금년에는 개축의 실현을 보게되어 관민이 공히 희열하는바 부지는 구청의 터에 1만4천원의 공비로 금월 초부터 기공한 바 건평 80여평에 불과하나 연와제의 신식건물로 준공되면 본도 군청 중 제일 장려하게 될 모양인데 이가 현 참여관 石明瑄씨의 군수 재직시 최후의 실적이 되어 성력의 결정이 사료되는 바 본 공사의 준공기는 내 11월 말이라더라.

소문의 소문
(중외일보 1926-12-20 / 2면)



17일 새벽 4시쯤 되어 용산 도화동 35번지 앞 층로 밀가루 포대를 가지고 공덕리 방향으로 가는 수상한 자가 있었다. 마침 순행하던 순사가 이것을 발견하고 '누구냐'한즉 그 자는 그만 혼이 나서 부근 산위로 줄행랑. 그리한지 한시간후에 그자는 다시 마포동으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는 것을 추적하던 순사가 체포. 취조한 결과는 강원도 횡성 사람으로 방금 시내 예지동 214번지 이모의 집에 와있던 전응석(全應錫·50)으로서 그날 오전 4시경 마포동 9번지 한 모의 집에 들어가서 석회를 넣어 둔 포대를 밀가루 포대인 줄 알고 훔쳐가다가 잡힌 것이라고. 도적도 이지경이면 도리어 속상한 일.

형평사위원 지방 정상 조사
조사차로 출발
(중외일보 1926-12-24 / 2면)



조선형평사총연맹 상부 집행위원 金奉西, 金奉 양씨는 충청남북도로, 千君彌, 趙錡* 양씨는 강원도, 또 崔自春씨는 함경남북도로 각기 지방 정형을 조사하기 위하여 12일, 22일에 출발하였다더라.

[*조씨는 횡성출신]

지폐 위조범 횡성서에 피착
정교한 기계도 압수
(매일신보 1927-02-04 / 3면)



【춘천】 강원도 횡성경찰서에서는 금년 1월 이래 비밀히 서원의 대활동을 개시하여 지난 20일 경에 횡성면 옥동리 權鳳奎 (36)라는 자를 체포하여 엄밀히 단속 중이라는 바 그 내용은 비밀에 속하나 수사한 바에 의하면 권봉래 외 2명은 1926년 음력 7월경에 영월군에 거주하는 李모 외 1인과 조선은행 발 위조 기구 20여점을 매입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동지자에게 30원 내지 50환을 출사케 하고 조선은행 10환권을 위조하라고 원지 및 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상경한 후 각 방면으로 운동하는 것을 횡성서에서 탐지하고 우선 주범 권봉규를 체포한 것인데 공개수배한 자는 근근일망타진되리라 하며 범인 등이 사용하려던 기구는 극히 정교하여 만약 위폐 행사하게 되면 진위를 분별키 어려울 정도로 세밀타더라

계획 중의 제2차 조선철도망
건설비 3억원을 예상

(중의일보 1927-06-04 / 4면)



遇般철도협회 총회에서 제1차 계획의 희생이 되었던 중앙선, 김삼선, 철구선의 각 예정선을 위시, 이상선 7선에 대하여 도수차 조치를 행함과 공히 건설에 대한 경제조사도 병행코자 각각 사무를 분배하여 계획의 시행에 착수하기로 되었다. 물론 종래에도 부단히 조사는 진행하여 왔었지만은 취중에도 가장 현상적인 7선은

1. 경성, 오리진선
경성으로부터의 단규 계획선으로 동부선에 접속함을 사령으로 하여 제1안은 경성으로부터 춘천, 인제를 경유하여 간성에 이름. 120리여인데, 거리가 단축되는 일

면에는 산물이 작고, 제2안은 경성으로부터 횡성을 경유하여 강릉에 이르는 것인데 거리가 단축한 장점은 있다 할지라도 대관령의 난공사가 있고, 제3안은 경성으로부터 충주 영월 정선을 경유하여 강릉에 이르는 것인데 연장이 167리 이상에 달하는 일방 무연탄 등의 광산물이 풍부하나 건축비가 다액을 요한다. 이상 각안 공히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충분 연구한 후 결정 될 지며

1. 황해선
토성 해주간을 관통하여 쌀 또는 해산물 수송의 송선 연락을 계함.

1. 강계연천간 130리
1. 함흥만대리간 50리
이 2선은 중부지방의 중앙선이라고도 볼 것으로 2선으로써 만대관하여 중간지대의 개발과 본선 연락을 사명으로 함.

1. 함북함수무산간 120리
반규계획 산선의 중국에서 접속
1. 정주여주선 60리
본선과 접속
1. 남천(황해) 양덕(평양)선 120리
예정선으로 극히 조량조사 완결하여 결정적으로 가장 현실성을 유한 선
1. 중앙선 250리약

경부, 경의 본선과 신규선 동해선과의 중간에 개좌하여 중앙간선이 될 것을 이상으로 경성을 기점으로 양평, 이천, 원주, 충주, 단양을 경유하여 대구에서 본선과 합할 것인데 사설출원이 있어서 가급적 출현을 조망함으로써 결국은 하게

될 형세.

1. 김삼선 또는 김선

경북 김천을 기점으로 진주로부터 삼천포에 120리 또는 김천으로부터 거창, 안의, 산청, 진주, 사천으로부터 통과에 지하는 150리선

이외에 경남 거창으로부터 대구, 전주에 지하는 선과 대구로부터 청원에 지하는 선 등도 연구되는 중

1. 구선 60리

대구 창원간을 관통하여 간선선에 접속하는 남선 지방이 중부선으로 기대되는 선

등 선인데 물론 당국자는 제일차 계획의 완성을 결치 아니하고 이상 각선을 총괄하여 제2차 계획의 출현에 전력을 경주함은 당연한 바 이의 실현에 의하여 조선 철도망도 속히 이상에 연합 것으로 철도국에서는 이의 건설금액을 3억원으로 예상한다더라.

전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
來 7월 10일 춘천에서

(중의일보 1927-06-05 / 4면)

全江原道 社會運動者大會
來七月十日春川에서

今番中央協議會議에出席하였던 團體委員十五名를選定하여香其江原道地方代表議員十餘名를去五月十九日에서京城仁壽洞支那部에 社會合하여 徵徵不振하는全江原道社會運動團體에對한協議會計자고七個團體가聯合發起를하여

大會規定 右團體委員會에對한議定한議程의規定은
左와如하다더라
一、大會場所는春川邑內
二、時日은七月十日
三、參加會는每團體二名(但個人은十名)
四、參加申請期日은七月五日까지

江東儒林의 檀君聖祭舉行
江東明倫會에서去歲五月一日 同明倫會에서對定한聖祭舉行會同會長으로推選한은이今春早리는 一般會員中에서推選하기로되어 儒林界功勞者金元龍氏를推選하여 스며議議하여檀君聖祭舉行하기로했다더라

養老教員을 各面으로派遣
城北津那廳에서今年中行事로 每年郡內各村男女에養老會及及爲하여同郡農會의指導를

團體對團體委員選回體高風氣은 左와如하다더라(春川)
○別起團體 國珍正進會、春川青年會、高城海城青年會、襄陽同化青年會、原州青年會、三陟前進會
○團體委員及選回體高風氣
△春川 朴相澤、趙仁基、成昌煥、廉煥煥、洪氏三洪、洪川、韓純、華川△蘆原 朴春發氏
△伊川平康、金泰、淮陽△原州 李東壽氏、李東越、平島、旌新
△橫城趙錫、高城趙錫、襄陽 趙春、李鶴宰、江陵鄭光時、三陟朴世那、沈正純、以珍煥、趙基勳

금번 중앙협의회에 출석하였던 강원도 지방대의원 10여명은 지난5월19일에 경성 인사동 모 여관에서 회합하여 철철부진하는 전강원도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7개 단체가 연합 발기를 하여 준비위원 15명을 선정하여 각기 출석한 구

역을 순회케 하였다는데 참가단체자격은 강원도 기성청년 노동, 농민, 사상, 여성, 형평 등 단체에 한할 터이나 본 도인으로 개인에게도 참가함을 허한다하며 발기 단체와 준비위원 순회 할당구역은 왼쪽과 같다더라 【춘천】

◇발기단체

울진전진회, 춘천청년회, 고성 횡성청년회, 양양동화청년회, 원주청년회, 삼척전진회

◇준비위원 및 순회 할당구역

△춘천 朴順澤 趙仁基, 咸昌煥, 廉經煥 제씨는 흥천, 양구, 인제, 화천 △철원 朴容駿씨는 이천 평강, 김화, 회양 △원주 李東洙씨는 영월, 평창, 정선 △횡성 趙錫, 고성 咸河溶, 양양 崔容大 李陽寅, 강릉 鄭光時, 삼척 朴炳弼, 沈圭鉉, 울진 張植, 趙奎錫

◇대회규정

회원에서 결정한 제반의 규정은 좌와 같다더라

- 1. 대회 장소는 춘천읍내
- 1. 시일은 7월10일
- 1. 참가금은 매단체 2환(단 개인은 50전)
- 1. 참가 신청 기일은 7월 5일까지
- 1. 설립총회는 내 12일(일요일) 오후1시에 개최할 일
- 1. 장소는 병호동에 있는 농민동회관으로 할 일
- 1. 내 총회시에는 회비 30전을 가급적 지참할 일

하기 교원 강습 原橫 양교육회연합 주최 (중외일보 1927-08-06 / 4면)



강원도 원주군과 횡성군에 있는 각 공립 보통학교 교원들로서 조직된 양군 교육회에서는 지난6월 1일부터 원주공립보통학교에서 하기 강습회를 개최한 바 제교원은 40인이고 과목은 농업, 체조, 교육으로서 5일간 강습이었는데 강사는 경성관립 사범학교 上杉교유와 문막공보교 松原교장과 원주공보교 水出교장 이상 3인 이라더라 【원주】

제3회 中鮮 정축구대회 성황으로 종막
(중외일보 1927-08-12 / 4면)

전케된 바 마침내 3대 1로 최후 우승은 구락부군에게로 되었으며 제2일인 7일은 축구대회를 폐막케된 바 전일 정구회에 퇴장하였던 황성군으로부터 축구회 참가를 요구하였으나 원주측에서는 참가 거절을 함으로 황성측에서는 격감 중에 귀거한 후 원주 대 문막 만으로 경기가 시작되어 마침내 우승은 문막군에게로 돌아간 후 동일 오후4시에 무사 폐회하였다더라.

【원주】

길림 양기탁 저에 회집 대표 13명
(중외일보 1927-11-04 / 2면)



별항과 같이 李東求*의 분주로 만주에서 그와 같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작년 3월 경에 이동구는 비밀히 조선에 들어와 경성 천도교 연합회 간부 金鳳國, 宋憲, 李東洛과 형평사 중앙총본부의 간부 張志弼 吳成煥, 趙貴容 등에 만주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한 것을 전달하고 작년 3월 20



원주에서 부론청년회 주최 및 조선, 중외일보 양 지국의 후원으로 중선 제3회 정축구대회를 개최한다함은 본보에 보도된 바 예정과 같이 지난6일 오후1시부터 부론 원주공립보통학교 코트에서 여주, 황성, 문막, 원주의 참가 단 5개사로서 대회장 대리인 소취수씨의 간단한 개회사가 끝난 후에 우승한 여주 북성군의 우승기 반환식이 있었고 때에 의하여 주심 신영순씨의 심판 하에 5회 3승으로 정하여 경기가 시작되자 제1회 예선은 여주 북성군 대 원주청년군과의 대결로 여주군이 참패되었고 제2회는 황성체육군과 원주 우리구락부군과 대결하게되자 주심은 이성웅씨로 갈게 되어 양군의 맹렬한 경기는 관중의 열광을 끄는 중 돌연히 심판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어 양군이 충돌하게되자 황성군은 부득이 기권 퇴장하게 되어 장내의 공기는 한참동안 긴장되었으며, 제3회는 문막군과 원주청년군의 도전으로 마침내 문막군이 석패됨에 그 다음 결승전에 들어가서는 원주군 우리구락부군과 대

일 경에 이동구는 형평사 측의 대표로 김 동국, 이동락은 천도교 측의 대표로 중국 길림으로 들어가 길림성내에 있는 양기탁 방에서 정의부의 대표 鄭元欽 高割信 李一心 玄正卿 30명이 회합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당칙을 제정한 후 조직, 선전, 경리, 검사 등 기관을 두고 만주 각지와 조선 내지에 세포단체를 두 기로 하고 만반 계획을 세운 후 활동하다 가 별항 사실과 같이 발각되었다.

[*이동구(1886~1933)는 황성 출신]

李東洛 체포로 정체가 露現,
그 후 검거선풍은 뒤이어
조선과 만주를 석권하며 총 검거 16명
(중외일보 1927-11-04 / 2면)



그와 같이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각 간부들은 각처로 흩어져 당지에 조차 운동

을 하다가 작년 12월경에 李東洛(38)이 장춘 동아정미소에 잠복하여 가지고 장춘에서 세포단체를 조직하던 중 당지 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이 계획의 일단을 발각당하여 체포되었는데 이 때에 이동락의 회중으로부터 당측과 당원 명부가 드러나 즉시 검거의 선풍은 일어나 경성에서 당원 趙貴容, 張志弼, 徐光薰, 吳成煥 등이 검거되었으며 만주에서 宋憲, 金鳳國 洪秉箕 등을 검거하고 이어서 금년 2월 21일에 서대문경찰서원의 손에 李東郁이 검거되고 또 검거의 선풍은 해외로 밀려 3월10일에 하얼빈 도의 농업공사에서 同당의 책임비서 李東求*와 鄭元欽 方贊汶 李元植 李漢鳳 柳公三 朴基敦 등 정의부원이 체포되어 전후 16명이 검거되어 지난 5월6일에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받다가 별항과 같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한봉을 제한 외 15명이 기소되었다더라

[*이동구는 황성 출신]

형평운동의 선구, 李東求가 산파역
(중외일보 1927-11-04 / 2면)



일찍이 조선형평운동 초기에 있어 당당한 투쟁으로 금일의 형평운동 선상에까지 적지 않은 공헌이 있는 李東求는 재작년 4월경에 조선을 떠나 만주로 건너가 만주에 상당한 세력을 부식하고 있는 천도교의 중진 천도교연합회 상무간사 宋憲, 金鳳國과 동교 종법사 洪秉基 崔東희 등과 만주에 근거를 두고 ○○*운동의 직접과인 정의부의 간부 정원흠, 고탄신, 이일심, 현정경 등과 비밀리에 조선 ○○*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 조선 내지에 특수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평운동자와 천도교 중 좌파와 전기한 직접 파에 속한 정의부와 같이 고려혁명당이란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조선의 ○○*과 아울러 만주 일대를 적화시키고자 운동을 개시하다가 마침내 경찰에게 발각된 바 되어 이 사건이 법정에 나가게 되었다.

['독립'을 '○○'으로 기재]

전강원도 手稻 수확 예상 84만석
(중외일보 1927-11-18 / 4면)

강원도 금년도 수도 수확 예상고는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2회 예상고가 83만8,849석으로 작년분 매수고 72만6천1백96석에 비해 11만2,653석의 증가이며 금년도 예상고를 각군별로 하면 좌와 같다 하더라. 【춘천】

- 춘천 60,566석
- 인제 20,390석
- 울진 1,262석
- 정선 10,000석
- 평창 21,392석
- 영월 22,638석
- 원주 64,587석
- 평창 21,392석
- 영월 22,638석
- 원주 64,587석
- 횡성 41,990석
- 홍천 68,125석
- 화천 18,065석
- 김화 25,500석
- 철원 103,500석
- 평강 15,457석
- 이천 15,270석

강원도 본년 축산 상황
(중외일보 1927-11-19 / 4면)

전강원도 본년도 축산 상황은 당국으로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군명	우(소)수	돈(돼지)수	계(닭)수
춘천	7,291	5,887	24,788
인제	10,552	3,011	18,113
양구	5,871	4,044	14,487
회양	8,948	6,442	18,016
통천	5,451	2,864	9,445
고성	5,719	1,247	6,968
양양	8,571	925	9,720
강릉	8,916	628	12,288
삼척	15,504	621	17,755
울진	9,789	172	15,629
정선	9,250	1,198	17,458
평창	10,275	2,891	19,655
영월	7,758	2,487	18,279
원주	7,607	5,712	17,601
횡성	8,484	4,251	21,360
홍천	10,702	6,038	32,147
화천	2,285	2,579	11,122
김화	8,098	9,325	22,962
철원	9,974	7,670	26,622
평강	5,698	6,312	19,477
이천	8,741	8,166	27,006
계	172,661	84,600	384,029

혹한의 국경 신의주에서
고려혁명당의 2회 공판
영하 24도의 8일 신의주법원에서 피고
열다섯 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
본사특파원 尹薰 발전
(중외일보 1928-02-09 / 2면)



만주에 있는 ○○*운동단체 정의부와 조 선내지에 있는 천도교연합회, 형평사 등 세 단체의 주요 인물 열다섯명이 모여 고려혁명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사건 은 그간 일년동안 제령7호 치안유지법 위 반, 방화살인 강도 등 죄명으로 예심에서 심리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19일 신 의주지방법원에서 삼엄함 경계리에서 대 일회 공판이 열리자 벽두부터 재판장과 피고 사이에 불운이 일어나 그 재판은 일 시 정돈 상태를 이루었을뿐더러 피고들로 부터 재판장이 심리하는 당관계의 사실 전부를 철두철미하게 부인하고 검사의 폭 행과 경찰의 자의로 사건을 구성하였다는 호소가 있는 후 폐정되었던 통칭 고려혁 명당사건의 제2회 속행 공판은 지난8일에

신의주지방법원 제일호 법정에서 제일회 공판 당시와 같이 본다(本多) 주심 재판장과 시정(市井) 이(李) 양 배석 판사의 입회로 계속 개정되었는데 피고 등의 친척과 각단체의 관계 인물이며 기타 방청객이 몰릴 듯 하는 군중 속에서 여전하게도 경찰 당국은 정사복 경관을 요소와 군중 속에 섞이어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독립’을 ‘○○’으로 기재]

**피고의 자유를 속박하는
불법 재판에 항의를 제출
법정 안에서도 수갑을 채우므로
김변호사 불법을 통론**

12시 경에 피고 십오명이 출정하여 개정되었는데 피고들은 흑한의 국경 형무소에 있었던 관계로 손과 발, 얼굴 등이 얼어서 보기에다 참담하였는 바 영하 24도의 추위에 피고 중 洪秉箕는 더욱 몹시 상했다. 변호사는 경성 李仁, 金秉魯 양씨와 신의주의 崔昌朝씨와 李熙植 양씨가 합석하였고 예정한 本島 검사는 묵하 출장 중이므로 그 대신 林검사가 합석하여 개정하였는데 이미 시간이 1시 반이 되었으므로 금일에도 결심을 하지 못할 모양이며 경계는 일심보다 더욱 심하여 피고들에게 수갑을 전부 채우고 개인 심리를 하겠다 선언함으로써 변호사 김병로씨는 ‘피고의 자유를 너무 속박함은 불법이요, 또 개인 심리는 재판상 중대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합병 심리를 요구한다’고 항의를 하였는

데 경계를 엄중히 하기 위하여 경관과 간수 세명을 늘이기로 하고 재판은 20분간 휴정되었더라.(8일 오후 세시반 전)

**출정피고 15명
그들의 씨명은 아래와 같다**

초회 공판이 작년 12월 19일에 단 한 번 열린 이후 해를 거듭하고 달을 두 차례나 바꾸어 두 번째 8일에 2회 공판을 받게 된 고려혁명당사건의 피고씨명은 아래와 같다. 이동구* 김봉국 이동락 이한봉 송헌 오성환 서광훈 조귀용 장지필 홍병기 박기돈 유공삼 이원식 조원흠 방찬문

[*이동구는 황성 출신]

**경계의 불비를 이유로
고려혁명당 공판 연기
정사복 경찰을 배치하고 경계하면서
간수가 세 명밖에 안 왔다고 공판 연기
변호사 항변도 歸於水泡
(중외일보 1928-02-10 / 2면)**



지나간 지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8일 오후 1시 25분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고려혁명당의 관계자 이동구 이동락 조귀용 장지필 서광훈 오성환 송헌 김봉국 흥병기 이동욱 방찬문 이원식 이한봉 유공삼 박기돈 등 15명에 대한 제2회 속공판의 상보를 듣건데 피고 열다섯명이 출정한 후 本島 재판장으로부터 공판 속행을 선언하자 변호사 김병로 씨로부터 피고들의 수갑을 풀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항변이 있어서 피고들의 수갑을 일일이 끄르게 하였으나 林 검사로부터 동사건은 위험한 인물이 많이 있으니 만치 경계 간수가 부족한 즉 금일은 연기를 하자는 연기 신청이 있었으므로 변호사 김병로씨로부터 또 다시 위험한 인물로 인정하는 제령 위반, 강도 살인 사건의 관계자로 되어 오는 피고 중 삼명 밖에 없으니 그 삼명을 분리하고 계속 심리하는 것이 어느 편으로도 유익할 것이라고 항변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재판장으로부터 이십분 휴정을 선언하고 회의실로 밀려들어가서 의논을 하게 되었다더라

【*이동구는 형성 출신】

각지 道議 소식 강원도의 최종일 가결 64건, 부결 37건 (중의일보 1928-02-25 / 3면)

各地道議消息	
江原道議 最終日	
江原道議會議會廳於昨日(二月十九日)上午十一時開議。由議長李東原氏主持。出席議員計三十三名。議程如下：(一)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三)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四)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五)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六)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七)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八)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九)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一)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二)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三)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四)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五)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六)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七)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八)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十九)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一)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二)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三)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四)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五)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六)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七)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八)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二十九)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三十)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三十一)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三十二)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三十三)議決省長官廳遷移案。通過。	
可決六十四件	否決三十七件

강원도 제8회 도평의회는 최종일인 2월 19일 상오 11시부터 의장으로부터 개회를 선언한 후 지난 18일 건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보고하라 하매 건의위원장 이근우씨가 보고하되 지난 건의위원회에서 도내 공익에 관한 의견서 제출된 총 건수가 104건 내 3건은 취소되고 101건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가결된 것이 64건이

요 부결된 것이 37건이라고 보고가 끝나자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은 후 일치가 결로 막을 마치게 되어 의장 유성준씨의 폐회사가 있는 후 의원을 대필하여 村上 九大郎씨(춘천)의 답사가 있고 폐회하여 오전12시경리더라. 【춘천】

가결 64건 부결37건

도내 공익에 관한 의결서 중 가결된 의안은 좌와 같다.

1.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하고 금강산 전기 철도 해안 진출 촉진의 건
2. 김화 충주간 2등 도로를 1등 도로로 승격시키고 취중 김화 춘천은 속행의 건
3. 도청내 산업부 신설의 건
4. 도 평의회의 상치위원제를 설할 건
5. 농업자금 융통기관 설치의 건
6. 수해지 복구의 건
7. 양구미○선 3등 도로 개통의 건
8. 회양군 회양고신안선 1등도로 수공사 수치의 건
9. 물산진열관을 금강산 입구와 도내 주요지에 설치의 건
10. 철원도립병원 속성의 건
11. 군농회 회원할은 회원의 빈부 정도에 의하여 등차로서 부과하고 부담은 공평을 기할 건
12. 각군에 설한 지방의결 범람 조립 보호와 취축방법을 철저히함을 요망의 건
13. 금성천 호안공사는 지방비 시설로 요망의 건
14. 명예직 구장에게 수당 지급을 공과하고 출납사무를 면에서 감독할 것을 요망의 건
15. 경성, 횡성, 안흥선 3등 도로를 2등 도로로 승격의 건
16. 실업보습학교 설치의 건
17. 김화 고성선 2등도로 속성의 건
18. 미○리, 한진리 3등도로 속성의 건
19. 고성 해금강 등의 도로를 2등 도로로, 입석천 교량 가설의 건
20. 군농호의 농업창고를 건설하고 상당히 보조 요망의 건
21. 도평의회 회원으로서 일본 부현을 시찰케함을 요망의 건
22. 정선 삼척간 도로 개수의 건
23. 정선강 수축 제2공사의 건
24. 도로 폭원 확장의 건
25. 양양 인제간 미시령도로 실사 조사의 건
26. 강릉 정선간 도로 개수 촉진의 건
27. 대화 강릉간 경비전화 가설의 건
28. 초등학교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의 건
29. 지방비 보조 상면기수 증원의 건
30. 동 지방비 경영의 임영묘포는 민간경영에 위탁하여 마포검사소 설치의 건
31. 민원○○○○ 교정의 건
32. 지방비 재원 조성 방법의 건
33. 농업회 창고 건설 촉진의 건
34. 동해안 철도 촉진의 건
35. 목도 관내에 유한 유리유망한 국유 임야를 대부 혹은 독려를 수하여 지방비 재원의 충당할 건
36. 도내에 가장 경제 가치가 있는 하천 정리공사를 시작할 건

37. 고저항 축항공사 실패의 건
38. 양양군 남대천 좌안 2등도로 상망의 호안공사를 시하여 출수시 수해방지 장치의 건
39. 경성 오리진선에 관한 건
40. 농가 산미 급비를 방지할 구체적 방침의 건
41. 도치상 기초될 면리 구역을 변혁하여 사무조달을 계할 것
42. 교육기관을 확장하여 도내 단체 교육을 일체 취급의 건
43. 보통학교 증설에 관한 건
44. 흥천장 가교의 건
45. 양평 인제선 3등 도로를 2등으로 승격의 건
46. 경성 흥천의 우편물 직통의 건
47. 완전한 잠중냉장고 설치의 건
48. 일본인 군기술원에게 조선어를 의무적으로 연구케할 건
49. 화전민 구제책의 건
50. 인제 양구간 3등로 속성의 건
51. 인제간성간 우선 시설의 건
52. 금융기관 확장의 건
53. 저리자금 대부方 개정의 건
54. 갑종 요林내 일부를 을종림으로 변경의 건
56. 대두검사소 설치의 건
57. 소방로 보조 증액의 건
58. 영주 울진선을 본년도 내 개통의 건
59. 도립사교 내 여자 강습 증설의 건
60. 2등로 기성선의 전부 교량 가설의 건
61. 등외도로 기성선을 3등로로 변경의 건

62. 곡물검사소 증설의 건
63. 경성 거진선의 횡단철도 건설 촉진의 건
64. 수력 전기사업시설과 탄전 개발에 관한 건

**고려공산당 제2공판-공술을 거절
피고의 태도 여하**
(신한민보 1928-03-08 / 2면)



만주 벌판을 무대로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정의부와 조선 안에 다수한 교도를 가진 천도교며 조선사회에 특수 세력을 가진 형평사 등이 조선 독립을 성취하고자 일대 활동을 개시하였다가 관헌이 손에 체포된 고려혁명당 사건의 공판은 작년 12월 19일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으나 피고 열두사람 중 이이소(일명은 이동구)*는 이

름이 틀리고, 재판장이 경어를 쓰지 않는다 하여 정원흠은 공술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여 각각 재판장 심리에 공술을 거절하였으므로 재판장은 할수없이 기타 피고에 대한 심리만 마치고 공판을 연기하였던 바 일반 사회의 다대한 주목을 끌고 있는 이 사건의 제2회 공판은 금 8일에 역시 신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장 심리, 두 판사 배석 검사 입회하여 개정 되었다는데 제1회 공판 때에 공술을 거절하던 전기 피고 두사람의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매우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하며 경성으로부터는 변호사 김병로 이인 김병로 양씨가 이 사건을 변호할 차로 출장하였다더라

[*이동구는 황성 출신]

**무산아동학교 대동학원의 복음
고창한씨가 십만원 기부
(중외일보 1928-03-09 / 2면)**



시내 종묘 앞에 있는 대동학원은 1925년도에 인력거조합의 경영으로 배우고자 하여도 배울 길을 얻지 못하는 무산아동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100여명 생도를 수용하여 이래 4년 동안에 비상한 곤란을 겪어가면서도 인력거조합에서 나오는 피와 땀의 결정인 매식 200원의 경비와 생도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애만 가서 오는 50전의 월사금을 기초로 하고 그의 종사하는 선생들의 열성으로 근근히 유지하여 오던 바 다행히 그 곤란한 현상에 동정하는 독지가가 나타나서 10만원의 기보물을 세우고 우선 2만원을 들여서 신건축에 착수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10만원 기부한 고창한씨 300평 교사 신축에 착수

대동학원 구주가 된 독지가는 시내 가회동 208번지 高昌漢씨 금년 56세의 노인이며 일찍이 상업에 종사하여 몸소 거만의 재산을 쌓은 수완가인 바 일찍이 그 쌓은 바 재산을 공익사업에 던지고자 생각하여 적당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 전기 대동학원의 현상을 동정하며 10만원을 제공하기로 동학교장 金萬壽씨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교사의 건축을 위하여 현재 자기가 거주하는 가회동 108번지의 기지 306평과 건축비 2만원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동교에서는 전기 장소에다가 2층 목조 양관으로 약 300평의 교사를 건축하여 청부업자 韓相台와 청부계약까지 해결하게 되었다 한즉 무산아동의 교육을 위한 의미 깊은 학원이 기회 준 한편에 의…… 는 것도 머지 아니한 …… 될 것이 라더라.

간이 공상과와 부설을 계획 중 실업 교육 병행

일도의 광명을 얻게 된 동 학원은 이 10만원을 총재산으로 하고 다시 인력거 조합원조의 ○○의 활동으로서 완전한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하는 동시에 동교에서는 무산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한편 그 초등교육과를 마치는 아동에게 직업교육을 베푸는 기관으로 간이 상과와 간이 공과를 설치하고자 계획중인 바 금번 건축에서도 우선 간이 공업교육에 필요한 실습장을 만들게 하였다한즉 이 학교가 당초에 포부를 실현하여 무산 아동에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베풀어 일할 능력을 갖추어서 춘많은 청년을 사회에 보내게 되는 날도 머지 아니하였도다.

[*고창환은 횡성 출신으로 표제의 '고창환'은 오재

**살인범으로 법정에서 설
가려한 16세 소년
음탕한 그 아버지의 저지른 죄과는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죄인을 만들어
저주할 애육이 낳은 비극
(중외일보 1928-03-09 / 2면)**



그 아버지가 남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혹은 바 되어 전 재산을 탕진한 후 마침내 자살까지 한 사실로 원한을 품고 열여섯 살의 소년이 예리한 낫으로서 아버지를 죽기에 이르게 한 여자를 참혹히 살해한 살인사건이 오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未廣 재판장 주심과 白律山 참판사 배석하에 개정될 터인데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내 趙千○(16)라는 소년과 그의 백모인 安明○(47) 양인으로 천수 소년의 부친 趙功○(47)은 그 나이 값도 못하고 이웃에 사는 (중략)

이동구 외 9 피고 심리
그리고 즉시 휴정하여
고려혁명당 공판
(중외일보 1928-03-11 / 2면)

李東求外 九被告審理
그리고 즉시 휴정하여
高麗革命黨公判

고려혁명당사건(高麗革命黨事件)은 1927년 12월 12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의해 공판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의 창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당 창당에 참여한 9명의 피고인과 이당 지도자 이동구(李東求)에 대한 재판이었다. 재판은 1928년 3월 11일 중외일보(中外日報) 2면에 실렸다. 재판 결과,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불응징역(不服刑)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선의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고려혁명당사건 공판은 지난 보도와 같이 9일 정오에 개정하여 피고 15명을 직명을 마치고 李東求*로부터 심리를 개시한 다음 계속하여 김봉국 이동락 유공삼의 다섯명에게 극히 간단한 문답을 몇 번씩 거듭한 다음 30분 휴정을 하였는데 때는 이미 오후 1시40분이었더라. 【신의주지국 전보】

[*이동구는 황성 출신]

공산주의 이론 재판장과 사이에 교환
이동구 공술 내용
(중외일보 1928-03-12 / 2면)

共產主義理論
재판장과 사이에 교환
【李東求供述內容】



공산주의 이론 재판장과 사이에 교환 이동구 공술 내용. 이 내용은 재판장에서 이동구(李東求)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구는 공산주의를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면서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계급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국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술 내용은 당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재* : 대정 14년 8월 중 최동회 편지를 들고 만주에 가서 그를 만나 만주의 정의부와 조선내의 천도교 및 형평사와 연락하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는가?

李** : 그렇소

재 : 고려혁명당은 조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동시에 사유재산제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실현코자함인가.

이 : 물론이요

재 : 1926년 3월 초순경에 경성부 와룡동 천도교연합회 간사 이동락, 김봉국, 송헌에 대해 말한 일이 있는가?

이 : 다른 사람은 틀리고 김봉국한테는 말한 일이 있소.

재: 형평중앙총본부 간사 장지필, 오성환, 조귀용과 이 협의한 일이 있는가?

이: 오성환 한테 말한 일은 있소

재: 경운동 천도교총본원에 있는 홍병기에 대해서도 운동 계획을 말한 일이 있는가?

이: 그런 일 없소

재: 김봉국 오성환만 협의하였다하니 찬성하는가?

이: 물론 찬성이요.

재: 형평 대표로 중국 길림성에 간 일이 있는가?

이: 그렇지 않소. 오성환 더러 아무쪼록 협의 잘하라고 하며 형평사의 위임장을 주기에 가지고 들어간 적은 있으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 대정 15년 삼월 하순경에 김봉국, 이동욱과 같이 길림에 가서 오동진, 양기탁 외 12인이 모여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직부, 선전부, 경리부, 검사부 기타 10개소 세포단체를 조직하여 운동의 조직을 실행하였는가.

이: 그렇소

다음에 재판장은 ‘공산주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어 재판장과 피고 간에 공산주의에 대한 약간 한 씨름이 있을 후 재판장은 다시

재: 그런 세상을 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물음에 이: (이하 오행 약)

하고 재판장과의 문답은 자못 심각한 곳으로 들어 이론을 거듭하다가 심리는 김봉국에게로 넘어갔다.

[*재는 재판장, **이는 이동욱]

家人의 사주 받아 無實의 범행 시인?

초회 공판정에 불러나온

조천수 소년의 진술

(중외일보 1928-03-14 / 2면)



간부(姦婦)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남아에 자기 아버지까지 자살하였다는 원한으로 16세 되는 소년이 그 백모와 망부의 정부를 살해하였다는 사건의 강원도 황성군 황성면 곡교리 趙千○(17) 安明○(39)에 관한 살인사건의 공판은 (중략) 거짓 대답을 하였던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말하고 있었는바 이번 사건의 진범이 누가 되었던지는 주목되는 바이더라 (공판 진행 중)

전화가설 예정지 16개소를 내정
3년도 제1기 계획으로
(중의일보 1928-03-16 / 1면)

**電話開設豫定地
十六個所를 내정**
三年度第一期計劃으로

滿洲省에서 1928년 3년도 제1기 계획으로 16개소의 전화가설 예정지를 내정하였다. 이는 1927년 16개소의 전화가설 예정지에 비해 10개소 증가된 것으로, 전화가설의 확대를 보여준다. 특히 1928년 16개소의 전화가설 예정지는 1927년 16개소의 전화가설 예정지에 비해 10개소 증가된 것으로, 전화가설의 확대를 보여준다.

1928년 16개소의 전화가설 예정지 목록:
 1. 奉天(1개소)
 2. 安東(1개소)
 3. 通遼(1개소)
 4. 錦州(1개소)
 5. 營口(1개소)
 6. 瀋陽(1개소)
 7. 長春(1개소)
 8. 吉林(1개소)
 9. 齊齊哈爾(1개소)
 10. 哈爾濱(1개소)
 11. 大連(1개소)
 12. 旅順(1개소)
 13. 金州(1개소)
 14. 瓦房店(1개소)
 15. 庄河(1개소)
 16. 普蘭店(1개소)

체신국에서는 1928년 통신 신장 계획에
의거 전화 교환 부설 예정지 (중략) 되었
더라.
강원도 고성, 삼척, 양구, 횡성

횡성에도 殖銀지점 운동
도당국에 진정
(매일신보 1928-03-27 / 4면)

**橫城에도
殖銀支店運動**
道當局에陳情

「奉天」江原道橫城郡에서 1928년 3월 27일, 殖銀支店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는 1928년 3월 27일, 殖銀支店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는 1928년 3월 27일, 殖銀支店運動을 전개하였다.

1928년 3월 27일, 殖銀支店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는 1928년 3월 27일, 殖銀支店運動을 전개하였다.

【춘천】강원도 횡성군에서는 문화발달에
반하여 은행기관의 필요가 절실하다 하여
도군 당지 인사는 협의한 바 있는바 금반
동군 유지 鄭鎬鳳씨 이외 제씨의 진정위
원이 21일 도당국을 방문하였다.

형평정기대회 준비위원회
(중의일보 1928-04-01 / 2면)

送局
성의업습과
態度에大憤慨

衡平定期大會
準備委員會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시내 운이동 23
번지 회관에서 동대회 준비위원회를 김봉
(金奉)씨 사회하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

결의안

1. 형평대회 준비금에 관한 건. 가급적 300
환으로 정하고(최고위원에게 일임함)
1. 인쇄물 담담의 건(본부 상무위원에게
일임함)
1. 지방 순회의 건(운영위원 趙奉西 千君
彌 金○淳 曹淳吾 曹禹學으로 함)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시내 운이동 23
번지 회관에서 동대회 준비위원회를 김봉
(金奉)씨 사회하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

결의안

1. 형평대회 준비금에 관한 건. 가급적 300
환으로 정하고(최고위원에게 일임함)
1. 인쇄물 담담의 건(본부 상무위원에게
일임함)
1. 지방 순회의 건(운영위원 趙奉西 千君
彌 金○淳 曹淳吾 曹禹學으로 함)

1. 여흥 〇〇의 건 (본부 상무위원에게 일임함)

운영위원 취임

기장, 안성, 죽산, 장호원, 이천, 여주, 문막, 원주, 제천, 영월, 횡성, 홍천, 춘천, 화천(조순오, 천군필 양씨) 강릉, 양양, 삼척, 울진, 평창, 정선(조우학) 천안, 〇〇, 〇주 〇안, 〇천, 병천(김〇순, 조봉서 양씨)

고려혁명당 사건, 來이십일에 판결 인도

최 이 양변호사 변론 열렬

창호驟然 중에 폐정

(중외일보 1928-04-09 / 2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달 19일 제4 회로 열렸던 고려혁명당 사건 공판은 신 의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本多 재판장과 市井, 李 양 배석판사와 本島검사 입회로 멀리 경성에서 온 이인, 김병로

양씨와 당지 이희덕, 최창조씨 등 네 변호사의 임석으로 개정되자 이어 본도 검사로부터 각 피고에게 대하여 구형이 있는 후 이 변호사로부터 변론에 들어가자 불연 중지를 당하게 됨에 이어서 김병로씨가 먼저 재판장에게 이인씨 변호를 중지시키는 것은 조선법조계에서 처음으로 듣는다고 하면서 항의가 끝나자 김, 이 변호사의 장시간 변론이 있는 후 시간상 관계로 당지 변호사는 변론치 못했다가 지난 휴일 오후 1시10분에야 비로서 동 법원에서 전기와 같이 본도 재판장 시정, 이 양 배석판사와 본도 검사 담화로 최창조, 이희덕 양변호사가 임석한 후 개정하여 재판장은 피고 李東求*로부터 차례로 호명을 마치고 이어 최창조 변호사로부터 피고를 위한 열렬한 변론을 시작하고 다음에 이희덕 변호사도 역시 열렬한 변론을 끝내었는데 재판장은 다시 피고에게 새로 할말은 없느냐고 해 피고 중 김봉국이 나타나서 본건에 대해 나는 인정치 못할 말이 있으니 죄 없는 이유를 말하겠소 하자 재: 변호인이 피고에게 이롭게 변호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을 못하게 할 때 이용구가 뒤미처 말을 하려 하므로 재판장은 즉시 본월 12일로 인도 기일을 정하고 폐정해 버렸는 바 때는 오후2시40분이었더라. 【신의주】

[*이동구는 횡성 출신

**횡성노농동맹
창립 벽두 중대사항 결의**
(중의일보 1928-04-11 / 4면)

橫城勞農同盟 創立壁頭重大事項決議

此項決議係於本月四日(即陽曆四月八日)在橫城青年會舉行創立壁頭大會時由全體會員公決之其要點如下

一 宗旨 爲農民之利益而奮鬥
 二 組織 以青年會爲中心而組織之
 三 方針 以教育爲先導而以經濟爲基礎
 四 活動 以宣傳爲先導而以實踐爲基礎
 五 經費 以會員之捐助爲主而以社會之贊助爲輔
 六 宣傳 以分發傳單爲先導而以演講爲基礎
 七 實踐 以組織合作社爲先導而以經濟團體爲基礎
 八 訓練 以青年會之訓練爲先導而以社會之訓練爲基礎
 九 聯絡 以青年會之聯絡爲先導而以社會之聯絡爲基礎
 十 團結 以青年會之團結爲先導而以社會之團結爲基礎

○ 關於社章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社章之修改

○ 關於經費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經費之募集

○ 關於宣傳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宣傳之方法

○ 關於實踐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實踐之方針

○ 關於訓練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訓練之方針

○ 關於聯絡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聯絡之方針

○ 關於團結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團結之方針

하여 제반준비에 분망함은 기술한 바와 같거니와 예정과 같이 지난 4월 5일 오후 8시부터 당지 청년회관 내 준비위원 조정군사회 하에 횡성노농동맹 창립 대회를 개최하고 순서에 따라 이동수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가 있는 후 신입 가맹 수리, 회원 정명 및 실격 심사를 마치고 임시 집행부로 의장 이동수, 서기 〇〇〇 조쟁, 〇〇원 최성술 외 약간 인이 피선된 후에 각 우의단체로부터 온 축전, 축문을 운동하고 준비위원회 경과 보고와 및 재정보고가 있고나니 규약 통과와 좌와 같은 임원 선거가 끝난 후에 예산 편성을 신임집행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의견이 일치하여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당일 통과된 강령 및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며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일의 회합을 일부 게재하기 위하여 또는 선전을 거듭하기 위하여 선전문을 전시에 살포하였으나 당시 경찰로부터 〇〇제출 수 〇이 느려서 출판법 제3조에 해당한다는 이유하에 폐지하고 말았는데 당회에는 예상 이상의 대성황으로 회의는 일사천리의 세로 진행 중 회의 전후에 거리는 5-6층의 전화로 읍내는 일부 긴장하였고 그 중 '3층 해〇 획득운동에 절대 노력하자'라는 전화와 원주 신간지회원 〇동호씨로부터 온 축문은 임석경찰관으로부터 불온하다는 이유로 제시를 못하게 되었고 당〇에는 양평소년운동의 투사인 이정환군의 열렬한 축사와 조선형평사회본부 중앙집행위원 조만학씨의 축배가 있는 후 동 12시경에 무사 폐회하

종래에 횡성노농회는 자체로서의 제반행사를 할 수 없으며 조직에 있어서는 봉건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비현실적 조직체라 하여 총회를 해산하고 〇〇〇〇이 횡성노농동맹의 창립준비위원회까지 개최

였다더라. 【황성】

◇ 집행위원

집행위원장=최성술

회계=김창수

서기=○○○

검사위원=이동수

집행위원=김창수, 이문철, 김기만, 한
철수, 이은삼, 홍팔복, 정춘
원, 최상옥, 권윤진, 김종실,
정의섭, 김만수, 방순범, 조
쟁

(강령 생략)

◇ 결의안

제1부 조직문제

- 1. 세포 단체 조직 촉진의 건
- 1. 부문운동에 관한 건

제2부 육양문제

- 1. 노동자 농민 기초지식 연구의 건
- 1. 신문 잡지 강독의 건
- 1. 노동 야학 개최의 건

제3부 재정문제

- 1. 기본 재산 수립의 건
- 1. 회원 부담금에 관한 건

제4부 사회와 당면 문제

- 1. 봉건적 허례 등 타파에 관한 건
- 1. 여성, 백정, 노예 등에 대한 차별 철폐의 건
- 1. 인신 매매 금지의 건
- 1. 무산아동 수업료 철폐의 건
- 1. 18세 남녀 결혼 금지의 건
- 1. 민족 단일당 구성 제출의 건

1. 신간회 지지의 건

1. 근우회 지지의 건

제5부 노동과 소작문제

- 1. 최고임금 결정의 건
- 1. 8시간 노동제 실천의 건
- 1. 소작료 결정의 건
- 1. 부당부과 철폐의 건
- 1. 솥음 철폐의 건
- 1. 경작권 확립의 건
- 1. 회관문제

◇ ○ ○ 임원

사장=편인○

총무=이천런

재무=이순억

서기=김일○

평의원=김복경, 원득○, 송○○,
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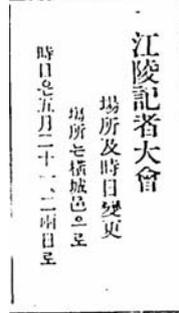
교섭위원=편인○, 이○구

◇ 결정안

- 1. 경성본사 지지의 건
- 1. 본 형평사 지지의 건
- 1. 사회교원의 건
- 1. 사원 품행의 건
- 1. 여성동맹의 건
- 1. 전선 대회에 대표위원 파견의 건
- 1. 비용에 관한 건

우차에서 甘睡 중 교하에 추락 즉사
 차 끌던 소가 떨어져서
 종일 노동에 피곤 소치
 (중외일보 1928-04-23 / 2면)

社告 강원*기자대회
 (중외일보 1928-04-24 / 4면)



본적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새
 재에 두고 현재 동군 횡성면 읍상리 205
 번지 梁○春이란 사람의 집에서 우차부
 (牛車夫)노릇을 하는 吳河冰(29)은 지난
 15일 밤에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서전교
 라는 신작로 다리에서 떨어져 무참히도
 즉사하였다 하는데 이유인 즉 전기 오하
 영이가 당일 문막이란 곳에서부터 우차를
 몰고 오다가 마침 빈차인 까닭에 종일토
 록 곤한 참에 차위에서 드리누어 잠간 졸
 면서 전기 다리를 지나던 중에 앞에 몰고
 가던 소가 실족이 되어 다리 앞으로 떨어
 지자 뒤에 있던 차와 사람이 함께 떨어져
 서 전기와 같이 오하영은 즉사되고 오히
 려 소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의 시
 체는 그 동리 사람이 즉시 그곳 공동묘지
 에 매장했다 하더라. 【원주】

강릉기자대회* 장소 및 시일 변경
 장소는 횡성읍으로
 시일은 5월 21, 22일 양일로

[*강릉기자대회는 강원기자대회 오타

강원청년연맹 강원도 정기대회 개최
 5월23일부터
 (매일신보 1928-04-24 / 4면)



작년 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하였던 강원청년연맹 혁신대회는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일반 청년과 모든 운동에 다대한 힘을 홍하여 무한한 수확을 얻었으며 이로서 그 사무소를 횡성읍에 두고 청년사회운동 민족 운동에 끊임없는 투쟁을 거듭하여 오는 바 강원청년연맹에서는 제2회 정기대회 위문 겸 도시 동맹당 집행위원인 국련원 집행위원이며 감사위원으로 강릉에 주거하는 투사들과 함께 지난19일 강릉 신간지회 사무소내에서 강원청년연맹대회 개최준비회를 개최하고 토론한 바 다행히 강원도 기자대회가 5월 22일까지 횡성읍에서 개최하는 터인 즉 이 시간을 이용하여 同월 23일부터 25일까지 횡성의 인접이며 강원도의 중앙인 원주읍에서 개최하기로 일결 가결하여 방천 그 준비에 대분망 중이라더라.

강원기자대회 장소 시일 변경 (중외일보 1928-04-24 / 4면)



강원도에 사무소를 둔 강원도 출입 기자단 주최로 5월15, 16 양일간 강원도 기자대회를 세계공인 금강산 장안사에서 개최한다 함은 누차 보도한 바 있거니와 그 준비에 분망하여 오던 터인데 대회 장소인 금강산 장안사는 교통과 거리 관계상 각처로부터 장소를 교통이 편리하고 적당한 장소를 변경하라는 촉탁이 연일 쇄도함에 동 집행위원들은 지난19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화한 바 일반희망에 응하여 강원도의 중앙인 횡성읍으로 대회 장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대회 시일도 준비상 부득이 5월 21, 22 양일로 연기 개최하기로 일치 가결한 후 그 준비에 대분망 중이라는 데, 강원도 기자대회가 금번 처음 개최되느니 만큼 본도 내에 산재한 동 기자들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본대회에 토론할 제안은 대개 좌기와 같다 하더라. 【강릉】

▲일반 문제

1. 각 민중에 관한 건
- 가. 사회운동에 관하여

나.

- 1. 3층○○ 금지에 관한 건
- 1. 기사에 관한 건
- 1. 기자 채용에 관한 건
- 1. 본사 대비 분국에 관한 건

▲정치 문제

- 1. ○○동포에 관한 건
- 1. 중국 재유 동포에 관한 건
- 1. 독일 동포 저지에 관한 건
- 1. 중국 노○○ 대거 침입에 관한 건

**그리워 안 떨어지는 자식 타살한 친모
감옥에 간 남편과 두 자식을 두고
개가한 계집의 두려운 죄악 진상
고금 무쌍의 마녀**
(중외일보 1928-04-25 / 2면)



감옥 간 아버지를 버리고 개가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 어린 두 아들이 찾아 간 것을 때려 죽였다 그 중 아홉 살 먹은 어린 것이 종시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치마귀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것을 귀찮게 여겨 돌로 때려 마침내 제가

냥은 아들을 죽여 버렸다는 고금에 드문 참극 유일은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지구리 朴峯○의 처 金美○(○○)에 관한 상해치사 사건은 입건 당시 경찰에서 경성지방법원에 넘어왔는데 사건은 내용을 들으면 그의 남편 박봉달이 자신도 죄로 감옥살이를 가자 그는 두 아들 기남(12)과 종남(9)을 버리고 대정 15년 3월에 멀지 않은 동리에 정다히 길러줄 이 없고 의탁할 곳 없이 친척의 집을 전전신세를 저가던 중 지난3월 3일에 역시 적은 아이 종남이 어머니를 그리며 넘어져 울며 억지를 하므로 상남, 기남은 아우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갔던 바 어머니는 무수히 난리하며 내려 ○○으로 기남은 먼저 돌아갔으나 아우 종남만은 종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치마귀에 매달려 울며 떨어지지 않는다고 정곡면사무소 앞에서 돌로 내리쳐 그로 인하여 마침내 죽어버렸다는 것이라더라.

횡성노맹임총
(중외일보 1928-04-26 / 4면)



횡성노농연맹에서는 지난 4월22일 오전8시에 임충 개최 회관인 당지 횡성청년회관 내에서 집행위원장 최○변씨 입회 하에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좌기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 【원주】

- 1. ○○회 ○○심의건
- 1. 회원분담금의 건
- 1. 기본 ○○○○의 건
- 1. ○부사안 방침의 건
- 1. 금년도 예정○ 협의의 건

**암야 산중에서 인처를 윤간
횡성읍내 사는 부랑자 네명이
내외 같이 가는 것을 잡아가서
범인 결국 체포되어**
(중외일보 1928-04-26 / 2면)



지난 11일 밤 12시 경에 강원도 횡성군 읍내에서 약 30여○ 거리 되는 횡성교 ○○ 산중에서 전기 읍내에 거주하는 ○○○에 부랑청년이 밤중에 인적이 고요한데 올라서 길가는 여자를 눕게 하여 네 사람

이 번갈아 강제로 윤간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범인들은 당지 횡성경찰서에 강간죄로 피체되어 원주경찰서분국에서 사실심문이 종결된 후 입실 중에 있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묘사하건데 전기 강간당한 내지는 본적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갈마곡리에 있는 당년 20세에 표령미인인 김창○(20)이라는 여자로서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그의 남편되는 강순○(27)과 결혼하여 동거하여 오는 중 부부간에 항상 마음이 달라 서로 간에 믿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김창길은 강순복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지난 9일경에 비밀리 그 집을 떠나 횡성읍내에 도주 잠적했던 바 강순○이가 찾아와 가자고 지난 11일 밤에 김창○과 강순○ 부부가 도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범행 장소에서 횡성읍에 거주하는 이○만, 한창수, 조기팔, 추병○(李○萬, 韓昌洙, 趙基八, 秋○○) 네사람의 부랑 청년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은 강순○ 옷을 붙잡고 두사람은 김창○을 윤간한 후 또다시 횡성읍으로 도피해 모처에 감추어둔 것을 강순○이가 횡성경찰서에 고소하여 마침내 그와 같이 체포된 것이라 하는데 김창○은 또다시 강순○이가 그 전에 남의 물건을 섭취한 사실이 있다고 동 경찰서에 고소하여 강순○도 역시 경찰 취조중이라 하더라. 【원주】

전화 교환 개시 1928년도 10개소
(중외일보 1928-05-07 / 1면)



1928년도 전화 정비 사업에 의한 시내 전화 교환 개시는 체신국에서 약 10개소 예정으로(중략)을 연하는데 후보지는 좌기 각지로 결정하였다더라

- ▲강원 고성, 삼척, 횡성 ▲평남 ▲전북
- ▲경남 합천 ▲경북 경주 ▲평북 ▲함북

아들 죽인 어머니 징역4년을 언도
재가한 어미 보러간 자식을
(중외일보 1928-05-17 / 2면)



아버지가 감옥살이 간후 어머니가 보고 싶어 찾아간 어린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지구리 김미○(00)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은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말광재판장으로부터 징역 4년의 판결언도가 있었는데 사건은 그 남편 감옥에 간 뒤 2남1녀를 두고 전기 처소의 이영석에게 재가하였던 중 지난 3월3일 차남 박중남(9)이가 그 형과 같이 어머니에게 갔던 바 가라고 하여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날 저녁 부근 주재소 근처에서 돌로 때려 죽여버린 것이었다더라

소년 살인범 조천수
(중외일보 1928-05-26 / 2면)



자기 친아버지를 피이어 일기를 탕진케 하고 자살까지 하게 하였다고 아버지의 정부를 살해 했다는 사건의 횡성군 횡성면 곡교리 조천○(16)은 청량리지방법원에서 8년 징역의 판결을 받고 복심에 공

소중이던 바 2월 5일 高木재판장으로부터 원 판결대로 징역 8년을 인도하였다더라.

입회하였던 송전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인도는 21일이라더라.

채무 못갚아 숙부를 살해코저 떡에 양젓물을 싸서 먹인 자
검사는 3년을 구형
(중외일보 1928-07-15 / 2면)

본년도 전화 교환 개시 계획
(중외일보 1928-07-23 / 1면)



강원도 황성군 정곡면 정금리 (江原道 橫城郡 井谷面 鼎金里) 尹泰〇 (00)은 그 숙부 김택〇(金澤〇)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심한 채근을 받는 것을 괴로워 해가지고 작년 11월 10일 저녁에 떡 속에 양젓물을 넣어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하였다는 살인 미수 사건으로 십사일 경성지방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는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숙부가 자기 처를 간음하려 든 것이 분개하여 한번 놀래주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본년도의 시내 전화 교환 개시 계획에 취하여 전선을 통하여 7개소의 예정으로 체신국에서 지방 사정을 …… 환정 중인데 실제 지방 소도읍에도 시내 전화를 갈망하는 편이 많아서 도저히 지방의 요망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장래 〇전경향에 실현이 우수한것 부터 〇〇〇할터인데 대체 좌기 각군은 〇〇〇대로서 〇〇〇되는 곳이라더라
▲경북 경주 ▲전북 〇〇 ▲황해 〇〇 ▲경남 협천 ▲강원 삼척 황성 고성

횡성보교 동창

(중외일보 1928-08-25 / 4면)



강원도 횡성읍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자 조직한 횡성공립보통학교 동창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30분에 횡성보교 대강당 내에서 책임간사 신우당씨 사회 하에 동창회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좌기와 같이 제항을 결의하여다더라. 【횡성】

결의사항

1. 기본금 처리에 관한 건. 상당한 수정을 거쳐서 개인 대부로 하되 제 방법은 평의원회에 일임함.
1. 회장 선거에 관한 건. 조규봉군의 사임을 수리하고 신우당*군으로 개선함.
1. 기타

*신우당은 신영순

**시앗보고 음독 자살한 처
자식이 없어 첩 얻었더니**

(중외일보 1928-08-27 / 2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마산리 41번지 김영오의 처 고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경에 홀연히 「간수」를 마시고 동 오 후 1시경에 절명하여 집안과 동리를 소동케 한 사실이 있다는데 음독한 원인을 수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김영수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음에 천행으로라도 첩을 얻으면 자식이 나올까 하여 동군 어떤 촌에서 첩을 얻어다가 5, 6개월을 사는 동안에 항상 전기 처 고씨는 불평 불만을 품고 또 첩과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어 큰 피란 중에서 지내다가 지난17일에도 역시 첩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한 후 별안간 그와 같이 음독한 것이라 하더라. 【횡성】

횡성도 흉년 난망
60년 래의 초유사
(중외일보 1928-08-28 / 4면)



강원도 횡성지방에도 끝끝내 한발이 ○
○함으로 일반의 민심은 극히 형형하여
지며 아직까지 이양하지 못한 전답이 대
부분이며 기 이양한 전답도 너무나 한발
이 극심하므로 ○화○육은 의외로 생각하
는 중 수일 내 비가 오지 않으면 금년의
앞길도 흉년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일반은
최극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더라.

횡성시내 전화 가설 실현
(중외일보 1928-08-31 / 4면)



강원도 횡성군 읍내에서는 다년간 숙원이
던 시내 전화 가설에 대하여 계획과 도안
은 근근 구체화 하여 횡성군 군수를 비롯
한 경찰서장과 일반 유지 제씨의 부단한
진력에서 금년 11월 이내에는 확실히 실현
을 보리라는데 원래 예상 점수로는 30점을
한하고 계획 중이었는데 현재 실현된 것으
로 본다면 오히려 예상점수가 56점이 초과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무난히 가설을 보리
라는 바 일반 신입자를 명확히 구분하면
민간 측으로 24, 관공서측으로 32점의 형
편이라 하며 제반수속을 방금 체신당국에
신청 중이라 하더라. 【횡성】

횡성군의 군민 합동 운동
거 체육제일에
(중외일보 1928-10-07 / 4면)



지난 12월 3일에 전국체육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 각 관공서 및 유지
제씨가 합동하여 관민 합동운동회를 개최
하기로 제반준비를 거듭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에 당지 송림에서 永詔보교장의 개최

사로 개최하였는데 당일에는 흥미진진한 경기와 제 준비위원의 꾸준한 성의에 대하여 일반 관중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만 관중에 대한 좌석이 불완전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동 오후5시 경에 무사 폐회하였다 하더라. 【황성】

**연기 거둬 7삭 만에
공소판결 근 개정
(법정내 눈물겨운 극적 광경)
◇ 고려혁명당 사건
(중외일보 1928-10-08 / 2면)**



이동구 심리(1)
강원도 본적 황성군 황성면 영포리
별명 면소 이 동 구 (45)

만주의 정의부(正義附)의 중요간부와 천도교(天道敎)의 청년연합회 형평사(衡平社) 등의 주요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을 쟁취하고자 하여 만주 길림에 회집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활동을 시

작하다가 재작년 12월 28일 동 당원 중에 일명인 이동락(李東諾)(39)가 ‘하얼빈’으로 가는 도중 장춘서 일본인 관헌의 손에 체포되는 동시에 비밀서류까지 전부 압수를 당하고 당원 심○망 없이에 체포된 고려혁명당사건은 그 중에서 한명만 면소되고 나머지 15명은 지난 4월21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제령 제10호 위반 강도 살인 방화 등의 죄명 하에 무기로부터 최대 2년의 판결을 불복하고 평양복심법원으로 넘어온 이래 7개월 동안이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오던 중 정원웅(23), 이원주(25) 방찬문, 이용만(29)의 네명은 공소를 취하하고 목하 평양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나 그 외의 권기리 등 그 외 7명의 복심 공판이 지난6일 오전 10시30분에 동법의 형사 법정에서 경판사, 주심 상야, 국지방라사 배심 석현 검사 입회, 한근조, 최○묵, 이희덕 세 변호사 참석으로 개정되었는데 방청석에서는 공판정에서나마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고자 지방에서 모여 온 친척들과 동지들로서 글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피고들이 용수를 벗고 미소의 목례를 건네면서 법정에서 나타나는 순간에는 실로 눈물겨운 극적 장면이었다.

【*독립’을 ‘○○’으로 처리

「東西離散하는 무산군을
구원함이 목적이다」

이동구 심리(1)

(중외일보 1928-10-08 / 2면)



예에의하여 주소 성명을 물었는데 성명의 상위가 있다 하여 피고의 질문이 있은 후 마침 이동구로부터 심문이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1926년 8월 29일에 만주 길림에서 최동희 외 몇사람과 같이 만나고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노라고 답변한 후 다시 자고의 소위 통치자라는 자는 특권계급과 자본계급만을 우호하고 무산대중에게 거침없이 하여오는 ○○수단과 ○○수단으로 인하여 의식주 삼자에 곤궁을 당하여 동서남북으로 이산하는 참상을 그저 불수가 없음으로서 무산대중을 구원하고자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다고 설명하니 이번에 재판장은

재: 어찌하여 ○○* 단체 정의부와 종교 단체 천도교와 또 형평사가 합동하게 되었나.

피: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서로 말할 것이다.

재: 그러나 첫 번은 정의부에서 주창하지 않았나

피: 그렇지 않다.

재: 정의부가 주창자가 되어가지고 천도교와 형평사를 가입 ○○○○케 한 것을 '러시아'에서 자문을 얻고저 한 이치

피: 그렇지 않다

재: 그러나 암호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나

피: 그야 암호로 단지 '러시아'뿐이 아니라 각 혁명당은 호상원조할 것이다.

재: 고려혁명당의 강령은 어떠한가.

피: 계급사회 제도를 부인하고 ○○○○ ○○○을 ○○○당하여 ○○하는 무산대중을 ○○하여 일치행동을 취하여 자유와 평등의 인간애가 흐르는 이상적 ○○를 ○○○하려함이다.

[*재는 재판장]

[*독립'을 '○○'으로 처리]

[*피는 이동구]

통역의 불충분을 입회 변호인이 항의
장래방침 등을 웃고 증결

이동구 심리(2)

(중외일보 1928-10-08 / 2면)



재: 혁명당의 목적이 성공되면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아는가?

피: 그야 물론이다.

재: 그러면 '러시아'와 같이 하자는 말인가

피: 나는 무식해서 '러시아'는 모른다.

재: '러시아'도 모르고 어떻게 혁명당을 조직하였다.

피: 그야 '러시아'가 마침 혁명되었으니 '러시아'를 운운이지 그것을 모른다고 혁명당을 조직할 바 아니다. 오직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면 그만이다. 이 때에 이 변호사로부터 통역이 서투르다고 경고를 밝혔다 계속하여 형평사에 입사 한동기와 혁명당에서 책임비서의 직분의 유무를 문답한 후 다시 재판장은

재: 장래에 하고자 하는 방침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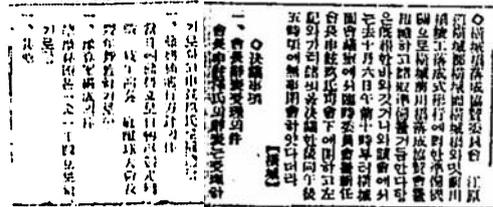
피: 마침 ○○○○을 조직하고 내부로는 주인자의 단결, 외부로는 세계무산대중과 단결하여 계급주의와 ○○○○를 ○○한 후 그를 높이 두루 떠봄을 한껏 두드릴 때 우리의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이로써 심리는 끝나고 잠시 휴정하니 오후 1시40분

오후2시에 다시 개정한 후 김봉국의 심리에 들어가

횡성고 낙성 협찬위원회

(중외일보 1928-10-11 / 4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횡성리와 밀 횡천교 준공 낙성식 거행에 대한 준비기관으로 횡성남천교낙성협의회를 발족하고 제반준비를 거듭한다함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의회에서는 지난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횡성면 회의실에서 임시위원회를 신임회장 신현구씨 사회하에 개하고 좌기와 같이 제항을 결의한 후 동 오후5시에 무사 폐회하였다더라. 【횡성】

◇결의사항

1. 회장 사표 수리의 건
회장 신○○씨의 사표는 수리하기로 하고 신현구씨로 추천함
1. ○○○○○행 ○방침의 건
상일에 ○○○으로 자동차경주 도모, 기생 연주, 축구대회 및 ○년 무○하기로 함.
1. 예산안 편성의 건
본 예산액은 일금 1천원으로 하기로 함
1. 기타

지방시론 황성 청년 제군에게!
황성지국 又堂
 (중외일보 1928-10-12 / 4면)



어떤 사회였던 시대를 물론하고 그 사회 그 시대의 책임자는 청년인 것은 이제 경험할 필요도 없다. 그럼으로써 청년 제군은 필연적으로 전체사회가 가장 중차대한 사회적 의무와 전위부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년 제군의 역사적 대사명이 나날이 증대한 것은 제군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 투쟁을 과장치 않으면 제군의 생은 존재에서도 그다지 필요를 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제군의 과거를 회고할 때 옛인으로서는 한층 청년 제군의 사회적 임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적이었든지 피동적이었던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황성 사회에도 청년회이나 뜨는 노동회 아니하고 기관에 사회단체가 있어서 회관을 건축하고 한편으로는 농촌 문맹퇴치나 또는 단체 부속

이나 하고 일시적 감정에서 활동하던 그 찰나에 서막을 이제 와서 일단에 한영으로 변하고 말았다. 기관 노동 야학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끝으로 한말을 더하면 제군의 ○력 ○을 통일 ○중하고 있는 황성청년회를 하루라도 속히 성사시키기를 소망한다.

[*우당은 신영순

도박술로 금전 사취 도주
경찰은 진범 엄탐
 (중외일보 1928-10-19 / 4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내 嚴千五 집에는 며칠전부터 원적을 충남 서천군 ○암면에 두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李○學(42)이라는 자가 유숙하면서 오락적으로 엄천오와 도박을 하였는데 당초부터 전기 엄천오방에 유숙하게 된 원인을 들으면 원주읍 내 朴○○이라는 자가 엄씨에게 와서 전기 이○학이라는 사람이 도박술이 교묘하여 상당한 도박술이 있으니 배우라고 권유함에 그날부터 유숙하게 되어 전기 이○학은 엄씨에게 말하되 일금 270원을 등글게 맡아서 양편에다가 ○옥을 칠한 후에 교대 포지하면 그 돈에 속사되어 도박술이 능○하여진다는 몽매한 류구로 며칠

동안을 그와 같이 교계하던 바 지난 10월 14일에도 역시 전기 엄천오의 돈주머니를 교대 포지하고 그 즉시로 후천교 방면에 가서 신공을 하여야 된다고 나가서 아니 들어오므로 전기 엄씨는 탐문한 결과 도주한 것을 확실히 알고 대당황하던 중 횡성 경찰에서는 진범을 엄탐하려고 방금 소개인 전기 朴○學을 유치한 후 엄중환 취조를 거듭한다는 데 아직 진범은 잡지 못하였다더라 【횡성】

고려혁명당원 복심판결 언도
徐, 朴 양인 무죄 최고 이동구 5년
금년은 흉년이 들었다 한 즉
사오년 밥벌이나 하도오마
퇴정 피고의 양천대소
 (중외일보 1928-10-20 / 2면)



고려혁명당 피고사건의 복심 공판이 지난 휴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개정되어 심리를 마친 후 립히 검사로부터 1심과 같이 구형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10월 〇일 동법원 형사법정에서 공판을 계속

개정하고 경 재판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언도가 있었다는데 당일도 이른 아침부터 구형보다 얼마나 가벼워질까 하여 초민한 기색으로 멀리 경성, 신의주, 성천 등지에서 모여든 친척 동지들로 공판장은 만원을 이루었으며 피고 李東求* 의 7명은 다 각기 씩씩한 얼굴로 미소와 목례를 방청석과 교환하면서 출정하였는 바 재판장은 피고 여러 사람을 불러 세우고 범죄 사실을 일일이 낭독한 후 다시 말을 계속하여 ‘피고 등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요 민족 해방운동자로 인정하는 까닭에 특별히 경형에 처한다’ 말을 마치자 피고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묵묵히 섰을 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징역살이를 하라는 말이냐고 말을 계속하고자 하다가 허락하지 않아 중지하고 공 50분에 퇴장하였는데 용수를 쓰고 퇴장하는 순간에 김봉국은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형무소 안에서 들으니까 금년은 흉년이 라는데 나는 한 3년동안이나 밥이나 벌어 먹다가 오마’하며 오히려 양천대소하였는데 당일 무죄의 판결을 받은 서광훈, 박기돈의 2명은 4년 동안이나 같이 신음하다가 먼저 출옥하게 되었음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듯이 보였더라. 【평양】

- 이동구 : 5년
- 김봉국 : 4년
- 송 헌 : 3년
- 오성한 : 3년
- 이동욱 : 3년
- 홍병기 : 2년
- 200일 면산(각통)
- 박기돈 : 무지
- 서광훈 : 무죄

*이동구는 횡성 출신

수재 구제, 구제 음악성향
동아, 중외 양 지국 주최
(중외일보 1928-10-23 / 4면)



관북동포 이재의 참상을 접한 동아 횡성 지국과 본보 횡성지국에서는 비절참절한 제 동포의 ○○○○의 만분의 일이라도 동정코자 지난 10월 19일 오후7시부터 횡성공회당에서 관북 수재 음악회 ○구상씨의 개최사로 개하고 십수종의 음악과 당시 진○관과 당춘관의 요리점에서는 기생을 무료 제공하여 당시의 흥미를 진진케 하였는데 중흥직 경리사로부터 관북 수재 상황 보고를 한 후에 참으로 동포애가 넘치는 동정루를 가지고 있는 일반 관중은 순식간에 잃은 것을 애석해하고 ○○동포 ○사 하였는데 동정한 공수는 좌와 같다 더라. 【횡성】

△10원 고림 △5원씩 상춘관, 김삼유, 우당, 양평명씨, 대판자동차부 횡성대리점 추종옥 △금3원씩 ○철수 심중○ 횡성노농동맹 △2원씩 ○○○, 탁명수, 금강소년회, 조쟁 △1원씩 박창성 조○흥 이거설 이성○ 임학빈 ○○○○ 원홍○ 김성근 ○○○ 정교삼 김○○ 조○주 이견중 ○○○ 구영○ 동일상점 신○산 ○인춘 ○상우 ○○○ △금10전씩 박인춘 김창수 윤태인 이○○ ○○○ 김봉균 유○ 석○ 주 환○○ 이○○ 민○○ 기생조○○ △금1전씩 진○관 심○흥, 김연심, 김계월 △백미1두씩 유기정, 최○○ △입장료 수입 10원 △총합계 98원

횡성 시내전화 내월 중순 개통
(중외일보 1928-10-28 / 4면)



강원도 횡성의 시내 전화 교환 개시에 취하여 체신국에서 과반래 차의 계획을 진행중이던 바 26일부터 가입 신청을 수리하기로 되어 11월 중순 내에는 교환을 개통하게 될 터인 바 가입 예정수는 약 40명이라더라

횡성군의 축산품평회 동업조 주최
(중외일보 1928-11-12 / 4면)

횡성노맹 임총
(중외일보 1928-11-12 / 4면)

橫城郡의 畜産品評會
同業組主催

江原道橫城郡畜産同業組合主催
呈林社牛品評會橫城牛市場內
於十一月四、五兩日間開會
評定全道各般畜産品之品質
略記評定如左하다 特別功賞
郡內日田川柳順子 功賞長軒安成
總功賞次子다리 【橫城】

○受賞者氏名

一等賞 晴日園基村具伊大藏
二等賞 晴日園春堂具伊應彰
三等賞 陽川園島原具金容錫
四等賞 屯內園石川具怡光
五等賞 甲川園甲川具順貞永
六等賞 公模園鶴谷具李英中
七等賞 甲川園檢坪具李求再
外十名

四等賞 井谷園上伴佐谷鼠
金價銀外二十名
出陣銀數 七十二圓
功賞銀數 三十六圓
總想投票形解者四名

橫城勞盟臨總

江原道橫城郡區內橫城勞盟同盟
於十一月八日八日午時八
時中央執行委員長尹奉煥氏司
會下對第十回臨時總會開會計
고如左한決議力有計안다리

決議事項

一、前川工事의件
一、關北水災救濟의件
一、勞働者福利의件
一、教育의件
一、國庫券發行의件
一、社會福利의件
一、社會整理의件
一、實業調査防止果李德石外二十
三名之不誠分子呈願計고錄名
計가對會의執行委員會에一任
하기로한

財政問題
一、共同勞作의件
一、衛生擴大의件
一、會費整理의件
其他

강원도 횡성군 축산동업조합 주최로 축
산우 품평회를 횡성 우시장내에서 지난
11월 4, 5일간에 개최하였는데 금번 품평
회의 상황을 약기하면 좌와 같았는데 특
히 횡성군 청일면출장소는 가장 양호한
성적이였었다더라. 【횡성】

◇수상자 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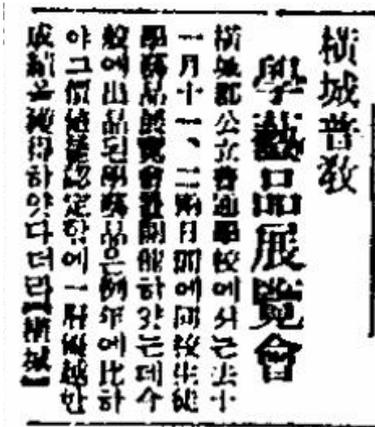
- 1등상 청일면 전촌리 洪大○
- 2등상 청일면 춘당리 尹熙衫
- 3등상 우천면 조원리 金容錫
- 4등상 둔내면 석문리 徐圭元
- 5등상 갑천면 갑천리 ○寅永
- 6등상 공근면 학곡리 李英中
- 7등상 갑천면 유평리 李求再

강원도 횡성읍내 횡성노동동맹에서는 지
난11월 8일 오후8시에 중앙집행위원장 尹
奉煥씨 사회 하에 제10회 임시총회를 개최
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가 정하였다더라.

결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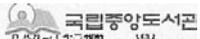
- 1. 전천공사의 건
- 1. 관복수해 구제의 건
- 1. 노동야학 개최의 건
교육부에서는 내12월0일부터 야학하기
로 하고 제경비는 ○○○에 일임하여
처리토록 할 것
- 1. 회원정리의 건
○○조사한 결과 李억석 외 23명은
불성분자로 하고 제명하기로 하고 집
행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
- 1. 재○○○
- 1. 공동경작의 건
- 1. 축우 구입의 건
- 1. 회관담초의 건
- 1. 기타

횡성보교 학예품전람회
(중외일보 1928-11-18 / 4면)



횡성군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 11월 11, 12일 양일간에 동교생도 학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금번에 출품된 학예품은 예년에 비하여 그 가치를 인정함에 한층 우월한 성적을 획득하였다 하더라.

【횡성】



橫城紹介版

高句麗時橫川縣이 李朝時이橫城郡

總面積五十九方里

一沿革一 郡城在內... 一位置一 郡城在內... 一人口一 郡城在內...

京江線中央處

交通要因通五達一

產業이漸次興旺

林業이漸次發達可慮

教育施設이不備

各機關學校及企業

全部八個의 各社會團體

(高平市現狀)



八省以上の小作農

地主對考學이必要

離地古蹟

地山古蹟

宗教界

其現狀

祝 開通落成

橫城郡廳職員一同

電話四番

遠藤國太

電話九番

申 鍾 玖

高林喜代太

卓 命 洙

韓周錫商店

朝鮮衛平社總本部

橫城支部

常 春 館

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井谷面事務所職員一同

森林組合支部職員一同

屯内面事務所職員一同

甲川面事務所職員一同

淵川面事務所職員一同

關 東 商 會

孫 沐 夏

大塚 誠 太郎

電 內 警 察 官 駐 在 所 職 員 一 同

晴 川 公 立 普 通 學 校 職 員 一 同

金 振 生

公 益 商 事 務 所 職 員 一 同

횡성소개판
고구려시 횡천현이 조선*시에 횡성군
기온 토비한 천부금당 총면적 59방리
 (중외일보 1928-12-05 / 4면)

수심은 비록 낮으나 수류가 끊이지 않아
 〇〇에 족하므로 미곡 산출이 적지 않아
 매년 타지방으로 이출된다.

【인정】 본도는 원래 암하노불이란 명을
 득한바와 같이 인심이 순박하며 언어는
 경기와 접하여 경기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풍속에 특이한 점은 별로 없으나
 산남지방 기타 각지방으로부터 오는 화전
 민과 상인의 지래로 매년 이주민이 증가
 됨에 따라 인정과 풍속이 야박해지는 상
 태에 있다.

[*이조는 조선의 비하]

1만300호 5만8천여인 日人 호수 59호
(매일신보 1928-12-05 / 4면)

【연혁】 횡성군은 고구려 시대에 횡천현
 이라 칭하고 어사매라고도 칭하다가 신라
 조에 이르러 횡천을 삭주영현이라 개칭하
 고 그 후 이조* 태종 14년에 이르러 횡성
 군으로 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치】 는 강원도 서남부에 재하여 동은
 평창군, 남은 영월 원주군, 북은 홍천군,
 서는 경기도 양평군의 경으로서 연장이
 동서로 12리 〇〇정이고 남북으로 6리 22
 정이니 군 일주 리정이 25리 5정이라 동
 북방으로는 산악이 많으나 시세가 수려하
 고 임목이 울창하여 목재며 목탄 등이 많
 이 생산되고 양부방에 이르러 점차로 지
 형이 낮아지고 평원 광야가 전개되어 횡
 성이 유명한 전평으로 되었다. 한강의 지
 류되는 갈이천, 랫천, 준천 등이 있는데



본군의 총면적은 59방리로서 군일〇 이
 정이 24리 5정이니 답 2,305정보 전
 1,222정보 평야면적이 72,221 정보가 있
 다. 군민 총호수는 10,393호요 살림수가
 11,240호에 58,640명이요 일본인 호수가
 59호에 남 93, 여83명 계 176명 중 〇인
 호수 3호 인구 9명이다. 이를 취업 별로

보면 총인구의 8할 이상이 농업 목축업자이며 그 외는 상업 공업 기타 종업 등 경지 측면적과 총인구를 비교하면 매입당 이용 빈민이 8할에 이르러 1년 동안 신고의 결과로 수확한 것은 지주에게 세금으로 들어가고 적자 공수로 기한에 우는 자가 실로 세기가 어려울 정도이니 이것이 현금의 상태이다.

경강선 중앙처로 교통은 4통5달
(중외일보 1928-12-05 / 4면)



본군은 동서남북으로 사통오달한 중앙에 처하여 동서로는 경성 강릉선이 통하고 남북으로는 흥천, 원주를 관통한 김화 충주선이 연하여 있으니 승객 자동차, 화물 자동차, 우마차 등이 있어서 내인 거객의 편과 화물 운반의 이가 있어서 조금도 불편의 〇이 없으니 도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김화충주선 2등로 경유 3칸 연장이 4리31정16문 △경성강릉간 2등로 경유 3칸

연장 6리20정24문로 △횡성-평선 3등로 경유 3칸연장 〇〇17정48문로 △횡성안흥선 3등로 경유 3칸연장 3리58문 △횡성진부선 3등로 경유 2칸9리14정32문이상 교통에 대하여 〇한의 둔내관은 횡성에 대한 〇〇중심지라고 계획의 둔내면리 문제는 횡성을 〇에(중략)에 제한대 동고로 인민들의 사고도 불문하고 고 투객다하여 둔내 부착면공사에(중략) 도로 착수한 이래 무고히 중지를 시킨 후 문설의 보고를 받지 못하니 당국자 의향은 여하한지 고 대약시.

도로 개수를 따라 산업이 점차 흥왕
식수치 않고 채벌만 하는
임업의 전도만은 가려
(중외일보 1928-12-05 / 4면)



본군은 수륙 교통이 불편한 관계상 상업이 발달이 지연하였으나 도로 개수를 통하여 점차로 흥왕하여지며 축산은 물론 자연의 힘에 의하여 농업과 축산 등 〇세가 풍부해 우리의 생활상에 안정을 주니 이제 그 현상을 보니

【농업】 전체군 호수의 8할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경지는 답5,305정보, 전이 1,122정보로서 주요 산물로 벼, 보리, 대두, 소두, 깨, 대마 등인데 농업 당국자의 처사 개량과 우수 품종에 〇중 〇〇한 결과 연 수입액이 증가하여 대두 32,000석, 백미 41,600석이니 수확량이 매년 초과되는 상황이다,

【축산】 농가의 부업으로서 근처의 산야초를 이어서 목초가 풍부하고 또한 목축을 양하여 비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사용하니 일거양득이라 하겠고 중요 목축으로는 소, 돼지, 닭 등인데 소 8,100두 돼지 4,000두, 닭 30,000수이다. 이상 중 소는 품질이 양호하여 수출이 많음으로써 연산량도 평이하다.

【잠업】 본지방에 중요산물로써 기후가 〇〇하여 풍토상으로 보더라도 양잠업에 적당하여 금년도 양잠업 현황을 소개하면 춘잠 사육호수가 3,590호 추잠 사육호수가 2,120호이요 소립목비가 춘잠종 4,465목, 추잠종 2,512목으로서 춘,추잠 수확량이 3,100석에 달하여 가격은 천만원 이상에 이른다 한다. 연내 잠사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있다하나 여하간 농가이 일시 금융상 활로를 열어줌에는

일번이 된다.

【임업】 본군은 산악이 높지않고 험하지 않아 삼림이 정밀하므로 시탄 등도 건축용에 족하다. 그래서 채벌에만 열중되어 식수 개념이 없으니 훗날 일이 두려운 감이 없지 않다.

교육시설 불비 전군 8개면에 보교가 4개 유치원의 증설과 실업교 설치를 기망 (중외일보 1928-12-05 / 4면)



현재 본군내 교육기관으로는 본교 4개소, 심상소학교 1개, 유치원이 1개소 뿐이다. 신사조를 따라서 일간 초당 십수 아동이 회집하여 (중략) 불충분한 탓으로 교육란이 벽이 높은 탓에 당국자는 하루라도 속속히 대개 농촌어민의 자제로서 보교 졸업도 근근히 마치고는 실업교 정도나 상급학교가 없는 탓에 공부도 중도에 그치고 1개월 총 10원의 자금생활 방편을 운동하여 규시하다가 이는 외지 않으면 낙심하고 부랑의 청년이 되고 마니 이 어찌 목시할 바이라. 하루 바삐 실업교를 설치하여 실업가정 배양하기를 바란

다. 고어에 3세에 배운 것이 80에 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지방 자네들은 공부시켜 장래 유망한 인격을 성하는데 유치한 시대로부터 성격을 잘 배양함에 이다 그러면 유치원이 더 필요한 것인데 현재 유치원 1개소가 읍내 상리에 재하니 아동 수 40여명과 〇〇 1인이 있어서 현재 청년회관을 석찬삼씨가 헌신적으로 노력중이다.

전부 8개의 사회단체 그 연혁과 현상
(중외일보 1928-12-05 / 4면)

全部八個의 各社會團體 (그沿革과現狀)

○ **橫城青年會** 橫城青年會는 1920년에 48명의 회원을 가지고 창립된 것인데 이래 해회에서는 다단중우한 문제를 난파하고 67000을 같이하여 황성청년운동에 많은 〇〇를 하여 거경에는 20여간의 회관까지 건축하여 황성사회에 유일무이한 연회장으로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연중 1차의 회도 없게 된 것은 〇〇내에서 얼마나 비투쟁적인가를 잘 알수가 있다. 현재까지 간관까지도 볼 수가 없어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해당단체는 청년운동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무의식 단체이다. 작년 이래 조선청년총동맹에서 규범된 군부

○ **橫城榮譽同盟** 橫城榮譽同盟은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金剛少年會** 金剛少年會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橫城普校同窓會** 橫城普校同窓會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橫城商業組合** 橫城商業組合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內內青年會** 內內青年會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隔川振興青年會** 隔川振興青年會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 **橫城衛生支部** 橫城衛生支部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이 단체는 1928년 11월 1일에 창립된 것으로서 100여명의 회원을 가진다.

황성 사회단체의 현상을 증거하여 사회 단체의 필연적 임무는 인식 내지 실천과 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단체의 존재 성에서 탈〇적 현상을 지지한다면 자체 내지 전체 사회에 이상 손실이 없으며 이상 오해가 없을 것이다. 원래 황성 사회단체라는 것은 과거 31운동의 여파로 급한 변형적〇〇를 기형적으로 양양한 것이며 또 단순체조직가 비체계내 지방 할거주의 단체로 수년간을 지배하여 왔을 뿐이다. 그리하여 오직 봉건사상에 절대 극〇디고 말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황성사회단체라는 것은 전체사회에서 가장 인정부 〇〇가 아니면 안 된다. 많은 사회단체의 역사적 내지 공동 이해 전장에서 일치한 작〇이 아니면 오히려 무의식적 반동단체로 자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〇〇에 있다. 그러면 소위 청년단체로 있다는 황성청년회부터 일고하기로 한다.

【황성청년회】 황성청년회는 1920년에 48명의 회원을 가지고 창립된 것인데 이래 해회에서는 다단중우한 문제를 난파하고 67000을 같이하여 황성청년운동에 많은 〇〇를 하여 거경에는 20여간의 회관까지 건축하여 황성사회에 유일무이한 연회장으로 되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연중 1차의 회도 없게 된 것은 〇〇내에서 얼마나 비투쟁적인가를 잘 알수가 있다. 현재까지 간관까지도 볼 수가 없어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해당단체는 청년운동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무의식 단체이다. 작년 이래 조선청년총동맹에서 규범된 군부

단일 청년 동맹 문제로 인하여 과령회원과 비과령회원간에 회피의 형을 생케된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니면 안된다. 물론 그와같이 불리하고 또 비논의적 층들은 쌍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 한편 비과령자측이 사념불급하였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 기피는 비합법적 견지에서 할 논의일 것이며 오직 합법적 운동에서는 의당히 적임회원으로선 연선 경입하여야 할 것이다.

【**황성노동동맹**】 황성노동동맹은 원래 황성노동회의 후신으로 금년 4월분에 창립된 것인데 현재 해당회 회원은 200여명에 대수를 접한 것은 양적 현상으로는 황성사회의 중추라고 아니볼수 없다. 창립연월이 일천하니만치 여시한 유기적 신규상은 아직 볼수 없으나 금후에는 황성노동계급의 중추단일 것을 자신한다.

【**황성형평지부**】 황성형평지부는 조선에서 형평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될 당시에 창립된 것인 역시 형평운동의 총본영인 조선형평사 총본부의 통제지시에 응하여 형평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 전체가 무의식계급에 있다고 생각한다.

【**둔내청년회**】 둔내청년회는 금년 6월분에 회장 김○배씨 예하 30여명이 회원으로 창립된 것인데 당회에서는 무산아동문맹퇴치에 주력한다.

【**우천진흥청년회**】 는 금년 7월 분에 우천면 청년 40여명이 창립한 것인데 주로 산업진흥과 농촌 청년 부양운동에 주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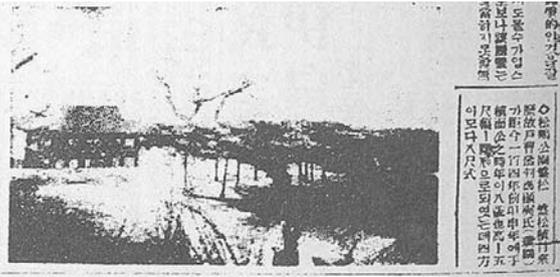
면서 현재에는 김진생씨가 많은 진력을 다한다더라

【**금강소년회**】 금강소년회는 황성소년회의 후신으로 조선소년총동맹에 지시 연락으로 소년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30여명에 달한다더라.

【**황성보교동창회**】 황성보교동창회는 해교 졸업생으로 조직된 것인데 창립연월이 장구하니만치 소유 재산이 수백환에 달하여 작년도에는 황성악대까지 편성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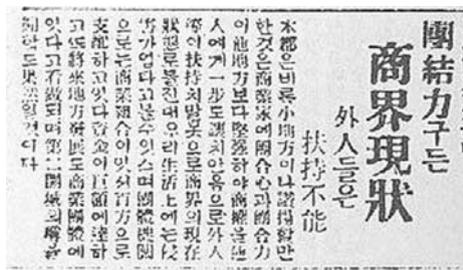
【**황성상업조합**】 황성상업조합은 10여년 전에 황성상업 송제씨의 발기로 조직된 것인데 해당조합에서는 외부침입 방지와 상업가간 저자 율통과 친선을 도모한다는 3대 강령에서만 활약을 하는 바 현재에 조합기본금은 3,000 4,000원에 달하여 상당한 상업단체로 있으며 작년 이래 당조합에서는 황성에서 가장 유지에 곤란한 화성유치원에 대하여 많은 물자를 제공하였다는 것 같이 당조합의 특이한 미담이라고 생각한다.

송림공원 반송
(중외일보 1928-12-05 / 4면)



반송이 이 마을에 있게된 내력은 호조참 판을 지낸 ○원석씨(○○)가 지금으로부터 104년전 묘신년에 직접 심었는데 8년 키운 나무였다. 높이는 5척 너비는 ○형으로 되었는데 사방이 모두 8척씩이다.

단결력 굳은 商界 현상 외인들은 부지 불능
(중외일보 1928-12-05 / 4면)



본군은 비록 소지방이나 찬양할 만한 것은 상업가에 단합심과 연합력이 타지방보다 건강하여 상권을 타인에게 일보도 양

치 않으므로 외인 등이 부지치 말못으로 상계의 현재 상태로 볼진대 우리 생활상에는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체기간으로는 상업조합이 있어서 백방으로 지배하고 있다. 자금이 거액에 달하고 또 장래 지방 발전도 상업 단체에 있다고 간고되며 제2 개성이 칭을 득함도 가연일 것이다.

8할 이상 소작농 사음 횡포에 신음 지주의 고려가 필요
(중외일보 1928-12-05 / 4면)



현금 있던 지방을 물론하고 지주와 소작인 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관계로 인하여 3남 일대에서 ○○한 소작 쟁의가 봉기되거나와 특히 강원도 지방에 있어서는 아직 봉건 생산 관계를 면치 못하여 돌연 중에 지주와 소작인 간에 불균형 상황을 ○○하는 편이 적지 아니하거나와 횡성지

방에 실현 관행되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말하면 전부 어떠한 곳을 물론하고 대개가 병작제도인데 횡성지방은 원래 외지인의 소유 토지가 불소하므로 사슴들이 추수기면 물밀 듯 하여 추수관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사슴이라는 것은 중간 착취자 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은 2, 3년 내로 사슴들의 부당처사는 일가월증하여 소작세에 대한 부당한 ○○를 가하고 있다. 즉 소작 ○○이 등과 추수 ○○에 부당 착취는 가장 극심하여 비절참절 한 소작인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폐단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반식반공하여 가면서 1년 ○에 고○○○ 입하여 그날 그날의 생을 연장하려는 가려무○한 소작농은 작금 연내로 이주 등이 증가하여 가는 형편인데 제일 사슴으로서 ○○ 8할 이상을 점유한 소작농에게 개혁하여 불○의 행동으로 ○○한다면 횡성전역 소작대중을 위하여 ○○불 ○할바이다. 그 중에도 ○○○은 소작농에 대하여 불쌍 ○○를 가중 연 50 이상의 일을 지주에게 ○○시키면서 있는 바이요. 그것을 일임 가격으로 환산하면 50원 이상의 노임으로 제공하고야 만다. 이것이 자연 생산의 소작 분배제도라 하면 소작인은 과연 얼마나 한 불리를 말하고 있음이라 만은 소작인들은 불가항력이라는 무○원만 비운에 싸여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있는 횡성군의 소작인과 지주의 관계를 불지라도 극히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동시에 지주 및 사슴은 일반 ○○한 ○○을 ○할 바이다.

승지와 고적

(중외일보 1928-12-05 / 4면)



【덕고산】은 읍내로부터 동편 약 8리 되는데 홍천 둔내 강릉지계에 재하니 산맥은 오대산으로부터고 속칭에 전하기를 태기산이라 칭하니 삼한 시대의 태기왕이 피병한 땅이라 한다. 현재까지 성내에 우물, 집, 군량창의 형적이 있다하며 목산중에 봉복사가 있어 사찰은 웅장치 않으나 산수 풍경이 극히 가려하여 유산객 피서객 등의 제1휴양지이다.

【용암】은 읍 동편으로 약 16정 정도되는 서천 상류로써 천변 반○가 수십간이 되며 물이 들이차면 기이상 형상은 형용키 어려우며 ○○에는 ○○하면 밤중에

○살린다.

【약수】 읍내 동편 17정 허○암 전면으로 는 후천 청계가 가득하고 배후산곡에 약 수가 용출하니 수량이 풍족하고 백병에 효험이 많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병자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인데 읍내 부근에 있어서 경치가 좋으며 장래 유명한 약수가 될것이며 횡성 명승 중 일번이라 하겠다.

【여의계】 는 읍내로부터 약 70리 되는 갑천지역에 있으니 수중 석재가 각기 소담을 만들었고 그 중간에 반석이 있어서 10여인의 자리를 할 수 있으니 ○에는 창벽이 둘러침과 같으니 포○하여 가관이라.

【횡성공원】 읍내 후편으로 평저한 산원이 좌우로 병풍같이 포옹하였고 전면 반공에 ○립한 태풍루는 오직 옛 형적만 남기고 있다. 그 중간에 사시청청한 고립반송 1주가 일산의 모양을 만들어 주위가 12간이나 되어 하절에는 피서처로 최적이며 누가 첫 번째로 보던지간에 근강불기 하리рода.

【한강대】 는 읍내로부터 약 20정 되는 청룡지에 있으니 수류가 암상에서 낙래하며 경치사 절승한데 고 한상렬 선생이 우거 피상지라 한다.

【반구정】 은 청일면에 있으니 암하수류는 격렬하여 수벽사명 하고 전면으로 갈 풍춘락을 망견하면 경치 과승하여 고 한림李塘의 소견이라 한다.

종교계는 쇠퇴상태

(중외일보 1928-12-05 / 4면)



횡성 전군의 종교계를 일고하면 했으나 숙연한 상태에 있는 바 이것을 교계적 관찰로 레고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데 특히 북감리와 야소교로 말하면 전군에 2개소로 나누어 읍상리 횡성예배당은 반양식으로 약 500, 600명의 인원을 수용할만한 대건축인바 당교회 내에 있는 교도로 말하면 남녀를 합하여 12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부인들이라 하며 남자 총수인은 불과 23명에 달한다. 또 당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둔내면 야소교회는 약 4, 50명의 교도로 산간벽지에 우매한 농촌부인들은 강○한 교회임으로 당 교회에서도 역시 여자가 반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야소교회가 횡성사회에 침투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에 수입되었는데

원일동

물산객주 관동상회 전화 30번
조선주류양조장 손영하 전화 29번
횡성우편소장 대충성태랑
둔내금융조합 이사 김형배
둔내경찰관 주재소 직원 일동
청천공립보통학교 직원 일동
우천면 사곡리 김진생
서원면 6리 정규하
공근면사무소 직원 일동
공근공립보통학교 직원 일동

횡성팔경

(중외일보 1928-12-06 / 4면)



▲泰豐鼓角=貴年太守此○除
○兮美人天一群
○暮○○○夜○
自○雲月肖光○
鼓角餘音風浪浪
○○○○畫香花
○○○○人不見

傳名千古○官○

▲前南重○=柳暮○○○小亭
重枝○○鳥○○
浦○架○○新白
初夏昌○○過○
上○小婦○○恨
推○○○○○○
南○一○○人○
○○長江似洞○

▲後川○○=○陵古石○風調
○臥空江萬里長
○人○○○春好
○○○형진萬○芳
昔年愚○○移運
當○○工○寫○
○○○○水上
○汀明月自○揚

▲石田胡○○=○○高○無是非
由用多○明人○
○生眼老唯○何
不染行人自○衣
○能吐氣千洛○
○亦○毛七日○
畫楊坐冷王○賦
江天孤○共○飛

▲花蒙亭吟=亭爲花蒙邑相○
景似○○小一湖
琦○○百○○○
○○蒼○○涼
○○○來心失爽
短章○坐日○習
依然古○隨江渚

自是○人○○○
 ▲○浦長松=○頂○翁醉○泥
 ○涼深○○無○
 歲○天中呼雨河
 ○○○累入○師
 甫○風○千○幻
 草荒○○○○迷
 今至十○○記○
 ○名千古海東西
 ▲南山暮鍾=寺古山幽鳥好音
 有○往往落○林
 ○○微風迷渡水
 高○明月可○琴
 木○夜半客船○
 健足暮打僧○○
 ○花不掃何門閑
 萬樓秋楓怨古心
 ▲馬山草笛=馬山樵客○閑身
 草笛爲歌亦是艸
 鴻○暮南○○可
 牛皆○○共○眞
 不○梅花江○夏
 ○如楊柳玉門春
 ○○○○見○事
 空○八景感詩人

횡성면의 개선 내 5월에 시행
 (중외일보 1929-02-10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금년4월이 면의회
 원 만기가 되므로 오는 5월21일에 개선을
 하리라는 즉 현재 유권자수 1,249명에 달
 하여 문맹유권자가 270여명이나 필요로
 되므로 오는 5월21일까지 문맹 유권자에
 게 작문을 권장하여서 1인이라도 ○○이
 없도록 실행하리라한다.

횡성에서 대금광 발현
 (중외일보 1929-02-17 / 3면)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읍설리 운무산은
 원래에도 일반 관측상 광산으로 지정되던

바 지난해 10월 분에 우연한 기회에 전기 산에서 대 금광을 발견하게 되어 그동안 제반 수선을 거듭하던 중 지난1월 1일부로 조선총독부의 허가로 오는 음력 2월10 일경에는 확실히 개광을 하리라 하며 방 금 시굴을 한 결과 광맥은 1척이상 이라 하며 광맥은 〇포층에 7, 8전쫓 이상의 다량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서는 성적이 실상 이상에 달하리라고 일반은 추측한다 하며 금광주인으로는 횡성사회에서 재산가로 굴지되며 겸하여 지방명망가인 申鉉澤씨 이라더라. 【횡성】

횡성여자야학

(중외일보 1929-02-25 / 3면)



강원도 횡성군 읍내 엽윗 청년회에서 지난 2월 14일에 부녀의 문맹퇴치에 제일 선 사업으로 횡성여자 야학을 개강하고 방금 수업중이라는 바 생도는 80여명에 달한다 하며 각과정도는 갑을 양반으로

분하여 갑반은 보통학교 3, 4학년 정도이고, 을반은 역시 1, 2학년 과목이리는데 강사로 張聖俊, 李基千, 方仁淑 등 3씨가 무보수로 노력한다더라. 【횡성】

횡성의 독감

(중외일보 1929-02-25 / 3면)

橫城의 毒感	
橫城方面	死亡 一七三
隅川方面	死亡 一八七
井谷方面	死亡 一九七
屯內方面	死亡 一八七
晴日方面	死亡 一四三
甲川方面	死亡 一八七
公根方面	死亡 一八七
書院方面	死亡 一八七
合計	死亡 一七三

횡성지방에는 지난 1월말일 경부터 우연히 독감이 창궐하여 전국에 피병자수는 실로 9200여명에 달하고 그중 사망자는 격증하여 72명에 사망자로 대병재를 당하고 있어 일반은 유감*독화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극히 공포중이어서 대위생을 하고 있다는데 창궐에 원인으로 말하면 기후가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하여 큰 원인이 발생하게된 것이라 하며 강원도 위생과에서는 유감 예방에 우선으로 도기사를 병화지에 파견하여 근본적인 소탕책에 열중하는 중이라 하는데 유감 피해 정도를 전군, 각면별로 사찰한 통계를 보

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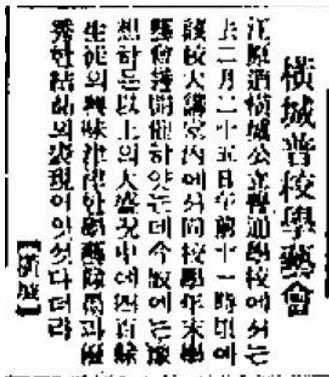
피해정도 면별 통계

횡성면 사망 : 3명	이병자 1,873명
우천면 사망 : 6명	이병자 929명
정곡면 사망 : 17명	이병자 1,976명
둔내면 사망 : 14명	이병자 887명
청일면 사망 : 16명	이병자 1,438명
갑천면 사망 : 4명	이병자 887명
공근면 사망 : 5명	이병자 620명
서원면 사망 : 7명	이병자 833명
합계 사망 : 72명	이병자 9,243명

[*유감은 유행독감]

횡성보교 학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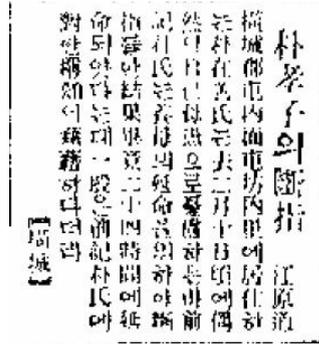
(중외일보 1929-03-01 / 3면)



횡성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2월 25일 오전11시경에 학교 대강당 내에서 동 학교 연말 학예회를 개최하였는데 금번에는 예상하던 이상의 대성황 중에 400여 생도의 진지한 학예용품과 우수한 결과의 표현이 있었다더라. 【횡성】

박효자의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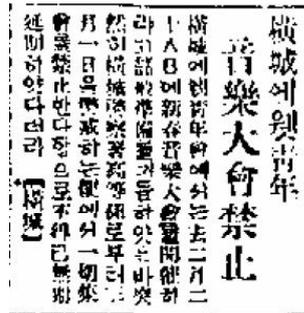
(중외일보 1929-03-02 / 3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거주하는 박재선씨는 지난 2월 10일경에 우연히 자기 어머니 병환으로 걱정하던 바 전기 박씨는 양모의 연명을 위하여 단지를 한 결과 필경 24시간에 연명되었는데 일만은 전기 박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더라. 【횡성】

횡성에 에윗 청년, 음악대회 금지

(중외일보 1929-03-04 / 3면)



황성에 기청년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에 신춘음악대회를 개최하려고 만반 준비를 거듭하였는바 돌연히 황성경찰서 고등계로부터 3월1일을 경계하는 편에서 일체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므로 부득이 무기 연기하였다더라. 【황성】

지방시론 황성사회의 급무
황성 지국 又堂*
 (중외일보 1929-03-08 / 3면)



영위 내지 전개하면서 있는 전민족단일당 결성 조직운동이 아니면 아니된다. 그는 왜 그러나 하면 조선사회에 객관적 제 정 세는 부단이 전민족 각층에 일상생활 내 지 사회 임무를 책임적으로 지시하면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 사회에서 최 선의 책략과 및 ○○을 전개할 때마다 자 체가 조선 사회에 개정 불변의 민중인 것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略 신간회가 경향각지를 물론하고 ○○○○운동과 및 만 ○운동지지 운동의 파죽의 세로 ○기 댔지만 ○민족당을 같이한 금일에 있어서 우리 황성사회에서는 아직껏 무○○중에서 ○몽행○된 ○○○할때에 너무나 사회 ○○에 ○○한것을 ○심불○하는 바이다. 황성사회에 ○막하고 명명함에는 너무나 ○○한 ○이 있으나 ○민은 어서 황성사 회로서의 ○대내 염원은 오직 신간 황성 회에 대한 ○○○까지 논○하라한다. 황성 사회에서 가장 유지로 자처하며 자아의 ○○을 ○○하라는 ○○유지제군에게 일 층 ○○하여 황성사회에 의○적 ○○○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원래 민족단일 ○○의 정○는 일찍이 ○ 현바와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이 며 우리는 조선○○의 ××× 총력 ○○중 에 ○○○○에 ○○되는 한에서는 우리의 생활은 ○○○중에서 최종에 ○○을 ○○ 하리라고 생각한다. 황성지방은 미래 강원 도에서는 중견 고○지에 처하여 그 ○○ 과 및○장은 ○○「제2개성」이란 명칭을 받고 있어서 가장 물적 이해 타산○○에

지금 조선사회에서 그 어느 것이 급하지 아니함이 있을까 만은 그중에도 가장 급 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민중 전체적으로

열중함은 자타가 공인○○하는바 사물이 나 상인 ○에서도 ××군 ○○에 ○○○○ 능○에 대하여는 일반운동○○에서 이상 적으로 현실되는 바이다. (중략)

그러므로 횡성 전 제군도 자체가 그만한 내외 정세를 가지고 있으니 만큼 자아의 이익을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군은 필연적으로 ○입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 ○에 있다. 현하 조선사회가 그만한 실정 에 있음과 같이 횡성사회에서 가장 ○○ ○○으로 처하여 있는 이○층에서는 염일 이 ○○군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해당지회 설치에 총력으로 불○한 ○○가 있기를 바란다.

[*우당은 신영순

**2대 문제로 둔내면민대회
봉평*도로와 乾藪장 문제**
(중외일보 1929-03-18 / 3면)



횡성군 둔내면은 전국제일선 중요 거점 으로 교통 발전의 ○연합과 민관 획득에 불리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던 바인데 횡성 봉평간 도로공사는 다년간 숙안이어 서 그간 둔내면민은 1만여명에 달하는 각 인의 노역을 소비하면서 당 공사 완공은 기대하던 바이며 둔내 건건장 건축문제로 제 면민의 절대 이해 관계의 초점이 되어 면민은 총동원하여 금반의 중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 내지서 실현하려는 의도 에서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에 둔내면 민 대회를 개최하고 여좌한 결의와 및 진 정위원을 선거한 후 산회하였다더라.

【횡성】

◇결의안

1. 횡성, 봉평간 도로공사와 둔내 건건장 건축 문제는 당국의 ○○○민이 태심 할 뿐외라. 실로 둔내면민의 사할 문제 인 즉 당국에 질문하여 목적을 도달치 못하면 도지사에게 진정하여 최의 방 법과 최후의 수단으로써 철저 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2. 본 진정위원으로 각리에서 구장 이외 에 경히 집행위원 1인씩 가선하여 면 민 대표의 임에 당케하기로 함.
3. 금반 진정 운동비용은 각 리 11동에 분담하기로 함.
4. 각 리 집행위원은 금월 12일에 군당국 과 도청에 진정하기로 함.

[*연평은 봉평의 오지

고령 열부 표창

(중외일보 1929-03-18 / 3면)

高齡烈婦表彰
 去三月十三日○橫城郡廳於春季
 禮典堂으로 이날을利用하여橫城
 郡廳校財產管理會에이른全郡에
 取在한高齡者及烈婦의面誌及
 橫城青年에對한表彰式을舉行하
 았는데當日에表彰을受賞한氏名는
 如左하다라 【橫城】
 ○表彰者 橫城郡隔川面項山里
 金順民(貞烈婦) 橫城郡井谷
 面下安興里崔貞一(烈婦) 橫
 城郡井谷面上弓宗里金八郎
 (孝子) 橫城郡甲川面新築里
 金達煥(模範青年) 橫城郡井
 谷面佳里川里林彰子(烈婦)
 高齡烈婦家趙吉鎬外二十名

지난 3월 13일은 황성군 향교 춘계석전
 이므로 이날을 이용하여 황성군 향교 재
 산관리회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고령자와
 덕망가와 면부 등 황성청년에 대한 표창
 식을 거행하였는데 당일에 표창을 당한
 씨명은 이와 같다더라. 【황성】

- ◇ 황성군 우천면 산리 김순민(정절부),
 황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최정일(절부),
 황성 군정곡면 상궁종리 金八間(효자),
 황성군 갑천면 신대리, 金達煥(모범청
 년) 황성군 정곡면 가리면리 林彰子(면
 부), 고령 ○ 留家 趙吉鎬 의 20명

청원우편소 신설

(중외일보 1929-03-19 / 1면)

請願郵便所新設
 總督府告示第七十七號에依하여
 請願郵便所規則에來二十六日부
 러左記郵便所設置認可가잇었다
 溫水郵便所
 京畿道江華郡古祥面溫水里
 平內郵便所
 江原道橫城郡屯內面自浦谷里

총독부 고시 제 76호에 대하여 청원우편
 소 규칙에 내 26일부터 좌기 우편소 설치
 인가가 있었다.

- 온수우편소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둔내우편소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6개소 우편소 26일 사무 개시
 (중외일보 1929-03-25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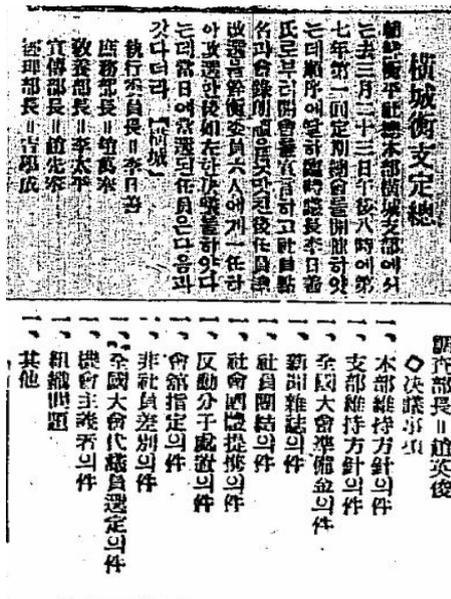
六個所郵便所
 廿六日事務開始
 逕信局에이러한細則에依하여各地
 郵便所의事務를開始하였는데
 二十六日부러左記의郵便所를開始하
 기로決定하였다라
 京畿道江華郡古祥面溫水里
 江原道橫城郡屯內面自浦谷里
 慶北道安東郡安東里
 全南道靈城郡島城院
 黃海道谷山郡文岩
 咸鏡道靈山郡內仲

우편국에서 계획 중인 아래의 각지 우편 소는 제반의 준비를 종료함 내 26일부터 일제히 사무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기도 강화군 온수
- 강원도 횡성군 자포곡
- 경북도 안동군 안교
- 전남도 곡성군 설송원
- 황해도 곡산군 문암
- 함남도 풍산군 내사

횡성 衡支 정총

(중외일보 1929-03-27 / 3면)



조선형평사총본부 횡성지부에서는 지난3월23일 오후8시에 제7년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순서에 따라 임시의장 李日善씨로부터 회의를 선언하고 사원 점

명과 회록 기정을 끝마친 후 임원진 개선을 전형위원 6인에게 일임하여 개선한 후에 아래와 같이 결의를 하였다는데 당일에 당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더라.

【횡성】

- 집행위원장=이일선(李日善)
- 서무부장=조만봉(趙萬奉)
- 교양부장=이태평(李太平)
- 선전부장=조선봉(趙先奉)
- 형평부장=길학성(吉學成)
- 조사부장=조영준(趙英俊)

◇ 결의사항

1. 본부 유지 방침의 건
1. 지부 유지 방침의 건
1. 전국대회 준비금의 건
1. 신문 잡지의 건
1. 사원 단결의 건
1. 사회단체 제휴의 건
1. 회관 지정의 건
1. 비사원 차별의 건
1. 전국대회 대의원 선정의 건
1. 기회주의자의 건
1. 조직문제
1. 기타

춘기 청결일속

(중외일보 1929-04-02 / 3면)

▲咸興 咸興警察署에서는 오선二十四, 五兩日間左記區別에依하여春季清潔法施行計가 되었다더라	▲廿四日 新洞里 東坪里 豐	▲咸興 咸興警察署에서는 오선二十四, 五兩日間左記區別에依하여春季清潔法施行計가 되었다더라	▲廿五日 廣興里 東洞里 鄭
▲橫城 橫城警察署에서는 施行計昭和四年春季清潔法日割은 다음과 같다더라 【橫城】	▲廿六日 北川里 奈之	▲廿六日 豐興里 東洞里 鄭	▲廿七日 玉海里 永水
▲廿七日 玉海里 永水	▲廿八日 介田里 馬山	▲廿八日 豐興里 東洞里 鄭	▲廿九日 豐興里 東洞里 鄭
▲廿九日 豐興里 東洞里 鄭	▲三十日 豐興里 東洞里 鄭	▲三十日 豐興里 東洞里 鄭	▲三十一日 豐興里 東洞里 鄭

▲ 횡성 횡성군 횡성면에서 시행될 1929년 춘기 청결검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더라

- 4월 25일 북천리 내지리 마옥리
- 동 26일 궁천리 송전리 조군리
- 동 27일 옥동리 영수포리
- 동 28일 개진리 마산리
- 동 30일 교항리 입석리 청용리 곡교리
- 5월 1일 목계리 가담리 갈목거리
- 동 2일 모평리 반곡리
- 동 3일 읍하리 읍상리

횡성 商組 정총

(중외일보 1929-04-03 / 3면)

橫城商組定總
 橫城商組組合에서는 五月三十日午前十一時頃에 橫城青年會館內에서 第十二年第一日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該組合發展에 對한 諸般意見과 財源을 樹立에 對하여 次橫城商組發展 理由를 詳述하여 論議한 바도 있겠는바 昭和三年度會計報告에 의하면 現存金額은 實로 一千六百九圓五十錢이며 其他 隨屬物及 財産은 永春 三斗 落山 倉庫一個가 잇다는 事實에 對하여 選舉된 員은 如하하다더라 【橫城】

新任員氏名
 會長 申鉉玖 總務 卓命洙
 監事 尹錫煥 尹泰年 理事 吳智善 書記 金會計 韓相禹

횡성상업조합에서는 지난3월 30일 오전 11시경에 횡성군 청년회관내에서 제12년 제1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해당조합 발전에 대한 제반의견과 토의를 거듭하고 장차 횡성상업진흥책 수립에 대하여서도 최선에 발전상 이유를 거하여 논의한 바도 있었는데 1928년도 회계보고에 있어서 현존 금액은 실로 1,609원50전이며 기타 수속물 및 재산은 수답 3두락과 창고 1개가 있다는데 당일에 선거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하다더라. 【횡성】

- 회장=신현구(申鉉玖)
- 총무=탁명수(卓明洙)
- 감사=윤석환(尹錫煥) 윤태년(尹泰年)
- 이사=오지선(吳智善)
- 서기 겸 회계=한상우(韓相禹)

횡성시민 위안 연주회

(중외일보 1929-04-03 / 3면)

△時 日 四 日
 △場 所 演 武 月 四 日
 △入 場 無 料
 △主 辦 中 外 日 報 社 橫 城 支 局

橫城市民慰安演奏會

- 시일 4월 4일
- 장소 연무장내
- 입장 무료공개
- 주최 중외일보사 횡성지국



*형성출신 최양욱의 공명단 우편운송차 습격사건.

昨曉頭까지 순차로 전부 피착
대담무적의 공명당 권총대
경춘가도에 신출귀몰튼 그 행적
천하 이목을 놀래이던 대사건도
살벌 공기 중에 일단 종언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지난 18일 오후2시 반인 백주에 경춘가도 마치현에서 경성으로 향하여 오는 우편자동차를 습격한 권총청년 3명은 대담하게도 왕래하는 자동차와 행인을 세월놓고 금품을 강탈한 후 조선 ○○* 만세를 고창하면서 유유히 잠적하였다가 20일 오전 1시 반경 월색이 흐르미한 송림 속에서 포위 수색하는 경관대와 충돌되어 3명 중金正連(35)만 경관대에게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밤이 밝은 20일 오전8시 반경에 철웅성 같은 경계망을 피하고 또다시 경춘가도인 망우리에 나타난 춘천으로 가

는 내선 자동차부 자동차를 습격하여 승객을 내려놓고 운전하여 가지고 35마일의 쾌속력으로 주중환 경계망을 박차고 무인지정을 질주하듯이 경성에 들어와 잠복하려 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찾는 정사경관대의 수색을 받아 동일 오후 11시 30분에 시내 황금정 1정목 48번지 박성재의 집에서 단원 중 자동차운전수 이선구(29)가 잡히고 21일 미명 5시 반에 시내 체부동崔相夏의 집에서 주범 최양옥(32)이 체포되어 40만 부민과 아울러 근기 일대를 진동시킨 사건도 이에 낙착되었다.

[*독립]을 '○○'으로 처리

경기관총대도 출동하여
혼수미몽 중 엄습 체포
여명 고가에 총검 섬홀 살기 등등
무장 정사복 경관의 연합 대출동
◇首犯 최양옥 피착 광경
(중외일보 1929-04-22 / 2면)



계엄 상태와 같은 서울의 밤이 하루를 지내고 다시 천지가 밝으려 하는 21일 새벽 5시 반경에 시내 종로서에는 공기가 긴장될 대로 긴장된 가운데 동서 삼륜(三輪) 고등계 주임이 총지휘가 되어 가지고 30여 부장 경관을 비롯하여 정·사복 경관은 물론이고 경기관총대까지 10여대 자동차에 분승한 후 질풍같이 시내 체부동 방면으로 달리어 가서 무장경관을 부근 일대에 배치한 후 동동 118번지 주류 제조업 박인서(朴寅緒·27)의 집을 습격하여 그 집 뒷방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꿈속에 파묻고 아무런 염려 없이 비단이불을 덮고 자는 조선 천지를 뒤 흔들어 놓고 최후의 한명으로 경찰의 손에 잡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주범인 강원도 원주 출생인 최양옥(35)가 드디어 형사대에 체포되었다.

관계자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 최양옥(32)
 평북도 용천군 양광면 충열동 906번지(송대 출신) 김정련(35)
 신의주부 노송정(전신의주부청 자동차 운전수) 이선구(29)

**돌입형사의 위협을 비소하며 증용 취박
 최후까지 태연자약하게 권총은
 석하에 은치**
 (중외일보 1929-04-22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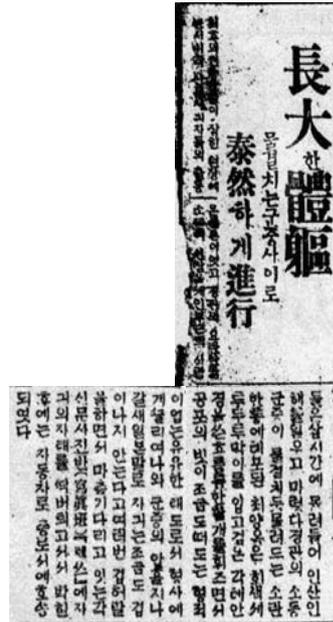
어느 누가 나를 잡으랴 하는 듯 한 유유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잠을 자고 있던 권총청년 최양옥이가 잡히던 당시의 광경을 보면 실로 보통 사람으로는 취하지 못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니 형사대가 문을 열고 그대가 최양옥이가 아닌가하고 손을 들어라 꿈쩍하면 쏘아죽인다고 위협을 하자 전기 최양옥은 너무 그리 서두를 것이 없다고 태연히 말을 끝낸후 내가 가지고 있던 총은 버들고리 위에 놓인 방석 속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한 후 웃음을 웃어가면서 형사의 포승을 안연히 받았다.

체포 時所
(중외일보 1929-04-22 / 2면)



20일 오전2시
천마산록에서 金正連 피체
20일 오후11시37분
황금정 1정목 48번지에서 李善九 피체
21일 오전5시반
체부동 118번지에서 崔養玉 피체

장대한 체구 물결치는 군중 사이로
태연하게 진행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최후의 권총청년이 잡힌 현장에는……
기자들의 출동은 물론이었고 경관의 요란한 출동 소문에 선잠을 깬 부근의 사람들은 삼시각에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았다. 경관의 소동 군중이 물결치듯 몰려드는 소란한 통에 체포된 최양옥은 회색 세투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 각테 안경을 쓴 허름한 활개를 휘저으면서 공포의 빛이 조금도 떠도는 행적이 없는 유유한 태도로서 형사에게 끌려나와 군중의 앞을 지나 갈 때 일본말로 자기는 조금도 겁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번 거꾸 말을 하면서 마침 기다리고 있는 각 신문사 사진반 렌즈에 자기의 자태를 띄고서 박힌 후에는 자동차로 종로서에 호송되었다.

“양 최의 관계 전혀 몰랐다”

주인 朴寅緒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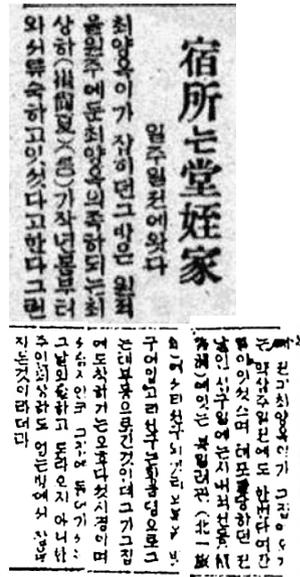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주인 박인서는 주류 제조업을 삼고 여덟 식구가 생활하는 터인데 권총 청년이 자기의 집 뒷방에서 자는 줄도 모르고 나중 에야 뜻하지 않은 분란을 받게된 주인 朴寅緒(27)는 의외에 당하는 일이라 떨리는 말로 “나는 최양옥이란 사람을 본래부터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3주일전인가 봅니다. 최양옥이란 사람이 최상하와 친척이란 말도 듣지 못하였으며 단지 그방에 와서 며칠 묵고 간 일은 있을 뿐입니다. 그방에 있는 주인은 전 대구은행 지점장이라고 하여 우리집에 유숙하는 때부터 일정하게 집에 와서 자는 일이 없었으며 그날에도 최상하는 외출하여 오늘 아침까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양옥이가 들어오기는 19일 오후 다섯시 가량이니 봅니다. 들어와서는 그 방에서 곧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는 당질가, 일주일전에 왔다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최양옥이가 잡히던 그 방은 원적을 원주에 둔 최양옥의 조카되는 최상하(崔商夏·20)가 작년 봄부터 와서 유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 최양옥이가 그 집에 오기는 약 3주일 전에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으며 체포를 당하던 전날인 19일에는 시내 적선동에 있는 북일여관에서 이선구와 기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이선구는 황금정으로 그는 체부동으로 간 것인데 그가 그집에 도착하기는 오후 5시 경이며 서슴치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그날 외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주인 최상하도 없는 방에서 잠을 자던 것이라더라.

酒草도 접구치 않고 침묵 일관의 성질
어쩐지 형의 몸이 염려되어
매씨는 소식 듣고 통곡
(중외일보 1929-04-22 / 2면)

酒草도接口치안코
沈黙一貫의性質
엇지형의 몸이 염려되어
妹氏는消息를고痛哭

최양옥이가 재작년에 표연히 집을 떠난 후 그 고향 원주에 남은 세 어린 동생과 최양옥의 외딸 伊順(10) 등을 거느리고 간신히 지내오던 그 아우 養吉(21)은 작년부터 서울로 와서 경성부 창신동 693번지 그 백부 崔在弼(70)씨의 집에 유하면서 전매국 직공 살이를 하고 있다 그 형이 21일 새벽에 체포되었다는 보도를 가지고 그 아우를 찾으니 서울에 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수일전 봉익동 사돈집에 잠깐 들렀을 때 제 누님이 만나 보았다고 하나 나는 못보았고 지난 20일에 우너주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길에 중도

최양옥이가 재작년에 표연히 집을 떠난 후 그 고향 원주에 남은 세 어린 동생과 최양옥의 외딸 伊順(10) 등을 거느리고 간신히 지내오던 그 아우 養吉(21)은 작년부터 서울로 와서 경성부 창신동 693번지 그 백부 崔在弼(70)씨의 집에 유하면서 전매국 직공 살이를 하고 있다 그 형이 21일 새벽에 체포되었다는 보도를 가지고 그 아우를 찾으니 서울에 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수일전 봉익동 사돈집에 잠깐 들렀을 때 제 누님이 만나 보았다고 하나 나는 못보았고 지난 20일에 우너주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던 길에 중도

에서 형사대를 만나 어젯밤에 나도 경찰 부에 갔다 가려는데 혼자 생각도 형의 일이 염려가 났습니다. 보통 때에도 담배도 안 먹고 별로 말도 없었는데 재작년 봄에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떠나 그 간 몇 번 편지도 왔는데 작년 말에 고향에 돌아가 세간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교수도 하겠다고 편지 한번 있고 소식이 없던 터입니까고 하면서 놀란 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이말을 들은 그 집안에는 그 매씨가 대성 통곡을 하자 그 백부며 아이들까지 울고 있어서 자못 쓸쓸하였다.

전후범행
(매일신보 1929-04-22 /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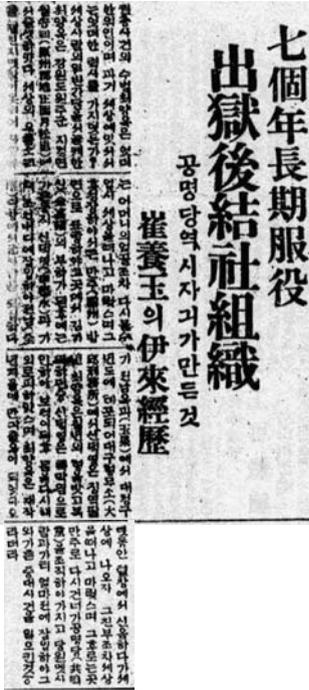
前犯後行

(●●)

十八日午後二時三十分
春川街道摩打車에서 郵便自働車東京七號五段
自働車 第一自働車番 要緊全品要急
二十日午後八時半
春川街道芝罘親에서 内鮮自働車番要緊하야
京城에突入

18일 오후2시30분
춘천가도 마치현에서 우편자동차 경7호
5성자동차 선일자동차를 습격 금품 강탈
20일 오전8시반
춘천가도 망우현에서 내선자동차를 습격
하여 경성에 돌입

7개년 장기 복역 출옥 후 결사 조직
공명당 역시 자기가 만든것
최양옥의 이래 경력
(중외일보 1929-04-22 / 2면)



권총사건의 수범 최양옥은 어떠한 위인이
며 과거 세상에 있어서 어떠한 역사를 가
지었는가? 최양옥은 강원도 원주군 지정
면 월송리에서 출생하였다. 세상의 울음
소리를 떨친 지 며칠이 못 되어 〇〇〇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다시 볼수 없이 세상
을 떠나고 말았으며 그후 성장하여서는
만주 방면으로 표랑하여 그곳에서 金基讚
의 부하가 된 후에는 같은 동지 申惠永과
같이 조선 내지에 잠입하여 전남 지방에
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전남 옥과에서

1919년도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신
덕영은 징역 8년, 최양옥은 7년의 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신덕영은 늑막염으로
인하여 보석이 된후 몸을 다시 해외로 피
하였으며 최양옥은 재작년 겨울에 만기
출옥이 되었다. 오랫동안 철창에서 신음
하다가 세상에 나오자 그 친부조차 세상
을 떠나고 말았으며 그후로는 곧 만주로
다시 건너가 공명당을 조직하여 가지고
당원 몇사람 같이 얼마전에 잠입하여 그
와같이 중대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더라

목적은 군자 모집 대거 재기를 계획
김정련과 이선구와 전수 경과
국경 돌파 잠입 경로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최양옥은 옥중에서 아버지를 잃고 그 다
음에 그 처까지 잃고 쓸쓸한 생활을 하다
가 만주에 건너간 후 북경과 만주 방면으
로 다니던 사람으로 이곳 경찰에 온 정보
에 의하며 그는 의열단의 단원으로 방랑

을 하던 중 근자에 모중대 사건에 관계되어 체포될 염려가 있어서 최근에는 崔榮一이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공명당에 가입되어 금번 사건까지에 이르는 작년 9월에 상해의 당원의 권유로 석하장에서 김정련(金正連)과 같이 입당하여 금년 1월에 조선에 들어가라는 당 본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으로 국경을 넘을 계획을 가지고 전과부터 김정련과 친하게 지내던 이선구와 통하여 이선구도 간접으로 입당케 한후 이달 초순에 석하장을 떠나 세명이 신의주에서 떠나 모였다가 8일 밤에 최양옥과 김정련은 먼저 부산행렬자로 상경하였는데 중도에 김정련은 사리원에 내려다가 서울에 왔고 이천구는 11일 밤차로 상경하여 모처에 잠복하였었는데 최양옥은 그 새 봉익동 4번지 그 사돈되는 방춘익(方春益)의 집에 들렀었다 하며 또한 그들이 서울로 들어와서는 경관의 추격이 너무 심하므로 잠깐 잠적하였다가 다시 한번 크게 거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취조 경관에게 말하였다는 데 목적은 ○○운동의 군자금 모집하려는 것으로 암살 등의 계획은 없었다더라.

【*독립을 ‘○○’으로 처리】

그가 누군지 눈치도 못챘어요

어멈 金姓女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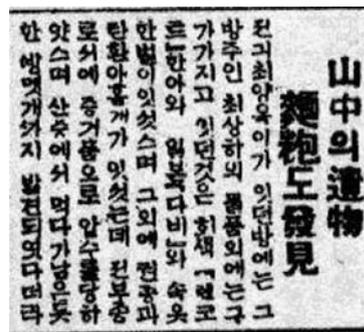
권총청년이 잡힌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어멈 김성녀(金姓女)의 말을 들

어보면

나는 안팎 일을 분주히 할 뿐 아니라 워낙 여러 가구가 사는 탓으로 늘 대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날 밤 5시 경에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최상하라는 이가 있는 방에 들어 가길래 아마 이는 친구가 찾아왔나보다 하고는 신지 무의 하고 그 방을 가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방주인은 항상 밤에는 물을 찾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물을 찾는 일이 없어 다소간이 생각하기는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나는 모릅니다. 이같이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터이니 어찌 그 권총청년인 것을 어디 알 수 있습니까-

산중의 유물 麵포도 발견

(중외일보 1929-04-22 / 2면)



전기 최양옥이가 있던 방에는 그 방주인 최상하의 물품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회색 ‘레인코트’ 하나와 일본 ‘다비’

와 속옷 한 벌이 있었으며 그 외에 권총과 탄환 아홉 개가 있었는데 전부 종로서에 증거품으로 압수를 당하였으며 산중에서 먹다가 남 듯한 빵 몇개까지 발견되었다더라.

사진 설명 수범 최양옥 호송광경
(중외일보 1929-04-22 / 3면)



◇ 사진 설명 ◇
수범 최양옥 호송광경 (우상중양)과
종범 이선구 (우하) 좌상은 최양옥이
묵던 체부동집
옥이 묵던 채부동집 좌하는 손님 잃은
그 거실 종범 김정련의 자기네집.

수범 최양옥 호송광경(우상중양)과 종범 이선구(우하) 좌상은 최양옥이 묵던 체부동집 좌하는 손님 잃은 그 거실 종범 김정련의 자기네집.

행방발각의 동기
 金·李·崔의 순서
 (매일신보 1929-04-22 / 3면)



조범인 두명이 경성에 들어온 이후 시내 각 경찰의 비상활동도 일시는 암연한 것이었다. 위의 범인들이 극도로 긴장하여 상상이외의 활동시 민가를 행동을 하므로 경찰에서도 수사방침이 한동안은 서지 않았는데 이에 각 경찰에서 긴장한 ○○을 하던중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전일 체포된 김정련에게서 잔범 2명에 대한 주소 성명 등을 알아가지고 이사구가 자동차 운전수라는 점으로 경성에서 그의 친구를 찾기 시작하여 각방으로 조사하던중 그의 친구 평북의 이명구의 처 박성재가

황금정 1정옥에 산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날밤 11시경에 궁지, 남 양형사가 그집에 가서 쉽게 체포하여 나머지 한명의 소재도 거의 판명되었을 때 범인 두명의 본정 4정목에서 조반을 먹고 자동차를 타고 적선동 북일여관앞까지 와서 두명이 다시 남북으로 헤어졌다는 것을 탐지한 종로서에서는 다시 11시경에 제부동에 최양옥이가 잠복하였다는 것을 탐지하고 밤동안 포위하였다가 새벽에 불의 습격하여 체포한 것이라더라

자동차 급격 강탈단 3면 전부 체포
(매일신보 1929-04-22 / 2면)



18일 백중 돌연히 경성 춘천간 1등 도로의 험지라 하는 천마산 하 마석우리 고개에 3인조 권총단이 나타나 자동차 3대를 계속하여 습격을 하고 다시 20일 아침에는 춘천으로 행하는 내선 자동차를 다시 습격하여 자동차까지 뺏어 타고 경성으로 대담히 돌입을 하여 전 경성에 일대 협위를 주게 되어 시내의 경찰은 때마침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결사적 수사를 한 효과가 나타나 21일 새벽까지에 범인은 모조리 잡혀버리고 말았다.

비내리는 하룻밤에 범인을 차례로 검거
천마산, 황금정, 체부동에서
3인은 전부 장년
(매일신보 1929-04-22 / 2면)



(중략)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최양옥

21일 새벽 5시40분 체부동 118번지 박인서의 집 뒷방에서 몸을 숨겨 자다가 종로서 형사대의 불의의 습격을 받아 꿈작 못하고 잠혔는데 권총은 알까지 재어놓고 손에 잡아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마침에 3인조 적을 모조리 잡히고만 것인데 동범인 이선구는 경성에 오기전까지 신의주부령 자동차 운전수였다.

자다가 잡힌 최양옥
그의 태도는 매우 침착했다
종로서원의 수훈
(매일신보 1929-04-22 / 2면)



하고 범인을 덮쳐 누르자 古郡경부보, 土井부장이 좌우 완에 수갑을 채우고 범인은 태연히 유창한 국어로 『위태하다. 너무 무례한 짓을 말라』 의복을 고쳐 입고 유유히 걸련을 청하여 푸여 물고 각 신문사 사진반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그는 말을 멈추어 사진을 박게 한 후 기자를 향하여 共鳴黨의 명자를 잘못 썼다고 질책한 후 종로서로 압송하여 그 즉시로 三輪 고등계 주임의 취조를 받기 시작을 하였다.

머리말에 권총

범인 최양옥은 산 중에서 비치어 다니던 빌미로 20일 밤에는 숙면을 한 모양이며 머리말에는 「모젤」 식 권총이 탄환 9발을 재어 손만 대이면 발화되게 장치하여 범인은 예기하였는데 경관대의 민속한 활동으로 체포할 때에 곧 압류되었다.

최양옥이가 체부동 118번지 박인서 방에 잠복한 것을 종로서에서 탐지하자 21일 오전2시부터 60명의 경관을 파견하여 물한방울 새일 틈 없이 비상경계로 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어 오전5시30분에 종로서 古郡경부보, 劉순사부장, 土井순사부장이 좌기 북일여관 모를 걸고 체부동 118 박인서 집 뒷방으로 가서 鄭모로 하여금 마침 지는 최양옥을 부르게 하고 뒤미처 劉부장이 문을 열고 바야흐로 일어나라

일가는 분산코 국외로 방랑
 제령 위반으로 징역살이
 주범 최양옥의 반생
 (매일신보 1929-04-22 / 2면)



【원주지국 전화】 주범 최양옥은 원적을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월송리에 두고 현 주소는 황성군 갑천면 화산리인데 그의 고향에는 아내 홍씨(31)가 있고 부모는 없으며 딸 형제가 있는데 큰 딸은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데 매부가 되는 鄭鎬兢의 집에 맡겨두고 돌아다니다가 만세 운동기에 참가도 하였으며 1920년 말에는 남선지방으로 다니며 권총을 들고 협박장을 가지고 부호를 찾아다니다가 잡혀서 대구지방법원에서 7년 징역 연도를 받아 복역을 하였고 이윽고 출옥이 되자 일가는 분산되고 다시 국경을 넘어 갔다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다.

심야혼수 중 본부를 곤봉으로 타살 암장
 그중에도 우순일은 간부 본처가
 시앗을 위하여 같이 범행을 한 것
 특죄 간배 발각 피체
 (중외일보 1929-04-28 / 3면)



강원도 황성군 서원면 분이리 김기○(35)은 그곳에 사는 박봉○(46)의 아내 강복○(36)와 수년전부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비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중 작년 10월 23일 야삼경을 이용하여 가지고 간부 간부가 공모한 후 잠자는 본부 김기준을 곤봉으로 살해 …….

경찰부 문전에 최양옥 가족 면회 청하여 거절당해
 實弟 養吉 호소담
 (중외일보 1929-05-01 / 2면)



警察部門前에 崔養玉家族

공범단 사건은 서선방면에서 다섯명의 공범을 체포 압송하여다가 목하 엄중한 취조 중이나 지금까지 취조한 결과로는 전과 공범자라고 혐의한 다섯명에 대하여 별다른 깊은 혐의도 없는 것 같다하며 따라서 동 사건도 별로 확대되지 아니할 것 같다는 바 근근 취조 서류만 작성되면 송국하리라 한다. 그런데 30일은 아침부터 최양옥의 가족 7, 8인이 면허나 한번 하여달라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경찰부에서는 취조 중이라 면회는 시킬수 없다고 하여 문전에서 갇친 유치장편만 바라보고 용이히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여 일장의 비장한 극덕씨산을 연출하였다. 그중 최양옥의 친제로 전매국에 다니며 직공생활을 하는 최양길은 간혀 있는 형을 생각하며 하소연 비슷이 작년까지 조선에 계셨습시다. 그때도 형은 처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다만 근근 어디로만 간다고 하시더니 작년 겨울에 중국 산서성에서 한 장의 편지를 전하였을뿐이요 가시는 도무지 모르시는이니까 말할 것 없지만 집안일이 탈이올시다 하고 가날픈 몸으로 집안을 돌볼 걱정을 하고 있었다. 【사진은 경찰부 앞에 모여선 최양옥의 가족들】

횡성군에 面區 문제
 도당국에 진정
 (매일신보 1929-05-03 / 3면)



【원주】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북부 9리에서는 면구로 인하여 다년간 자증지란으로 〇〇하던 중 금년도에 내하여는 군당국과 도당국에 까지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한 내용을 듣건데 북부 9리로 말하면 면사무소와 북부 9리 간의 〇〇이 떨어져 거리가 혹은 21리 혹은 45리가 될 뿐 아니라 겸하여 우체구역은 우천면 관내이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정곡면 북부 9리는 우천면으로 속하는 것이 촌민에게는 편리하리라고 운동하는 것이다. 우천면과는 거리가 불과 12리로 면소에 왕래하기

에 매우 편리하겠다는 것이거나 만일 진정하다가 목적을 달치 못하면 9리가…… 하고 분면이라도 하려는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동리에서도 응당이 과급될 것이므로 불원간 도당국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최양욱 입경과 거사 경로
해동여관에서 의논해 공명단 송국 불원
(중외일보 1929-05-10 / 2면)



목하 경기도경찰부에서 취조중인 공명단 사건은 취조를 마치고 금명간 송국 되리 라는데 취조한 결과 지금까지 판명된 사실 이외에 여러 가지 새 사실이 드러났다. 3인 중 최양욱은 비밀리에 입국하기 전에 서남비행기학교 교관으로 있는 안창 남씨로부터 금 600원을 아편 밀수를 한다는 구실 하에 얻어가지고 천진과 대련을 거쳐 조선에 들어오다가 대련에서 잡혀 여련진으로 호송되어 600원을 몰수당하고 중국에 있지 말라고 추방당한 후 다시 돈

을 변통하여 가지고 상순경 안동현을 거쳐 입국하여 이선구와 김정련과 같이 거사할 약속을 하고 인사동 해동여관에 투숙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에 이선구는 부령의 휴가가 15일 까지니 그런 계획을 그만두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으나 단의 명령이라고 설득하여 17일 오후에 시내 남산 자동차부의 자동차를 7원에 빌려타고 망우리까지 가서 자동차의 움을 기다려 그 같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 하더라.

**세상을 놀라게 한 권총단
신출귀몰케 하던 공명단 사건**
(신한민보 1929-05-23 / 2면)



경춘가도에서 우편자동차를 비롯하여 두대의 여객 자동차를 습격하고 대담히도 다시 통행차를 강탈하여 철웅성 같은 경계망을 교묘하게 돌파하고 경성 시내로 잠입하여 유유히 횡행하며 세상을 소란케 한 조선에서 처음 보는 권총단 사건은 지난달 20일에 그 연루자 한명이 양주군 화도면 룡촌리 백봉산중에서 산상경위대와 교환한 끝에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두명 중 한명은 황금정에서 경찰부 형사대에게 체포되고 그 나머지 한명 최양옥을 마저 체부동에서 종로서원에게 체포된 바 이로써 신출귀몰하여 세상을 진동케 하던 대사건도 일단락을 지어 버렸는데 그간 권총단의 행동과 경찰의 추적 경계

상태를 신문계에서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것은 경찰서에서 금지함으로써이다. 이에 그 주범 최양옥은 대구, 광주 등지로 폭탄을 가지고 활약하다가 대구형무소에서 7년 징역을 살고 그 후 북경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더라.

△최후까지 대담한 최양옥

자동차를 습격한 공명단의 수령 최양옥이 시내 체부동 바침 술집 박인서의 집에서 체포되는 광경은 범인이 그 안에 잠복하여 있는 것을 탐문한 소관 종로서에서는 백여명 무장경관대로 그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자동차로 몰려간 고등계 주임의 지휘 하에 매복한 후 동서경부 이하 수십명의 형사가 그의 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범인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자 그에 달려 들어갔던 이군경 형사가 자리 속에 간직한 범인의 「콜트」라는 실탄 8발이 장전되어 있는 대형권총 한자루를 현장에서 압수하였는데 범인은 불의의 경찰의 습격으로 피착되었으나 그래도 태연자약하여 포승에 얼키어 문 밖을 나서는 그를 둘러싼 신문사 기자들에게 향하여 기자로서 해외에 공명단이라는 유력한 단체의 존재를 모르고 공명의 명자를 울명자로 잘못 게재하였다는 것을 소리쳐 성명하고 경찰의 호위 중에 종로서로 향하였다더라.

**△여관이 위협해서 친구집 갔다가 잡혀
황금정 차부의 자동차를 부르라고 최양**

옥, 이선구 두 사람이 함께 무장 경관대의 삼엄한 경계망을 돌파하고 무인지경처럼 시내 적선동 여구에서 내리어 자동차 임금 1원을 내어준 후에 이선구와 최양옥은 또다시 만나기 어려운 작별을 한후 이선구는 복일여관으로 들어가서 동 여관에 유숙중인 정항의 조선의복 흰주의와 바지 저고리를 갈아입고 권총과 탄환을 동 여관 퀘 속에 넣어두고 저녁을 먹은 후 여관이 위험한 것을 깨닫고 수년전에 충주 모자동차 운전수로 있을 때 알던 이명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때는 벌써 그 집으로 갈 것을 확신한 경기도 경찰부장 외 한명이 그 집 대문 앞 좌우에 잠복하고 오기를 기다리던 차에 동인이 대문을 두드림에 주인 여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자 즉시 들어가서 건넌방으로 가 주인 마누라와 이야기 할 즈음에 잠복하였던 형사대가 돌연 습격하여 좌우로 권총을 겨누고 네가 이선구나 아니냐고 하자 그러하다고 대답하므로 그 뒤에 양편 팔을 잡아 특별히 항거할 사이도 없게 하고 체포하였다더라.

최양옥 등 3명 기소 죄명 경찰부에서 부처 보낸 살인미수는 삭제
(중외일보 1929-05-24 / 2면)



기보=공명단 사건의 崔養玉 金正連 李善九의 세명은 20일로 검사국 취조를 마치고 곧 공소수속을 취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와 같거니와 경기도 경찰부에서 전기 3명을 검사국에 송치할 때에 최양옥과 김정련 두명에게 살인 미수의 죄명이 달려 있었다는 것은 과연 살인 미수죄가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반의 주목의 초점이었던 바 공판에 회부되면서 살인 미수의 죄명은 빠지고 최양옥과 김정련은 치안유지법 총포화약 취체 우편법 강도의 죄명이고, 이선구는 그 중 우편법 위반과 강도의 두 가지 죄명이다

임시정부사건으로 2도 9군에 대수색
 피검거인 150명 되어 발각은
 김화서에서 되었다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고 함남까지 파급
 (신한민보 1929-06-20 / 2면)



강원도 김화서가 중심으로 하고 대검거에 착수한 오중대 사건은 날로 때로 확대하여 검거의 선봉은 강원도 일대의 김화, 평강, 화천, 회양, 양구, 흥천, 통천, 횡성 등 8군에 넘치고 함남 안변 등 2도 9군에 미친 근래에 희유한 대사건으로 아직도 각도 각군에서 검거활동이 그칠줄을 모르는 중이었는데 사건은 해외 한국 임시정부 정치국에서 유명한 밀사가 작년 겨울 이래 암암리에 활동하던 오중대 사건으로 사건 관계는 금주 더욱 확대될 모양이라더라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선전

사건의 정체는 목하 취조 중이므로 아직도 확실히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검거된 김모의 공술에 의하면 작년 겨울 해외 한국 임시정부 정치국의 수석 김중산의 특명을 받아 전기 김모 외 네명이 폭

탄과 권총 기타 60여종의 서류를 가지고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함남 기타 등지로 돌아다니며 동 정부에 입적을 권유하여 다수한 동지를 모집하는 한편으로 다수한 군자금을 수합하고 입적한 그들에게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선전을 대대적으로 고취한 것이라 한다.

작년 겨울에서 반년 이상이나 비밀리에 활동하여 모은 동지가 수백명에 달하며 회원들 중에는 청년들보다도 50 전후 중년자들이 대다수로 그 중에는 수운교도 또는 청림교도들도 얼마간 없지는 않으나 궁촌 벽지에 사는 순수한 농부들이 다수라는데 그것은 선전원들이 관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로는 별로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산간벽지로 돌아다니며 순수한 농민에게부터 주의 선전한 까닭이라 한다.

둔내 소년 창립

(중외일보 1929-06-30 / 3면)

江原道橫城郡屯內洞白浦谷里屯
場元來全郡에 重要地點에
屯內少年創立

處計야 오즉 그의 準都市의 村落에
잇스면 未來建設에 社會의 任務
를 忘却하야 되 아니 되겠다 是意
圖에 是意圖의 建設者인 趙柄斗、
朴光奎等 諸氏가 道內屯內少年
會組織에 對한 根本方針을 一樹立
한 決議案을 備置가 得하야 왔든바
去六月二十二日 午後四時부터 同
地屯內學院大講堂에 屯內少年
會創立總會를 開會하고 順序에 據
하야 朴光奎氏의 開會宣言과 同氏의
會下에 三十六名에 達한 諸會員의
資格審査를 畢하고 規約를 通過할
것에 後에 左한 議案을 一滿千紙의 勞
로 討論한 後에 六時頃에 閉會
하였다더라 [屯內]

○討論事項

- 一、少年運動者 改裝에 關한 件
- 一、少年運動者 一切 行動의 件
- 一、少年에 禁酒禁煙의 件
- 一、民衆事業에 關한 件
- 一、宣傳方針의 件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시장은 원래 전군에 입한 중요 지점에 처하여 오직 그의 준도시적 혼란에 있으면서 미래 건설에 사회적 임무를 망각하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의도에서 의식적 건설자인 조병두(趙柄斗), 박광규(朴光奎) 등 제씨가 ○○둔내소년회 조직에 대한 근본 방침을 수립한 후 제반준비를 거듭하여 왔던 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부터 동지 둔내학원 대강당에서 둔내소년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순서에 따라 박광규씨의 개회 선언과 동지 사회하에 36명에 달한 제○회원의 자격 심사를 필하고 규약 경과를 마친 후에 아래와 같이 현안을 일사천리의 세로 토의한 후 동 6시 경에 무사 폐회하였다더라

◇토의사항

1. 소년운동자 교양에 관한 건
1. 소년 운동자 일절 행동의 건
1. 소년에 금주금연의 건
1. 민중사업에 관한 건
1. 실천방침의 건

최양옥 공판 10일

(중외일보 1929-06-30 / 2면)

공명당(公明黨) 사건의 최양옥(崔養玉)은 최철(崔哲)일로 개정되도록 기일이 지정되었더라

崔養玉公判十日

(崔養玉은 공명당에 대한 공판은 오로지 이 지일로 확정되리라)

공명당 사건의 최양옥 등 3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7월 10일로 개정되도록 기일이 지정되었더라

정조식 감시원이 면민구타 치상
일반 비난 자자
(중외일보 1929-07-02 / 3면)



지난 6월 7일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서기 張昌薰은 동면 화동리 金聖○를 구타 치상케 하여 일시는 인민의 비난의 적이 된 사실이 있다는데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을 시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면서기 장씨는 소위 정조식 활동 감시차로 도묘장을 감시할 때에 자기의 ○○에 ○○○한 정조식이라 하여 모○○를 함부로 밟는 등 관어도○의 행패를 수행함으로 하여 전기 김성○는 전기와 같이 행동에 분개하여 전기 장씨에게 결실한 바가 원인이 되어 그와 같이 구타 치상으로 ○○에는 전기 가해자 ○○으로부터 ○○○기 10월에 대상 화해가 되었다는데 일부 인민의 비난이 자자하다더라. 【둔내】

경찰부 형사대 출동 최양옥 매씨 검거
해외로 연락한 혐의로,
약간의 서류도 압수
(중외일보 1929-07-03 / 2면)



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2일 오전9시 경에 아연 긴장한 가운데 형사대가 자동차를 몰아 시내 창신동 693번지를 포위한 후 동가에 있는 공명단 사건의 수령 崔養玉의 매씨 최성녀(崔姓女·20)를 검거하는 동시에 가택을 수색하여 약간의 서류를 압수하여 갔다는데 전기 최성녀를 검거한 내용은 최양옥이가 경찰에 피착된 후 해외에 있는 모모 단체로부터 최양옥의 뒤를 이어 뜻을 이를 계획을 세운 후 전기 최양옥의 매씨를 중간에 넣고 모모 연락을 취하던 행적이 말로 되어 그와같이 돌연 검거된 것이라던데 검거의 내용이 극히 주목되는 바이다.

공명단이 국내에 잠입했다고
활에 놀란 새 같은 경관 활동
(신한민보 1929-07-04 / 2면)

공명단이 국내에 잠입했다고
활에 놀란 새 같은 경관 활동

모처에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일시 경성
시가를 진동시킨 공명단 사건의 상해 분
부에서는 최양옥 등 3명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수령 안혁명 이하 단원들이 회의
를 열고 결의한 결과 동단의 사명을 도달
하려다가 잡힌 전기 세단원을 구하려는
동시에 보복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여 우선 담력 있는 부원 6명으로 하
여금 결사대를 조직하여 단총과 폭탄을
휴대케하고 벌써 출발시켰다는데 그들은
우선 최양옥 이하가 수감되어 있는 서대
문 형무소를 폭파하여 동지를 구해내는
동시에 경찰부와 종로서를 습격하리라는
무서운 목적을 가졌다는 바 이런 정보를
접한 경무국에서는 방금 엄중한 수색망을
펼치는 중이라 하엿더라.

공명단에서 밀송한 권총, 실탄의 행방
최양옥 친매 검거 사건 내용
청년 양명 계속 인치
(중외일보 1929-07-06 / 2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수일전에
돌연히 최양옥의 누이동생 최성녀(20)를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활동을 계속 중이
더니 5일에 이르러 야연 긴장되어 형사대
를 팔방으로 돌아 시내 모처에서 청년 2
명을 인치하고 엄중 취조를 개시하였는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치나 탐문
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에 모처로부터 도
경찰부에 괴상한 투서 한 장이 날라들어
왔는데 그 투서의 내용인 즉 해외에 있는
공명단에서 금번 박람회(大博覽會)를
기회로 모종의
운동을 하라고 권총과 탄환을 경성에 있
는 최양옥 실매 최성녀에게 보낸바 있었
다는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이 돌연 활동

을 보게 되어 이래 최성녀를 엄중 취조한 결과 그 권총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건너갔다는 것이 판명되어 그 권총을 가진 사람을 염탐중이더니 5일에는 그 단서를 비로소 얻어 그러한 활동을 한것이라더라

금조총회 일속

(중외일보 1929-07-09 / 3면)



▲횡성

강원도 횡성금융조합에서는 지난 7월3일 오전 10시부터 당조합 사무실 내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좌기와 같은 토의가 있었다.

- 1. 정관변경 통과
- 1. 기타

▲둔내

강원도 횡성군 둔내 금융조합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1시부터 둔내학원 강당에서 제 1회 임시 총회를 이사 金○培씨 사회 하에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토의하였는데 조합장 안국선(安國善)의 경제 강화가 있었다더라.

**지폐위조의 범인을 폭탄범으로 오인코
무장경관대까지 출동
일장 영화적 희활극**

(중외일보 1929-07-12 / 2면)



10일 오전 아홉시 경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에서는 시내 모처에 폭탄을 감추어두고 모종의 운동을 하고자 목하 군자금을 모집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동부 판본(板本) 형사 외 수명의 형사대가 권총을 휴대하고 자동차를 급히 달려 시외 신당리 12번지와 방산정 모처와 주교정 78번지를 습격하였으나 문제의 장본인이 아홉 정오 분 열차의 경성역을 떠나 봉천으로 도망가고자 경성역으로 나갔을 때이라 재차 형사대로 이를 추격하여 종로 네거리 한일은행 앞에서 공교히 만나 어렵지 않게 이들 세명을 잡아 자동차로 경찰부에 동행하여 엄중 취조한 결과 폭탄 운운은 빨간 거짓말이며 이들은 강원도 강릉시

사채면 방사리에 본적을 둔 이근모(48)와
 횡성군 청일면에 본적은 둔 李忠古(47)와
 대동군 율곡면 구동리 박영덕(32) 등으로
 이중에 위조지폐의 전과자 이충고가 주범
 이 되어 신당리 등 각처로 옮겨다니면서
 최신식 정묘한 위조기계를 설비하여 두고
 지방부호를 설복시키어 조선은행권의 대
 대적으로 계획하다가 그와 같이 발각되어
 영화의 일장면을 연출하고 체포를 당한
 것이라더라.

횡성기자단 창립 준비 간담
 (중외일보 1929-07-14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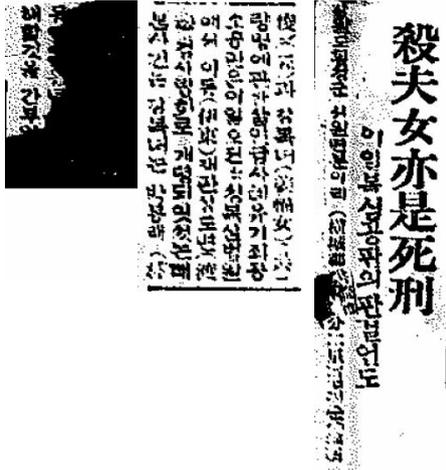
및 그의 권위 신장과 동직간 친선을 도모
 하는 의미에서 지난 7월 10일 오후8시부터
 본보 지국 사무소에서 횡성연합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횡성기자단 창립 발기
 및 준비회를 개최하고 동 11경에 폐회하
 였는데 상석에서 결의된 사항과 및 제 준
 비위원은 다음과 같다더라. 【횡성】

결의사항

1. 횡성기자단 창립 발기 및 준비회에 구
 성으로 진척함
2. 창립대회 준비위원은 좌기와 같이 선
 거함
 서무계위원
 吳智善(조선) 申永淳(중외) 權台鳳(동
 아) 趙鍾(중외)
 준비위원
 鄭斗撤(조선) 柳命福(동아) 韓哲洙(중
 외)
 유지위원회
 朴星奎(중외) 權台鳳(동아) 吉銀聲(중
 외) 鄭時和(중외)
3. 대회의안 및 강령 선초부 위원은 서무
 부위원에 일임하기로 함.
4. 대회일시 내7월 25일 오후7시
 장소 횡성청년동맹회관
5. 대회 예산안 편성의 건
6. 임시사무소 지정의 건
 당분간 중외지국으로 함
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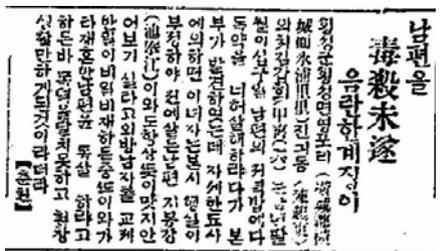
강원도 횡성군 읍내 조선, 동아, 중외
 등 3지국에서는 횡성 언론의 통일 기하며

살부녀 역시 사형
2일 복심 공판의 판결 언도
(중외일보 1929-09-03 / 2면)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분이리金子○과 姜福○ 양인에 관한 살인급 사체 유기죄 공소공판은 2일 오전 경성 복심법원에서 伊東 재판장, 渡邊 검사 양위로 개정되었는데 본 사건은 강복녀는 박봉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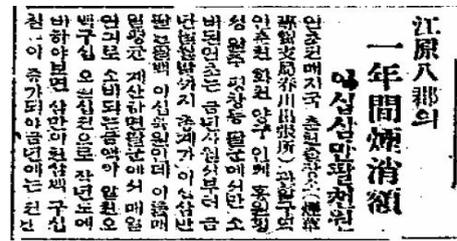
남편을 독살 미수 음란한 계집이
(중외일보 1929-09-09 / 3면)



횡성군 횡성면 영포리 진기○의 처 金甲○(16)는 지난 8월 29일 남편의 저녁밥에 다 독약을 넣어 살해하려다가 본부가 발견하였는데 자세한 조사에 의하면 이 여자는 본시 행실이 부정하여 전에 살던 남편 池奉○이와도 항상 뜻이 맞지 않아 보기 싫다고 외방 남자를 교체한 일이 비일비재 하던 중 또 이와 같이 재혼한 남편을 독살하려고 하던바 목적을 달치 못하고 철창 생활만 하게 된 것이라더라.

【춘천】

강원 8군 1년간 煙 소비액 23만8천원
(중외일보 1929-10-03 / 4면)



연초 전매지국 춘천 출장소 관할 구역인 춘천 화청 양구 인제 흥천 횡성 원주 평창 등 8군에서만 소비된 연초는 금년 4월 시부터 8월말까지 총계가 23만8천26원인

데 이를 매일 평균 계산하면 8군에서 매일 연기로 소비되는 금액이 1천595원10전으로 작년에 비하여 보면 3만2천397원이 증가되어 금년에는 …… 매상고가 높다는 데 이금액만 하여도 항상 강원도민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여자중등학교와 소양강 철교를 신축함에 상당하다고 일반 선각자는 고민 중에 있다더라

**모자 협력 자부 타살 暗葬
발각되어 체포 송국
(중외일보 1929-11-17 / 4면)**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마곡리에 거주 하는 金선이란 자기의 3남 大○의 처 李寶○(22)이라는 자부와 평소부터 불평이 있던 중 이보○은 본년 4월 12일에 무단이 출가하여 도망을 가는 중 전기 김선과 남편 김대만 두 모자가 자기집 고용자 辛利○ 외에 수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날 오전11시 경에 붙들어 가지고 자기집에 돌아와 김선과 이보○의 남편 김대만 두

모자가 협력하여 무수히 난타하여 동월 14일에 참혹히 사망되어 암장한 사실이 발각되어 김선과 사망자 남편 김대○ 두 모자를 거월 28일에 체포하여 횡성경찰서에서 죄조를 마치고 본월 10일에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검사국으로 일건 서류와 함께 송치되었다 한다. 【춘천】

**함남선에서 기차 又復 살인
아들 찾으러 가서 찾지도 못하고
치어 죽은 가련한 남자
철도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
(중외일보 1929-11-17 / 4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경에 함남선 송흥리에서 행인 일명이 무참히 기차에 치어 죽었다는데 이리 탐문한 1k에 의하면 전기 치어 죽는 사람은 원적을 강원도 횡성군에 두고 현재 신흥군 동상면 동안리 공영사 지점 인부로 있는 정낙현(鄭洛現 41)이러는데 그 아들 善玉(17)이가 지난 7월 달에 무단히 집을 떠난 후 소식이 없던

중 얼마전에 동군 송하에서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전날인 9일에 자기의 집을 나와서 선옥이를 찾아 다니다가 찾지도 못하고 10일 오후 신흥역을 발송 후 역차의부 정기 열차 53호 차장 김석근 기관수 박능섬에 치어 그와 같이 무참히 죽었는데 현장에는 태-루 두길이나 되는 사이에 선혈이 쏟아졌었으며 팔이 부러지고 두부와 등에 많은 상처를 받아 차마 볼수 없는 참상이라는데 시체는 동심 2월 오후3시반 송흥리 공동묘지에 안장하였으나 치어 죽인 책임자인 조선철도주식회사에서는 한통의 통지도 없다하여 조선철도주식회사의 무성의에 일반은 크게 분개하는 동시에 죽은 사람의 주인인공영사에서는 서윤경(徐允京)씨를 대표로 조선철도주식회사를 상대로 방금 그 대책을 강구중이라는데 그 장래가 상당히 주목된다더라.

【송흥】

한말 ·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1930년대
황성 관련기사

도적하고 방화
(중외일보 1930-01-10 / 2면)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병삼방리 成學○(49)은 지난 9월에 그 동리 高貴模 방에 침입하여 마피 20여속을 절취하고는 범죄가 발각된 것을 염려하여 동년 10월 1일 밤 8시 경 그 집에 방화하여 아홉 간을 전소하고 소 한마리를 태워 버렸는데 춘천지청 예심에서 주거 침입 절도방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8일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고광수 위증 보석 출원
그러나 보석하여 나올
보증금 변출 無路
(중외일보 1930-01-22 / 3면)



간도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 제1차와 제2차 건거 당시에 몸을 피하였다가 작년 가을에 북경에서 체포되어 이래 경성지방법원 예심에부터 방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에 있는 高光洙*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로 폐결핵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급보를 접한 李仁 변화사는 보석원을 제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보석하도록 힘쓰고 있으나 신원보증금이 없어서 문제 중이라더라.

[*고광수(1900~1930) 횡성 출신]

間共 高광수 보석
31일 오후 4시에 출옥
(중외일보 1930-02-01 / 2면)

間共 高光洙保釋

삼십일일 오후 네시에 출옥

(대외차간도공산당(間島共産黨) 사건) 피고로 경성지방법원에

고광수(高光洙)는 오대산(五臺山)에서 공산당(共産黨)을 조직하고, 간도(間島)에서 공산당(共産黨)의 활동을 하다가, 1929년 12월 31일 오후 4시에 출옥하였다. 고광수(高光洙)는 오대산(五臺山)에서 공산당(共産黨)을 조직하고, 간도(間島)에서 공산당(共産黨)의 활동을 하다가, 1929년 12월 31일 오후 4시에 출옥하였다. 고광수(高光洙)는 오대산(五臺山)에서 공산당(共産黨)을 조직하고, 간도(間島)에서 공산당(共産黨)의 활동을 하다가, 1929년 12월 31일 오후 4시에 출옥하였다.

제2차 간도공산당사건의 피고로 경성지방법원 제1예심에 부터있는 高光洙는 오랫동안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무서운 병에 걸리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간 李仁 변호사가 주선하여 겨우 허가를 얻어 同 변호사의 책임으로 31일 오후4시에 출옥케 되었는데 곧 가회동 208번지 高昌漢 방에 류하며 치료케 되었다

동지장은 불허, 고광수의 장의
(중외일보 1930-02-08 / 2면)

同志葬은 不許

高광수 의 장의

全 部 出 監

간이 만과되야

일부부터 일출수감

新義州靑盟과 駐在所騷擾事件

모다 일출언과

동지장은 불허, 고광수의 장의 (중외일보 1930-02-08 / 2면) 기사 내용: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를 금지하는 동지장은 불허하며,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는 간도(間島)에서 치러질 수 없다. 또한,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를 금지하는 동지장은 불허하며,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는 간도(間島)에서 치러질 수 없다. 또한,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를 금지하는 동지장은 불허하며, 고광수(高光洙)의 장의(葬儀)는 간도(間島)에서 치러질 수 없다.

조선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간도공산당 등 중요한 간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의 운동을 하고 있던 高光洙는 얼마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석되어 시내 가회동 대동학교에 류하면서 폐병을 치료하고 있다가 5일 밤 8시 반경에 3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함은 기보한 바이거나와 7일 오전 11시에 동지장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소관 종로서에서는 동지장을 금지하는 동시에 장의에는 가족 이외 한사람도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유해만은 예정대로 서대문 밖 화장터로 이구되었다더라.

횡성 군내의 효자 절부 표창
(매일신보 1930-05-01 / 6면)



【원주】 지난 16일에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횡성군 향교에서 효자 절부의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표창을 받은 씨명 및 공적은 아래와 같다.

가.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박형석(朴滢石, 당15세)

자성이 온순한데 남의 차남의 고로 부친이 동하고 그 모친 조씨는 실형 박형진의 방에 동거함으로써 주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를 불원하고 20여년을 매일 일찍 실모의 주거에 가서 혼정최성의 효를 다하던 바 44세 때는 어머니 조씨는 간간이 병이 와서 누워서 살더니 드디어 영면함에 지효일념의 씨는 바로 왼쪽손가락 명지를 잘라 그 피를 망모의 입에 넣어 잠시 회생을 취하였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애통 외에 사송의 예를 후하게 하였으며 정성을 다해 조석을 올리는 준례를

매일 계속함 등 실로 마을의 모범이 됨에 족하다 한다.

나. 횡성군 우천면 하수남리

조천실(曹千實, 당62세)

자성이 온후인유한데 17세시에 우천면 남산리 元德常의 제 元福常에게 출가하였는데 가세 역시 빈곤함에 처하였으나 특히 나이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함으로서 곤궁함이 극심하였으나 추호도 원망의 색 없이 간고근면하여 가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위병으로 쓰러짐에 온갖 약을 지어 먹이는 등 정성을 다했으나 병사하는지라 씨는 정조 다시 ○굴치 아니하고 2명의 어린아이를 업고 본가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빈가에 머무르며 밤낮으로 봄이 부서질 정도로 일하며 가계를 지탱하여 장남은 농업에, 차남은 학업에 몰두하게한 바 현재에 이르렀는데 장남은 현 주지의 독농가의 1인이 되고 차남은 지방 중견 인물이 되어 공직에 봉사하게 되었는지라 이는 조씨의 백척불굴한 지성의 소치이니 실로 모든 이의 귀감이 됨에 족하다 하겠다.

다.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유영벽(柳永碧, 당51세)

자성이 온후독실한데 15세시에 청곡리 이영구에게 출가하여 시어머니에게 효양하던 바 29세의 때에 의외로 남편은 불귀의 객이 됨에 3일을 절식하여 죽은 남편을 따라가고자 하였는 바 마침 노시어머

니 또한 외병함을 보고 생을 시부모에 대한 효양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지성으로 봉양하던 바 지난해에 노시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함에 찌는 집에 단을 쌓고 회복함을 기도하니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노모는 영면 5시간 후에 회생하여 3일간을 연명하다가 병사한지라 사송의 예를 후히한 후 3여년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묘를 올리고 매일 참모하며 이후 20여년을 매일같이 노시어머니의 효양을 극진하니 그 정절이 실로 귀감됨에 족하다 함이라한다.

황성군 황성면 읍상리 韓遇

자성이 온후한데 14세 때 정호열에게 출가한 후 부도에 노력하더니 1924년에 남편이 홀연히 집을 나간 뒤 일거 무소식할 일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기대어 살았는데 노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다시 시댁으로 재차와서 잡화 소매로 가계를 유지하며 정성을 다해 매일같이 효양을 극진히 하며 유아의 교육에 전념하여 견인 노력에 정조를 유지 아니함은 실로 부도의 귀감이 됨에 족하다 함이라한다.

강원도 주요 간선도로 개수공사를 개시 준공일은 낙찰 후 30일간 3일에 전부 입찰 (매일신보 1930-05-06 / 3면)



【춘천】 강원도내 주요 간선도로의 수선 및 개수 공사에 대한 적부입찰을 5월 3일 오후 도 총무과에서 시행한 결과 좌와 같이 낙찰되었으며 시공기일은 낙찰일로부터 30일내이다.

1. 황성 안흥선 3등 도로(황성군 우천면 지내상 도로 수선 공사)
우청부자 미북철작(계약금 455원)
2. 원주 제천선 2등도로(원주군 판부면 지내도사교가환공사)
우청부자 정구청일(계약금 1,950원)
3. 인제 흥천선 3등도로 (인제군 남동 지내 다물교 가환 공사)
우청부자 산중찬(계약금 3,100원)
4. 김화 충주선 2등도로 (황성군 공근면 관내 도로 수선공사)
우청부자 산중찬(계약금 1,000원)
5. 철원 토성선 3등도로(철원군 철원면 지내 철원교 가환공사)
우청부자 판본행촌(계약금 1,698원)

(중략)

횡성군의 징세 성적 극히 양호
(매일신보 1930-05-08 / 6면)

면명	예정액(원)	미납액(원)
횡성면	1,642	29
우천면	715	14
정곡면	1,160	-
둔내면	1,244	2
갑천면	1,016	14
청일면	876	-
공근면	1,199	-
서원면	814	-
계	8,670	61

【원주】 재계의 부진의 계속함을 따라 농촌의 금융은 한층 열악하다. 징세는 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징세 성적은 특히 우량하여 제1기 분호세 예정액이 8,670원인데 납부말의 실수액이 8,609원으로 9할9분3리에 달함은 실로 예상의 호성적인데 이는 무야라. 군면 직원이 일치 협력하여 활동한 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납세 의무자의 자각 향상에 기인함이라. 고로 현시도시에 있는 징수 성적이 부진하는 차제에 농촌에서 이와같은 현상을 보게됨은 실로 흥미할 바로 그 징수 성적을 면별로 보건데 아래와 같다 한다.

면명	예정액(원)	미납액(원)
횡성면	1,642	29
우천면	715	14
정곡면	1,160	-
둔내면	1,244	2
갑천면	1,016	14
청일면	876	-
공근면	1,199	-
서원면	814	-
계	8,670	61

강원도의 농업 실습생 각군 1명 선발
(매일신보 1930-05-20 / 6면)

군명	선발자
춘천군	이약한
양구군	최창선
인제군	엄우종
원주군	서형석
횡성군	진경두
홍천군	이기오
화천군	최필성
김화군	노병학

【춘천】 서반 강원도농무국에서는 농촌에서 긴실하게 농사에 종사할만한 「농업실습생」의 전형을 마치고 본월 10일부터 춘천 양묘장에서 교양을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도 연년히 10명씩 달성할터이며 금년은 각군에서 1명씩 아래와 같이 10명이 선발되었다. 더욱이 실습생의 자격자는 18세 이상 25세까지의 보통교 졸업생이려야 하며 실습생에게는 매월 10원씩과 지묵 등을 지급하는 바 교양기간은 5개월이다.

- 춘천군 이약한
- 양구군 최창선
- 인제군 엄우종
- 원주군 서형석
- 횡성군 진경두
- 홍천군 이기오
- 화천군 최필성
- 김화군 노병학

제9회 미전과 조선화단
(중외일보 1930-05-23 / 1면)



필자 : 金瑛俊

李哲伊*씨의 「풍경」

세밀한 부분까지 무척 주의한 작가가 다만 세밀하게만 보았을 뿐이요 자연의 개체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무가 공중으로 뻗어 올라 갔으면 그 가지가지가 기막히게 아름다운 왜곡을 그리면서 그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개의 각이한 변화가 있다. 이씨는 이러한 나무의 생명을 포착치 못하였다. 구도 잡는데 있어서도 앞뒤가 너무 콕 막혀서 숨쉴만한 거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회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깊이가 없다.

[*이철이(1909~1968) 황성 출신]

시모가 미워서 자가에 방화 한 여자
아들의 장수를 위하여 기도 하는
것이 밍다고 경찰에 피검 엄조 중
(중외일보 1930-09-09 / 4면)



본적을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에 두고 현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신대리에 있는 임씨(25)란 여자는 동군 동면 동리 최○○의 첩으로 온지가 지금부터 십이년 전인데 남편의 실모 김씨, 즉 자기 시모와 불화로 항상 말다툼을 하며 또는 시모에게 갖은 학대를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함으로서 실자 최○○는 생각다 못해 자기 모친을 각거케 하였는데 김씨는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잊지 못하여 중간에 다시 합산을 하여가지고 살아가며 주야로 자식을 위하여 미신이나마 수명장수하여 달라고 축복 기도를 올리는데 이럼 여자는 이것이 보기 싫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모에게나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 집에 다 불을 놓아 대 혼잡을 일으키자 동시에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횡성경찰서에서는 출동하여 이 여자를 체포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는 중인데 화재에 대한 피해는 약 28원에 달한다더라.

횡성에서 대금광개발
(중외일보 1930-09-22 / 4면)



강원도 횡성군 읍내에 거하는 장명수씨는 광업계 ○○에 ○부하여 ○상간 ○지를 엿보고 있던 중 금년초에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검현에서 대금광을 발견하고 즉시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제출하였던바 지난 8월초에 허가되었으며 방금 개광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구 수백명인 ○○○행 중인데 앞서 인가○○도 ○○○에 종하며 휴일 구음○○도 무려 120명 ○○○되어 인산인해를 이루는바 이 앞으로 이대로만 채굴된다면 근읍이 횡성, 원주, 평창 3군은 대밭전을 보리라 하며 이 금광은 면적이 97만91평이라더라. 【춘천】

전강원도내 수해제제비 할당
전액 20만원으로 15만원을
민간에서 모집
(중외일보 1930-09-23 / 4면)



○○ 비롯된 강원도 수해구제회에서 구제금 20만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각군 할당방침을 도당국에 ○○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한바거니와 도당국에서 요즈음에 이○해서 겨우 각군의 활동을 좌같이 결정하였다 함에 의하건대 15만원만을 도내 민간측으로부터 모집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을 ○1만원을 도내 각 관공서로부터, 2만원은 도내 각 단체로부터 ○○의 2만원은 도외로부터 ○○○금에 기대하기로 하였는데 각군에서 할당방침을 그 군의 군세및 ○○○과 농작물및 적하여 가장 공평히 하였다 한다. 【춘천】

군명	금액
춘천	9,900원
인제	2,700원
.....	
원주	8,500원
횡성	8,600원
홍천	9,400원
.....	

강원도내 광산개척상황
(중외일보 1930-09-29 / 4면)



강원도의 모든 산업은 근대 가속의 형세로 개발되는 중인데 그 중 중요한 자의 하나로 광산업의 현상에 대하여 보건데 1일 58인 이상의 노동자가 사역하는 곳은

사업장소	기업자	동명칭	사역인원
통천군	○천○○	동척회사	
정선군	김○	어영중	64
횡성군	同	이제식	297
김화군	중출광산	中出○	125
김화군	우익기광	박기우	66
평강군	삼릉우익기광	삼릉기광주식회사	72

등의 6개소인데 그 중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금광은 ○금성○이 ○히 ○○하여 원근 각지로부터의 생계자가 비상한 형세로 증가함은 근자에 이르러서는 종래 34호에 불과하던 산○○가 수십호의 면리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기광에는 기어이 따르는 주막 음식점 등이 즐비하여 대변창을 이루는 중이며 이곳만은 불경기의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별천지를 이루었다.

선만척식회사의 협잡
(신한민보 1930-10-30 / 2면)



경성 본정경찰서 사법계에서는 명치정 이정옥 '선만척식주식회사' 전부 취체의 고교원랑 이란 자를 유치하고 엄중히 취조중인데 전기 고교는 작년 9월 경에 시내 수표정에 거주하며 선만척식회사라는 상호를 결고 권업 채권의 일부 판매를 경영하고 전조선에 보험제도의 우급 사원을 파견하고 권유에 노력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보험 제도의 외교원인 까닭에 여러 가지 폐해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전기 고교는 전부터알던 안영순, 박창섭 등과 의논하고 출자자를 구하던 중 수표정 37번지 중국인 담정곤이가 재산이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사장으로 올려 세워 회사를 창립하여 3월부터 김상필, 박○, 이수학 등 역원 신정과 동료 완료까지 기업을 하게 되었다. 자본은 20만원 4,000주로 한 후 전기 사장이 1,000주를 가졌으나 무산자라 한푼도 못

재계 되어 결국 유령회사가 되고 말게되
자 전기 중국인 사장을 퇴직시킨 후 계동
2번지에 있는 정모의 아내가 재산이 있다
는 말을 듣고 정을 사장으로 추천하였으
나 정의 가정관계로 말미암아 이 계획도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그 후 사원 진명
근은 감언이설로써 장사동 97번지 5만원
의 자본가 이광열을 감사역으로 삼가 정
89번지 김동철을 사장으로 추천하려고 무
급임으로 신입금사의 송금한 것을 소비하
고 송금자에게 현물 채권을 발행하지 않
은 것은 전조선을 통하여 527명 신입금
5,759원58전이요 신입자로서 상당한 외에
달하지 못한 자가 191명에 715원50전,
718명으로부터 6,475원의 신입금을 지급
하여 횡령 소비하였다. 그리고 또한 회사
치 사업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소재
지의 금은광구를 사서 등록하였는데 그
비용 1,000원을 소비하였다 하니 금광은
고교, 정, 안 3인의 기인 명의로 되어있
다. 기타 광구 획득하기 위하여 준비금으
로 600원을 소비 하였으므로 본 정서에서
는 이 사건이 상법 위반이나 사기 횡령이
라 하여 엄중 취조중이라 하는데 피해자
가 1,400명이고 횡령금액도 12,000원이나
된다고 한다. 회사치 사업으로 강원도 횡
성군 서원면 소재인 금은광구를 사저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 비용 1천원을 소비하
였다 하나 금광은 고교, 정, 안 세사람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기라 광구 획득하
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600원을 소비하였
으므로 본정서에서는 이 사건이 상법 위

반이나 사기 횡령이라 하여 엄중 취조중
이러는데 피해자가 1천400명이고 횡령 금
액도 1만2천원이나 된다더라

**강원도 추천 공판 종료
전년에 비하여 약 100만원 감소
(매일신보 1930-11-01 / 3면)**

【춘천】 강원도의 추천공동판매는 춘천군
의 10월 10일로서 종료하였는데 그 성적
은 군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군명	취인총수량	판매총금액
춘천	765석	7,501원
인제	303석	2,996원
양구	645석	6,502원
회양	5석	56원
통천	—	—
고성	163석	2,878원
양양	78석	822원
강릉	34석	367원
삼척	38석	384원
울진	20석	253원
정선	38석	373원
평창	71석	668원
영월	62석	649원

원주	505석	5,576원
횡성	1,052석	20,872원
홍천	926석	21,114원
화천	446석	4,395원
김화	78석	794원
철원	55석	661원
평강	31석	327원
이천	21석	133원
계	5,327석	96,321원

춘추잡권을 합하여 40,762석(가격 89,582원)인 바 결국 전년에 비하면 약 2,000석 즉 약 200여원이 감소하였다.

나서 중상자 2명, 경상자 200명을 내었는데 내용은 전기 광산을 張明洙가 경영하는 것을 이하 세사람 경성 돈의호동 76 高漢柱 경성 〇량문 260 孫洪駿 개성 북본정 448 洪弼商 등이 광산 부근을 매수해가지고 12일에는 고한주의 대리 南相善이 광산에 와서 가차압을 하려고 할 때에 장명수와 언쟁이 되어 광부 전부가 들고 일어나 그와 같은 큰 싸움이 있었다는데 횡성경찰서에서 이급보를 접하고 경관 6,000명을 급파하는 동시에 쌍방의 싸움 중지에 노력중이라 한다.

횡성 정곡면 鐵山騷動
중경상자 수백명
광산을 산 사람과 언쟁이 생겨
경관 출동 진압
 (매일신보 1931-01-14 / 2면)

세인 이목을 용동하는 횡성 광산 사건
그 내용과 피검자(1)
 (매일신보 1931 01-20 / 3면)



【횡성전화】 12일 오후 5시경에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에 있는 광산에서 싸움이

【원주】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하안흥리 원흥금광은 1930년 6월 11일에 개광하였는데 그 때 대표자 李星種와 등록 가입자 이필호, 李진형, 장명수와 기타 동업자인 白南奎, 李良玉 등 7인의 동업으로 자본주는 張明洙로 사업진행중 장명수에게 鄭銘夏, 崔명준 양인이 자본부분을 또 동업하게 되어 흥미 있게 진행중 車웅명, 金春三, 金相烈 3인의 소개로 인하여 지난해 7월경에 李良玉, 白南奎, 李진형은 경성부 관철동 260번지 孫洪駿에게 선위매도하였고 최후로 대표자 이성중씨도 매도할하고 경향간을 물론하고 광고하는 중 동업자인 張明洙씨가 동부분을 8천원에 매수하라고 상경하여 상의한 결과 대표명 의만 4천원의 가금을 주고 선매매하고 그 광산 부분은 하거하여 措處하지는 조건으로 경성서 횡성까지 동래 하였는데 그 내용을 孫洪駿씨 편에서 알고 그 후에 즉 동광소에 와서 이성중에게 감언으로 수일간을 두고 소개 하여 종말에 장명수와 상담은 물론하고 그 광산 부분만은 손흥준에게 6,000원에 매각한 고로 그문제로 하여금 손, 장, 이 3인의 유○하게 되어 손흥준이가 총독부 광무과 등록에 명의 가입시에 장명수에 승인하려 하여금 ○○○○로 양인에 분쟁이 분분하다가 지나해 10월분에 손흥준씨가 張一이라는 수단객으로 같이 횡성에 와서 머물면서 장일은 장명수씨와 결의 형제 까지 하게 되고 10월 중순경에 왔는데 장일 말이 정명화, 최명집에 자본부분을 자기가 1만원에 매

수하기로 서로 약조 하나 현재 금액에 6천원이 있고 4천원이 부족하니 장명수가 4천원을 출자 하여 동참하자고 하는 고로 그때 장명수는 말하기를 현재 자기수중에 4천원이라는 금액이 없다고 하니 장일이 가 말하기를 자기가 손흥준에게 4천원을 차용하도록 소개 하겠으니 차용하여 매수하지는 감언을 하는 고로 그감언을 장명수는 듣고 횡성읍내 상춘관 요리점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장일을 주고 화성여관에 투숙하고 다음날 아침 생각하니 그 장일의 감언에 속은 줄 알고 그 즉시로 장일을 방문하여 그 차용증서를 보기를 청하며 광산허가 신청에 승인한 것을 보자 하니 張일의 말이 손흥준을 주었다 하는 고로 그 즉시 손흥준에게 함께 가서 물으니 손흥준은 말하기를 경성으로 보냈다고 하기로 그러면 차용금 각서를 달라고 하니 차용금 각서는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 하는고로 그러면 그 금 4천원을 본인이 차용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장일이 나 최○○이가 그 차용금액 각서를 가지고 오더라도 금 4천원을 주지 말라고 부탁하였는고 지난날 그 차용금증서로 하여금 12월분에 손흥준, 장일에게 내용증명서로 차용금증서를 반송하라고 하였고 또 11월분에 손흥준, 고한주, 남상선 등이 횡성에 와서 장명수씨에게 말하기를 원흥금광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을 정곡금산조합이라고 하지는 것을 장명수는 반대하였더니 그즉시로 손흥준은 횡성으로 나가 경찰서장에게 말하여 장명수를 호출하

여 타협을 하도록 동 서장은 장명수를 호출하여 경찰서에서 손, 장에게 화해목적 을 수시간이나 소개 하였으나 양편의 요구가 피차간에 불만족하여 화해를 시키지 못하고 피차 화해한 이후로 손홍준편에서는 정곡금산조합이라는 간판을 임시로 봉하고 광무원 45인을 배치하고 장명수씨는 기존에 있던 원흥금광사무소라는 간판하에서 부분은 20분의 1을 소지 하나 대표 자리는 명칭하에서 행사하는 고로 장, 손 양인이 불화합한 입장으로 진행중인데 지난 12월 초순 경에 별안간 손씨편에서 고한주가 와서 광부대장을 등본하여 가는 고로 각 광철 덕대편에서는 그 내용을 먼저 알고 뒤에 여하한 사고가 있다하더라도 사실을 알고 있는 광철덕대 15여명은 자기의 소지 광철부분을 타인에 매도하여 명의변경서를 사무소에다 제출하여 광부 대장에 명의를 변경한 후에 손홍준, 손필 상, 고한주 등은 경성지방에다 채굴폐지 소송을 제기하며 일방으로 덕대 37명에게 가처분명령서를 송달한 고로 이를 받은 덕대편에서는 대송할 예정으로 37명 대표 자 이용인, 강홍식 2씨가 상경하여 변호 사에게 위임하고 하래한 이후로 지난 12 일에 별안간 원주지청으로부터 집담회 2 인과 변호사 최백순씨 손홍준 대리인 마 상선씨 등이 황성경찰서로부터 입회경관 수인을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동일 오후 1시경에 경찰서 사법주임崔경부보 는 각 덕대 37명을 원흥금광 사무실 응접 실에 집합하여 주의를 주고 원만히 타협

을 청하였는데 덕대 37명 대표자인 강홍 식으로부터 말하기를 소동문제로 논하면 자기 등은 어디까지라도 방지하겠으나 현재 광철은 이광하면 광부 300여명은 사활 문제이오니 만일 광부에게 수여하한 사고 가 생기는 동시에는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또 덕대대표로 박창화씨는 말하기를 광업이라 하는 것은 국가사업인만큼 1. 지하에 은재한 황금을 채하여 국가를 부 하게 하는 목적 2. 직업이 무한 부락인민 은 직업있게 하는 고로 국가사업이라고 칭하는데 이 금광에 문제로 되면 손, 장 의 권화상쟁에 대하여 우리 덕대가 하죄 이며 우리 덕대 37명중에도 6개월을 채굴 하여도 황금1분을 구경도 못하였다.

세인 이목을 용동하는
 횡성 광산 사건 그 내용과 피검자(2)
 (매일신보 1931-01-21 / 3면)



【원주】 그리고 금전만 기백기천원씩 허비한 자로 당신의 광산성적만 쳐다보고 있는 덕대가 무슨 죄인가 현재 〇압문제로 인하여 연상대에서는 금전출납을 아니하므로 일주일전부터 식량을 구하지 못해 죽 한그릇도 먹지 못하는 자도 있고 혹은 콩나물 산채로 목숨을 부지 하는 자가 10분의 9나 되는 광부에 활로를 인도하여 주지는 못할 지라도 이와같이 극도의 상태까지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이며 또 손흥준으로 말하자면 개성부내에서 내노라 하는 백만장자 손〇상씨의 둘도 없는 장자로서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〇〇〇에 불과한 광산으로 하여금 수십명의 생명을 끊는 경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아니하다는 문제 하에서 일반광부와 모여있는 5,600여 관중은 박수로 찬성하며 또 광부편에서 낙〇아니 하는 자가 없었고 또 금광사무소 〇면수씨는 말하기를 최백〇변호사 영감은 손흥준씨의 대리인이시니 말하자면 손흥준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지요 작금의 금광상태를 통찰좀 하여 보시고 차〇압문제로 하여금 연상에 금융거래는 1조1석에 없어지니 각광철덕대에게 백미 1승이라도 미곡상점에 외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없으므로 인솔하는 광부를 목숨을 부지 하도록 할 수가 없지요 영위하절이면 어디를 가서라도 품팔이하여 목숨을 부지하겠지만은 이와같은 엄동설한에 어디에 가서 굶주림을 벗어나겠소 수천명의 광부와 종사자의 활로를 하루아침에 끊어 버리게 하니 너무 독하지 않소 최변호사 영감님 이와 같은 수천명의 인생에게 활력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용인치 않아 차압은 하여 〇〇은 하더라도 우리 광부 수천명은 최변호사와 최 경부보뒤를 이을 예정이오니 제발 총분으로 〇〇시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말하자면 작년 12월 손흥준씨가 하래시에 말씀하시

기를 장씨가 허채○을 화○사용일로부터 6개월 기일을 하여주었으니 우리는 12개월 기한으로 하여 준다고 감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남상선씨도 입회하여 듣지 아니 하였소 기여히 말살하든 자선이 많은 손진삼님이 이같이 하기는 의외 이다 법은 법이니 차압은 하시되 명의 변경된 광철도 광분하여 하십시오 그 후에는 좌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차압을 광평하는데 제 1착으로 전 덕대 이○○씨의 광철에 이르러 차압을 ○수중 원주읍내○○○씨의 대리인 장태환씨가 말하기를 이 광철은 전에는 이서인의 명의이나 이번 가차압0분서를 영수 하기 전에 ○○○씨에게로 매매되어 명의 변경되었으니 차압수○은 받지 않겠가 하니 ○○경가 손홍준 대리인 남상선씨를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겠느냐고 물으니 남상선과 장씨말이 이 광철로 말하자면 정식으로 매매된 것이아니라 가면으로 명의 변경한 것이니 ○○하라고 말하니 ○○경은 ○○○의 말에 복종하여 차압에 ○수 할때에 동광부로부터 말하기를 남가를 때려죽이자라는 소리가 나자 사방으로부터 광부 200여명이 순식간에 모였는데 혹은 장대를 휴대하여 오고 혹은 장척을 휴대하여 남남,장뿐아니라 손홍준편에서 온 사무원인부까지 구타하기 시작하여 약 3시간 소동이 되었는데 그때 경관이 5명이나 있었지만 도저히 방지할 도리가 전무한 고로 변호사 ○○경은 그 즉시 안흥리로 내려가고 장 남 양인은 각 ○대에게 보호되어 자동

차로 향하였으나 수백명 광부와 기타 광부의 가족까지 라도 남녀를 물론하고 자동차 전후에 모여서 엄격히 가려서 나누어 주고 같이 야소(夜消)를 하여 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삶과 죽음을 결판하자는 말에 사람이 아닌 목석이 아니면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아니한자가 없을 입장이고 좌우에서는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요중에도 경관과 덕대의 호위로 인하여 남장은 안흥주재소로 호송하였는데 그후도 광부 200여명은 안흥 주재소로 일제히 대를 만들어 안흥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을 각 덕대들이 방지 하고 안흥주재소에서 급보를 횡성 경찰서에 전화 하여 급보를 접한 횡성서에서는 서장이하 56명의 경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과 중상자 2명이라는 것은 기묘한 바 이어나와 그후로 서장께서는 각 덕대에게 원○히 해산을 시키고 명의변경된 광철 15개소는 차압치 못하고 남은 32개소만 ○○하였고 전 동조자인 5명은 횡성서로 압송하고 그 후는 전부 훈방 하였는데 ○○된 광철광부는 엄동설한 백설중에 처자부양하러 나가야 호형호제로 눈물흘리면서 손홍준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 참으로 목석이 아니면 눈물흘리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고 또는 손홍준 대리인 남상선은 지난 14일에 횡성경찰서에다 광부와 덕대 10여명을 고소 제출하고 마지막 합의를 위해 횡성경찰서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경에 장명수와 각 덕대 대표 ○홍식, 김상진, 문광원을 호출하여 근무하되 이문

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차압
치 아니한 광철 15개 소를 덕대 자발적으
로 당분간 폐광하지는 말로 마치자 ○○
경에서 말하기를 서장의 명령이시니 당분
간 폐광하고 ○○○지는 하겠사오나 광부
의 활로를 말하니 현주 손홍준 편에서 일
금 300원을 출액 하여 구명제생토록 한
다는 조건으로 각 덕대 대표자 3분은 자
발적으로 채굴 ○지 하기로 결정하고 나
왔는데 지난 17일에는 최번호사와 ○○○
서 현장에 출장하여 광부에게 생활비로
300원을 주고 광철은 자발적으로 폐광하
였는데 일반 덕대와 광부는 신속히 손,
장이 ○○결정되기를 기대중이며 압송된
광부의 이름은 좌와 같다.

**횡성군하에 흥기강도단
칼 가진 두명의 강도가 나타나
횡성서 대활동 개시
(매일신보 1931-03-24 / 7면)**

**橫城郡下에
兇器強盜團**

칼 가진 두명의 강도가 나타나
橫城署大活動開始

【春川】 지난 18일 새벽에 시골 한 자나 되는, 시외현찰운씨족의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마옥리(馬玉里)에, 범박한 두, 일곱살된 흉악한
賊匪(賊匪) 두명(二名)이, 동인(東人) 손홍준(孫洪俊)을, 도망(逃)하여, 금(金)
(宋鍾九) 집(宅)에, 침입(侵入)하여, 소(小)포(小)를, 약탈(劫掠)하여, 금(金)
錢(錢)을, 약탈(劫掠)하여, 침입(侵入)하여, 기(奇)단(團)의, 하(下)인(人)을, 협박(脅迫)함(을)이다.

【춘천】 지난 15일 새벽 4시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마옥리 농업 宋鍾九 집에 24, 25세 가랑된 사내들 두 명이 침입하여 길이 한자 되는 시퍼런 칼을 뺨득이며 협박한 후 일금 3원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망하였다. 급보에 의하여 소관 횡성서에는 목하 범을 염탐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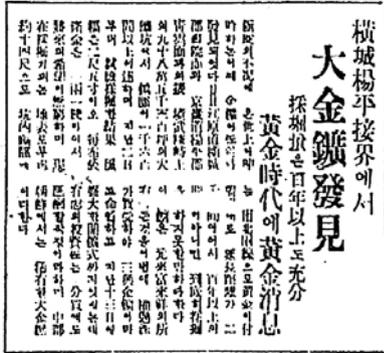
**강원도 횡성군 大火 20여호 35동 소실
인축의 사상도 아직 알 수 없고
손해추정 56만원
(매일신보 1931-04-05 / 2면)**

江原道橫城大火
廿餘戶卅五棟燒失
인축의 사상도 아직 알 수 없고
損害推定五六萬圓

【春川】 3일 오전 0시 20분경에 강원도 횡성읍내 중앙지 내있는 尹泰元의 집에서 불이 나서 때마침 맹렬히 부는 열풍에 불꽃은 그칠줄을 모르고 확대되어 인근의 20여호 35동을 전소하고 겨우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아직 미상이나 대개 등잔불로 추측되며 人畜의 사상은 역시 알 수 없으나 물질의 손해는 적어도 6만원 이상에 달하리라고 한다.

【춘천지발】 3일 오전 0시 20분경에 강원도 횡성읍내 중앙지 내있는 尹泰元의 집에서 불이 나서 때마침 맹렬히 부는 열풍에 불꽃은 그칠줄을 모르고 확대되어 인근의 20여호 35동을 전소하고 겨우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아직 미상이나 대개 등잔불로 추측되며 人畜의 사상은 역시 알 수 없으나 물질의 손해는 적어도 6만원 이상에 달하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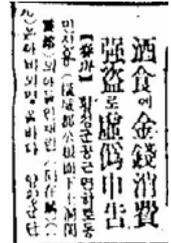
횡성 양평 접계에서 대금광 발견
 채굴량은 백년이상도 충분
 황금시대에 황금소식
 (매일신보 1931-05-17 / 3면)



유래 없는 불황에 온 세상이 신음하는 이때 금광이 또 하나 발견되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과의 접경 무릉치 사이에 있는 985,300평의 큰 광장에서 광맥이 1,600문 이상에 달하여 지난2일부터 시험 채굴한 결과 맥폭는 2척5촌이요 매 포대산금은 1량1전이어서 장래의 희망이 무궁하며 현재 채굴 기회는 종표로부터 약 10문척으로 향내 수요에는 남북 양선으로 황금이 부착되어 있어 연장노선이 2천여문인데 일반적으로 백년 이상의 산출량이 아니면 도저히 채굴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광산은 원래 부래상의 소유였던 것을 이번에 권면수가 매수하여 삼흥금광이라 명명하고 지난 13일에 성대한 개광식까지 하였는데 유지의 투자 또는 분매에도 유치할 작정이라 하며 신부 조선에서는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 한다.

酒食에 금전비용 강도로 허위신고
 (중앙일보 1932-01-16 / 3면)



한선구(韓善鎬)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金泰榮의 집에 가서 작미를 팔아가고 오다가 중도에서 술값으로 전부 소비하고 부친의 책망을 겁내서 1월 3일 오후11시경에 홍천군 남면 화전리 당고개 중턱에서 2명의 강도에 게 돈5원을 강탈당했다고 허위신고했다가 사실이 탄로되어 29일간의 류 처분을 받았다 한다.

【횡성】 횡성군 공근면 하도동 閔善鎬의 아들 閔在란(19)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金泰榮의 집에 가서 작미를 팔아가고 오다가 중도에서 술값으로 전부 소비하고 부친의 책망을 겁내서 1월 3일 오후11시경에 홍천군 남면 화전리 당고개 중턱에서 2명의 강도에 게 돈5원을 강탈당했다고 허위신고했다가 사실이 탄로되어 29일간의 류 처분을 받았다 한다.

광명을 맞는 대동상업전수(완)
교당국 고심참담 18만원 기금 성립
독지가의 분발로 전도양양
계산학교까지 합체하여 운영
(중앙일보 1932-03-14 / 2면)



이와 같이 신당리 부유지를 학교 기지로 택한 것은 무슨 방법이든지 府로부터 기지의 들어들 때 정으로서 그 후 당국에 대하여 누차 교섭하였으니 부당국으로서 는 단연 〇라 차안함으로 불하계획은 실패로 들어가고 더구나 그 이듬해 봄이 되 매 불결하기로 유명한 신당리 일대는 건디지 못할 악취의 더러운 파리떼로 말미암아 동교 교장 金萬壽씨는 시내로 교사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뜻있는 후원자를 찾은즉 운명에 희롱받던 대동학원은 다시 봄바람을 만나게 되어 현재 교의 유일한 후원자는 강원도 횡성군 부호 高昌漢*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창한씨로부터 학교 경영이 적임을 맡겠다는 승낙을 들은 동교 간부들은 큰가뭄에 감우를 만난듯이 기뻐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불이한 사정으로 사분오열되었던 인력거차부조합은 새로운 …… 회원 1,600여명을 수습하고 총회를 열어 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를 만장일치의 결의를 한후 오늘까지 매일 매일 1천원씩의 회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19〇〇년 〇월에 고창한씨는 학교 부지 시내 각처에 구하였으나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신학기가 임박함에 따라서 부득이 자기 사택 부지를 제공하여 교사를 신축한 후 동년 10월에 보통과 6년 상업보습과 2년제의 인가를 받아 학원의 전도양양하게 되었다. 뒤를 이어 작년 9월 시내 재동 계산보통학교가 경영에 곤란을 받게 되어 폐교할 운명에 이르자 동 …… 동교의 경영권을 인수량씨가 맡게 되고 대동학교의 보통과 생도와 계산학교 생도를 합하여 가회동 108번지 대동학교 교사엔 당국으로부터 보성보통학교로 불리게 되고 계동 16번지 계산보통학교 자리에는 대동상업전수학교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듯이 발전을 보게된 동교는 고창한씨의 들여놓은 토지와 동산을 합하여 18만원의 거액에 달하는데 금후로 20만원의 적립을 만들게 되면 완전 갑종 상업의 인가를 얻게될 거라고 한다. 동교 앞날 〇〇 도서는 학생 …… 하여 작취하는 준비를 하고 일반 학생의 수공적 기술을 교양시키는 학자 보조에 의하여 공작을 설비하고 학과 후 매일 2, 3시간씩 노동을 하게되면 학비를 별게 되도록 설계하였는데 모든 시설이 실현되는 날은 …… 이다.

[*고창한은 횡성 출신

**본국시사 강원도의 유리군 증가
4천300여호 인구는 1만 8천여명!**
(신한민보 1932-03-17 / 2면)

유리군	호수	인구
유리한자		
춘천	105	368
인제	141	564
회양	102	480
강릉	6	28
삼척	23	104
울진	28	35
정선	29	145
평창	527	1,792
영월	165	685
원주	53	176
횡성	437	1,951
홍천	38	154
화천	58	409
김화	38	150

강원도는 빈민이 많기로 유명한 바 농작 상황은 대개 그 해의 강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작년도의 수해로 인하여 나타난 농작은 떼거지의 강원도로 화하고 말았다. 이제 강원도 보안과가 조사한 바 아주 거지가 되어 유리 또는 유리할 통계 숫자는 아래와 같다.(단 조사한 곳만 기재하고 조사 미필한 곳을 생략)

유리한자	호수	인구
춘천	105	368
인제	141	564
회양	102	480
강릉	6	28
삼척	23	104
울진	28	35
정선	29	145
평창	527	1,792
영월	165	685
원주	53	176
횡성	437	1,951
홍천	38	154
화천	58	409
김화	38	150

평강 65 293
이천 76 392
총계 2,135 8,557

이밖에 유리하게 된 호수는 2천177호에 인구는 9,584명이라고 하였더라

**지방제도 개정 1주년의 기념
횡성군의 시설은 조림과 공회당 건축
8면에 각각 급한 것을 택하여
강원도의 독특한 시정(2)**
(매일신보 1932-04-20 / 3면)



【춘천】속보=횡성군에서는 지방제도 개정 실시 1주년 기념사업을 좌기와 같이 실시하였다.

1. 횡성면 수해방어 조림사업 개시(1941년 4월까지 완성)
1. 우천면 각리에 공회당을 건설
1. 정곡면 ○병목 식재
1. 둔내면 조림사업개시
1. 갑천면 간이 공회당건설
1. 청일면 조림사업 개시
1. 공근면 同 상급 공회당 건설
1. 서원면 조림사업 개시

공동작업을 목적으로
 합동 트럭조합 설립 경성 황성 흥천간
 에 트럭노선 보유자를 연결하여
 (경성일보 1932-06-08 / 7면)



경성 황성간, 경성 흥천간의 화물자동차 선로를 유지하는 강원도 황성면 영서화물 운송부 대정준일. 부내 황금정 3환2운송점 영목상길, 종로 5주점 운수주식회사 주정리수, 수표정 내선 자동차 운수주식회사 추전춘 등의 4개사는 기기 협의의 위에서 부당한 경쟁을 피하고 합리적 일정의 허가 운임을 함으로써 화주 본위에 입각한 사회대중을 위한 운송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약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공동작업으로 일을 하는 합동 트럭조합을 설립하여 종로 5-4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두었는데 담당을 나누는 모양을 보면 1년간 수용의 배차수를 안분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우에 대해 경기도 보완과에서는 잠시 동안은 묵인이라는 단단한 허가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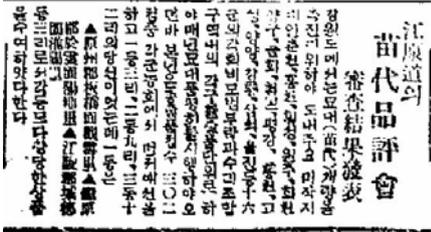
본국시사
 무산아동교육 위하여 20만원 재산 기부
 20만원 전재산 제공
 (신한민보 1932-09-01 / 2면)



근 10년의 신산한 역사를 쌓은 경성 재동에 있는 대동학원은 무산아동 교육계의 은인이요 일직 동 학원의 교주인 고창한* 씨의 기부로 30만원의 재단법인이 성립되리라 한다. 재단은 일찍 고창한씨가 기부 하였던 동학원의 10만원과 금번에 기부한 1천600석 추수의 전답 산림 또는 현금 동시가 20만원을 합하여 전체 30만원의 법인인으로 된 것이다. 이 재산은 교주 고창한씨의 전재산을 기울인 것으로 씨의 이 재산은 30세 이후 적수공권으로 근검 절약하여 자수로 모은 재산이라 한다. 이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무산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그 전부를 바친 씨는 지난달 3일 재단법인의 수속을 밟기 위하여 자신의 육십 노구를 이끌고 향리 강원도 황성에 향하였다 한다더라

[*고창한은 황성 출신]

강원도의 모대품평회 심사결과 발표
(매일신보 1932-11-26 / 3면)



강원도에서는 苗代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주요 미작지인 춘천, 홍천, 횡성, 원주, 화천, 양구, 김화, 철원, 평강,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등 16군의 각 퇴비 모범부락과 수리조합 구역내의 각구를 재배 단위로 하여 매년 모대 품평회를 시행해오던 바 본년은 종0품 접수 302점 중 각군 농회에서 먼저 예선을 하고 1등 3리, 2등 9리, 3등 12리의 당선이었는데 1등은 (중략) 등 3리로서 각등 모두 상당한 상품을 수여하였다 한다.

大東학원이 갑종상업교로
부일간 허가된다
(중앙일보 1933-01-30 / 2면)



인력거꾼들의 불쌍한 자녀를 위하여 설립하였던 대동학원이 횡성 유지 高昌漢씨의 희생적 장거로 35만원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계산보통학교로 이름을 고치고 400여명의 무산 자제를 교육하는 중이고 보습과생 120명이 따로 있는 바 최근에 이르러 이 불쌍한 아동들에게 초등 교육만으로 시켜가지고는 도저히 기약하는 바의 실제 수학은 얻기 어렵다하여 상업학교를 전기 35만원 재단법인 등에서 따로 이 설립하여가자고 일체 생활상 필요한 것을 교수코저 5년 졸업제의 갑종 상업학교를 출원중인바 불일간 허가가 나올터이므로 오는 4월 학기부터는 개교하려 한다.

**평창군 봉평 둔내 간 도로 공사 기공
면장 발기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전 면
민이 총 출 부역**
(매일신보 1933-04-05 / 5면)



【원주】 평창군 봉평면은 교통이 불편하여 일반면민은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봉평면장 김진악씨는 이에 대하여 4, 5년전부터 도에 몇 번이나 진정하였으나 도에서는 경비 문제로 이제까지 실시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난3월 29일 김면장은 본면 유지자 150여명을 초대하여 기성회를 조직하고 일반 결의사항을 토의한 후 횡성군 둔내면과 봉평면 간 약6리 거리의 개통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현시 자력갱생을 주창하는 이 때에 공사도 도의 원조나 유지자 기부금으로 청부업자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민민의 힘으로 완성할 예정인바 각호 10명 이상으로 총20만명 이상을 예정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거래가 번민한 둔내면과 대화면은 4리 이상 거리를 단축하는 바 경제상이나 시간상 많은 편리가 있을 것이다.

**遠東소식 덕천 독립당 사건의 주범 폭탄
세울고 김일봉 자살로 변락규 피체**
(신한민보 1933-05-11 / 3면)



조선독립단 국민부 조선독립군이 작년 6월 조선에 잠입하여 평북 평남에서 동지회독과 군자금 모집을 하던 중 2월 7일 평남 덕천 경찰의 활동에 의하여 평북 영변군 백녕면 동연면에서 김일봉, 장인출 등 2명의 단원이 체포되어 그 중 김일봉이 폭탄을 터트리려 폭사한 뒤 일시 사건이 미궁에 빠졌는데 지난12일 평북 태천서원이 전기 사건의 수범인 평남 영원군 영원면 남산동 출생 만주 환인현 남아에 거주하는 변락규, 일명 청산과 박봉수를 창정군 청산면 양덕동에서 김윤근을 삭주군 기남면 래평동에서 체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군자금 강탈죄로 최창학씨를 잡아가고자
이 수모자의 체포로 드러난 사건의 전모를 보면 변락규가 작년 6월 체포치 못한 김묘 두명과 권총 두 자루를 휴대하고 벽동 대안에서 월경 잠입하여 귀성 읍내에 금광왕 최창학씨를 인질로 잡아다가 거대한 군자금을 강탈할 목적으로 운동을 지속하였으나 최창학씨가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 다시 만주로 돌아가다가 9월 3명은 또 권총 두자루를 가지고 최창학씨 기타

부호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강탈하고자 잠입하여 1명은 평남 방면으로 1명은 귀성과 삭주로 변락규는 영변과 창성을 담당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또 최창학씨가 출타하여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삭주를 담당한 단원이 삭주군 매납면 입평동 김윤근을 동지로 만들어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변락규씨는 영변군에서 김직제 외 수명의 동지를 만들었다.

그 후 11월 전기 3명은 삭주로 남면 용당동에서 수명의 동민이 도박을 하는 것을 습격하여 현장에서 168원을 강탈하고 12일에는 역시 3명이 삭주군 수풍면 연풍리 김명운 외 6명에게 협박꾼을 보내 이윤근에게서 150원을 강탈하고 동월 귀성군 귀성면 동산동에서 순사가 명사를 밝히려 하자 발표하고 도주하였다.

군자금 모집권과 권총도 압수

별항 사실은 덕천군 사건이 있기 전이요, 덕천 사건 후 3명은 창성군 서산면 양덕동 신직삼씨의 인도로 김찬성씨를 대유 동 금광에 파송하여 금광의 상황을 정찰케 하고 또 일방 자금을 모집케 하였는데 3월 29일 밤에 변은 박봉수*와 같이 삭주 개남면 태평동 이봉주씨의 집에 침입하여 42원을 강탈하였다. 이렇게 활동하던 4명은 필경 체포되는 동시에 모젤식 권총 한 자루와 현금 43원, 조선 독립군 사령부 군자금 모집권과 군자금 모집권과 군자금 영수증 41매와 사령부 지령 1백매와 격문 등을 압수하였는데 이들 4명은 평북 경찰부로 압송되었다.

[*박봉수(1898~1974) 횡성 출신]

횡성* 서원면 大火, 10호 15동 전소 2명의 부상자도 내어 원인은 실화 손해는 이천원 (조선중앙일보 1933-05-17 / 3면)



【강릉】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1리에서는 지난10일 오후1시 경에 동리 崔玉珽의 집에서 불이 나서 때마침 댄들던 바람길에 화세는 견잡을 새 없이 이웃집까지 연소되어 10호 15동을 태워 버리고 2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며 동민의 총동원으로 겨우 당일 오후10시 경에 진화되었는데 원인은 지엽에서 불이 일어난듯 하며 손해 정도는 약2천원 가량이고 가축의 피해도 상당히 있는 모양이러한다. 그리고 이재민 50여명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있는 형편인데 방금 군과 면 당국에서 불을 끄려한다.

[*횡성 서원면이나 정선 서원면으로 오자]

덕천 폭탄 사건 주범 등 송국
변낙규 외 16명을
13일 신의주 검사국에
(조선중앙일보 1933-05-17 / 3면)



【신의주】작년 7월 벽동 지방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월강 잠입하
여 평남북을 무대로 활동하다가 지난 2월
덕천폭탄사건의 주범으로 변낙규(邊洛奎,
41) 외 관계자 16명은 이미 평북 경찰부
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바 지난13일 치안
유지법 위반, 강도 살인 미수, 화약취제법
위반등의 죄명으로 신의주 검사국에 몇건
서류와 송치 되었는데 송국된 범인의 성
명은 다음과 같다.

변낙규(41) 김광월(24) ○형섭(16) 김운근
(29) 김찬성(45) 양병창(48) 박봉수(26)*
김상현(○○) 김광명(22) 김병수(○○) 심
윤섭(21) 문창수(25) 김운도(29) 강익훈
(64) 김두련(48) 이○준(41)

[*박봉수는 황성 출신]

황성에는 靄災
(매일신보 1933-07-05 / 2면)



지난 5월 31부터 6월13일까지 강원도
황성 부근 지방에는 4, 5차 우박이 내려
그 피해가 적지 않은 모양인데 농림국착
보고는 다음과 같다.

- ▲평창군 피해 29,760만 35,167원
- ▲원주군 571만 927원
- ▲황성군 37,817만 49,445원

횡성 입구 북한강에 철교 가설 운동
관계 관민 연합으로 기성회 조직
(매일신보 1933-07-25 / 5면)



【원주】 횡성, 흥천 입구에는 일대 큰 강이 둘러 있었으니 이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이다. 평상시 교통에는 선편이 있어 강원도 경내를 받게되니 다소의 강우가 있을 때는 상류로부터 일시에 집합하는 물이 창일하여 불시에 제방이 범람될 뿐더러 격류, 광랑, 선체 파괴, ○○, ○○ 등이 빈번하여 강원도 입문에 두절을 동시에 경기 강원 양도 편의한 교통이 지남함으로 유지 ○○○외 관계 각군수, 경찰서장, 기타 유지 60인으로서 양수강 철교기성회를 조직하여 관계 각군과 호사연락하여 당국서 진정할 계획인데 해당철교 재료는 재래 경성 시흥간 한강의 도로 폐철할 것을 예기하고 목하 각군이 발기하여 맹렬○○중이다.

좀 늦게 오는 것을 대금분실이라 소동
1만8천원 분실 운운의
삼척우편소 「넌센스」
(조선중앙일보 1933-08-10 / 2면)



【강릉지국발전】 경성우편국으로부터 삼척우편국으로 보내는 적행랑 속에 든 1만8천원이 분실하였다 하는 대소동을 연출한 사건이 났었는데 그는 삼척우편소 차오로 연출된 「넌센스」의 하나로 경성우편국에서 직접 자동차편으로 채송한 것으로 알고 증계를 맡은 강릉우편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경성우편국에서 보통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기 때문에 6일 밤에는 횡성우편소에서 1박하고, 7일에 강릉우편국에 도착하게 된 것이라 한다.

덕천폭탄사건의 邊洛奎 등의 판결
주범 변낙규에게 징역 10년 언도
기타도 7년 5년 등
(조선중앙일보 1933-08-11 / 2면)



【신의주】 조선○○단 거두로 작년 6월에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띄우고 월강 잠입
하여 평남 평북을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금년 2월 덕천폭탄사건에도 관련 돼있는
邊洛奎 외 관계자 4명에 대한 판결은 지
난9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菊池재판장으
로부터 다음과 같이 언도되었다.

본적 지○○군 ○○○면 송하리
주소 봉천성 환인현 남사서자돈 ○
무학 변낙규(41)(구형 징역 10년) 판결
10년

본적 ○○○군 서산면 대성동
주소 동상
무학 김찬성(45) (구형 징역 7년 판결
5년)

본적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하창봉리
주소 영월군 ○山면 ○연동
무학 朴鳳秀(26) (구형 징역 ○년) 판결 2
년반

본적 파주군 외부면 남안평동
주소 동상
무학 김윤근(29)(구형 징역 6개월) 판결
무년

본적 창원군 청산면 ○○동 347
주소 동상
무학 양병창(48)(구형 징역1년6개월) 판결
무년

양강철교 가설 흥천기성회의 활동
위원 상경 당국에 진정
(조선중앙일보 1933-08-22 / 2면)



…… 李○○, 朴漢杓, 南宮○, 山内○○
등 제씨가 21일 총독부를 방문하고 ……
을 하였다.

양친 없음을 비관코 18세 소년 액사
혈혈단신으로 남의 고용하다가
(조선중앙일보 1933-09-01 / 4면)



【이천】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경에 이천군 백사면 상도리 손남산(孫南山)의 집에서 고용하는 허○○(16)는 동리 뒷산에서 액사하였는데 그는 원적을 강원도 횡성에 두고 일찍이 양친을 여의고 다년간 고아로 돌아다니다가 전기 손남산의 집에서 고용하던 중 양친과 친척 없음을 비관하던 중 그와 같이 액수 자살 하였다 한다.

도내 각군에서 강원염색 강습
10월 중에 순차 개최
(매일신보 1933-10-06 / 5면)



【춘성】 농촌진흥, 자력갱생이 고조됨에 따라 경제상으로 던졌던 점으로든지 폐해가 많은 백의를 금지하고 색복 착용을 일반 대중도 절실히 느껴 착착실현하여 가는데인데 금번 도에서는 더욱 색복실시의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 일방법으로 일반에 염색의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좌기 일정으로 염색강습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15일 제1구 춘천 제2구 횡성 제3구 김화 제4구 고성 ▲18, 19일 제1구 춘천 제2구 원주 제3구 철원 제4구 양양 ▲21일, 22일 제1구 양구 제2구 영월 제3구 회양 제4구 강릉 ▲24, 25일 제1구 철원 제2구 평창 제3구 평강 ▲27, 28일 제1구 흥천, 제2구 정선, 제3구 통천, 제4구 삼척 ▲30, 31일 제3구 이천 제4구 울진 ▲강사 제1구 朴憲世 제2구 李東鉉 제3구 安敬一 제4구 李漢鎔

李東求씨* 영면

(조선중앙일보 1933-10-11 / 2면)



횡성 갑천면민 金組 설치 운동

(매일신보 1933-10-14 /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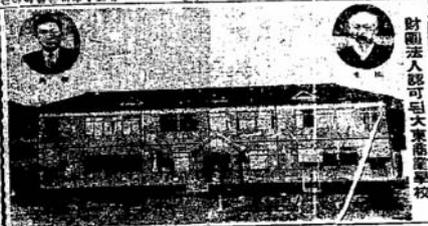
고려○○* 당 책임비서로 있다가 하얼빈에서 체포된 후 5년형기를 마치고 1931년 7월에 출옥한 이동구(李東求)씨는 그간 신병으로 치료 중 지난7일 오전7시에 시외 신당리 하동정동 16번지 유공삼씨 집에서 영면하였는데 그 장례는 9일 오전2시에 흥제화장장에서 동지들의 손으로 거행되었다. 이동구씨는 1886년 10월 28일에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하여 천도교 신자로서 기미년에 활동하다가 징역 1년형을 마치고 출옥하였으며 다시 형평운동에 참가하였다가 1924년에 만주로 건너가 고려○○당을 조직하고 책임비서가 되었다가 체포된 것이다.

【*혁명】을 ‘○○’으로 기재

【*이동구(1886-1933)는 횡성 출신

【춘천】 횡성군 갑천면에 거주하는 주민 158명은 면장 張斗淵씨를 대표로 하여 금융조합을 관내 갑천면에 설치하여달라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하고 기성회를 조직함으로써 더욱 맹운동을 전개하리라는데 갑천면은 호수가 3,500여호로 인구 1만8천여명이나 되고 당시 시장에서 취급되는 금액이 연 2천만원이상에 달하여 금융조합 1개소쯤은 상업 진흥상 절대로 필요하므로 도에서도 ○찰하여 지급 설치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진정서의 내용이다.

대동상업학교 재단법인 수 인가
 【21일부로 인가 지령】
 불원에 교사도 신축
 (조선중앙일보 1933-10-25 / 2면)



大東商業學校

財團法人 遂認可

【二十一日附手認可指令】

不遊에 校舍도 新築

조선중앙일보 1933-10-25 / 2면

대동상업학교 재단법인 수 인가 지령이 21일부로 내려졌다. 이 학교는 불원에 교사도 신축할 예정이다. 학교는 1925년 설립된 이래로 교육에 힘써왔으며, 현재 재학생은 410명이다. 학교는 양양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 교주가 된 고창한씨는 일찍이 강원도 횡성읍에 출생하여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근검저축으로 자수성가하여 그 말년에 35만원의 재산을 모아 부명을 듣게 된 사람인데 경성에 올라와 전기 대동학원이 인력거부협회의 경영으로 재

총독부 심의실에서 심의중이던바 지난21일부로 드디어 인가지령이 나왔다. 이로써 동교는 그 장애가 빛나게 되었으니 우리 교육계에 적지 않은 경사라 하겠다.

회고하면 지금으로부터 9년전 1925년 金萬壽씨의 발기로 자산이 없이 학교에 입학이 되지 못하고 수업료가 없어 중도에 퇴학을 당하여 거리에서 방황하는 무산아동의 전도를 위하여 대동학원을 창설한 것인데 그 후 거듭하는 경제공황으로 동학원의 경영이 어려워 잠시 알게된 경성인력거부협회에서 그날 그날 푼푼이 벌은 임금 중에서 그 경영자금을 알선 보조하여 간신히 고할 썸에 그 경영을 유지하여 왔으니 그 경영자의 심혈과 그 파탄 많은 과거는 동정하기에 족하다

그러던 중 1928년에 이르러 현 校主인 강원도 횡성군의 부호 高昌漢씨가 전재산 35만원을 기부하여 이 중 기본재산으로 하여 가지고 갑종상업학교로 승격하는 동시에 협착하던 교시 1년을 충족하고 내용설비를 충실히 하여 재단법인 인가 신청을 총독부 학무국에 제출한 이래 인가지령을 고대하던 중 11일부로 인가된 것이다. 현재 동교 재학생은 410명으로서 동교의 전도는 실로 양양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 교주가 된 고창한씨는 일찍이 강원도 횡성읍에 출생하여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근검저축으로 자수성가하여 그 말년에 35만원의 재산을 모아 부명을 듣게 된 사람인데 경성에 올라와 전기 대동학원이 인력거부협회의 경영으로 재

시내 가회동에 있는 대동상업학교는 작년 7월 총독부 학무국에 갑종상업학교로서 재단법인의 인가신청을 제출한 이래

정난이라는 것을 듣고 이에 캐히 그 재산 전부를 기증한 근래 희유한 독지가로 불일 5만원여원의 공사비로 학교를 크게 증축할터이라 한즉 그 장래가 더욱 축복된다.

▲춘천 5명 ▲양구 5명 ▲회양 3명 ▲통천 3명 ▲고성 4명 ▲양양 5명 ▲강릉 5명 ▲삼척 4명 ▲울진 4명 ▲홍천 4명 ▲화천 4명 ▲김화 4명 ▲철원 5명 ▲평강 5명 ▲이천 3명 ▲원주 4명 ▲횡성 4명 ▲계 70명

강원도내 자작농 창안

(매일신보 1933-12-10 / 4면)

강원도의 자작농 창설안은 매너 70호씩 진행키로 되었다는데 금년 총예산은 4만6천200원이다. 매출당 평균 660원이 되는 것으로 답 7단보, 전 4단보씩 매수하게 하여 24개년간 연 무료 환상케 할 터인바 실제 예산은 명년도 부터이요 도지방비를 차입하여 오는 1월까지 염출하리라 하는데 배정인수를 각군 별로 보면 좌와 같다.

원주발전소 고장

(조선중앙일보 1934-01-26 / 5면)

【원주】 지난20일 오후7시 50분경 대전전기회사 산하 원주지점 발전소에서 급작스럽게 발전기에 고장이 있어 원주를 비롯하여 횡성, 홍천, 여주, 이천, 용인 등은 일대 암흑세계를 이루어 일시 대소동이었는데 21일 오전1시경 다섯시간 만에 복구되었다 한다.

강원도 남부 4군 맥자조합 창립 목적은 부정품 방지와 품질 개량 (매일신보 1934-04-25 / 4면)

**江原道南部四郡
麴子組合創立**

(一) 江原道平昌縣鎮教區
州四郡의 合同으로 釀造原料
를 統制한 目的으로 組織한 組合
으로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二)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三)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四)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五)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六)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七)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八)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九)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十)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고 釀酒原料의 品質을 檢査하

【원주】 강원도 평창 정선 횡성 원주 4군의 합동으로 맥자양조원료를 통제한다함은 기보함과 같거니와 본월 20일 오후9시까지 관계 각 주조업자 중 위원을 선정하여 유류없는 준비회를 본월 21일 오전12시까지 마친 후 정식으로 관계 각군 주조업자 재무 주최 각관공서 주관 유지 일반례만하에 원주군수 장헌근(張憲根)씨의장 창립위원장으로 제사를 진행하였다.

합동사업의 주요 목적은

1. 맥자품질 통일
2. 주류염가 제공
3. 과세 기준 균등
4. 불량원료 수입 방지

등 이라는 바 주주는 필히 양조업자에 한하기로 하였는데 그 목적은 주주로 삼을 시는 결국 이익 전횡에만 착안하여 주류의 품질 여하를 불고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자는 논지인바 관계 각군 양조업자의 주수는 원주군 업자 1531주, 횡성업자

165주 이상 합계 총 주수가 2천주 이상에 달하고 1주의 액면금액은 50원으로 불입 기한은 금월 불일로 결정하였는데 기위준 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합정관 및 수지에 산안을 토의 중 일부 주조업자는 4시간에 달하는 반문으로 실로 장시간의 논란이었으므로 회의는 예산 이상 지연을 보게된 바 대략 좌기와 같이 역원선거가 있을 후 특히 강원도 남부에 처음으로 출생한 합동사업임을 따라 일반에 영구히 기념키 위하여 조합창립 기념배와 영흥관요리점에서 성대히 피로연이 있었다.

조합장 원주 金홍규의 1인
 평의원 원주 李홍연
 평의원 횡성 金興奎(金興奎)의 1인
 평의원 정선 尹九鉉(尹九鉉)의 1인
 평의원 평창 〇潤基의 1인
 감사 洪淳泰의 2인

**강원도주조협회 주류 품평 성황
다수의 참석하에 식을 거행
(매일신보 1934-05-02 / 4면)**



【춘천】 강원도주조협회 주최의 주류 품평회는 지난21일부터 춘천공회당에서 개최하여 연일 대성황을 이루던 중 이의 포상수여식을 24일 오전11시부터 공회당에서 甘蔗 내무부장 이하 인근의 각군수 재무주임 출품 관계자 등 수백명 참석하에 성대히 식을 거행한 바 순서에 의하여 먼저 도 大山세무서장의 개회사와 심사장의 심사보고가 있는 후 표창 수여를 거행하고 회장 식사, 지사 고사, 내빈 제씨의 축사와 축전 축문의 낭독으로 식을 마친다음 건배를 나누고 오후3시 화기애애 리에 산회하였는데 당일 수상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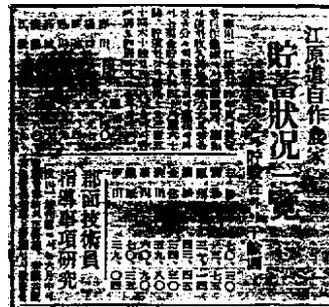
- 우등(화경) 화천군 張경도
- 우등(동광) 통천군 尹慶淳
- 우등(개호) 춘천군 춘천양조회사
- 1등(장춘개호) 횡성군 함기남(咸基南)
- 1등(가려) 이천군 金명환
- 2등(경월개호) 강릉군 강릉합동주조회사

- 2등(도의로) 통천군 赤羽秀一
- 2등 춘천 춘천양조회사
- 2등 강릉 주문진제조소
- 2등 통천 김차득

약주

- 우등(개호) 철원군 서곡이사장
- 우등(관동개호) 강릉합동주조회사
- 우등(평강) 평강주조회사
- 2등(관동개호) 강릉합동주조회사
- 1등(천수개호) 철원군 鄭學天
- 1등(구호) 영월군 임명환
- 1등(관명) 원주군 정호조
- (3등 이하는 생략)

**강원도 자작농가 저축상황 일람
(매일신보 1934-06-05 / 4면)**



【춘천】 강원도의 작년도에 설정한 자작농가에서 수곡판매, 부업에 의한 수입 기타의 노력으로 얻은 것을 분분히 저축한 것이 현재에 와서는 현금저축금 848원60전, 저곡한 것이 가격으로 350원60전인데

이것을 다시 각군별로 세별하면 다음과 같다.

춘천	69.40
양구	15.97
회양	19.04
화천	26.39
고성	41.29
.....	
원주	131.14
횡성	43.45
김화	34.30
홍천	59.80
화천	60.90
철원	70.35
이천	39.04

10일 현재의 강원도 이양상황
 이양비가 5할8분3리로
 예년보다 매우 손조
 (매일신보 1934-06-17 / 4면)

【춘천】 강원도내 6월 10일 현재의 이양

상황은 약 5만390정보로 식부재 할함은 5할8분3리 가량으로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군명	할(割)	정(町)
춘천	6.80	3,308.2
인제	3.00	757.8
양구	6.00	1,505.0
회양	4.80	1,157.8
통천	3.60	2,200.0
고성	4.20	1,963.6
양양	9.00	5,209.8
강릉	8.70	6,312.5
삼척	4.20	1,110.0
울진	4.00	1,823.0
정선	4.00	360.0
평창	7.00	1,713.0
영월	6.90	1,375.5
원주	3.50	2,350.0
홍천	5.20	2,850.0
횡성	6.40	3,483.9
화천	8.00	1,316.0
김화	9.20	392.5
철원	6.70	8,458.2
평강	6.30	2,116.2
이천	5.00	972.0

강원도 춘잠견 표준가격협정
 사가 514원을 표준으로
 15과 6분로 결정
 (매일신보 1934-06-19 / 4면)



【춘천】 강원도내의 춘잠가는 지난 9, 10 일 양일 동안 도당국에서는 철원에 있는 중방, 경성 및 대구 생사의 각제사 관계자와 긴급 토의한 결과 좌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철원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봉목을 사가 498원 이상 514원 미만으로…… 사가 16원의 고저가 있는다더라. 일봉씩 증감을 시키며 또 건건은 이이 증감한다 하며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 춘천 15.3봉
- 인제 14.9
- 회양 15.2
- 양구 15.2 증감
- 동천 15.3
- 고성 15.2
- 양양 15.0
- 강릉 15.0
- 삼척 15.1

- 울진 15.3
- 정선 14.4
- 평창 14.9
- 영월 14.8
- 원주 15.3
- 횡성 15.3
- 홍천 15.5
- 김화 15.4
- 철원 15.6
- 평강 15.5
- 이천 15.2

머슴놈과 붙어 땅 팔아 출분 서울로
 다니는 행적이 있어 남편은 수사 탄원
 (매일신보 1934-06-23 / 7면)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주○○(周○○)의 아내 임○○(21)은 지난 16일경 남편의 논들을 내 털어가지고 그 집 머슴인 임○○(22)와 같이 경성방면으로 달아나고 말았는데 그 남편은 본정서에다 수색원을 제출 하고 그 소재를 탐사 중이라 한다.

근고

(조선중앙일보 1934-06-24 / 5면)

任記者 趙秀雄 朝鮮中央日報 橫城支局	任記者 孫瓚求 朝鮮中央日報 大邱支局	任記者 安益善 朝鮮中央日報 全州支局	任記者 安炳儀 朝鮮中央日報 全州支局	任記者 高英禮 朝鮮中央日報 全州支局	任記者 高連水 朝鮮中央日報 全州支局
---------------------------	---------------------------	---------------------------	---------------------------	---------------------------	---------------------------

趙秀雄 任기자 1934년 6월 18일 조선 중앙일보사 횡성지국

횡성면에서 朝市 계획, 7월 1일부터

(조선중앙일보 1934-06-24 / 3면)

橫城面에서 朝市計劃

七月一일부터

〔本報訊〕 橫城面에서 朝市計劃을 實施케 하는 爲에 該面에서 七月一일부터 朝市를 開市케 하는 事를 決定한 바 있다. 이 朝市는 每日 午前 七時부터 午後 二時까지 開市케 하는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農産物을 賣고 買하는 爲에 便利케 하는 爲에 實施되는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歡迎하는 事로 知悉된다. 이 朝市는 該面에서 農民들이 農産物을 賣고 買하는 爲에 便利케 하는 爲에 實施되는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歡迎하는 事로 知悉된다. 이 朝市는 該面에서 農民들이 農産物을 賣고 買하는 爲에 便利케 하는 爲에 實施되는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歡迎하는 事로 知悉된다.

횡성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에서는 다년간 숙원해 오던 조시를 개설할 계획이 수립되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예정한 대로 이에 대한 실체를 보이리라는 데 이 조시의 효과는 농촌경제의 통제와 몇몇의 식료품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방 생산 소비에 근본적 합리화를 꾀하는 새로운 조직 전술의 큰 효과를 가진 것이라는 바 일반 공급자는 물론이요 수요자는 이에 대한 원조 및

찬성을 같이 하여 이 계획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하며 당국에서 계획안 개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1. 개설 장소 읍하리 ○춘왕○○○○○○
○○여관에서 제5전○○○ 전까지
○○○진점○○○ 전까지 박평 ○상점
전까지
2. 개설 시간 5월부터 10월 까지 오전4시
반부터 오전7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4
월까지 오전5시 반부터 오전8시 까지

횡성노농동맹 원유회

(조선중앙일보 1934-06-25 / 4면)



(사진) 횡성노농동맹 원유회

횡성에 풍재

(매일신보 1934-06-25 / 4면)

橫城에 災風

〔本報訊〕 橫城에 災風이 吹인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被害를 입은 事로 知悉된다. 이 災風은 七月四日午後三時부터 七月五日午前四時까지 吹인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被害를 입은 事로 知悉된다. 이 災風은 七月四日午後三時부터 七月五日午前四時까지 吹인 事로 該面에서 農民들이 大에 被害를 입은 事로 知悉된다.

【춘천】 횡성군에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5일 오전까지에 폭풍이 일어나서 농작물에 피해는 불○한 중 더욱이 대맥에 해가 많아 조사한바에 의하면 피해면적이 5,298반이요, 피해금액은 794원70전 가량인데 성숙기의 피해로 처리방법이 전무하므로 인보상조의 미풍을 발휘하리라고 한다.

강원도 해제조 3만석 정도
(매일신보 1934-06-30 / 5면)

군명	해제수량
속초	1,000
양양	1,000
강릉	1,000
고성	1,000
홍천	1,000
횡성	1,000
철원	1,000
평강	1,000
이천	1,000
도농회	1,000
계	10,000

【춘천】 미가품 등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각 방면에서 장기저축곡의 해제에 대하여 요망이 있으므로 총독부에서는 농림 성당국과 타협한 결과 쌀 60만석을 해제한다 함은 본보에 기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대하여 강원도내에서는 장기저축穀 14만 9,694석에서 제1회로 3만석을 7월 5일에 해제기로 되었는데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군명	저장수량	제1회해제예정
춘천	4,000석	800석
통천	12,000	2,400

고성	2,000	400
강릉	12,000	2,400
울진	2,000	400
원주	6,000	1,200
횡성	4,000	800
홍천	4,000	800
화천	2,000	400
철원	46,319	9,263석8두
평강	10,000	2,000
이천	2,000	400
도농회	39,375	7,875
계	149,694	29,938

4천원 공사비로 횡성 공회당 建築
고창한씨 기부토지로 출자
금년 내로 준공 예정
(조선중앙일보 1934-07-01 / 5면)

四千圓工事費로 橫城公會堂建築
高昌漢氏寄付地建築
今年 末 至 竣工 預定

【춘천】 횡성군 공회당 건설에 4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고창한씨 기부토지에 건축될 예정이다.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四千圓工事費로 橫城公會堂建築
高昌漢氏寄付地建築
今年 末 至 竣工 預定

【춘천】 횡성군 공회당 건설에 4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고창한씨 기부토지에 건축될 예정이다.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횡성】 대동상업학교 교주 고창한씨는 1931년도에 향리 방문을 기하여 횡성사치 사업에 써달라는 의미에서 씨가 만원에 해당하는 횡성군 정곡면 일원에 있는 토지를 〇〇〇이해 횡성군수 이〇환씨를 비롯하여 각반면 인사를 〇〇하여 〇〇고씨의 장거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〇〇에서 그당시에 고창한 기부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횡성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〇〇〇를 시한결과 인구 실로 4만 이〇〇〇회가 유일한 회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전기 처리위원회에서는 횡성공회당 건축과 및 존폐위기에 있는 당지 유치원을 인제 유지하기로 결의된 이때 일반군민은 한가지로 축망과 기대를 가지고 〇히 실현을 바라고 있었으나 3년동안 여〇한 해결을 보지 못한 일반군민은 전기 〇〇위원회에 무성의함을 〇여론으로 촉진한바 적지 아니하였던바 지난 27일 오전9시부터 전기 고씨 기부를 처리위원회를 군수관방에서 개최하고 그 실현에 대한 구체방침을 추〇결의한 결과 총공비 4천원도 가급적 금년중으로 일찍이 없는 대공회당이 건축되려는데 당일 결의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결의사항

1. 〇〇〇〇〇건 ……
2. 횡성공회당 건〇의 건
 - (가) 공회당공사비 4천원
 - (나) …… 7천평
 - (다) 〇 횡성청년회 ……
 - (라) ……

(마) 〇착공 ……

(바) 준공 가급적 금년중으로

(사) 준공 〇〇 ……횡성면민의

3. 기타

횡성금광의 태업
2개월간 노임지불 유예로
노자분규 수 표면화
 (조선중앙일보 1934-07-07 / 2면)

강원도 횡성군 정곡면 산전리에 있는 금광은 지난 〇월부터 …… 30여명은 드디어 노자분규의 정면충돌을 보게 되었다.

횡성면장 회의

(매일신보 1934-07-22 / 5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오는 7월24, 25일 2일간 **李君수** 통재 하에 읍면장 협의회를 개최, 농촌진흥과 자력갱생의 운동이 발흥하는 이때에 본협의회의 결과는 일반민중의 복리증진상 다대한 이익이 있을 것 이라는데 45항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춘천】 녹비와 퇴비 등을 장려하고 금비를 배척하는 차제에 강원도에서는 각군에 대하여 녹비 등을 장려키 위하여 보조금까지 지급케 되었는데 금번에도 각군에게 (상원간작) 전작녹비 작부에 대하여서 보조금으로 예정되어 부총면적 250정보에 보조금은 1,250원으로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군명	면적	보조금
(중략)		
횡성	15정	75원
(중략)		

횡성에도 희유한 幽雅한 산수풍경

(조선중앙일보 1934-08-28)

자급 비료 장려에 보조금을 하부 총면적 250정보에다 보조금 1천200원 (매일신보 1934-08-12 / 4면)



천리구형 2주간 와병한 나머지 사내시인의 권고로 주을에 내도하였나이다. 과연 휴양지로 가장 진기한 곳인가 하나이다. 유야한 산수풍경은 우리 횡성에도 ○○○이오 더욱이 ○○○○○○함은 ○○○복이 ○○

이 될 것을 만나이다. 1일이라도 속히 귀경을 기하고 그치나이다 8월26일 주율에서 ○○ (사진은 주율 명소 천목수)

횡성군 농회 소맥 공판 실적
(매일신보 1934-09-01 / 4면)



횡성군농회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군내 생산소맥공동판매를 개시하였다는데 그 실적이 예상 이상으로 양호하여 일반인의 이익이 매우 다대하다는데 취급석수와 이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취급석수 255석 두 2승7대
(나) 판매금액 2,714,566원
(다) 1인당 이익금 1,971원
(라) 농가수취금 2,755,652원

횡성군농회 1933년도 수지 결산
(매일신보 1934-09-01 / 4면)



횡성군농회 1933년도 경비 수입 지출 결산은 다음과 같다.

수입

- 1. 금 2만5천297원97전
- 1. 금 1만4천433원81전
- 계 3만9천731원78전

지출

- 1. 금 2만6천560원80전
- 1. 금 1만1천100원44전
- 계 3만7천661원24전

수입지출 차인액 1,970,544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다.

횡성군농회 總動 헤아리벤티치 장려 차제에 일층성적을 올리고저
(매일신보 1934-09-01 / 4면)



강원도의 '헤아리벤티'는 전국적의 유명하므로 특히 황성 황성군농회에서 수년전부터 보급 장려한 결과 성적이 현저하여 본 년도에는 일층 재배법 개선에 노력하여 8월 중순에는 채종전과 출작과 산〇치를 군농회 직원 총동원하여 채종전을 완료하고 다시 9월 5일부터 1주간 예정으로 답리작과 상전간작의 파종계획을 수립하여 불면불휴의 철저 지도하에 우량한 성적을 기대하고 활약하는 중이리는데 그 면적과 지도출장원 씨명은 다음과 같다.

1. 면적

답리작	89정2만
상전간작	51정6만
전작	10정
채종전	6정
산벤티	2정

2. 지도출장원 씨명

- (가) 제1반 축업기수山口喜多一씨 지휘하에 權根完 朴상운 沈圭澤 安야宏 正在哲
- (나) 제2반 지방검무수 李英春씨 지휘하에 李기철 정해철 成인환 鄭호응
- (다) 상전간작 지도출장원 축업기수 淺田信輔씨 지휘하에 徐재식 安殷善 金〇國 이외에 본군속 秋本 내무주임은 농업진흥회 지도검무 하에 간간이 순회지도 하기로 되었다 한다.

京東철도의 연장 원주 황성을 관통 양군민에게 6천주 담당을 교섭 흥호까지 실측 종료
(매일신보 1934-09-12 / 5면)



【원주】 사철인 경동철도는 목하 경부선 수원을 기점으로 여주군 읍내외까지 부설하여있는바 우선 노종점의 여주역으로부터 다시 원주와 황성군까지 관도할 계획으로 동철도상무취체역 荒木씨가 종업원수명이 원주군 읍내까지 설치 시찰을 마친 후 목하 원주군 부론면 흥호 등지도 실측을 마친 바 그 사업 제요건으로는 원주군 1만2천호에 대하여 1주 50원씩 3,000주, 황성군에 3,000주로 계 6,000주를 요구하게 되리라 한다.

횡성 둔내면 조항리 진흥회의 의거
영남 수재 동포들을 위하여
본사에 동정금 탁송
(매일신보 1934-09-21 / 7면)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 농촌진흥회 원은 대부분이 영남 지방의 인사로서 본보지상에 남선 수해와 기사를 읽고 동정하는 마음을 일으키어 동리 구장 崔義坤씨의 발분으로 의연금을 모집한 거로가 다만 십시일반의 격으로 사소하나마 자발적으로 의연하여 현금 12원80전을 모으게 되었다. 동리 부인회 회원도 이에 동감하여 먹는 쌀을 저축하여 전진춘춘에 모은 돈 3원 4전을 모아서 함께 16원20전을 둔내면사무소에 출두하여 본사를 통해서 재해지에 부쳐달라는 것을 전달하였다.

[*둔문면은 둔내면]

횡성군 울동선 等外路 자발적으로 개수
(매일신보 1934-09-23 / 4면)



【횡성】 횡성읍에서 북부를 관통하는 횡성○암선 2등 도로에 접속하는 북천 울동선 등외도로는 1932년에 이를 개수하고 이래 횡성면 구간에 암석부 미개설 부분이 있음으로 오늘날까지 완전한 개통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다대한 노력과 수순에 귀케 하고 있었는데 이 노선 연로 촌민은 누차 면당국에 대하여 민원을 계속하여 오다가 급기 연로부 청일면 대관대, 추동, 부촌, 삼거, 병삼방 등 5개리의 인민 300여명은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한 정신하에 횡성면 구간의 미개수 석부를 완력으로써 시공코자 횡성면장에게 교섭하여 본월 11일부터 3일간에 출역해 완성하였는데 인민의 재발적 정신으로 타면○간의 도로를 개수 한디함은 실로 미거일뿐만 아니라 본노선이 완전한 개통을 견하는 동시에 연로 농촌의 산업발전은 물론 농촌진흥운동에도 막대한 효과를 주리라고 한다.

횡성 중견인물 지도 강습회
(매일신보 1934-11-19 / 4면)

**橫城郡中堅人物
指導講習會**

産業講座及農地令解釋等
盛況裡에서終了

一 額定 額定講習會 二 額定講習會 三 額定講習會 四 額定講習會 五 額定講習會 六 額定講習會 七 額定講習會 八 額定講習會 九 額定講習會 十 額定講習會 十一 額定講習會 十二 額定講習會 十三 額定講習會 十四 額定講習會 十五 額定講習會 十六 額定講習會 十七 額定講習會 十八 額定講習會 十九 額定講習會 二十 額定講習會 二十一 額定講習會 二十二 額定講習會 二十三 額定講習會 二十四 額定講習會 二十五 額定講習會 二十六 額定講習會 二十七 額定講習會 二十八 額定講習會 二十九 額定講習會 三十 額定講習會 三十一 額定講習會 三十二 額定講習會 三十三 額定講習會 三十四 額定講習會 三十五 額定講習會 三十六 額定講習會 三十七 額定講習會 三十八 額定講習會 三十九 額定講習會 四十 額定講習會 四十一 額定講習會 四十二 額定講習會 四十三 額定講習會 四十四 額定講習會 四十五 額定講習會 四十六 額定講習會 四十七 額定講習會 四十八 額定講習會 四十九 額定講習會 五十 額定講習會 五十一 額定講習會 五十二 額定講習會 五十三 額定講習會 五十四 額定講習會 五十五 額定講習會 五十六 額定講習會 五十七 額定講習會 五十八 額定講習會 五十九 額定講習會 六十 額定講習會 六十一 額定講習會 六十二 額定講習會 六十三 額定講習會 六十四 額定講習會 六十五 額定講習會 六十六 額定講習會 六十七 額定講習會 六十八 額定講習會 六十九 額定講習會 七十 額定講習會 七十一 額定講習會 七十二 額定講習會 七十三 額定講習會 七十四 額定講習會 七十五 額定講習會 七十六 額定講習會 七十七 額定講習會 七十八 額定講習會 七十九 額定講習會 八十 額定講習會 八十一 額定講習會 八十二 額定講習會 八十三 額定講習會 八十四 額定講習會 八十五 額定講習會 八十六 額定講習會 八十七 額定講習會 八十八 額定講習會 八十九 額定講習會 九十 額定講習會 九十一 額定講習會 九十二 額定講習會 九十三 額定講習會 九十四 額定講習會 九十五 額定講習會 九十六 額定講習會 九十七 額定講習會 九十八 額定講習會 九十九 額定講習會 一百 額定講習會

【횡성】 횡성군에서는 군내를 2구로 나눠 제2회 농가경제강생부락 지도 중심인물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제1회는 갑천면 매일리로 정하여 정곡, 둔내*, 갑천, 청일 4개면 중심인물 58명을 회집하고 제2구는 횡성면 청용리로 정하여 중심인물 40명을 회집하여 연 5일간으로 강습회를 종료하였는데 당일은 각 산업기술원의 축업강좌를 비롯하여 이 군수의 농지령 해석과 기타 농촌 진흥에 대한 강화가 있고 끝으로 上田경찰서장과 山本보통학교장의 강화가 있는 후 성황리에 폐회하였다.

[*둔문은 둔내]

강원도 9년도 호세 징수 상황
(매일신보 1934-11-20 / 5면)

**江原道九年度
戶稅徵收狀況**
創設以來成績最良

第一區	1,200,000	1,200,000
第二區	1,500,000	1,500,000
第三區	1,800,000	1,800,000
第四區	2,100,000	2,100,000
第五區	2,400,000	2,400,000
第六區	2,700,000	2,700,000
第七區	3,000,000	3,000,000
第八區	3,300,000	3,300,000
第九區	3,600,000	3,600,000
第十區	3,900,000	3,900,000
合計	24,000,000	24,000,000

**春川高女校
落成式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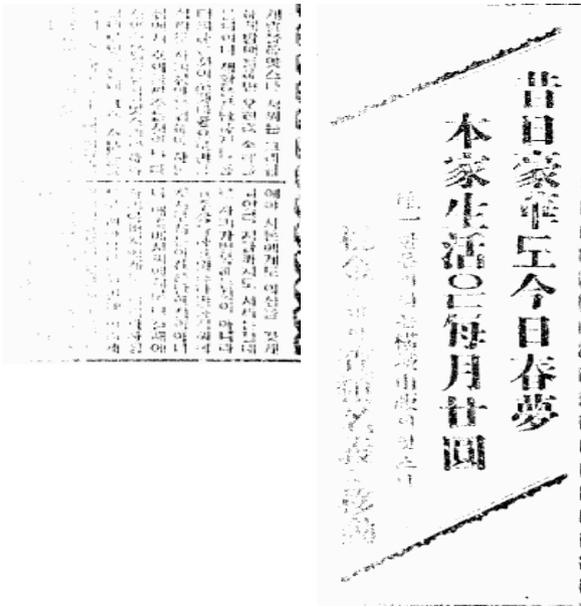
式當於本月九日(星期日)上午十時在春川高女校禮堂舉行落成式。到會者有春川市長、各機關長官、及各界人士等。式當由市長主持。首先由市長致詞。略謂：本校之落成。實為春川教育界之一大光榮。望各界人士。共襄盛舉。以期本校之發達。及春川教育之進步。次由校長致詞。略謂：本校之落成。實為春川教育界之一大光榮。望各界人士。共襄盛舉。以期本校之發達。及春川教育之進步。式當於本月九日(星期日)上午十時在春川高女校禮堂舉行落成式。到會者有春川市長、各機關長官、及各界人士等。式當由市長主持。首先由市長致詞。略謂：本校之落成。實為春川教育界之一大光榮。望各界人士。共襄盛舉。以期本校之發達。及春川教育之進步。次由校長致詞。略謂：本校之落成。實為春川教育界之一大光榮。望各界人士。共襄盛舉。以期本校之發達。及春川教育之進步。

【춘천】 강원도 1934년도 제2기 호세징수 현황은 강원도 창설 이래로 성적이 제일 양호하여 예정세액 183,645원 중에서 수입세액이 181,907원으로 수입 미세액이 1,739원이며 전년도 동기 수입은 9할6분9리이나 금번은 9할9분이라는 최고성적을 시하였거니와 월액을 얻게된 것은 각군면의 활동과 농산어촌 진흥 운동의 영향이 많은 것이라하며 각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은 성적이라한다. (중략)

횡성 9,904원(배정세액)
9,904원(수입세액)

지난날 호화도 금일 춘몽 본가생활은
매월 20원 유일한 돈거리는 횡성 산
판이었으나 세금 못 내어 사돈 명의로
이동

(조선중앙일보 1934-11-29 / 2면)



그와 같이 영화를 누리던 민영찬씨가 겨우 이왕직에서 매달 하사하는 250원으로 생활을 해나가노라니 그 곤란한 것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그나마 250원을 모두다 사용하면 오히려 나았겠지만 그중에서 100원은 〇〇으로 150원에서 110원은 민홍식씨의 처자가 매달 수령해 감으로써 실상 20원으로 서울 본집에서 시끄�궁이 극도에 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의 희망을 갖게하는 것은 총독부로부터

매수한바있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산판 310여정보를 믿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도 세금을 못내어 도로 빼앗게 되었음으로 이것을 안 민씨의 사돈 대구 부호 서범조씨가 빼앗기는 것은 아니었으니 세〇〇〇까지 붙여 줄터이니 앞으로 이것을 팔아 생활을 하라하여 그 산판을 서범조씨 명의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범조씨가 이를 처리하여 돈을 얼마 주기로 하였는데 그후에 민홍식씨가 극도로 곤란을 당하여 이 산판을 팔아 돈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서씨는 그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테니 생활은 곤란하지만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함으로 민홍식씨도 자기집안을 위하여 사돈집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니 다소 어렵더라도 그대로 있었는데 그후 소문을 들으니 하루에 80명의 인부를 사용하여 수개월동안 벌목을 하였다 한다.

이 소문을 듣고 민홍식씨는 깜짝 놀라서 서씨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즉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 필경 어떤자가 도벌해간 것이 틀림없다 경찰에 말하여 처치하겠다 함으로 도벌당한줄만 알고 그대로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도벌을 한 것이 아니고 서씨가 한것이라 하여 그때에야 사돈에게도 의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 까지도 서씨는 절대 자기가 벌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씨의 처지로서는 이〇〇난한 것이 아니나 애초에 서씨에게로 넘길때에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러한 사정으로 허락을 받은 것인데 이렇

게 일이 되고보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서 씨의 명의로 넘겨준 것이 오히려 후회할 뿐이로다. 그러나 민씨집안에서는 사돈간의 정으로 보아서 자기집안에 손해를 끼칠 일이 없다하여 사기만 기다리고 있으며 명년봄에 민영찬씨가 귀국후에 해결이 날것이니라. 이와같이 끝까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금의 현상으로는 이번것도 빼앗겼다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한다.

강원도 맥작 파종법 지도
(매일신보 1934-11-30 / 4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맥작 개량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적이 우량치 못하여 급년에는 직선작조와 광과를 철저히 지도코자 각군 농회에서 담당구역을 정하고 파종전에는 일반에게 이에 대하여 강화 등으로 지도하고 파종심을 때에는 실지 지도코자한다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금

번 각군에서 맥작 실시구역과 동면적을 정하였는데 각군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실시구역 리수	면적 대맥	면적 소맥
춘천	46	3,757만	5,260
인제	17	21,429	2,296
양구	25	9,931	7,867
회양	41	204	4,734
(중략)			
원주	37	15,776	3,603
횡성	27	보고미착	
홍천	36	4,691	2,566
(중략)			

격문살포사건, 姜進 10년役 구형
21일 오후 2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심리
(조선중앙일보 1934-12-22 / 2면)



「러시아」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 조선공산운동을 하는 姜進(24)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사건의 공판은 21일 오후3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山下재판장 주심 村田 검사관 입회로 개정되어 검사는 10년 징역을 구형하였고 그 기소 사실은 다음과 같다.

기소사실

강진은 9세 때 러시아로 건너가 동지 국립소학교를 16세 때에 마치고 중학을 거쳐 20세 때에 역시 동지 국립요동대학 공과 제1학년에 입학하였다가 1학기를 마치고 중도 퇴학을 하였다. 그후 대정 15년 경에 간도 용정촌으로 건너와 야학에 교사로 있으며 동지 동흥중학에 통학하다가 1년 후에 퇴학하였다. 그런데 강진은 1922년 경에 러시아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가지고 「니코리스코-스리스코」제1호 중학 「야체카」에 소속자로 공산주의 교훈을 받아왔다. 그후 1926년 7월 룡진촌에서 안재규(安在奎)를 만나 안재규의 권유로 공산운동과 ××운동*을 꾀한 검사에 가입하여 제3「야체-카」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용하다가 금년 10월 경에 검거선풍이 일어나자 러시아로 도주하였다가 1927년 3월에 이르러 조선실정조사로 조선 내지에 잠입하는 도중에 용정촌에서 동지 이종림(李宗林)과 회합하여 공산운동협회를 하다가 또 검거풍이 일어나자 고흥수(高光洙)**와 함께 경성으로 도주 잠입하

였다. 그레가지고 1931년 4월경부터 이종희(李種熙) 이문홍(李文弘) 등과 회합하여 공산운동 방침을 세우고자 시내 관훈동 모 중국 요리집에서 회합하여 시내에 격문 살포할 것을 협의하는 등 각 방면으로 활동하다가 드디어 동년 6월 18일 시내 인사동 옆에 있는 조선극장 안에서 500매의 격문을 관중에게 살포하였다.

[*‘독립운동’을 ‘××운동’로 기재

[**고광수는 황성 출신

횡성에 3인조 강도 2처에서 奪金
각지에 수배 수사 중
(매일신보 1934-12-27 / 6면)



【춘천】 원주군 호저면 광격리 김칠용 방에 유숙하고 있는 횡성군 서원면 암곡리 우복돌(禹福爻, 26)이가 자고있는 방에 지난22일 오전3시 경에 강도 3인이 침입하여 식도를 가지고 위협한 후 원금 63원을 강탈한 후 계속하여 그 옆집에 사는 유중삼(劉鍾三, 37)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전기의 수단으로 현금 30원을 강탈 도주하였는데 당지 경찰은 각처로 수배하여 범인을 엄탐중이라고 한다.

학대하는 남편과 같이 살수가 없소
아내가 이혼소송 제기
(조선중앙일보 1935-02-03)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하동리에 사는 童憲伊는 횡성군 횡성면 상리 金仁○를 상대로 2월 1이 경성지방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출하였는데 그 소장 나타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그들은 1929년 8월 12일에 결혼을 하고 이래 생활을 해오던 중 작년 3월부터 김인수는 강릉 주문진에 사는 최모를 첩으로 얻게 되자 본부인인 동헌이를 떼어버리고 자 그 수단으로서 칼이나 호미로 그를 때려 괴롭게 하면 매에 못이겨 친정으로 가려니 하고 그 같이 늘 구타를 해온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간 수차 경찰에 호소하였으나 이내 화해한다는 구실만으로 의연 그런 행동을 계속하므로 같이 잔인한 남편과는 살수 없다고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1천원을 청구한 것이라 하며 그의 남편 김인○는 횡성에서 수만 원 재산을 가진 재산가라 한다.

版介紹方地城橫

橫城郡全圖



江原守議員
中島俊氏

橫城社會各界の重要活動家

交通界の先驅 羅多氏

橫城社會公債 方氏

橫城教會創設者 名譽牧師 卓英才氏



卓英才氏 名譽牧師 創設者

運動界活動家 渡邊氏



渡邊氏 運動界活動家

橫城郡の産業界 全朝鮮屈指の製穀地

本郡は全朝鮮屈指の製穀地である。...

交通運輸の不便 横忠鐵道未開通工事

横忠鐵道未開通工事は、交通運輸の不便を解消する重要な役割を果たす。...

横城の社會團體 純公市民團體

横城の社會團體は、市民生活の向上に努めている。...

將來計劃の一端 八個面長の意見

八個面長の意見は、將來計劃の一端を示している。...

無産兒童の教育 車内面長 安建善氏

無産兒童の教育は、社会福祉の重要な課題である。...

農家の副業奨励 國川面長 元春均氏

農家の副業奨励は、農村生活の安定に寄与する。...

教育程度不足 而民政務所 申川面長 申元均氏

教育程度不足は、地方自治の発展を阻害する。...

交通事業擴充 申川面長 申元均氏

交通事業擴充は、地方経済の活性化に不可欠である。...

宗敎界 大衆生活の感化 救済機関の不備 醫局一人 醫生九名

宗敎界は、大衆生活の感化と救済機関の不備を改善すべきである。...

歴代郡守業績 大島

歴代郡守の業績は、横城郡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ている。...

횡성소개판을 발행하면서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횡성소개판을 발행하면서
지국장 신 영 순

오늘의 횡성을 일반에게 알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횡성사회에 깃들여 있는 민중생활의 복리증진에 지대한 반영이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본 지국은 미력이나마 이에 소임을 다하고 지방제씨의 다대한 원조에 힘입어 이에 소개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는 횡성사회를 위하여 …… 또한 횡성을 이끌려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횡성은 강원도 중부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동해안의 심오적 역오이

집중되는 강릉선 자동차 도로가 관통하였고 서로는 경성이 ○○이팔성에 ○○○○○으로 상업상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동북으로는 김화 충주선이 있어 교통 교일의 중요도가 있고 (중략) 특히 1면 1장오의 실현 ○○보지 못하여 ○○학형들은 연년히 증가 ○○○이니 또한 지대한 급무라고 할 것이다. 지난해 군당국이 …… 둔내면 정곡면 등 일…… 를 중심하에 전면에서 …… 활동이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교통계의 선구 尹泰年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쾌활한 성격에 강유가 겸비 하고 능소능 대한 수단, 온건성실한 원만주의가 일관하니 이 어찌 외교가로의 손색이 있을 것이며 사업에 접함에 과단성이 열실하니 또한 활동가로서의 ○대한 수법이 만인을 감동케 한 것이다. 씨는 일찍이 경성공업 전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관계, 상계 등 다방면에 공하여 체험이 할 뿐만 아니라 비범한 정치적 관계는 공중

의 심리를 단연 요리할 수 있을 때 지방 사회사업에 관련 되는 바 불〇하고 제 사업에는 물론이지만 사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여 현재 씨의 사회적 지교를 한층 높임 횡성상업조합회장을 주최로 횡성학교〇〇원, 횡성소방조합, 금융회원, 횡성군 소작위위원 등 중 횡성군에 진흥되고 대정 9년에는 횡성청년회 창립위원으로 동 회 군회장을 역임하여 당당히 다 회적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역 교통계에는 효시의 봉화를 들고 경강선 김화 충주선 간통〇의 책임을 부하고 이래 17년간을 교통문화에 전력을 경주 하여 왔는데 괄목할 만치 〇〇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씨의 활약의 결과이다. 따라서 업계의 신용도 상승하여 교통계의 숙원으로 굴지되어 현재 내선 자동차 운송주식회사

횡성 시내 중앙에 위치하며 근대 건물의 면목을 갖추어 있는 관동상회는 씨의 수십년 …… 〇육물 위탁판매의 본영으로 투자액 실로 수만원에 달하고 현재는 횡성 상업계의 〇〇자이며 업무는 일취월장하고 있다. 경향을 막론하고 횡성, 홍천, 평창 등에 〇〇〇〇등 상품은 이미 〇〇유치 아니하고는 공급과 수입 합할 시 인 〇가 집중되고 있다. 씨는 인격으로도 전적 역량이 구비 하려니와 그와 동시에 〇〇가 유순하고 조직적이면서 〇〇이 있다. 씨는 사회적으로도 중요축 위에 있게 되어 횡성청년회장, 횡성 체육회 고문, 횡성 금조 정의원, 횡성상〇원, 횡성상업조합장을 역임하고 특히 활대사〇에 합류하여 청년대중에 신망이 돈후하며 횡성사회에서는 유일한 선각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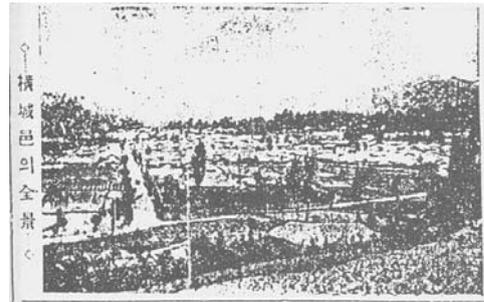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횡성군 상업 조합장 방현영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횡성교회 창설자 명예목사 탁영재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횡성읍의 전경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횡성사회에서 가장 신앙이 두터운 씨는 기독교 독신자로 횡성에 수 교회를 창설하고 40여년간 종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노청년의 기분이 농후 하다. 지조는 높고 가히 청빈지조가 이에 있으며 사회의 반면이다. 횡성에 수 교회의 명예목사로 화성유치원 후원회와 횡성체육회 고문을 역임하고 횡성사회의 지고한 인격자 이면서 실천가임을 알 수 있다. 횡성 전체는 씨의 건재를 한층 빌고 있다.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상업계의 거성 탁命洙氏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횡성 상업계의 신왕으로서 당당히 활보하고 있는 씨는 경향을 막론하고 자수성가로 인품이 높았을 뿐 아니라 자선가로도 상당한 공적을 남기고 있다. 중후한 심성은 만인을 이루 만지며 만장의 〇〇의 점〇〇을 같이 하여 실체사회방향에 중〇적 지위를 〇하여 있다. 빈한한 가정에서 가진 쓰라림을 다 당한 탁씨는 굶주

린 무리의 생명을 잇게 하는 값 있는 열매가 맺혀 있고 사업에 특특한 수완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래 ○○은 크다. 소화 7년 5월 27일에는 백미 21석을 읍 상하리 빈민에게 춘궁기의 식량으로 공급하고 동년 9월에는 제2기 합 호세 20석이하 315호에 대한 호세를 대납하였다 한다. 현재 씨는 황성면회 의원, 황성상업조합 간부, 황성주조조합 이사 등 사회방면으로는 물론이요 실업 방면에도 비약적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은 황성사회의 장래를 의연히 약속하고 있다.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강원도의회의원 신현만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자치제 실시 후 초대 당선의 청년 도회의원으로 8만여 군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황성사회의 외교에 소임을 가지고 장차 민족을 위하여 본군의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성격은 온후하고 공사에 원활하여 일반에게 지대한 호감을 주고 있다. 현재 씨는 사법대서소를 운영하는데 업무도 자가가급하고 황성사법대서 본계의 우를 포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임명된 씨의 책임에 ○○○행을 금지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문화의 수준이 열등한 본지방을 위하여 일층 노력이 있기를 일반은 기대하고 있다.

황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운수계 활동가 鄭東溟氏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강원도 원주 태생으로 관계, 조고계 등 다방면에 경험이 풍부 하여 출생지에서는 사회○○의 선구자로 일시는 정예투사로서의 전결이 여실하고 신간회 원주지회 부회장, 원주청년회 부회장, 복원동맹 간부, 강원도 기자단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고 그후 교통 운수계로 전향하여 수년전 당지에 경강 화물 운수주식회사, 영서 화물회사, 강릉 상사 주식회사 등 각 대리점 주임의 ○자 ○○○하여 황성 교통계

에 활약하고 있는데 씨는 사회방면에 이해가 많을 뿐아니라 성격은 온순하고 사리가 투철하여 사회 활동가로서의 인격자가 확실함에 대하여 일반의 신망도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횡성사회계의 중요한 활동가들
청년실업자 김윤수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青年實業家 金潤洙氏
 貧寒의 家庭에 出되 京城某中學 校 肄業 後 歸 邑 經營 實業 以 爲 生計 現 今 則 一 躍 而 富 貴 升 爲 一 區 之 領袖 矣 其 經營 實業 之 方針 則 以 實業 爲 本 而 以 實業 爲 輔 實業 之 種類 則 以 實業 爲 主 而 以 實業 爲 輔 實業 之 方針 則 以 實業 爲 本 而 以 實業 爲 輔 實業 之 種類 則 以 實業 爲 主 而 以 實業 爲 輔

빈한한 가정에서 나서 경성모중학교에 고학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여 상업계에 데뷔한 지 불과 5,6년에 줄지에 부자가 되어 현재는 일금 수만원의 자본을 ○○하여 횡성 상계의 기린아 격으로 상업가이면서 모범인물로서의 환색이 있으리 만치 사회적으로도 지연을 견고히 하고 있다. 최근 씨는 횡성 주조 조합에 수천원 자금을 투자하였고 씨는 평시부터 청년실업자 구제에 부심하여 실질적으로 구급을 실천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장래 횡성사회에 ○○할 청년실업가로 지대한 ○○을 받고 있다.

횡성군의 산업계
전조선 굴지의 광업지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橫城郡의 産業界
全朝鮮屈指의 鑛業地

鑛業界 本郡鑛產豐富 全朝鮮 屈指 鑛業地 鑛產 豐富 鑛業 界 本 郡 鑛 產 豐 富 全 朝 鮮 屈 指 鑛 業 地 鑛 產 豐 富

上田山 鑛山 鑛產 豐富 鑛業 界 本 郡 鑛 產 豐 富 全 朝 鮮 屈 指 鑛 業 地 鑛 產 豐 富

鑛業 界 本 郡 鑛 產 豐 富 全 朝 鮮 屈 指 鑛 業 地 鑛 產 豐 富

鑛業 界 本 郡 鑛 產 豐 富 全 朝 鮮 屈 指 鑛 業 地 鑛 產 豐 富

광업계
 본 군의 광업은 전 조선에서도 굴지한 만치 우수한 광업 지대로서 전 군에 산재한 금, 은 광산수는 실로 40여 광에 달하여 년산 60만원의 산출을 알 수 있으며 광맥은 전 군에 의하여 무소부재라 할 만치 양호 다량을 은폐하고 특히 품질이 양호하여 업계에 ○○이 ○○하고 현재 20만원 내지 100만원대의 평가를 받는 광산

이 수 개에 달하는 바 특히 정곡면 산안리 금산과 정곡면 험리 금산은 우이독경득 하여 있으며 본군의 광산계는 장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바 지난해 1월에서 동 5월까지에 저명한 금산 산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산명	종별	산품(돈)	금액(원)
정곡금산	금	2,144	14,466
동주금산	금	599	2,841
삼옥금산	금	467	3,324
상유전금산	금,은	59,000	78,679

상공업계

본 군 상업계의 현황을 보면 그다지 외지에 비하여 요색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업경제계는 5개소에 개시되고 1주년간 매매상품 일성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물	164,263원
수산물	44,062원
곡 물	199,941원
축 류	328,941원
기타제품	1,194,684원
계	1,770,904원

농업

(1) 자작과 소작 경작지 면적

자작시 소작	
논	50,407(정보)
밭	52,905 동(정보)
소작시 자작	
논	19,488 동(정보)
밭	5,406 동(정보)

(2) 주요 농산물

종별		
쌀	26,175(反)	18,451(石)
보리	25,184	19,919
소맥	20,977	6,710
대두	41,740	24,879
소두	17,306	4,789
호총	282	1,701
대마	2,125	45,251
면	1,407	17,576

(3) 잡 업

잡묘 본수	228,210본
동양 호수	10,577호
면입 매수	9,805매
산견고	5,594정
생산액	41,906.54원

(4) 축 산

종 별	두수
축 우	10,465
말	45
염소	4,454
닭	26,212
돼지	24

임업

임상별	면적
임목지	421.28
산생지	176.40
미립목지	32.01
농경용 기지	32.48
산출액	247,163원

**자동차 연락 뿐인 교통운수의 불편
橫忠 철도는 명준 기공**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본 군 교통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지방에 비해 모든 화물을 자동차로 연결하고 있어 일반 상업계로나 또는 그 외 지방발전상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교통체계의 선별로 보면 경성 강릉선은 내선 자동차 운수주식회사와 강릉간 사주혈 회사의 승합차가 매일 3회 정기 주행을 시행하고 있고 김화 충주선은 내선 회사의 단독선으로 되어 있으며 화물 수송회사 으로는 경강운수조합을 필수로 하여 강릉 운수, 주정, 환삼 각 회사들이 정○○가 있을때 ○○○출입의 편을 ○하고 있는바 화주로 볼 때는 내년 봄경에는 경동○○○범에 의하여 황성 충주간 선로 착공을 기획 하리라는 교통계의 희소식을 접하고 있거니와 누년 숙실

을 기○하고 있던 황성 진부선은 본군 각계의 이해상 초점을 가진 중요선으로 착공 ○○에 아직까지 개통을 보지 못했다. 본군 발전○○에 그만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시간상으로 여실히 지구 ○○○에 ○한 교통계의 현상은 일반 군민 개개의 ○○○ ○○하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교통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이제 본○각별에 의하여 연장이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김화 충주선 19,120미
- 경성 강릉선 25,789미
- 황성 진부선 36,936미

통신기관

(조선중앙일보 1935년-03-16 / 4면)



통신기관은 황성우편소 둔내 우편소 안흥우편소가 있는데 개부를 통하여 통신기관의 사무건수는 일취월장하는 편이며 3개소의 종업원 수는 16인으로 험지에 까지라도 2,3일 내이면 도달 할 수 있어 편리 하다.

순전한 민간기관인 황성의 사회단체
약진 또 약진 하는 중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 ▲황성금융회 개정 1930년 회원 10명 ○
○○○대표자 이중환
- ▲황성농농연맹 개정 1931년 10월 1일 회원 56명 기본금 120원 대표위원장 방기범
- ▲황성체육회 개정 1929년 3월 20일 회원 36명 기본금 50원 회장 신상순
- ▲황성동창회 설립 1914년 8월 2일 회원 397명 기본금 297원 회장 산불○지
- ▲황성 형평지부 설립 1925년 4월 회원 66명 기본금 무
- ▲황성상업조합 창립 1923년 4월 12일 조합회원 48명 기본금 3200원 조합장 방○심

장래계획의 일단과 8개 면장의 의견
위생시설 급무 황성면장 曹圭鳳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 (1) 위생시설의 건
4천여 인구가 거주하는 읍내의 면목으로 공중 욕탕 1개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 일뿐 아니라 반드시 본 면내의 긴급히 설치해야 할 긴급 업무라고 사료되는 동시에 이것의 계획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여 면 당국의 직영 이거나 또는 개인 운영으로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실현이 가시적으로 명년도내에는 될 것이라 믿고 있다.
- (2) 농촌 진흥운동의 근본 결○을 ○○하여 도시 발전의 실제화를 도모 할것 광대한 …… 한테로 하여 외적발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에는 내적발전을 더

한층 가지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
○하면 외적발전은 그대로의 존재를 알리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적으로 병행되
는 각실○전이 있어야 하겠다. 면민에게
는 농촌진흥의 근본 정신을 망각치 말 것
을 항시 알려 주고 다음에는 실천적 행하
도록 할 의도 이다.

- (3) ○○○○의 건
- (4) 형통평○○○층의 건

**화전민의 구제책과 무산아동의 교육
둔내면장 安達善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 (1)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장래 면세면을
건설 할것

현재 면기본 재산에서 나타나는 수입전부
와 천○○이○금 2분지 1 기타 일반 경비
합계 1천원 이상은 반드시 매년 축적할 것
이고 면유림야 1,400정보에 대하여는 연차
계획으로 인공 조림을 하여 추수보육을 가
지고 기본재산조성을 기도할 방침

- (2) 산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민력충
실을 도할 것이다.

-
- (가)
- (나)
- (다)
- (라)

- (3) 교육○○을 위하여 면내의 문명퇴치
○○할것

- (4) 교통○○에 ○○을 ○하여 지방의 ○
○을 기할 것

- (5) 민심 ○홍과 즉상○건설을 기하고 개
○을 ○○하여 공세금을 ○○할 것
.....

- (6) 농가부채 ○○문제

- (7) 화전민 문제

- (8) 둔내 보통학교 ○장

교육기관 부족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본군 교육기관은 현재 1면 1교제의 관에 의한 설립이었으나 아직도 부족하여 전군 인구별 지론〇하기 말함과 같이 순문맹에 있는 남녀 합이 5,146인에 달한다는 물론 및 한자는 여실히 교육계 외 부진을 뵈어 주는 것이며 장래 많은 기대가 교육사회에 근저를 돈독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현재 수용아동의 횡성학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공립보통학교	559명
청일공립보통학교	40명
우천공립보통학교	134명
안흥공립보통학교	239명
둔내공립보통학교	166명
갑천공립보통학교	139명

공근공립보통학교	156명
일성간이학교	33명
풍금리간이학교	40명
서원성심학교	80명
횡성유치원	40명

**춘궁기의 식량난과 농가의 부업장려
우천면장 元容均氏**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최근 본면 사업에 중요한 업결을 한마디로 하면 읍면 개정 기념사업으로 2리에 1개소 공회당 건축을 완성하고 법주리에는 작년 8월경에 갱생촌을 창설하여 도에서 500원 기체〇〇이식으로 이용하여 공동경작지를 매입할 것과 두곡리 소비조합은 창설된지 1년 미만에 300원의 자금이 저축되어 있으며 업무는 날로 증가하여 있는 중에 이에 대한 보충책으로 5개년 계획에 넣어 자금 1일 1원의 방법을 취할 방침이며 법주리 부인회에서는 공동경작에서 수입된 농작물 팔아서 250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도 현재 300원 저금을 하

게 되고 농번기에 부인 야외노동을 장려할 방침에서 추동리 지방에서는 탁아소를 설치하고 현재 5,60명을 수용하고 있는 중이고 인하여 작업능률에 ○대한 효과를 발생하고 ○○ 30년 ○○에서 공동농지 배정과 자작농 ○위수하여 ○○하고 있으며 장차농가에 중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수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농가비료문제

녹비채취는 엄벌하는 방침에 있으니까 그 대책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산야공지를 이용케하여 그로 비료에 충하하도록 한다는 방침

(2) 농가 부업에 장려

상묘에 대책으로 병목식 상묘를 3개년의 계획으로 하여 우선 시험지로 조곡리, 추동리, 하수남리, 중수남리 등에 실시케 하여 성적이 여의하게 되면 전 면을 통하여 ○○장려 할 것

(3) 농가 춘궁 대책

육도를 실시하여 농가를 ○충하도록 실현을 보고 있는데 성결 여하에 의하여 또한 확실한 방침을 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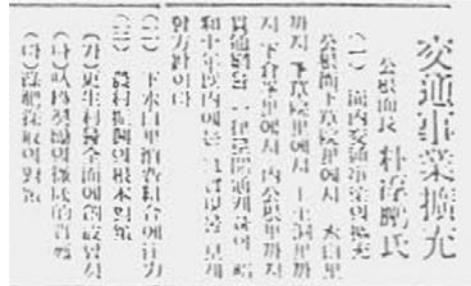
(4) 면내 교통의 완성

면내 각지로 통하는 등외 도로를 일로 개통시켜 이것이 금년 중으로는 실현을 보기로 할 것

교통사업 확충 공근면장

박순봉(朴淳鵬)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1) 면내 교통사업의 확충

공근면 하초원리에서 수백리 까지 상초원리에서 사동리까지 하창봉리에서 내공근리까지 관통선을 일률로 개통케 하여 소화 10년도내에는 결실을 보게 할 방침이다.

(2) 하수백리 소비조합에 주력

(3) 농촌 진흥의 근본의 책

(가) 갱생촌을 전면에 ○○할 것

(나) 팔○○○의 ○○적 ○○

(다) 채비주수의 ○○

비료의 자급책
정곡면장 吳彥洙氏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공립보교 설립 서원면장 柳炳殷氏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1. 안흥보교증축문제
작년부터 민간 유지와 협력하여 증축기 성회를 설립하고 각 방면으로 활약한 결과 현재 2000원이 〇〇을 수합하고 있는 중 학교교장은 본 면내에 〇〇〇 급무하고 아니할 수 있는 반면에 가급적 명년 내로는 실현케 할 방침
2. 정금리 간이학교 확충문제
면내 유지를 초빙하여 후원회를 만들고 제반사항을 기획할 〇〇
3. 정곡, 영암선의 실현책 구상
4. 자작 비료 문제
가. 면유림을 해방할 것
나. 개인 소유림의 〇〇〇〇하여 〇 〇내 방침을 받도록 할 것
다. 채비문제 결정
5. 공회당 건축문제
각 리에 공회당을 건설 할 것
6. 위생시설 문제
하안흥리의 2개소에 공동 욕장을 설치하고 민중위생에 실질적 편익을 실시하고 있는 중 금년중으로는 이 완성된 보도를 할 방침

- (1) 교통선 〇대의 건
6리 2구를 기점으로 하고 이 〇 중앙으로 관통시키기 분2리를 통 〇하여 경부선 여주역 〇에 〇〇하도록 할 것
6리 2리선을 폐 〇〇한 것(직통 원주) 이상 1936년도 내에 실현할 예정
1리4리선을 1937년도 내에 완료할 것
- (2) 교육문제
(가)학교 개교의 작
도 기정 방침에 의하면 서원공립보통학교는 1936년도로 내정되었으나 본면은 특히 교육정도가 열등이므로 시급한 관계상 1935년 도내에는 가급적 실현을 10월 중순경에는 전면민대회를 개최하고 3천원 현금출처에 의하여 기필코 개교를 단행할 방침이다.
(나)문맹퇴치의 건
〇〇무산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각동리에 개량학당을 설치하고 문맹퇴치책의 일조로 적극적 노력할 것
- (3) 3리 시장 개설의 건 〇〇여주선 6리 2리선 관통의 건

하야 3리에는 시장개설을 실현케하고 각 지물화상〇을 적극적으로 기할 방침

(4) 치산치수 〇〇의 건

(5) 농촌 〇〇〇 개혁의 건

본면은 지리상 관계로 부락단위로 16동리를 10개리로

풍암선의 개통, 청일면장 韓熙東씨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1) 풍암선 개통을 기함

풍암선은 본면내의 심장선이므로 흥천군 서석면과 갑천면과 누년 청원한 바 아직 까지 이에 대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본 면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으로 노력하여 명년도내에는 실현을 보게할 방침

(2) 우편소 설치 문제

(3) 〇동시민 〇〇〇안

(4) 면〇〇에 공회당 〇〇가일 금년 중으로는 공회당을 건설할 예정

(5) 공의 배치문제 ……

중요 금융기관

본 군의 중요금융기관을 열거하면 황성 금융조합, 둔내 금융조합, 갑천면 매일리지소 등 3개소가 있는데 그다지 거대한 금액을 사용할 만한 재원은 없을 뿐 아니라 상업자 등에 사적 대차가 …… 되고 있을때 〇〇거래가 많은 현상이 미 …… 같다.

기관명	대부액
황성금융조합	106,386원
둔내금융조합	26,621원
갑천매일지소	…… 원

행정구역과 직업별 인구

본군의 행정구역은 8면 108리에 나누어져 있고 이를 면별로 소계하면 다음과 같다.

황성면	읍상리 외 20개리
우천면	두곡리 외 11개리
정곡면	하안흥리 외 16개리
둔내면	자포곡리 외 10개리
갑천면	매일리 외 11개리
공근면	하초원리 외 11개리
서원면	삼리 외 7개리

인구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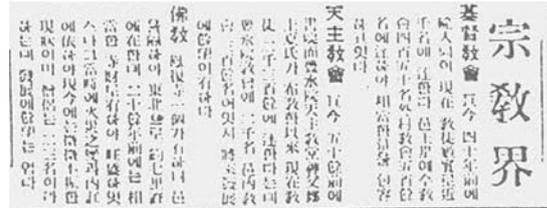
농업	63,809인
상업	3,013인
공업	1,626인
공무와 백〇〇	1,074인
기타	1,074인
외국인	5인

**대중생활을 위협하는 의료기관의 불비
의사 2인 위생 9명 뿐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본군의 의료기관은 불비하여 의사 2명, 위생 9명, 〇〇〇 14명으로 공의 2인을 배치하여있는 함〇으로 시설의 불완전과 의술의 열등에 관하여 환자의 불만과 민중의 〇〇은 비할바가 없으며 특00군은 대체적으로 〇〇하여 하였으며 특히 외지의 명의를 전체적으로 유인하는 중 현재 의사와 의생등의 〇〇의의술에는 〇〇이니 늦출수 없으니 만치 의사계에 이상을 촉래하고 있다.

**종교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기독교회
거금 40년전에 수입되어 현재 교도수가 실로 근 천명에 달한다. 읍상리에 전교회 450명 의 외촌 교회 500여명에 달하여 상부 〇〇을 포함하고 있다.

천주교회
지난 50여년전에 서원면 풍수원 천주교당 신부 정圭夏씨가 포교한 이래 현재 교도 2,300명에 달 한다는데 풍수원 교회에 2,000명 읍내교회에 300여명이 있어 장래 〇〇에 여망이 있다.

불교
봉복사 1개가 있으니 읍〇〇하야 동북으로 약 7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20여년 전에는 상당한 사재도 있어서 왕성 하였으나 그 당시에 화재지변과 내홍에 의하여 현재에는 〇〇부진한 상태이며 승려는 23명이라 하는데 발전에 기대는 없다.

연초 소비 통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咸鏡南道	18,789
公州	6,496
晴川	15,761
甲山	14,431
東山	8,262
井里	10,274
羅川	7,470

황성면	18,789
우천면	6,496
정곡면	15,761
둔내리	14,431
갑천면	8,262
청일면	10,274
공근면	10,462
서원면	7,470

황성주류조합 할당석수

탁주 1,300석

약주 300석

소주 180석

우천면 주소

탁주 300석

약주 30석

안흥면 주소

탁주 600석

둔내주조조합

탁주 250석

약주 30석

서원면 주소

탁주 250석

약주 20석

청일면 주소

탁주 400석

약주 20석

내공근면 주소

탁주 160석

주류생산 통계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咸鏡南道	1,300
公州	300
晴川	180
甲山	300
東山	30
井里	600
安興	250
羅川	30
西浦	160

횡성군의 연혁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고구려 시대에 ○○ 橫川이라 칭하고 신라시대에 이르러 潢川이라 개하고 삭주 영역이 되었다니 고려에 이르러서는 다시 橫川이라 칭하고 조선 태종 14년에 홍천군과 음조가 비슷함으로 횡성군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혹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자세히 모르나 옛날에는 화전이라 칭한 때도 있었다 한다.

역대 군수 업적

(조선중앙일보 1935-03-16 / 4면)



본군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역대 군수의 사업을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엄형섭 군수시대
 - 횡성읍 면구 개○○백
- 石명선 군수시대
 - 횡성 진부선 개통
- 오찬갑 군수시대
 - 전천, 후천, ○ 제언공사 완수
- 현군수 이종환씨 시대
 - (1) 전군○부락에 150 ……
 - (2) 정금, 일리 양 간이학교 개교
 - (3) 청일, 우천 보교 개교
 - (4)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내 대지 공사 기공
 - (5) 문묘 개수
 - (6) 경로회 창립
 - (7) 조시 개설
 - (8) 서원면 화전민 화재민 대정비 사업
 - (9) 시내 하수관 공사 완성
 - (10)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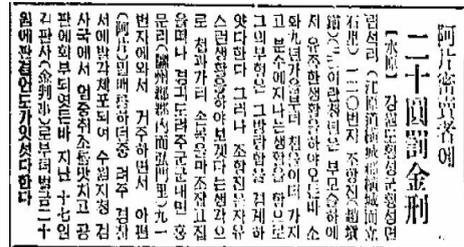
7만원을 내라고 巨富된 동료 고소
그러나 일확천금 시기한 무고로 판명
황금광시대의 희활극
(조선중앙일보 1935-04-14 / 2면)



2년 전에는 같은 광부로서의 동무가 우연한 금광 경영에 성공하여 11만주 금이 1람 20여만원의 거부가 되매 그 일확천금을 시기하는 나머지 얼토당토 않는 구신용 부지 그 불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한 황금광시대의 한 삽화-부의 아현리에 거주하는 崔三龍은 13일 오전 서대문 경찰서에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金富城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동서의 조사한 결과 거짓 고발인 것이 판명되었는 바 그 전후 사실은 피고소인 김부성은 오래 전부터 금광 광부로 강원도 방면을 전전하던 바 1933년 5월에는 생활이 궁색하여 같은 광부로 있던 서기 최군 등에게 일금 150원을 취해 쓴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가을 횡성군 훈춘동에 있는 김모의

금광이 세금을 물지 못하여 경매에 붙이게 되자 김부성은 그 금광을 350원에 사서 경영하던 중 의외에도 그 광에서 유리한 광맥이 발견되어 금일까지 전후 1개년 반 동안에 10여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고 수일전에는 그 금광을 모부호에게 10만원에 팔게되어 이에 일개 무명의 광부의 몸으로 일약 거부가 되어 문자 그대로의 일확천금을 실현하게 되었는데 고소인 최삼룡은 그를 시기하던 나머지 그전에 김부성에게 취해 준 150원은 단순히 취해 준 것이 아니고 금광 경영의 공동자금으로 출자한 것이니 피고소인이 처음 금광을 산 돈 350원 중에는 응당 자기의 돈 150원이 들어있을 터인 즉 300여원으로 20여만원의 거부가 된 김부성은 출자비례로 보아 적어도 3분의 1인 7만원은 자기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고소장 제기한 것이나 검찰이 조사한 결과 허무맹랑한 고소인 것이 판명되어 오히려 자기가 무고죄에 걸리게 된 난센스 금광극이다.

아편 밀매자에 20원 벌금형
(조선중앙일보 1935-09-20 / 3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입석리 120번지 曹項○(22)이란 청년은 부모 슬하에서 유족한 생활을 하여오던 바 1934년 가을부터 첩을 얻어 가지고 분수에 지나는 생활을 하므로 그의 부형은 그 방탕함을 경계하였다 한다. 그러나 조항○은 자유스런 생활을 하여보겠다는 생각으로 첩과 같이 손목을 마주 잡고 집을 떠나 경기도 여주군 내면 흥문리에 91번지에 와서 거주하며 아편 밀매를 하던 중 여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수원지청 검사국에서 엄중 취조를 마치고 공판에 회부되었던 바 지난17일 金판사로부터 벌금 20원에 판결 언도가 있었다 한다.

세례하면 다음과 같다.

……

횡성 6,524m 12,940본

축 매일신보 창업 30주년
(매일신보 1936-07-06 / 6면)



강원도내 가로수 43만3천본
(매일신보 1936-06-25 / 5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로 보호수의 대용으로 도내 각군에다 적극적으로 수목식재를 장려한 바 ○○적으로나 ○은 ○리 ○○더지로 효과가 많다. 6월20일 현재 ○○에 의한 ○○목은 294,634m에 434,613본에 달하고 있는 바 각 군별로

춘천읍, 강원도회의장 최양호, 춘천 조선요리 원조 한성관 박길현, 춘천읍 대화정 2정목 조선요리 원조 대흥관 주, 안흥관 기생 경산홍 지향화 김순옥 박향심, 춘천 화○정 2정목 춘천여관, 본정 1정목 춘목상점, 춘천본정 이발관 서정옥 (중략) 삼척어업조합장 삼척면협의원 김순목, 강원도 삼척읍 삼성의원 공의 추종엽, 횡성군 농회 (중략)

강원 전도에 소맥공판 실시
(매일신보 1936-07-16 / 5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산물의 판매개선에 대하여서는 취임 후에 부단히 노력하여 오는 것인데 특히 본년은 수확이 감소 되겠음으로 이에 대하여 농가의 현금 수입도 감하게 될 것이다. 이의 대책으로 소맥을 고가로 실현하도록 하여 매입을 장려케 하는 것이 본년 한해에 인한 수입 감소를 보충하는 동시에 일반농가 구제의 일조가 될 일석이조의 효과가 유할 것이므로 강원도농회에서는 조선맥자회사와 교섭한 결과 고가 매입을 응락하였는데 공판 계획은 7월 중순부터 2개월간 이며 각 군별로 본 출하할당은 좌와 같다.

춘천 1,000석, 인제 250석, 양구 350석, 회양 100석, 통천 250석, 고성 300석, 양양 450석, 강릉 1,400석, 삼척 700석, 울진 350석, 정선 150석, 2……
횡성 1,000석

14일 현재의 강원도 수해상황
인명 사상도 불소

(매일신보 1936-08-16 / 5면)



【춘천】 금번 수해로 인해 강원도내의 피해는 14일 오전 8시 현재로 판명된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명의 피해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
원주	44명	45명	13명
영월	10명	2명	-
횡성	13명	1명	1명
울진	1명	1명	1명
평창	2명	1명	3명

가옥의 피해

	침수및 완파(호)	반파(호)	상상침수(호)
원주	293	123	703
인제	126	-	159
횡성	101	66	100

평창	68	68	140
계	588	180	1,150

상하침수 가축의 피해

원주	906	111
횡성	200	2
평창	34	3

정선군만은 통신불량으로 아직 피해상황이 분명치 않았다.

**강원도 금광 현세
작업광구 162개소 월산액 35만6천원
(매일신보 1936-08-28 / 4면)**



【춘천】 강원도의 금광권은 연년히 증속을 가하고 있어서 1933년 연말에는 월산액이 13만원대에 불과하던 것이 1936년 8월 현재 조사에 의하면 1개월 산출액이 35만6,112원에 달하고 있어 3개 양적을 경과한 금일에는 배 이상의 호액을 보게

되어 나날이 융성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광점 162개소에서 1개월간에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5,861인에 달하고 있는 바 도내 21군 중에 아직 등록이 없는 곳은 양양군 뿐이며 그 외에는 도처마다 광구가 없는 곳이 없다 그 중에도 더욱 유망한 산금지구는 흥천 정선 회양 횡성 삼척군 등인데 1936년 8월 말 조사에 의한 각군의 산출액을 세별하면 다음과 같다.

군명	광구수	월산액(원)
춘천	8	1,221
인제	9	1,050
양구	3	-
회양	8	22,832
통천	6	20,240
강릉	9	6,880
삼척	8	24,036
울진	6	2,250
정선	14	24,270
평창	5	2,780
영월	2	550
원주	22	551
횡성	11	6,773
흥천	18	207,198
화천	2	280
금성	4	20,000
철원	12	31,850
이천	8	720
고성	6	-
계	162	356,112

**횡성 전천교 부근 피해상황을 시찰
남총독 강원도 재지에**
(매일신보 1936-09-03 / 2면)



【춘천특보】 남총독은 착임 초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〇한 수해에 대하여 심대한 재해를 당하여 700여명에 달한 사망자를 낸 강원도의 실황을 시찰하고자 2일 오전 9시 富永학무국장, 이등 경무국장, 〇야 해군이용계 監原 비서관 기타를 수반케하고 수대의 자동차로 관저를 출발하여 우중 경춘가도 90여키로의 여정을 답사할터인데 도중 가평군청에 들러 관내 상황보고를 듣고 孫지사의 출영을 받고 도청에 들었는데 총독은 직접 수해상황 보고를 들은후 청원을 소집하여 일장 훈시하고 청내를 시찰한 후 〇식을 마치고 춘천 신사에 참배, 고보농업학교생도를 〇열후 여학교를 시찰하고 이어서 홍천에 임하여

〇민훈련소를 시찰하였는바 오후 4시경 금회 제1차 수해에 의하여 참해를 당한 횡성전천교 부근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 부락에 입하였는데 동야는 동지에서 1박할 예정이다.

강원도 교통상황(지난3일 현재)
(매일신보 1936-09-06 / 5면)



【춘천】 금번 제2차로 발생한 대 폭풍우로 인하여 도로교량의 유실, 하천의 몰함으로 대부분 자동차 교통이 두절되었는데 언제나 복구될런지 알수 없다. 그런데 3일 현재 강원도내의 교통상황은 다음과 같다.

- 춘천 - 화천 중계통행
- 춘천 - 양구 불통
- 홍천 - 인제 불통
- 횡성 - 원주 중계
- 횡성 - 평창 불통 (중략)
- 횡성 - 경성 중계

횡성의 농작물 피해
(매일신보 1936-09-15 / 11면)



【원주】 만년을 두고 피해가 있다는 우천면 벌판과 횡성 앞들은 내려 밀리는 홍수로 곡식 한 줌 만져보지 못하게 되고 흘러내리는 사태로 인하여 정곡면 등지는 농작물이 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전군에 제방교상 공작물을 제하고 난 농작물의 피해만 다음과 같다.

농작물피해
129,872원

어하사금 각지전달식
(매일신보 1936-10-03 / 5면)



【횡성】 횡성군내 풍수해 이재민에게 전하사하옵신 어구홀금의 전달식을 9월 29일 오전10시부터 동군청 회의실에서 각관계면장 읍내 각관공서장, 지방유지 제씨, 청원일동 참례하에 엄숙히 거행하였는데李군수의 식사가 마친 후 어하사금을 전달하고 이어 曹횡성면장이 어하사금 배수자를 대표하여 답사가 있는 후 식을 폐하였는데 일동은 성은의 홍대에 감격불기하였다.

강원도내 초등교장 회의 일정
(매일신보 1936-10-09 / 5면)



【춘천】 강원도 초등학교 교장의 회의를 춘천, 온정리 양개소에서 좌기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내 28, 29, 30일 3일간 춘천에서 참가군 춘천, 인제, 양구, 화천, 홍천,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울진

내 11월 6, 7, 8 3일간 고성 온정리에서 참가군 고성, 양양, 강릉, 삼척, 통천, 회양, 평강, 이천, 철원, 김화

**강원미작 1회 예상 90만1천여석
숫자로는 거년보다 1할 감수
기실은 상당한 흉작
(매일신보 1936-10-09 / 5면)**



【춘천】 강원도의 (9월 20일 현재) 제1회 미수확예상고는 10월 7일 발표되었는데 수도 890,611석 육도 2,582석 합계 901,193석으로 전년도 收高 1,000,639석에 비하여 1할이 감소케 되었는데 그러나 그 간 경과를 보건데 식부당시 춘천이북의

제군은 한발로 인하여 2,999정보7단의 식부불능지가 있었고 7월하순 이후에는 도내전역에 한하여 강우가 많기 때문에 습기가 많았으며 더욱 8월이래 2회에 걸쳐 본도 주요산미지대인 영서남부와 영동의 10개군에는 전고미증유의 대풍수해가 있었으며 그 외의 각군에도 풍해가 심하여 피해면적이 43,398정보에 역시 불량한 천후가 계속하기 때문에 도열병 등이 상당히 발생되어 공전의 대흉작으로 추측하던 것이 불과 1할 감소라는 것은 의외의 감이 없지않은바로 전5개년 평균 수확고인 90,250석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이 일견 평년작과 같은데 이것은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게된 미곡생산고 조사에 의한 정확한 기초적 조사에 인한 결과로서 종래의 조사방법에 의할 것 같으면 본년의 수확 예상고는 전년에 비하면 3할2푼4리, 전5개년 평균수확고에 비하여 2할4푼2리의 감소로 1923년 이래의 대흉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	육도
.....		
.....	횡성 45,605석	67석
.....		

횡성서 해주에 노동자를 이민
(매일신보 1936-10-19 / 4면)



【원주】 횡성군당국에서 제3회로 이민 수송 준비중이라 함은 기보와 같거니와 금번 이민은 특히 18세 이상 장년으로 43명만 해주 小野田 「세멘트」공장으로 이송하게 되어 지난 10월 15일 오전11시에李군수의 소감을 서기한 송별회로尹내무주임과 二富도사회 진술 인솔하에 4대의 자동차로 분승 출발하였다.(사진은 李군수의 송별사 광경)

각지 미곡 통제 조합설립공작
(매일신보 1936-10-24 / 5면)



【횡성】 횡성군 미곡통제조합을 조직 금월 20일 오전11시부터 횡성읍내 공관점에서 제 각관공서장과 조합원 23명 참석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바 발기인 총대 曹圭鳳씨의 인사를 비롯하여 李군수의 조합 창립의 취지 설명이 있었고 의장을 선정하매 전기 조규봉씨가 당선되어 사회한 의사진행을 하였는데 의안 제1안 창립비용과 그 상각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건, 제2안 정관의정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2시 폐회하였는데 평의원에는 좌기 6씨가 당선되었다 한다.
평의원 조규봉, 元容均, 吳彦泳, 安達善, 李斗淵, 柳炳殷

횡성읍면장 회의

(매일신보 1936-10-24 / 5면)



【횡성】 횡성군에서는本月 19일 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수 회의사항을 전달 및 금후 군면 행정상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오후8시 폐회하였다.

횡성에 냉해 농작물 피해 심대

(매일신보 1936-10-28 / 11면)



【원주전화】 횡성군 일대는 금번에 냉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하게 되었는데 그중에도 갑천면에는 수답의 피해가 15,208정보이고 야채는 800원 가량이며 공근면에는 수답이 143정보이고 야채 피해는 1,220원 가량된다고 한다.

강원 36 초등교 칩어역본 전달식

(매일신보 1936-11-06 / 5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30일 오전9시 도청회의실에서 좌기 21개 초등학교에 교육 칩어 역본어하 증 전달식이 있었다.

..... 횡성군 판부

강원도의 결핵환자 남자가 여자의 근배
 작년 중 총수 2천114명
 위생과 박멸에 주력
 (매일신보 1936-11-10 / 3면)



【춘천】 근대의 난치병으로 현대인의 가장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소위 문명병이란 결핵환자가 강원도에는 얼마나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도 위생과 조사에 의하면 작년 1년 중 도내 결핵 환자 총수는 2천114명으로 내지인 293명, 조선인 1,820명 외국인 1명 그 중에 폐결핵만 1,448명이라는데 이를 다시 성별로 본다면 남자 1,340명, 여자는 774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약 배나 되는 특이되는데 이를 각군별로 보면

군명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계
춘천	209	200	1	310
인제	2	9	-	2
양구	-	27	-	27

회양	-	37	-	37
고성	15	147	-	162
양양	9	109	-	118
강릉	93	461	-	554
삼척	3	13	-	16
울진	2	2	-	13
정선	4	20	-	24
평창	-	6	-	6
영월	2	33	-	35
원주	5	112	-	117
횡성	-	21	-	21
홍천	1	48	-	49
화천	-	12	-	12
김화	5	101	-	106
철원	32	301	-	333
평강	2	14	-	16
이천	-	65	-	65
합계	293	1,820	1	2,114

강원도 사령

(매일신보 1936-11-21 / 5면)



.....

지방고원 최일준

임 군청

횡성군 재근을 명함

.....

종방 여공 모집에 횡성서 26명

(매일신보 1936-11-21 / 5면)



【횡성】 경성부 영등포구 소재 종연방적 주식회사 경성공장에서는 불원설비 완료 하면 상당히 다수의 노공을 사역할 터인데 금번에는 공장 미완으로 인하여 일부 조업에 반한 직공 앞선의퇴만 본부에 있는데 대하여 본부에서도 극력 모집한 결과 여공 출가 희망자만 실로 88명에 달하였으나 회사원 將承煥씨가 來郡 인선한 결과 공수로 채용 결정된 여공 26명(연령 14세 이상 처녀)뿐이다 한다.

대두도 대감수 비 거년 8만석 감

(매일신보 1936-11-24 / 4면)

道	石
京畿	1,000,000
江原	1,000,000
忠清	1,000,000
全羅	1,000,000
慶尙	1,000,000
江華	1,000,000
濟南	1,000,000
大邱	1,000,000
光州	1,000,000
大田	1,000,000
蔚山	1,000,000
釜山	1,000,000
仁川	1,000,000
京畿	1,000,000
江原	1,000,000
忠清	1,000,000
全羅	1,000,000
慶尙	1,000,000
江華	1,000,000
濟南	1,000,000
大邱	1,000,000
光州	1,000,000
大田	1,000,000
蔚山	1,000,000
釜山	1,000,000
仁川	1,000,000

【춘천】 강원도내에는 과거 대풍수해와 천재지변으로 〇〇이 말이 못되는데 연년히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대두작도 역 최대 감수량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농무과로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말인 현재 각군 예상매수고를 보면 287,216석으로 작년 실수고 366,709석의 대감수이다.

미, 맥, 조 각 농작물이 대감수를 보게된 강원도에 대두까지 대감수를 보게되어 농가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군명 대두예상고(석) 작년실수(석)
(중략)
횡성 11,909 17,696
(중략)

흉작은 전곡에도 강원 속작 대감수
거년에 비하여 8만4천여 감
대중식량에 대 위협
(매일신보 1936-11-24 / 4면)



【춘천】미작 맥작 등 모든 농작물이 불능에 빠진 강원도에는 조작 만든 흉작에를 없었더라고 믿어왔는데 기실은 각군의 수확 예상고를 조사하여 보면 303,651석으로 작년실수와 397,631석에 비하여 보면 실로 83,980석의 대감수에다 대중의 필수 식량인 속작이 이 지경이 되고 보

니 세민들의 탄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지민들의 전도가 한층 우려되는 터인데 금년 흉작을 보게 된 것은 결실기의 천후가 불순하였던 것이 큰 원인도 되겠지만 고성, 회양, 강릉, 삼척, 양양, 통천 등 동해안 일대 수재로 전답 유실에 인한 것도 심히 크다고 하는데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예상고(석) 작년실수고(석)
(중략)
횡성 6,836 10,097
(중략)

이재지 조합원에 대금 회수 완화책
장단기 물론하고 기간 연장
강원도 25군조에서
(매일신보 1936-11-29 / 4면)



【춘천】과거 강원도내 대풍수해는 전고미증유의 대참사로 아직도 우리의 기억이

생생한 바로 인명의 사상과 가옥토지등의 피해는 참담하여 숫자로 기록함에 모골이 송연함을 느끼게 하는 바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이재민들의 가련한 참상은 실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바인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이 재민을 구제코자 강원도 당국에서는 1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도비들여 노임살포등 갖은 방법으로 구제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때 재지의 백성을 위하여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으니 그는 도내 이재지 각 금융조합의 특단의 방침이 수립된 그것이다. 즉 도내 강릉, 원주, 통천, 울진, 영월, 삼척, 대화, 양구, 횡성, 인제 정선 고성 문막 주천 주문진 평창 천전 내금강 대포 둔내 옥계 원덕 원주제 2 명주제2등 25개 조합은 전부 대풍수해를 격은 재해조합으로 관내이재조합원의 비참한 정경을 통념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복흥 갱생케하고자 대부금 회수에 있어 (중략)

**강원도 각군 순회로 사회교화 강연회
3구로 분하고 강사 촉탁**

(매일신보 1937-02-18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사회교화 목적으로 다음에 의하여 순회강연을 실천하려하는 바 촉탁된 강사는 李瑾洙 朴普陽 金永近 3씨라 하며 강연의 제목은 주로 심전개발, 청소년관, 부인의 교양, 생활개선, 지방개량 등에 관하여 행하려하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중략)

▲金永近씨=3월 11일 흥천, 14 횡성, 17일 원주, 20일 영월, 23일 평창, 26일 정선

(중략)

횡성군 수의 축산학 강습
(매일신보 1937-02-21 / 3면)



【횡성】 횡성군농회 주최로 지난2월13일부터 3일간 각면 축산사무담당자 8명을 군청 회의실에서 소집, 세균학, 진단학, 안과학, 산과학 등을 순차 논구하여 중시 긴장리에 강습을 종료하였는데 그 요지는 종래의 소수인 근축산기수로는 도저히 각면 각리에 발생하는 환축치료의 만전을 도하기 불능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응급 수당을 하여 군내 농촌가축의 병을 치료하며 겸하여 그 병을 미연에 방지케 하여 유축농안의 합리화 기타 축우 증가등을 목적으로 한것인데 금후 농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얻게 되리라 한다.

중앙선 신설에 추수 마룡역 유치 맹열
홍천, 인제, 횡성 3군서 꺾기
철도당국에 진정
(매일신보 1937-02-24 / 3면)



【홍천】 경성 영천간 중앙선 부설에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가 중요역 설치 예정지에 제외되어 면민은 〇기 기성회를 조직하고 홍천, 인제, 횡성 3개군과 호응하여 본부 철도 당국에 진정하고 중요역 유치 운동을 맹열이 한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이반면 홍천에서 화해와 발전상 다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전군민은 우려초침하여 관공서장 및 민간유지가 수차 회합토의한 결과 목적관철을 위하여 맹활동중 제2단 공략으로 또다시 천여명이 날인한 탄원서를 지참하고 군수, 金時明씨와 유지 山內莊市 양씨가 지난 21일 철도당국에 진정차로 상경하였는데 용문면은 강원도 9입을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영

동, 영서 방면에 ○문을 이루어 경기, 강원 양도 용문면 통과로 ○○간 화물량이 500톤이나 되며 여객이 600명이 되어 역 배치 직후 1일 유수역과 필적하므로 불인 할수는 사실이며 인구가 조밀하고 각관공 서가 배치되어 산업 방면으로도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한다. 장래에 ○망되는 점이 많다고 한다.

**강원 속작 대감수
비 전년 8만여석 감
이재민 공민에 협위**
(매일신보 1937-03-13 / 3면)



강원도내 각군의 작년 속 실수확고를 도 농부과로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만60 석으로 전년 실수고 397,631석에 비하면 실로 81,171석의 대감수이다. 대중의 필수 식량인 속작이 이 지경이 되고보니 세 민들의 탄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재지 이재민들의 생계가 한층 더 우려되는 터인데 그같이 대 흉작을 보게된 것은 결실기에 천후가 불순하였던 것이 큰 원인도 되

겠지만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통천등 동해안일대 수재로 전답유실에 인한것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관호내는 전년 실수고)

▲춘천 22,726석(25,395석) ▲인제 22,771 (26,403) (중략) ▲횡성 6,999(10,097) (중략)

**농사와 면작 양 품평회 포상식
9일 강원도서 성대**
(매일신보 1937-03-13 / 3면)



【춘천】 강원도 농회에서는 9일 총회를 이용하여 과반 심사한 농사품평회 및 면작품 평회에 관한 개평과 포상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바 입상지는 다음과 같다.

- ◇농사품평회
- ▲2등 원주 횡성 ▲3등 홍천 평창 삼척
- ▲4등 춘천 양구 통천 강릉 울진 화천 김화 이천
- ◇면작품평회
- ▲1등 횡성 춘천 ▲2등 원주 화천 홍천 춘천 ▲3등 울진 홍천 이천 김화

강원도재지 금조에 구제자금을 융통
13조합에 110여만원
(매일신보 1937-03-25 / 3면)



【춘천】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강원도지부에서는 작하 풍수해 이재지 조합원의 구제지 이자금을 연합회본부를 통하여 대장성으로부터 차입을 얻게되어 재해 각조합에 융통하기로 되었다 한다.

◇자금내역

- (1) 경지유실 및 토사 매몰복구자금 91만8,100원
- (1) 적곡 및 비료구입자금 13만5,000원
- (1) 건축물및 과수원 복구자금 13만5,000원
- (1) 상품복구자금 1만4,000원

합계 111만7,000원으로 이 자금의 할당을 받을 재해지 조합은 강릉, 원주, 통천, 양양, 울진, 영월, 삼척, 고성, 횡성, 인제, 정선, 평창, 회양 등 13개 조합이라 한다.

청춘의 피를 빼앗는 몸서리 칠 결핵병
강원도에 환자 1천700명
남자가 여자의 약 배
(매일신보 1937-03-25 / 4면)



【춘천】 근대의 난치병으로 현대인의 가장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하는 소위 문둥병이란 결핵 환자가 강원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가 강원도 위생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1년 중 도내 결핵 환자의 총수는 1,718명으로 전년 2,114명보다 396명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폐결핵 환자만이 1,115명에 달한다. 성별로 본다면 남자 1,117명 여자 601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약 배나 되는데 이를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여자	남자	계
횡성	-	16	16
홍천	-	34	34
화천	-	9	9
김화	5	114	119
철원	-	60	60

평강	-	28	28
이천	-	42	42
합계		227	1,491

이상과 같은 바 춘천의 424명이 최고이고 화천의 9명이 최하 라는데 강원도 위생과에서는 차등 선택 박멸의 만전을 강구하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한다.

영춘 갱신의 초등학교단 초임교원들 부임 강원신규 채용분 발표 (매일신보 1937-04-06 / 3면)

The clipping contains a large headline: **迎春更新의 初等敎壇 初任敎員들 赴任** (Spring Renewal of Primary Classrooms, First-time Teachers Arriving). Below it is a sub-headline: **江原新規採用分發表** (Gangwon New Appointment List Published). The main body consists of a vertical list of names and their respective districts, such as '영춘', '화천', '철원', '강릉'.

강원도 초등교원의 신규 채용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다.
▲이원고생 춘천 공립소학교 ▲구길량우

천전공보 ▲암기행민 춘천소학교 ▲천성환 고성공보 ▲송상고 철원 同 ▲중도광 춘천소학교 ▲룩강팔랑 춘천 同 ▲지형식 주전공보 ▲정동운 원주 同 ▲관본수 신리공보 ▲이등일춘 둔내공보 ▲마장진선미 내촌 同 ▲송본광웅 구룡 同 ▲정지선 임남공보 ▲허남훈 해안 同 ▲송효정 제오 동 …… ▲金昌林 공근공보 ……▲이경숙 황성공보 ……

강원의 식상독려 도 간부 각 군에 총동 (매일신보 1937-04-09 / 3면)

The clipping has a headline: **江原의 植桑督勵** (Gangwon's Silk Planting Supervision). Below it is a sub-headline: **道幹部、各郡에 總動 植村檢査코 徹底指導** (Provincial Officials, Total Movement to Each County, Thorough Supervision of Village Planting). The main content is a table with columns for districts (e.g., 영춘, 철원, 강릉) and dates (e.g., 五月五日, 五月十日).

【춘천】 강원도에서는 식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각 신촌에 240본을 식재할 예정이었으나 양적 장려보다 질적 장려가 더 성과적이라 하여 계획을 변경한 후 160만본을 식재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고 이에 도 당국에서는 도 상부장과 계원을 각군에 파견하여 식상

독려 지도와 식재 검사를 좌향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독려지도 일정

▲춘천군 양구군 5일부터 10일까지 ○야도기수 ○기고원 ▲회양, 통천, 인제, 양양, 강릉 7일부터 15일까지 북택기사 ▲정선, 평창 7일부터 15일까지 씨복기수 ▲영월, 원주 5일부터 11일까지 압협기수 ▲횡성, 홍천 8일부터 15일까지 邊기수 ▲화천, 김화, 철원 5일부터 12일까지 석천기수 ▲평강, 이천 10일부터 19일까지 등야기수

政戰 각지에 방감
도의 선거전 수일 백열
대기의 신진용약 입후보 계출
일일 격증
강원도 입후보 벌써 16명
(매일신보 1937-04-15 / 3면)



강원도 도의원 선거는 그 기일의 임박과 선거에 대한 고시 발표로 각군에 입후보

자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2일까지 출사표를 낸 입후보자가 전부 16명에 달하여 상당한 격전을 예상케하고 있는데 16명 중 신인이 11명이나 되는 점으로 보아 이번 선거는 백열적 대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자 씨명(12일 현재)

군명	입후보자	직업	신구
(중략)			
횡성군	신영순(47)	농업	新
(중략)			

강원도이재민 4만6천여 출역
구제 공사의 결과 호적
(매일신보 1937-04-16 / 3면)



【춘천】 지난 여름 강원도 일대를 강타한 미증유의 대수해로 인하여 인명, 가옥, 전답 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걸린 이재민의 수도 수십만명에 달해 그들 재민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왔게 되어 앞길이 막막한데 당시 도 당국에서는 이 이재민들을 구제코자 도비 백만원을 투입하여 부락, 제언 등 공사에 노력을

가을여왔는데 지난해 11월 말일(12월 이후는 신고미착) 현재 각군의 출역인부 수를 도지방과로부터 조사해보면 46,369명으로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다.

◇이재민 발생 현황표◇

▲회양 3,280인 ▲통천 356인 ▲고성 600인 ▲양양 5,889인 ▲강릉 11,007인 ▲삼척 1,065인 ▲울진 1,917인 ▲정선 580인 ▲평창 6,000인 ▲영월 2,453인 ▲원주 806인 ▲횡성 12,410인 계 46,369인

강원의 축록전도 백열 신구의 도전 격렬
14일 정오까지 입후보 37명
신진만 30명 출마
 (매일신보 1937-04-17 / 3면)



【춘천】 지난 9일부로 강원도 도의원 선거의 고시가 발표되자 준비하고 있던 각군의 입후보자들은 우후죽순같이 쟁선하여 소관경찰서에 이를 입후보의 간판을 내세우기 급급하고 있는데 고시 다음날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입후보를 표시한 사람이 민도의원수 21명의 약 배에 가까운 37명에 달하고 있어서 백열화할 선거대접 박차를 기하고 있다.

14일 오후4시까지의 입후보자가 37명에 달한 현상으로 본다면 1일 평균 7명으로 입후보만도 그 형세가 자못 의기있게 출현되고 있는 바 현재 도의원 중 20명이 각지에서 시찰중이므로 그들 의원의 재출마가 이어지게 되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같은 입후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비례로 나간다면 아무래도 50명은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4일 오후4

- ◇춘천 ▲신태현(53)(현)
- ◇화천 ▲홍영선(43)(신) ▲이중석(50)(신)
- ◇양구 ▲최준용(30)(신)
- ◇회양 ▲유재후(47)(신) ▲김원○(48)(신) ▲송효근(40)(신)
- ◇고성 ▲최용부(42)(현) 황운천(41)(신)
- ◇양양 ▲고덕주(49)(신) ▲김봉학(39)(신) ▲김진호(32)(신)
- ◇강릉 ▲유명순(43)(신) ▲최태집(54)(신)
- ◇삼척 ▲박진용(61)(신) ▲김동혁(44)(신) ▲김용○(37)(신) ▲김규영(57)(신)
- ◇울진 ▲○○필(51)(현) ▲장성학(32)(신) ▲전영식(50)(신)

- ◇ 횡성 ▲申永淳(37)(신) ▲尹昶鎬(41)(신)
- ◇ 철원 ▲이덕일(48)(현) ▲김용옥(42)(신) ▲박찬규(42)(신) ▲서곡이사랑(43)(현)
- ◇ 이천 ▲송규환(43)(현)
- ◇ 김화 ▲박경호(51)(현) ▲김만봉(39)(신)
- ◇ 홍천 ▲김덕중(31)(신) ▲홍병덕(37)(신)
- ◇ 영월 ▲엄정우(37)(신)
- ◇ 통천 ▲전하부(44)(신)
- ◇ 인제 ▲이종성(39)(신) ▲이종형(47)(신) ▲민경호(40)(신)

이상은 입후보한 37명으로 현 의원이 겨우 7명에 신인이 37명이나 되어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삼척선 거구에서는 4명의 출마자가 있어 격렬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케하고 다음 울진과 인제가 모두 3명으로 평범치 않은 각축장이 될 것이다. 현재 평강, 정선, 평창, 원주 4군에는 아직 한명의 입후보자가 없는 이상한 현상이라 하겠는데 현재 금회의 선거예비인의 출마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신구의 송방이 평범치 않을 것이다.

강원이발시험 합격자 횡성
(매일신보 1937-04-17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3월23일부터 양일간 춘천, 철원, 강릉 3처에서 이발시험을 시행하였는바 합격자가 전부 48명으로 지난14일에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발표하다.

- ◇ 합격자씨명
- 양순환(춘천) 조창근(춘천) 유장근(횡성)
- 윤석환(원주) 서정록(이천) 이흥빈(평남)
- 강동) 노용문(춘천) 강성우(강릉) 최지영(삼척) 원태산(삼척) 김인봉(김화) 조윤성(인제) 이영학(철원) 김쌍만(철원) 김종철(홍천) 이도길(철원) 김택일(평강) 윤종구(이천)
- ◇ 학열시험합격자
- 김운용(강릉) 김성복(강릉) 박능학(강릉)
- 김상진(강릉) 김운용(강릉) 전영빈(양양)

단당 3백관 목표로 퇴비 증조를 지도
 횡성군청원이 총동
 (매일신보 1937-04-17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가을 퇴비 증산제에 대하여 반드시 단당 300관 목표에 달성케 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퇴비량의 증개축 액비류의 설치, 수선및 우둔사의 개조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8일부터 1주간 청원 총출동으로 각지에 출장하여 청직원과 지도 관계자의 개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각 부락을 일회 지도하는 중이래는 데 계획의 적절함과 지도의 열정에 의하여 목표한 결과를 각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강원도의 선거전 격화 신진의 출마 다수
 입후보 10일간 52명 돌파
 신인 무려 43명
 (매일신보 1937-04-22 / 3면)



【춘천】 「절대공정」을 표제로 하여 오는 5월 10일로서 투표를 하게되는 강원도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고시가 동월 9일에 발표되자 지난 19일로서 정히 10일을 경과케 되었는데 이 10일간 입후보한 수가 상당히 많아서 종전에 없던 대활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까지의 각군으로부터 입후보한 수는 전부 52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 숫자만으로도 정원 20명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각군 평균 2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있고 선거일의 1주일 전까지 입후보자가 나오면 15일 남았으니까 이동간에 입후보

자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본다.

그리고 19일까지의 10일간 52명은 1일 평균 5인의 비례인데 52인 중에는 9명의 현역의원도 있어 이를 제하고 나머지 43인은 전부가 신입후보자이다. 이번 선거전은 신인들의 격전을 예측케 하는 바 구인들의 신인에 대한 비장한 격전도 흥미 있는 일이라 볼수있다. 이제 각군의 입후보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신태현(현) ▲춘천 공형(신) ▲춘천 정은섭(신) ▲인제 이진형(신) ▲인제 이종성(신) ▲인제 민경호(신) ▲인제 정해팔(신) ▲인제 이종태(신) ▲양구 최준용(현) ▲회양 유재후(신) ▲회양 김원섭(신) ▲회양 송효근(신) ▲통천 전하부(신) ▲통천 이동근(신) ▲고성 최용부(현) ▲고성 황운천(신) ▲양양 고덕주(신) ▲양양 고재동(신) ▲강릉 유명순(신) ▲강릉 최태집(신) ▲강릉 권승수(신) ▲강릉 박용덕(신) (중략) ▲횡성 신영순(신) ▲횡성 윤창호(신) ▲횡성 오병선(신)

이상의 입후보로 보아 인제군의 6인의 최고로 양양, 강릉, 삼척, 인제, 철원 5군이 모두 4인의 후보이며 춘천, 회양, 영월, 횡성 4군의 입후보가 각기 3인식이다. 그 다음 각군은 1명내지 2명 인 바 평강군만은 아직도 입후보가 없다.

강원입후보 72명 공방의 전운 백열 신흥진의 추격도 맹렬

(매일신보 1937-05-07 / 3면)

【춘천】 분화구 같은 의기와 필승의 자신 을 가지고 도처에서 비장한 격전을 계속 하고 있는 강원도회 의원 선거전은 제2기 의 고비를 넘어 제3기에 들어가야 말았다. 등록 마감일인 3일 오후12시가 지난 4일 현재의 입후보를 보면 전부 72명으로 21군 21명에 대하여 3배 반이나 되는 강 원도의원 선거사상 기록적 숫자를 보이고 있는 바 이로서 1대 3의 선전으로 이번의 선거전은 사상 유례없는 대격전이 되어버 릴 것은 자명하다. 전기 72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의원이 12명이고, 60명이 신 입후보자이며 신규 대립의 맹렬한 공방전 도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관내의 유권자 총수 1790명 1권 역의 한표는 누구에게? 160만 도민의 이 목은 여기 집중되고 있는 바 입후보자 총 결산을 보게된 4일 현재 입후보자의 「멤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 횡성군(입후보 4인)

申永淳(37)(신) 농업

尹昶鎬(41)(신) 농업

吳並善(50)(신) 농업

李秉珪(46)(신) 농업

(중략)

강원 정전 심판 금10일에 일제투표 개표는 11일에

(매일신보 1937-05-11 / 3면)

江原의政戰審判

今日에一齊投票

開票는十一日에

「專用」權利? 政治? 憲法? 不
... (text continues vertically)

「專用」權利? 政治? 憲法? 不
... (text continues vertically)

旱水災罹災民에

粟百五十袋寄附

澗川尹善長氏篤志

洪川郡	平康郡	咸興郡	南浦郡	元山郡	三陟郡	南浦郡	咸興郡	平康郡	洪川郡
四四	三一	二二	一一	五五	四四	九二	八八	七六	八二
九二	八八	七六	八二	五五	四四	九二	八八	七六	八二
合	計	計	計	計	計	計	計	計	計
三二	二二	三三	五三	三三	三三	三二	二二	一七	一八
七二	二二	一七							

【춘천】 승리? 패배? 초조와 불안 가운데 비장한 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강원도회의 원 선거전은 기일의 박두와 함께 맹렬한 격전이다 보니 각군의 전황을 문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리하여 각 정수보다 3명 내지 4명 심한 곳은 7명

이 대립하여 비장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때 부락을 좌우하는 1,790 유권자들의 깨끗한 한표는 과연 누구로 하여금 당선과 영예를 얻게 해주게 할 것인가? 160만 도민이 주시 중 가장 관심있는 문제로 되어있다. 그런데 심판일인 5월 10일은 도내 선거장에서 투표만 일제집행(양양군 내면, 삼척군 원덕면, 상장면, 하장면, 이천군 〇〇면은 9일에 선거)하고 개표는 5월 11일에 행하는 바 각군의 배구 정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정원 (명)	입후보자수 (명)	유권자수 (명)
춘천군	1	5	112
인제군	1	7	70
양구군	1	2	70
회양군	1	3	76
통천군	1	3	68
고성군	1	2	70
양양군	1	4	90
강릉군	1	4	122
삼척군	1	5	94
울진군	1	4	84
정선군	1	3	54
영월군	1	2	82
평창군	1	1	76
원주군	1	3	98
횡성군	1	4	84
홍천군	1	4	92
화천군	1	3	44
김화군	1	3	122
철원군	1	5	100

평강군	1	3	74
이천군	1	5	100
계	21	72	1,790

**판명되는 新道議 11일 오후 6시 현재
(매일신보 1937-05-12 / 2면)**



강원도

◇ 횡성군(정원 1)

37표 신영순(37)(신)

차점 26표 윤창호(41)(신)

강원도청원 총동원 퇴비장 개축지도
15일부터 12일간

(매일신보 1937-05-16 / 3면)

江原道廳員總動員
堆肥場改築指導
十五日(五月)부터十二日間

【要聞】江原道廳員總動員 五月(上旬)부터 堆肥場改築指導 十五日(五月)부터十二日間 指導員 江原道廳員總動員 堆肥場改築指導 十五日(五月)부터十二日間

▲大龍기사 춘천 양구 인제 홍천
▲북택기사 통천 고성
▲中川기수 황성 원주 영월
▲栗末기수 양양 강릉
▲松升기수 회양 평강 이천
▲高木기수 화천 김화 철원
▲崔기수 삼척 울진

比前年 本年

【춘천】전작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퇴비의 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는데 산출량이 적고 시설이 불비 되어 퇴비량 개축 부담의 철저를 기하고자 각 지도원을 파견하는데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으로 일제히 지도를 개시하고자 한다.

- ▲大龍기사 춘천 양구 인제 홍천
- ▲북택기사 통천 고성
- ▲中川기수 황성 원주 영월
- ▲栗末기수 양양 강릉
- ▲松升기수 회양 평강 이천
- ▲高木기수 화천 김화 철원
- ▲崔기수 삼척 울진

횡성군 작년 수해지 대사방공사 착공
3년 계속 공비 10만원

(매일신보 1937-06-05 / 3면)

橫城郡昨年水害地
大砂防工事着工
三年繼續工費十萬圓

【本報】昨年(三十七年)水害地に對して、横城郡は、大砂防工事に着手した。この工事は、三年にわたって、工費十萬圓を要する。昨年(三十七年)の水害は、郡内の各所に甚大な被害を及ぼしたが、本年(三十八年)は、この大砂防工事の完成を期して、被害の軽減を期する。郡内各所に、大砂防工事の着工が、本年(三十八年)五月に開始された。この工事は、三年にわたって、工費十萬圓を要する。昨年(三十七年)の水害は、郡内の各所に甚大な被害を及ぼしたが、本年(三十八年)は、この大砂防工事の完成を期して、被害の軽減を期する。郡内各所に、大砂防工事の着工が、本年(三十八年)五月に開始された。

光州郵便局에도
臨時增給의喜報

【횡성】작년도의 횡성군내에 홍수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중에 상당수의 손실은 산이 무너져서 모래밭이 되고 우천면, 횡성면 일대의 산이라는 산은 전부 사태가 나서 무려 180정보나 되므로 강원도 산림과에서는 3년간 계속 사업으로 횡성군에 사방공사사무소를 설치하고 기술원 益〇기수 외 10여명을 투입하여 목하 사방공사에 착수 착착 수행중인데 공사비는 10만2,000원 이라고 한다.

농번기 박두함을 따라
 탁아소 확충을 도모
 관하 각지도 부락을 중심으로
 강원도서 적극계획
 (매일신보 1937-06-07 / 4면)



【춘천】 농번기도 고고절박해 읍으로 강원도에서는 각지에 탁아소를 개설하여 일반 농촌부인과 동 노작계를 조성함과 공히 탁아 촉진에 나서고자 사회사업협회 강원도지부로부터 완구 기타 설비비 등을 보조하기로 하였는데 각지의 기설 탁아소 상황은 극히 소극적으로 현재 겨우 119개소에 불과하므로 본년에는 적어도 갱생지도 부락을 중심으로 극력 개설케 할 의향으로 장려 노력하고 있는데 각 부 현황을 보면 좌와 같다.

춘천 1, 인제 2, 양구 24, 회양 2, 고성 12, 양양 1, 삼척 6, 울진 5, 정선

3, 평창 2, 영월 16, 원주 7, 횡성 6, 화천 20, 김화 2, 철원 2, 이천 2
 계 119개소로 전년 개소일수는 5,139일 연수용인원이 86,113인이었다고 한다.

5월 희우의 혜택입어 강원도이앙 진척
 9할 2분의 호성적
 (매일신보 1937-06-29 / 3면)



【춘천】 강원도내의 금년도 모내기 성적을 보면 5월 하순경의 비로 전년보다 대체로 양호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모내기 예정면적 82,523정보에 대하여 75,719정보의 모내기가 완전되어 92%의 호성적인데 모내기 못한 면적인 6,803정보는 모내기 예정량의 약 2%에 해당하는 셈이된다. 이로써 본다면 전년 55% 모내기에 비해 대단히 양호한 성적이라 하겠으며 이를

다시 전년의 특수기상을 제거한 5개년 평균 모내기 합은 9할5분1리로 본년은 평년도 정도라고 한다. 이를 각군별로 보면 좌와 같은 바 양구, 강릉, 양양이 전수 완료되었고 회양, 평창 등 고지대의 8할 정도가 불량한 편이나 전년에 비하면 역시 호조로 진척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식부 후 계속하는 한발로 일반 농가에서는 크게 우려중이라 한다.

군명	모내기 예정면적(정)	모내기 면적(정)	모내기 할합(할)
춘천	4,469.5	4,085.0	9.10
양구	2,419.5	2,319.5	10.00
인제	2,362.6	2,172.5	9.20
회양	2,392.0	1,914.4	8.00
통천	5,724.2	5,610.5	9.78
고성	4,117.8	3,827.0	9.40
양양	5,026.4	5,026.4	10.00
강릉	6,785.8	6,785.8	10.00
삼척	2,506.8	1,982.8	8.26
울진	4,154.0	3,800.3	9.20
정선	1,810.9	746.0	9.20
평창	2,245.7	2,228.4	9.50
영월	1,469.1	1,258.9	9.25
원주	6,656.5	4,285.1	6.57
횡성	4,458.9	3,749.2	8.50
홍천	4,967.5	4,719.2	9.50
화천	1,742.9	1,626.8	9.41
김화	3,997.2	3,861.8	9.90
철원	11,463.4	11,280.9	9.94
평강	2,989.5	2,244.0	9.06
계	82,523.5	75,619.6	9.18

횡성군 안흥 제방 개축 요망 漸白熱 주민당국에 탄원

(매일신보 1937-07-20 / 3면)



【원주】 횡성군 안흥면은 경성과 강릉 간에 있는 중요한 상업지요 사방으로부터 물산이 집합하는 곳으로 작년도의 대홍수로 300여 부락은 폐촌 지경까지 되어 일 반은 그 복구에 부심하고 있는데 첫째로 는 상안흥에서 하안흥까지 약 1km의 제 방이 불안전하여 매년 수해를 면치 못하 고 있는바 금년도 홍수기를 앞두고 1,000 여 주민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 금번에 면장 오연영씨는 도당국의 지방과에 대하 여 탄원을 하였으나 소식이 없어서 아직 그대로 있는데 홍수기를 앞둔 천에 주민 들은 하루속히 도당국에서 제방공사에 착 수하기를 바라고 도 당국에 탄원하고 있 다한다.

강원도처에 풍년송 이양은 9할9분
고지대 천수답도 진보
(매일신보 1937-07-24 / 3면)



양구	2,419.5	2,419.5	10.00
회양	2,395.0	2,379.5	9.85
통천	5,734.2	5,734.2	10.00
고성	4,117.8	4,117.8	10.00
양양	5,028.4	5,028.4	10.00
강릉	6,785.8	6,785.8	10.00
울진	4,154.0	4,154.0	10.00
정선	810.9	810.9	10.00
평창	2,345.7	2,345.7	10.00
영월	1,788.0	1,788.0	10.00
원주	6,656.5	6,295.6	9.20
횡성	4,448.9	4,402.4	9.89
홍천	4,997.5	4,997.5	10.00
화천	1,742.9	1,708.4	9.80
김화	2,889.5	2,822.0	9.75
철원	11,463.4	11,396.0	9.94
평강	2,889.5	2,822.0	9.75
이천	1,982.3	1,972.4	9.95
합계	82,859.2	82,075.2	9.90

【춘천】 강원도내의 본년도 모내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면적의 9할대로 종료하였으나 그후 한발의 계속으로 잔여 1할이 염려되는 중 지난 8일부터 내린 호우는 전도에 유일하게 내려 10일 현재 9할9분의 이양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머지 평강, 이천, 회양 등의 고지대의 천수답으로 10일 이후에도 강우가 있던 소식에 전부 이양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보면 금년 농사는 대풍작을 예상케하고 있다. 각군별로 모내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이양예정 면적(정)	이양완 면적(정)	동상 할합(할)
춘천	4,489.5	4,419.0	9.89
인제	2,383.2	2,360.8	9.95

강원국방헌금
(매일신보 1937-08-04 / 3면)

江原國防獻金

江原道... 2,0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춘천】 은인에 은인을 가하고 자중에 목을 거듭하며 국면불확대와 화평적 해결이 고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장 자중하고 방종하는 지나군의 불인불의 횡포 휴악은 마침내 황군의 실력발동을 피치 못하게 하여 북지 전도의 풍운은 각일각으로 이급박을 고향에 이르렀다. 이같이 영토적 야심이나 정복욕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래 하북의 안녕을 유지하고 하북 민생의 고통을 구명하여 동아 화평의 가초를 확립하고자 황군은 단연일격을 가함에 지하였는바 일조전란의 보가 전하자 내선의 차가 없이 국민은 총일체

가 되어 총후의 성원과 지지는 비등고조 되어 애국열은 전국도에 충만함을 볼수가 있다. 이에 강원도에도 누구보다 뒤질까 두려워 황군을 위하여 적성을 다한 헌금 미담이 일거의 늘어가고 있는데 26일 현재 각군에 헌납한 것을 자세히 보면 좌와 같다.

(중략)
▲형성군=17일 10원 안흥소방조 및 동교원회
(중략)

강원 남부 4군 연합 기관총헌납 결의
19일 원주서 시국강연
(매일신보 1937-08-25 / 3면)



【원주】 관동명덕회 주최로 원주지부에서는 지난19일 오후8시에 원주, 횡성, 홍천, 영월 4개군의 청년단원과 문묘직원 92명

을 초대하여 원주공립보통학교에서 시국에 대한 강화회를 개최하였는데 원주군연합청년단장 최만달씨의 개회사가 있는 후분도홍참여관의 시국 중대성에 감하여 총후임무를 강화 철저히하라는 강화가 있을후분도 사회과장 김삼촉탁으로부터 조선총독 ○지사 훈시안독과 참배 지시 사항이 있었고 신사참배하고

- (1) 전강원도 관동명덕청년 단원은 전부 가 염열에 분투하는 황군노고를 감사 위문하여 각자 성의있는 국방헌금을 할 것.
- (2) 청년대원에게 이지를 무○전달하여 그 정재로 기관총 1대를 헌납할 것의 2조를 결의하였다.

강원도경찰관 표창

(매일신보 1937-08-29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경찰관의 어학시험을 실시한 후에 평소 근무 성적을

참조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좌기 제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였다.

- ▲경찰부 菊地源二郎, 高橋春男, 宮元治
- ▲춘천 棟田松一, 金增使藏, 宋永春志
- ▲인제 桂益禎, 朴仁俊, 鄭在憶
- ▲양구 小西원장
- ▲회양 出井和夫, 李秉鎬, 東園菊之助
- ▲통천 金仲河, 中村實, 崔燉英
- ▲양양 水野哲治, 北辰和雄
- ▲강릉 李萬錫, 崔碩風, 八板伊三郎, 江副虎城, 里見德吉
- ▲삼척 川原哲夫
- ▲울진 高木明智, 橋田昌雄
- ▲평창 內田풍
- ▲영월 崔昇圭, 前園直健, 池田午治
- ▲원주 金甲用, 森正彦
- ▲횡성 金演熙
- ▲홍천 朴昌鍾
- ▲화천 崔泰圭, 關中則, 李東雨
- ▲김화 成海운, 趙학천, 岩間구차, 林순일
- ▲금성 李천보
- ▲철원 李대성, 金재성, 宋병천, 金광옥, 小山定, 장곡, 천정일, 심교, 심태량
- ▲평강 田입신, 송영보부, 박운성, 위말, 태평
- ▲이천 山田○則, 兪치엄, 洪명식, 全병렬

**‘강원호’ 기 헌납에 성금 벌써 10만여원
20일 현재 예정액 돌파
(매일신보 1937-09-23 / 3면)**



회양	1,500.00	-
통천	8,649.10	4,000.00
고성	2,205.84	-
양양	7,741.29	6,200.00
강릉	9,350.00	9,350.00
삼척	1,419.89	7,421.81
울진	9,025.64	5,512.68
정선	12,144.94	825.00
평창	5,400.00	2,497.40
영월	3,161.80	2,817.89
원주	9,200.00	9,200.00
횡성	5,000.00	265.65
홍천	5,400.00	5,400.00
화천	1,770.00	818.94
김화	6,200.00	6,200.00
금성	9,000.00	-
철원	2,900.00	2,900.00
평강	2,400.00	오타
이천	2,400.00	오타
합계	105,692.02	68,228.82

【춘천】 시국문제에 긴급 소집된 강원도회에서 10만원의 애국비행기 「강원호」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게 되자 각군이 모두 서로 다투어 헌금을 하고 있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나 9월 20일 현재 강원도 경찰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신청되어 들어온 금액이 105,692원2전에 달하여 예정액을 돌파하고 있는데 그 중엔 현금으로 헌납한 것만도 68,228원 82전에 달하여 160만 도민의 애국심이 이렇게 격렬한가를 여실히 말하고 있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신청액(원)	현금헌납액(원)
춘천	4,468.51	4,450.00
인제	1,584.10	1,000.00
양구	1,484.95	89.57

**명치절에 가진기하여 납세자 공로표창
경성세감국 관하 면장, 구장 등
72명에 영예!**
(매일신보 1937-11-03 / 3면)



경성세무서 당국에서는 납세공로자를 표창코자 일찍부터 읍면장, 구장, 농촌진흥회장과 납세 단체의 간부등, 상시 징세의 제일선에 입하여 납세성적의 향상에 노력하고 타의 모범이 될만한 표창 추천중이었던 바 요지를 가지고 심사를 마치고 읍면장 40명 구장, 농촌진흥회장과 납세조합장등 32명을 표창하기로 결정하고 명치절의 가진을 기하여 관하 각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표창장과 상품의 전달식을 거

행케 하여 시간이 시간인 만큼 일반 납세사상의 작흥을 도하기로 되었다. 표창된자의 씨명은 좌와 같다.

◇면장의 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장 조○호
(중략)

- ▲강원도 김화군 통구면장 함덕일
- ▲동 이천군 방장면장 윤두선
- ▲동 울진군 울진면장 윤응규
- ▲동 삼척군 원덕면장 윤용원
- ▲동 횡성군 갑천면장 이두연
- ▲동 원주군 문막면장 황재덕
- ▲동 강릉군 강동면장 신재기
- ▲동 양양군 양양면장 장원식
- ▲동 고성군 장진읍장 황영위

(이상 40명)

◇기타의 부

▲경기도 경성부 신정 납세조합장 전구무
팔

(중략)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구장 유인득
- ▲동 양구군 수입면 송거리구장 이중현
- ▲동 통천군통천면 서리구장 김재수
- ▲철원군 사장면 산명리 제3구장 김상생
- ▲평강군 ○새면 하왕리 구장 이봉수
-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구장 홍병옥
- ▲원주군 신림면 금창리 구장 김영술
- ▲영월군 하동면 내리 구장 강도원
- ▲동 강릉군 성덕면 박월리구장 최진태

(이상 32명)

남총독 경로회 강원도 출석자
(매일신보 1937-11-05 / 3면)



【춘천】 남총독은 국민정신 주간 제6일인 12일교(경로애유일)에 전조선으로부터 고령자를 초대하여 총독관저에서 경로회를 개최하기로 되어있는 바 강원도에서는 좌기 8분이 출석하기로 예정되었다 한다.

◇출석자 씨명

군명	씨명	연령	남녀별	예하자녀수
인제	송순필	(80)	남	11
이천	김창식	(80)	남	5
양구	강용구	(83)	남	23
횡성	박기현	(81)	남	23
철원	박기양	(81)	남	15
회양	박선재	(83)	남	25
인제	오학규	(84)	남	35
이천	김태화	(80)	남	4

강원도의 승·입·연 판매 통제 강력화
18일 식산주식회사를 창립
자본금은 50만원

(매일신보 1937-11-23 / 3면)



【춘천】 승(새끼), 입(가마니), 연(대자리)의 강원도의 출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수요에 충족치 못하는 현실로 50만매 이상이나 되는데 그의 대부분은 타도 또는 내지로부터 이입되는 현상인데 이 도내의 유력자들이 이점에 착안하여 강력의 승, 입, 연통제 회사를 창립코자 준비중이던 바 ○문제반 준비가 완료되어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청회의실에 모여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제반조건이 원만히 진척되어 즉석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강력의 통제판매 회사

는 드디어 출현되었는데 명칭은 「강원식산주식회사」라고 하기로 되었으며 총자본 50만원으로 사무소를 춘천에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리라 한다. 그리고 당일 출석한 주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구무상차(춘천) ▲최양호(춘천) ▲소산입창(철원) ▲최준집(강릉) ▲유명순(강릉) ▲도엽풍본량(원주) ▲김기옥(김화) ▲이용덕(김화) ▲이명하(김화) ▲유지성(평강) ▲황운천(고성) ▲김용주(고성) ▲화기승길자(통천) ▲손장함(울진) ▲윤창호(영월) ▲김부맹(횡성) ▲박준용(삼척) ▲고덕주(양양)

그리고 이에 대하여 김 강원도지사는 19일 여좌한 감회를 말한바 있었다.

작일은 반갑게도 강원도식산주식회사가 창립되었는바 이는 본도 장래를 위하여 경하할 일이다. 승, 입, 건조용 연, 혼포 연, 비료연 등 5종의 통제 판매를 목적인 회사인바 철원에 승, 입, 통제판매 기관이 있어 어떻게 하던지 조직통일의 필요를 해오던바 금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산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금동의 생산품 통제판매가 문제되어 차제에 도내 생산 판매자들이 모여 회사를 창립함이 편리하다고 한 바 도내 사람만으로 회사가 조직된 것은 실로 기쁜 일이다. 마침 본도의 개발위원회가 종마된 익일에 식산회가 출발한 것은 꼭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도 금후어 원조하여 주기를 간절하여 마지 않는다. 철원, 원주, 강릉에는 지점을 여행인 장점에는 출장소를 설치하게 될지 모른다.

생활개선 제일보 양력 開市 일제 시행 (매일신보 1938-01-07 / 4면)



【횡성】 당군 각면 시일은 음력으로 하기와 같이 개시하였었는데 시세추이에 의하여 음력일을 양력으로 변경하여 1월1일부터 관민합시하여 실천에 당하였다.

- ▲횡성시장 매월 1일 6일
- ▲안흥시장 매월 3일 8일
- ▲둔내시장 매월 5일 10일
- ▲유동시장 매월 2일 7일
- ▲정금시장 매월 4일 9일
- ▲동평시장 횡성시일과 동일함

4백여 부락 만2천호 갱생부락으로 설정
강원도에서 제6차 계획으로
1938년도부터 실시
(매일신보 1938-01-25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본부방침에 의거하여 쇠확해가는 농촌의 갱생을 주안으로 지난 1933년 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갱생을 위하여 시중 실행하였는데 5개년 계획은 본년도로써 실행기한이 만료되므로 일제갱생 부락에 대하여는 관청의 무사적 지도로부터 부락민의 자조 공력에 이행케할 요지하에 「부락제」를 설정케 하는데 자치적 긍지를 조장하여 전략을 방지하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거니와 이에 제6차 갱생계획 즉 1938년도 농가갱생지도부락 계획도 수립을 보게되어 각군 모두 현황조사를 실시중에 있는데 수립된 강원도의 제5차 갱생계획을 보면 467부락에 1만2,121호로 각군별 계획을 보면 좌와 같다.
(중략)
 황성 21부락 537호
(중략)

강원도의 미작 실수 134만여석
比前 40만석 증수
(매일신보 1938-01-28 / 3면)



【춘천】 강원도의 1937년 미 실수 확고를 도 농무과로부터 조사해보면 작촌면적 84,247정보9반에 수확고가 134만3,876석으로 전년에 비하여 면적에 있어 1,650정보가 증가이며 수확고에 있어서 40만8,952석 증수라는데 각군별 작촌면적 및 실 수확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미수확고

군명	작촌반별	수확고
춘천	4,333.9정	63,209
인제	2,386.8	33,617
양구	2,420.7	36,151
회양	2,463.6	30,091
통천	5,758.3	95,256
고성	4,216.4	64,972
양양	5,026.4	75,776

강릉	6,852.2	30,753
삼척	2,357.2	30,753
울진	4,148.2	73,208
정선	851.0	20,888
평창	2,427.7	42,588
영월	1,726.2	33,723
원주	6,402.8	102,064
횡성	4,948.8	82,290
홍천	5,283.2	76,778
화천	1,760.3	29,706
철원	11,764.7	199,954
금화	3,923.8	68,579
명강	3,088.0	46,500
이천	2,107.2	32,715
계	84,247.9	1,343,876

**강원도의 지원병
2일 현재 82명의 다수**
(매일신보 1938-02-05 / 3면)



【춘천】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다는 발표를 보게되자 강원도에서는 애국청년의 일원으로서 여망의 시기는 도래하였다는 듯이 홍수같이 등록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2일 현재 도 경찰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벌써 82명에 달하고 있는 바 아직도 1명의 지원이 없는 곳이 인제, 평창, 평강 3개군이라며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 15 ▲양구 4 ▲회양 1 ▲통천 8
- ▲고성 4 ▲양양 9 ▲강릉 3 ▲삼척 2
- ▲울진 1 ▲정선 1 ▲영월 4 ▲원주 11
- ▲횡성 2 ▲홍천 2 ▲화천 2 ▲김화 7
- ▲철원 5 ▲합계 82명

우량청년부인회에 강원도서 보조금
11일, 도지사로부터
(매일신보 1938-02-05 / 3면)

춘천, 횡성, 홍천, 원주에
감저재배조합 설치
매 조합에 100원을 보조
(매일신보 1938-02-18 / 3면)

**優良青年團婦人會에
江原道서補助金
十一日, 道知事로부터**

江原道殖産課長 金海新 主任 委任 通告

二月一日부터實施
農務課로移管

新學面長吏選

江原道殖産課長 金海新 主任 委任 通告

二月一日부터實施
農務課로移管

新學面長吏選

【춘천】 강원도에서는 예년에 방하여 래 11일 기원가절에 도내 청년단과 부인회로서 일치 협력하여 황국의 청년과 황국의 부인된 본분을 다하여 생활개선 근로애호의 제반시설 사업에 성적이 오른 자를 선발하여 金 강원도지사로부터 좌와 같이 9개 단체에 530원의 보조금을 부여하리라고 한다.

단체명	금액
홍천군 내촌면청년단	70원
화천군 화서면청년단	70원
평창군 평창리청년단	50원
횡성군 갑천청년단	50원
울진군 기성청년단	70원
고성군 오대면 거진청부인회	50원
삼척군 북삼면 청곡부인회	50원
인제군 인제면 합강부인회	50원
정선군 정선면 봉양부인회	50원

**春川, 橫城, 洪川, 原州에
甘藷栽培組合設置
每組合에百圓을補助**

江原道殖産課長 金海新 主任 委任 通告

二月一日부터實施
農務課로移管

新學面長吏選

江原道殖産課長 金海新 主任 委任 通告

二月一日부터實施
農務課로移管

新學面長吏選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농회의 1938년 도신규사업의 하나로 감저의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신년도에 400원을, 계상해놓고 춘천 홍천 횡성 원주 4개군에 감저재배조합을 설치케 하여 1조합 100원씩의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이의 재배를 장려하리라는데 감저는 농가에 긴요한 식량이 될 뿐 아니라 「무수알콜」의 제조원료가 되므로 적극 장려를 일층 체감하게 된것이라는 바 성적에 따라서는 매년 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좌담회 개최 2천회에 동원인수 11만명
 강원도내 경관 중심의 시국인식
 좌담회 호적 금후도 계속할 방침
 (매일신보 1938-02-25 / 4면)



강원도에서는 반도인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자 도내 각 경찰서와 동 주재소를 중심으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였는 바 그 성과에 있어서 다른 거범에 의한 것보다 놀랄만치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다. 이제 실시한 내용을 보면 개최 회수는 2,718회에 참가한 연인원수가 실로 11만1,283명에 달하였다는 바 각군서 동원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군별	개최회수	총인원수
춘천	131	4,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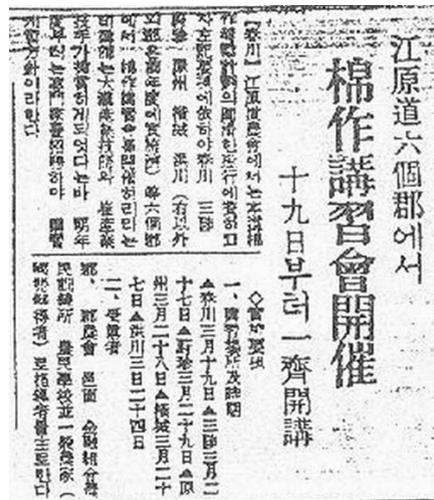
인제	120	3,673
양구	101	3,774
회양	205	11,514
통천	134	4,959
고성	70	1,576
양양	70	2,803
강릉	182	7,895
삼척	81	5,299
울진	164	8,045
정선	68	2,726
평창	114	3,809
영월	64	2,079
원주	164	5,213
횡성	52	1,983
홍천	89	3,154
화천	76	2,575
김화	97	3,330
금성	53	1,880
철원	132	4,659
평강	71	2,674
이천	470	25,916
합계	2,718	111,283

**강원도에 공사폭주 노동자 대량 수요
작년 중 3만여 알선
(매일신보 1938-03-10 / 3면)**

영월	19	12	53
원주	510	65	405
횡성	77	1,991	8,225
홍천	18		
합계	11,202	21,629	55,822



**강원도 6개군에서 면작강습회 개최
19일부터 일제 개강
(매일신보 1938-03-17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최근 급격히 발흥하는 제종공사에 대량으로 소요되는 노동수급조달에 대하여 만전책을 취해왔는데 소화 12년도 중제공사에 종사한 도내 노동자 알선상황을 보면 단신 노동자 10,122명 가족지노동자 21,629 합계 32,831명으로 이에 따라 가족만해도 35,822명에 달하였다는 바 각군의 알선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군명	단신자	가족지	가족
고성	15	-	-
양양	1,470	7,250	21,354
강릉	554	198	1,415
삼척	1,228	1,016	3,264
울진	7,201	2,085	-
평창	10	15	45

【춘천】 강원도의회에서는 본보 면작 장려계획의 원활한 수행에資하고자 좌기요항 의하여 춘천, 삼척, 울진, 원주, 횡성, 홍천(우 이외의 군은 전년도에 실시제) 등 6개군에서 면작강습회를 개최하리라는 데 강사는 대룡산업기사와 최산업 기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바 명년도부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습케 할 방침이라 한다.

실시요항

1. 강습장소 및 시기

- 춘천 3월 19일
- 삼척 3월 27일
- 울진 3월 29일
- 원주 3월 28일
- 횡성 3월 27일
- 홍천 3월 24일

2. 수강자

군, 군농회, 읍면금융조합, 농민훈련소, 농민학교병, 일반농가(국어해득자)로 지도자를 주로 한다.

영동 영서를 2조로 초등학교장회의 회장은 춘천과 강릉으로 결정 회기는 20일, 23일

(매일신보 1938-03-17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교육령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철저히 하고자 도내 공립초등학교 학교장회의를 영동 2조에 분하여

영서(제1조)는 춘천(도청회의실)에서, 영동은 강릉(읍사무소)에서 각기 좌기에 의하여 개최하리라한다.

◇제1조 3월 20일

춘천 영월 양구 인제 원주 횡성 홍천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제2조 3월23일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울진 삼척 정선 평창 영월

강원도 5개군연합 입직 경기회 성황 23일에 시상식

(매일신보 1938-03-26 / 3면)



강원도에서는 입직 장려안의 첫 시험으로 도농회 주최 제1회 입직경기회를 지난 23일 정오부터 구보통학교 광장에 개최하였는바 당일 출장한 구역은 춘천, 홍천, 횡성, 원주, 화천 등 5개군으로 남자 각군 3조씩 15조와 부인 각군 2조씩 10조에 아이 각군 2조씩 10조로 남녀아이수를 합쳐서 전부 35조 출장으로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심사한 오후4시에 수상식이 있었던바 그 성적은 다음과 같으며 입직일매(1등) 외 소요시간을 보면 남자 57분(제직까지) 부인 47분, 아이 60분이었다는데5개 시군 중 화천조가 단연 우수한 성적을 내이어 영예의 우승기를 득하여갔다 한다.

◇입상자

▲남자부

- 1등(화천) 김부길 김기근조
- 2등(화천) 현복수 현용수조
- 3등(횡성) 남봉준 서재익조
- 동 (춘천) 김영돈 황영소조
- 동 (화천) 현영순 김기철조

▲여자부

- 1등(원주) 김금순 김옥춘조
- 2등(화천) 이복여 최봉례조
- 3등(화천) 함옥희 이옥례조
- 동 (춘천) 이채란 박씨

▲아동부

- 1등(홍천) 변상훈 민경남조
- 2등(횡성) 김성렬 김영기조
- 동 (춘천) 유재열 이동섭조
- 동 (화천) 정규환 박철주조

▲단체 입상

- 1등 화천군 농회
- 2등 원주군 농회
- 3등 횡성군 농회

670여 단체에 단원만 1만8천
강원청년단 총계
(매일신보 1938-04-05 / 3면)



【춘천】시난의 극복과 지방의 진흥을 도모함에는 청년의 발랄한 원기와 공고한 단결력에 의치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강원도에서는 도내 청년단의 연락통 일을 도하여 강력한 후보발달을 조장하고자 도내 청년단을 일환으로 하는 연합청년단의 결성을 보게 되었는데 최고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세포청년단의 분포상황을 보면 지난 연말 현재 본단수 165단체에 단원에 8,027명이며 분단 512단체에 분단원에 10,190명으로 이를 통합해본다면 677단체에 단원수가 18,217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를 다시 군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군명	단수	단원수	분단수	분단원수
춘천	8	445	17	330
인제	6	186	5	43
양구	8	368	10	161
회양	6	200	2	58
통천	10	340	24	443
고성	7	233	13	275
회양	8	364	29	347
강릉	10	484	24	646
삼척	9	1,089	50	1,149
울진	8	922	60	949
정선	5	135	3	51
평창	6	241	3	46
영월	8	290	4	78
원주	10	713	70	1,586
횡성	8	213	52	1,112
홍천	9	283	22	296
화천	3	95	22	599
김화	10	314	23	591
철원	9	425	13	204
평강	6	226	25	505
이천	2	461	41	72
계	165	8,027	512	10,190

강원도 교명을 일제변경 (매일신문 1938-04-05 / 3면)



【춘천】반도통치상 획기적 시점의 일대 혁신인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강원도에는 도내 초중등학교의 교명을 일시 변경하게 되니 4월 1일을 기해서 이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학교수를 보면 중등학교 1교, 보통학교 188교, 소학교 2,080교인 바 보통학교는 188교 중 37교가 전연 명칭이 변경되고 나머지 151개교는 원학교명에 「보통」을 「소」로만 변경하였으며 소학교는 28교 중 16교가 변경되고 나머지 12교는 종전대로 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도내 간이학교는 전부 105교(도시간이 학교 3교 포함)인바 이 간이학교는 원칙적으로 본교명에 따라 ○○공립소학교 ○○간이학교라고 하리라는데 교명이 변경된 학교를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공립심상은 지면관계로 생략함)

◇춘천군 팔호내는 구명

▲록구고등소학교(춘천고등소학교)

▲지촌소학교(사북공보)

▲금산소학교(신서공보)

▲내평, 남산, 사내, 빙전, 동산, 신남, 동
내, 가산, 가정 각 공보도 동소학교로

◇인제군

▲인제동소학교(인제소학교)

▲인제남소학교(인제공보)

▲서화, 기린, 관대, 창촌, 원통, 장승각
공보로 소학교로

◇양구군

▲청룡공보를 용화소학교

▲해안공보는 매동소학교로 변경하고

▲양구, 임당, 문등, 장평, 무룡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회양군

▲회양서소학교(회양소학교)

▲동동소학교(회양공보)

▲내금강소학교(장양공보)

▲사동, 난곡, 안례, 상북, 하북, 신안은
동소학교로

◇통천군

▲통천동소학교(통천소학교)

▲통천남소학교(통천공보)

▲고저소학교(종전)

▲충석소학교(고저공보)

▲포천소학교(학도공보)

▲음곡, 송전, 임남, 자산, 벽양은 동소학
교로

◇고성군

▲고성동소학교(고성소학교)

▲고성남소학교(고성공보)

▲장전동소학교(장전소학교)

▲금강소학교(종전)

▲간성, 대진, 영동, 오대, 송탄, 외금강
각공보는 동 소학교로

◇양양군

▲양양서소학교(양양소학교)

▲양양동소학교(양양공보)

▲설악소학교(대포소학교)

▲대포, 강구, 오호, 천진, 현북, 강현, 선
양, 상평 각공보는 동소학교로

◇강릉군

▲강릉소학교(종전)

▲강릉중앙소학교(강릉공보)

▲주문진소학교(추후결정)

▲주문진소학교(신리공보)

▲경포소학교(정동공보)

▲옥계, 성산, 사정, 강동, 연곡, 망상, 성
덕, 구천, 왕산 각공보는 동소학교로

◇삼척군

▲삼척남소학교(삼척소학교)

▲도계소학교(신달소학교)

▲상장소학교(종전)

▲삼척동소학교(삼척공보)

▲북평소학교(송정공보)

▲호산소학교(덕흥공보)

▲황지소학교(상장공보)

▲근덕, 소달, 호곡, 임원, 미로, 하장 각
공보는 소학교로

◇울진군

▲울진소학교(추후결정)

- ▲울진동소학교(울진공보)
- ▲후포소학교(종전)
- ▲평해, 매화, 기성, 온정, 부구, 삼척, 노음, 죽변등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정선군
 - 정선, 임원, 화동, 여량, 예미, 남선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평창군
 - ▲평창루소학교(평창소학교)
 - ▲평창일신소학교(평창공보)
 - ▲기풍소학교(봉평공보)
 - ▲대화, 진부, 도암, 미탄, 계촌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영월군
 - ▲영월옥소학교(영월소학교)
 - ▲영월금소학교(영월공보)
 - ▲강림소학교(영주공보)
 - ▲주천, 옥동, 문곡, 소당, 신천, 문학 각 공보는 소학교로
- ◇원주군
 - ▲원주남산소학교(원주소학교)
 - ▲원주봉산소학교(원주공보)
 - ▲부론소학교(홍호공보)
 - ▲문막, 신림, 귀래, 신초, 지정, 호저, 흥업, 판부 각공보는 동소학교로
- ◇횡성군
 - ▲횡성북소학교(횡성소학교)
 - ▲횡성남소학교(횡성공보)
 - ▲안흥, 갑천, 공근, 둔내, 우천, 청일, 서원, 정금 각공보는 동소학교로
- ◇홍천군
 - ▲홍천일출소학교(홍천소학교)
- ▲홍천화산소학교(홍천공보)
- ▲명덕, 두촌, 서석, 화천, 내촌, 속초, 년곡, 북방, 경전 각공보는 동소학교로
- ◇화천군
 - 화천, 화남, 화서, 간동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김화군
 - ▲김화소학교(추후결정)
 - ▲김화남소학교(김화공보)
 - ▲창도소학교(종전)
 - ▲본창도소학교(창도공보)
 - ▲통구소학교(현리공보)
 - ▲금성, 근북, 원남, 근동, 임남, 청양, 원동, 원북, 원남, 사곡,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철원군
 - ▲철원남소학교(철원공보)
 - ▲철원소학교(추후결정)
 - ▲월정리소학교(종전)
 - ▲문혜, 석교, 회산, 묘장, 동송, 어운, 인목, 대공, 인문 각 공보는 동 소학교로
- ◇평강군
 - ▲평강소학교(추후결정)
 - ▲평강동소학교(평강공보)
 - ▲기산, 옥봉, 선포, 지암, 백룡, 유진, 복계,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 ◇이천군
 - ▲이천동소학교(이천소학교)
 - ▲이천서소학교(이천공보)
 - ▲안협, 계려주, 지석, 구룡, 판교, 산내, 월남, 용포, 학봉, 웅탄 각 공보는 동소학교로

강원도지방이원 양성소 입소식
(매일신보 1938-04-07 / 3면)

병석(김화) 한상학(원주) 신재경(김화)
이규책(회양) 이상 41명



**저수지를 이용하여 담수어 양식 계획
생어의 지원 자금과 작어오락 등
강원도 1석2조 안**
(매일신보 1938-04-11 / 4면)

【춘천】 강원도 지방 이원 양성소에서는 제2회 강습생 지원자 61명 중에서 엄선한 결과 41명을 입학시키기로 결정, 지난 1일 오전10시부터 동소에서 입소식을 거행하였는 바 당일 김지사의 참석이 있었으며 소장(내감 내무부장) 대리로 미기지방과장이 출석하였다. 입학생의 씨명과 출신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소생 씨명

이진숙(홍천) 허남순(홍천) 박창래(형성) 이의석(평강) 주재홍(인제) 삼산의척(양양) 김준길(평강) 박순천(춘천) 이기주(삼척) 이수근(양양) 정의복(고성) 이문중(평창) 정명연(김화) 고병원(영월) 김종희(고성) 유종식(원주) 권영대(평강) 이한유(이천) 황홍규(고성) 장국균(울진) 김규갑(영월) 김재권(고성) 김윤택(이천) 함수찬(고성) 송돈식(철원) 최재정(고성) 김종용(삼척) 서성범(원주) 당인상(김화) 강운정(영월) 홍종익(화천) 정호택(원주) 이동진(평창) 김일찬(평창) 임규재(평강) 이창진(평창) 당



【춘천】 강원도에서는 담수어종의 종양을 장려할 계획으로 연지, 소호, 천이나 인공 저수지에 고유 어족의 번식과 기후, 수질, 수량에 의하여 유명한 어족의 이양생식을 도하여 생어의 지원 자금책과 내수면 이용과 조어의 오락풍경 탐상등 관광객유인책으로 도내 중요지에 소재한 池소에 양어를 장려할 방침으로 그 체구안을 연구중이라 하는바 먼저 춘천부근에 실시할 계획으로 방금 본부와 타협 연구중이어서 불원 실시할 예정이라 하는바 적당한 장소에는 상부하게 보조도 하여 실시상 지도도 하게 되리라고 관측되는데 이것이

구체화 하여 실현될 시에는 가관할 승지와 오락장이 출현할 것으로 가히 일석이조의 계획이 될 것이다. 도내 각군에 개재한 池貯沼 수는 149개소로 좌와 같다 한다.

군명	인공	천연
춘천		
양구	동 7	동 -
인제	동 2	동 7
통천	동 -	동 6
고성	동 2	동 4
양양	동 -	동 11
강릉	동 -	동 9
울진	동 2	동 11
영월	동 4	동 2
원주	동 7	동 -
횡성	동 1	동 -
홍천	동 -	동 4
화천	동 3	동 -
김화	동 5	동 1
철원	동 35	동 -
평강	동 21	동 -
이천	동 -	동 3

강원도사령

(매일신보 1938-04-14 / 3면)



- 강원도사령(4월9일부)
(사회서기) 김동욱 임 군속(8급)
평강군 재근
조선총독부속 송본신부 임 군속(10급)
삼척군 재근
조선총독부속 유춘복재 임 군속(10급)
정선군 재근
조선총독부속 궁지중삼랑 임 군속(10급)
홍천군 재근
조선총독부속 정가 부사 임 군속(11급)
이천군 재근
(양양)군속 종후생 춘천군 재근
(삼척)군속 장영상 통천군 재근
(춘천)군속 김용길
(철원)군속 최병위 고성군 재근
(고성)군속 대진 수혜 양양군 재근
(인제)군속 길본 원량 원주군 재근
(원주)군속 이건중
(김화)군속 이중실 철원군 재근
(횡성)군속 박윤태
(강릉)군속 정중화 김화군 재근
소산도부 사회서기에 임함(11급)
지방과 근무

부인의 면작지도 장려
 공동경작포를 설치
 강원 각군에 1개소 3단보씩
 금년엔 175개소
 (매일신보 1938-04-15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국책의 면작증산과 부녀자의 옥외노동을 습득케하여 부녀자의 정신을 조장하고 농촌진흥운동에 조력자가 되게하는 일방 비상시국의 도민총동원으로 생업 활동의 관념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면작장려 지정 13군에 대하여 부인면작공동경작단을 설치하고 면작의 배관리를 습득케 하려는 계획으로 소화12년도에는 도농회로서 90개소 면적 27정보를 설치하여 경작을 장려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도비로 보조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175개소 면적 52

정보 5반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방금 각군에 설치 준비중인데 1개소의 경작 면적은 3반보식이다. 그리고 각군별 의 면작 개소 및 면적은 좌와 같다 한다.

춘천 15개소 4정5반
 (중략)
 횡성 15개소 4정5반
 (중략)

강원도의 자유이민 백호를 우복수송
 입식지는 간도성
 (매일신보 1938-04-28 / 3면)



【춘천】 강원도내로서 이주민에 〇작하마는 자유이민 열망을 드높이고 있다. 매일 도내 …… 이주자는 16호에 불과하던 것이 …… 227호로 …… 군별은 좌와 같다.

예정호수 입식호수
 (중략)
 횡성 3호 2호
 (중략)

**강원대사방공사 24만여원 공비로
각지 시공 삼척군내 만은 중지
(매일신보 1938-05-07 / 3면)**



【춘천】강원도의 금년 중 시행할 사방사업은 총8공비 246,240원으로 지원부담만이 40,670원인데 공사시행내용은 국비시공개소 27구역으로 실시 공면적은 7,000이요, 차공비 22,400원이며 일반 도비시행개소 7구역으로 면적 4,900이요 차공비 12,945원이며 동해선 보존사방사업비 시공개소 382구역으로 이공비 119,890원이요 재해임지복구 사방사업비 시공개소 19구역으로 면적 200,400 이요 이 공비 113,350원이며 민관 사방조성사업비로 시공개소 1구역에 면적 31,000으로 차공비 13,000원이라는바 각지 모두 시공하였다 하는데 금년은 각지의 공사가 다란관계상 용역인구의 부족을 가감하고 있는 중. 특

히 삼척군에서는 탄광을 위시하여 철도공사 기타 각종 회사의 기공관계로 가히 노동자 쟁탈전까지 있어 일일노임 1원20전 평균이라는 고임으로 결국 시행불능에 함하여 본년도에 시공할 면적 70여 정보 공비 2만원의 삼척군내 사방공사는 부득이 중지하고 이의 공비를 철원, 김화군에서 시공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이르렀다 하는바 각군별의 공비 내역은 좌와 같다한다.

군별	시행구역	면적	공비예정액
울진	52개소	25,200	132,490원
(중략)			
황성	4	7,000	17,000원
(중략)			

**4천5백여부락에 탁아소개설계획
강원도서 농번기에
(매일신보 1938-05-13 / 3면)**



【춘천】강원도에서는 농촌진흥운동에 일역자가 되도록 부녀자의 옥의노동을 장려

함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부녀자의 노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지도부락 등에 대하여는 농번기 탁아소를 개설하도록 장려 하여온 바 1937년 중 농번기의 탁아소의 개설 개소수는 184개소 개소일수 7,195일 간으로 수용연인원이 119,365인이라 하는바 1938년 중에는 전도 4,500여 부락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설하도록 적극 장려하며 실시하도록 도사회화에서는 입안 토론중이라 한다. 그리고 1937년 중 개설 탁아소 중에 성적 최 양호한 원주군 신초면 기암동과 이천군 학봉면 성호리 양탁아소에 대하여는 최근 대관조일신문사로 자애기와 금일봉과 표창장의 기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각군별의 탁아소 개설 현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명	개설수	수용탁인수
춘천	2	2,209
인제	10	6,021
양구	8	445
회양	14	8,937
통천	20	8,869
고성	12	12,943
양양	3	336
강릉	1	150
삼척	10	5,384
울진	15	5,779
정선	10	8,162
평창	1	540
영월	21	14,442
원주	8	7,683
횡성	7	10,161

화천	20	7,505
김화	1	1,586
철원	7	2,133
평강	4	1,272
이천	10	5,259

4천여 부락에 실시한 비황저곡 3만여석 강원도의 전농가 8할이 실행
(매일신보 1938-05-14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타에 솔선하여 실시하여 온 비황저곡의 계획에는 세농의 춘추단경궁기(춘궁, 칠궁)에 구조와 농촌 경제 정생책의 역할과 불의재난에 의한

이재민의 구제등 인보상조의 미덕양풍을 배양하고 이를 실제화 하기 위하여 1930년부터 도내 전면적으로 각 부락에 비행저곡을 실시 장려하여온바 이에 대한 실제적 효과는 막대한바 유한데 1937년도까지의 실시한 부락수는 4,186개소로 실행호수 179,936호에서 저곡량은 벼 12,809석, 34두 3승과 잡곡 18,996석 6두5승으로 합계 31,806석에 달하여 매호당 1두7승의 저곡이 되고 있다. 이의 계획은 농가호수 8할을 정하고 있는 본도로서 농촌진흥정책상으로 보아 많은 조역이 됨은 물론이요 현하 비상시국민인식케하여 더욱 절약의 관념을 강화하라는 방침으로 1938년도부터는 국민저축운동과 상반하여 적극적 저축장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하는데 1937년도 말의 각군 비행저곡 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별	실시군	실시호수	저곡수량
(중략)			
황성	185개	10,759호	1,513,45석
(중략)			

강원도 춘잠소립 비전연 2천여매증 잠종의 배급을 완료

(매일신보 1938-05-19 / 3면)



【춘천】 강원도는 기후풍토가 양잠적지로서 겸하여 산국민만치 식상에 이용할 공지가 허다하여 도에서 수행중인 산에는 화전식 또는 사방식의 식상과 전지의 간식 휴반공지의 식상등 계획은 그 성적이 차차 거양됨을 따라 장묘 증산계획도 같이 하고 있어서 불원장래에는 양잠왕국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많이 기대되고 있음은 물론 농산촌의 경제 갱생계획에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 만치 당국의 지도 방침도 강조되고 있는터인데 금년 춘잠종 비급은 근근 완료된 바 실소립교수는 74,129매로 전년동기 71,698매에 비하여 2,431매의 증가인 호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뽕나무 발육상황을 화천이북의 북부지방에는 한고의 피해가 있다하고 해안방면에는 산화관계로 다소 적상량이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되나 큰 영향을 없으리라 하는데 각군의 금년도 춘천 소립상황은 좌와 같다 한다.

군명 금년 춘잠종매수 전년도 춘잠종매수
(중략)
횡성 4,923매 4,580매
(중략)

**강원도 인구증가율 매년1만2천
총인구는 152만9천7백여인
정선, 영월만은 감소
(매일신보 1938-06-07 / 3면)**



【춘천】 강원도의 기존 10개년간 호수 및 인구의 1개년 평균 증감을 조사하여 보면 호수에 있어 매년4,272호의 증가이고 인구는 매년 12,247인의 증기를 시현하고 있는데 현재의 총인구는 1,512,971인으로서 이상의 증가율로 향후 30개년의 증가 인구를 전망해본 다면 실로 367,410인이 증가될 것으로 강원도 인구의 팽창을 여실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선은 매년

420인 영월은 598인 평균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바 각군별 1개년 평균 증감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는 감)

군명	호수증감	인구증감
춘천	218	1,020
인제	164	783
양구	△76	360
회양	168	709
통천	164	638
고성	484	1,420
양양	276	1,104
강릉	482	2,521
삼척	375	1,129
울진	160	659
정선	87	△420
평창	186	1,038
영월	73	△598
원주	68	687
횡성	327	1,818
홍천	267	1,254
화천	108	494
김화	256	1,118
철원	382	1,812
평강	376	2,647
이천	207	1,095
계	4,272	12,247

강원이발사시험 합격자
(매일신보 1938-06-10 / 3면)

강원도에서는 지난 4월, 5월에 도청에서 이발시험병동학실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8일 아래와 같이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발시험 합격자
(중략) 宋麟會(횡성) (중략)

강원춘견공판출회고 34만관 예상
4등견 이상만도 29만8천석
(매일신보 1938-06-12 / 3면)

【춘천】 강원도의 금년 춘잠면 동판매 출회 예상고를 도농무과의 조사에 의하여 보면 4등견 이상이 298,100관 등외견 이하 43,000관 합341,100관이라는데 각군별로 출회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춘잠견공동출회예상
군별 4등견이상 등외견이하 합
(중략)
횡성 21,500 5,600 27,000
(중략)

**2천100여대에 대원 11만7천
각군 모두 계속 결성 중
(매일신보 1938-07-24 / 3면)**



【춘천】 별항보도=강원서는 지나사변 일 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여 국가 관념이 함양과 내선일치의 심화를 도케함은 물론 근로 애호, 인고단련, 희생봉의 정신을 함양케 하여써 공동일치적 행동의 훈련을 가하여 체력의 증진과 지방개발에 투자케 하고자 만12세로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를 참가케 할것을 본지로 하여 부락에 있는 청년단, 갱생공여부락, 갱생지도부락, 기타 각 관공서, 학교, 단체등에 대하여 근로보국대를 결성케하여 원칙적으로 황폐지 개간, 식림식수, 도로, 하천 등의 개수, 지소 또는 용배수로의 청소, 시원의 청소등 봉사작업을 총후생업보국의 정신을 실행케하여 총후생업보국의 정

신을 부식시키리라 함은 기보한 바이거나와 지방민의 시국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만치 각지 모두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어 지난 10일 현재로 결성된 보국대만도 2,137대에 대원수가 117,690명에 달하였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에도 결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군별	대수	대원수
(중략)		
횡성	116대	5,818명
(중략)		

**강원도 4개군에 감저재배조합
설치코 적극 장려
(매일신보 1938-08-02 / 3면)**



【춘천】 강원도는 토질과 기후가 감저재배에 호적한 곳으로되 재배는 아직 보급

이 되지 아니하여 매년 타 도로부터 약 4만관의 감자를 구입하고 있는 현상이므로 금년도부터 도 당국에서는 춘천, 횡성, 원주, 홍천 등 4개군에 감자재배 조직을 결성케 하여 철저히 보급 장려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작년도 중 도내의 재배면적은 296정2반이었고 그 생산고는 128,516관에 달하고 있다.

주재소 중심 좌담회에 출석자 13만명
 개최 회수 실로 3천370회
 강원도의 시국인식 보급
 (매일신보 1938-08-02 / 3면)

저를 기해왔는데 특히 경찰관 주재소를 중심으로 시국좌담회는 그 효과가 현저하여 최대한 실적을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29일현재 개최 현황을 보면 3,370회에 참석인원이 135,101명에 달하였다는 바 각군별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개최회수	참석인원
춘천	182회	6,900명
인제	169	4,834
양구	152	5,300
.....		
원주	174	5,432
횡성	82	2,916
.....		
계	3,370	135,101



횡성근로보국대 애국일에 작업
 (매일신보 1938-08-02 / 3면)



【춘천】 사변 이래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대하여 적합한 시국인식을 가지게 하여 장기항전에 대한 각오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충후보국운동에 만유혹없기 통지를 기하고자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의 철

횡성군에서는 지난 7월 7일 지나사변 기념일을 기하여 각개 각처에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고 시국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바
 횡성면에서는 8월 1일(애국일)을 기하여
 신사공원 등 제조소제를 하고 유실된 도
 로를 개수하였다.

횡성군 춘당리에 간이학교 신설
 (매일신보 1938-08-05 / 3면)



횡성단발열
 (매일신보 1938-08-02 / 4면)



【횡성】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가지농촌
 에서는 불우한 아동도 취학난으로 춘당간
 이학교 설립을 실험중이던 바 지난 6월
 21일자로 설립 지령이 내려와 학교 신설
 에 불망중이다.

횡성군에서는 장기전에 대응하여 총후국
 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각관공서가 솔선하
 여 ‘하이카라’머리를 선명히 박박 깎고 게
 다를 끌며 출근중이다.

횡성과 이천에도 한발 농작물 고사상태
금년은 흉작을 난면
(매일신보 1938-08-09 / 4면)

강원 소농의 갱생
대부된 생업자금 46만5천여원
공동저금만 6만여원
(매일신보 1938-08-18 / 3면)

【本報訊】 農作物枯死狀態 今年은凶作을難免

【本報訊】 農作物枯死狀態 今年은凶作을難免

江原小農의更生 貸付된生業資金 四十六萬五千餘圓 共同貯金만六萬餘圓

古蹟愛護 內鮮

金	1,000.00	銀	1,000.00	銅	1,000.00
鐵	1,000.00	錫	1,000.00	鉛	1,000.00
鋅	1,000.00	鎳	1,000.00	鉻	1,000.00
錳	1,000.00	鈾	1,000.00	釷	1,000.00

횡성지방은 춘절에 기후순조로 때맞춰
파종하며 이양하여 풍년을 예상하고 오던
바 계속되는 장기 가뭄으로 도열병이 만
연하여 전작은 총해가 심하여 고사 상태
에 있으며 특히 야채류는 파종도 못하고
크게 우려중에 있는데 군당국은 고식적이
라는 바 수전에도 (호미웃지)를 실시중이
라 한다. 만일 이 현상으로 당분간 계속
한다면 금년 농사는 피해가 심대할 형편
에 있어 일반농가는 수운에 싸여 감우가
내리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춘천】 건전한 농촌의 건설은 소작농의
경제적 갱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전량적으로 빈곤한 농촌
에서는 소농생업 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
데 이에 강원도에서는 1928년부터 각군에
근로공제조합을 설치케한 후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피폐해가는 소농들로 하여금,
갱생의 길을 찾게 하는 등 현저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한다. 1937년도말 현재 조

합수는 722개소로 조합원이 22,16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소농을 대상으로 대부한 총액이 실로 466,447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금은 주로 구우자금에서 융통해 주고 있어서 총대부액의 9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바 잔여는 제직, 제입기의 구입 또는 양돈구입 등 농가부업으로서 현금 수입의 확실성이 있는 생활자금에 사용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회원들이 생업 수입에서 공동저금한 것이 61,000원에 달하고 있어서 1인당 평균 3원62전에 해당하고 있는 바 최고 150원의 저금을 가진 조합원도 있다 한다. 이같은 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조합수	조합원수	대부액
춘천 (중략)	441	1,641	63,415.96
횡성 (중략)	005	1,018	22,467.00

경제 강조 주간 횡성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8-08-19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16일 오후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관하 각관공서 기타 단체의 장을 초모하여 횡성군 총후보원회를 열고 각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현하 경제전의 실정과 금후 오는 경제적 제문제의 선처방침을 협조했는데 내 22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전강조간에 실시요항을 좌기 일해에 분하여 실천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8월22일 소비절약일 23일 物의 애용일 24일 폐품 회수일 25일 저축실행일 26일 생활채신일 27일 물가○건 억제일 28일 생산증진일

횡성 추잠적 배포
(매일신보 1938-08-19 / 3면)



횡성군 상잠(桑蠶)계에서는 관하 각면에 추잠적 4,000매를 배포 중인데 신청이 적으므로 계원이 출장하여 극력 권고하라 하며 작년도에는 4,110매를 배포하였다 한다.

**횡성과 개풍지방에 대망의 감우포연
고사한 농작물 급구**
(매일신보 1938-08-20 / 4면)



【횡성】 횡성지방은 장기 한발이 계속되어 일반 농작물에 피해가 심대하여 야채류는 전업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16일 오후 4시경부터 소낙비를 비롯하여 밤에도 비가 많이 내리었는데 일반 농작물은 겨우 한해를 벗고 해갈을 면하였으므로 일반농가는 수미를 펴고 환희 중에 좀더 계속하여 비 내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횡성군근로대 도로개수작업
(매일신보 1938-08-20 / 4면)



강원도 횡성군청 근로보국대에서는 지난 16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黃군수 이하 청원 50여명이 마산리 면 표준도로에 출동하여 때마침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유실된 도로를 개수하며 약심리골에 사리를 패었는데 이후도 매월 1일, 15일 애국일을 이용하여 표준도로 전창에 계속 사리를 퍼리라고 한다.

서당 강사 강습 횡성군서 개최
(매일신보 1938-08-23 / 3면)



횡성군 학무계에서는 금반 하기휴가를 이용하여 피지농촌 서당강사에게 교육혁신의 취지를 철저히 보급하여 유위건실한 자녀 양성에 기여코저 각 면서당 강사 20인 중 중국어를 해하는 15인을 초모하여 금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강습회를 개최중이다.

횡성 부인 강화회
(매일신보 1938-08-23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19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공회당에서 황군수 사회 하에 시국에 대한 부인강화회가 있었는데 참석인원은 각면에서 차출된 부인이 132명이며 강사는 도축탁 金永進씨였다.

사기복술사 횡성서 피해 不少
(매일신보 1938-08-25 / 4면)



【횡성】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내리에서는 동리 시는 奇億壽 자칭 奇龍神에게 점을 친다 상을 본다 하여 일반 여자는 물론 상당한 계층에 있는 남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데 그 중 젊은 부인에게 신의 행동이라 하고 불의의 행동까지 하여 그 리면에서 우는 여자도 많이 있다 한다.

어 불일 송금하리라는데 조성금을 교부하게 된 단원은 다음과 같다.

◇가축금 구입자금 조성자

(중략)

횡성군 청일면 李完燮 30원

(중략)

횡성군 중견 강습

(매일신보 1938-08-28 / 3면)



【횡성】 횡성군 농촌진흥회에서는 지난달 상순에 2일간을 이용하여 중견강습회를 개최키로 결정되었는데 목하 각리 농촌모범부락에서는 강습에 출석 중견청년을 교육중이다.

가축금 구입자금 청년단원에 교부 강원도서 1군 1명씩 (매일신보 1938-08-27 / 3면)

家畜禽購入資金
青年團員에 交付
江原道서 一郡一各式

정선군	정선군 청년단원	30원씩
영월군	영월군 청년단원	30원씩
속초군	속초군 청년단원	30원씩
원주시	원주시 청년단원	30원씩
강릉군	강릉군 청년단원	30원씩
동해군	동해군 청년단원	30원씩
태백군	태백군 청년단원	30원씩
철원군	철원군 청년단원	30원씩
평창군	평창군 청년단원	30원씩
강령군	강령군 청년단원	30원씩
고성군	고성군 청년단원	30원씩
인제군	인제군 청년단원	30원씩
홍천군	홍천군 청년단원	30원씩
횡성군	횡성군 청년단원	30원씩
영월군	영월군 청년단원	30원씩
속초군	속초군 청년단원	30원씩
원주시	원주시 청년단원	30원씩
강릉군	강릉군 청년단원	30원씩
동해군	동해군 청년단원	30원씩
태백군	태백군 청년단원	30원씩
철원군	철원군 청년단원	30원씩
평창군	평창군 청년단원	30원씩
강령군	강령군 청년단원	30원씩
고성군	고성군 청년단원	30원씩
인제군	인제군 청년단원	30원씩
홍천군	홍천군 청년단원	30원씩
횡성군	횡성군 청년단원	30원씩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청년단원으로 하여 곡, 과수, 원예, 맥작, 재해복구, 황무지개간, 조립, 퇴비 등 농사전반에 대한 개선조장을 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교부키로 되었었는데 이번 금지사 방침에 대하여 기정 계획을 변경한 후 축산증식을 적극 장려하고자 일제히 1군1명씩 선정하여 가축금 구입자금으로 30원씩 조성키로 되

횡성군 무도납회
(매일신보 1938-08-30 / 3면)



【횡성】 횡성군 演武場에서는 지난 24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관하 각 주재소 직원을 초청하여 고정식 합 무도납회가 있었는데 인근 군 흥천 中野서장 이하 6명이 납회에 출석하였는데 검도 1등에 급천 청희씨, 유도 1등에 노봉달씨라 한다.

횡성남소학교 초예주간 실시
(매일신보 1938-08-30 / 3면)



【횡성】 횡성 남소학교에서는 개학일인 지난22일부터 28일까지를 초예주간으로 정하고 4학년 이상 140명을 동원하여 수업후 2시간씩 1인 25관을 목표로 퇴비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요일을 이용하여 마량초 400관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계획 중이라 한다.

강원도의 수도 작황은 평년작만은 확실
도농무과 조사 발표
(매일신보 1938-08-31 / 4면)



【춘천】 강원도의 금년 수도작은 계속적 한발로 일시 흉작을 우려하게 되어 농가의 우환은 자못 심각한바였었는데 금월 하순경의 적당한 강우로 인하여 대체로 소생하게 되어 평년작은 틀림없으리라고 예상된다 한다. 즉 8월15일 현재로 집계한 수도작 상황을 도농무과로부터 발표한

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중략) ▲횡성 보통 (중략)

횡성경찰서원 근로보국 작업
(매일신보 1938-08-31 / 3면)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총후보국에 분 발기코저 지난21일에 근로보국대를 조직 하고 봉사작업을 실시중인데 경제전 주간 인 28일 오전6시부터 2시간 德久서장 이 하 총동원으로 관내 청소와 도로개수 사 업을 하여 일반에게 모범을 보였다.

횡성군학교 증축 기채인가 고대
(매일신보 1938-08-31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금년도 각 학교 증 축 소요총경비 3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근면 소학교 증축비 중 3,000원은 지방 유지 기부금으로 지급하며 둔내 갑천소학 교 증축비 중 3,000원은 지방 초지기부금 으로 지변하며, 둔내, 갑천소학교 증축비 중 5,000원은 해면특별구자정수금으로 충 당하고 잔금 31,000원을 기채코저 금번 3 월28일 부로 도에 인가신청을 제출하고 인가만 고대중이라 한다.

5개년 계획 세우고 횡성군 식상장려 전농가 9할5분 목표
(매일신보 1938-09-02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도 산업 개발 계획 에 의거 금년부터 1942년까지 5개년간에 식상전 749정보와 신설 200정보를 합하여 949정보에는 72만본을 목표로 농촌갱생부

락을 중심으로 총농가의 9할5분까지 식상을 장려하여 소화 22년 후에는 잠종 15,841매를 진군에 배포하고 32,690원은 산견령을 내리라는데 금년도에는 지세품 토양잡 성배를 고려하여 1호당 156본, 〇〇31본을 식상케 하리라 한다.

횡성군직원 총동 퇴비 면작 등 독려
(매일신보 1938-09-02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금비 사용을 방지코자 퇴비증산을 적극 장려중인데 명년도에 비하여 성적이 양호하므로 9월1일부터 10월까지 금년도 제4회 최후지도에 박차를 가하고자 黃군수 이하 직원 총동원으로 퇴비독려와 綿花摘心を 중심으로 면채취 획담심사도 하리라는데 심사원은 도 율리 기사라 한다.

위문대 1천개 횡성군서 수집
(매일신보 1938-09-03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도군사연맹통청에 의하여 제일선 장사면 상병병사를 위문코자 지난21일 오전 9시부터 영시반까지 군의회실에서 관계역원을 초대하고 위문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1원50전 정도로 위문대 1,000개 이상을 9월 10일까지 군에서 수집하여 제19부대에 헌납키로 결실되었다.

횡성군 각 면에 사무주임 배치
(매일신보 1938-09-04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군 행정 체제의 대 개혁에 따라 먼 행정기구도 일체 개혁하고 면리원 자질 향상과 제반 사무의 능력을 발휘코저 9월1일부터 관하 8면에 서무주임을 배치하고 외적으로 면장을 대리케 되었는데 배치인원은 좌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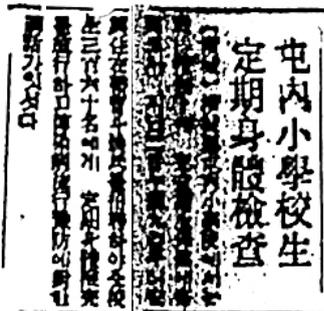
횡성 尹泰元, 우천 洪鎭洛, 안흥 安圭喆, 둔내 鄭龍徹, 청일 曹圭星, 갑천 南英祐, 공근 李勇夏, 서원 李起炯

강원도의 근로보국대 무려 2천600여 대원 실수로 40만명

(매일신보 1938-09-09 / 3면)



둔내소학교생 정기신체검사
(매일신보 1938-09-07 / 3면)



【횡성】 횡성군 둔내소학교에서는 전시체제하에 아동위생보전에 기여코자 지난2일 오전9시부터 안흥 주재서 曹斗煥씨를 초빙하여 전교생 160명에게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강화가 있었다.

【춘천】 강원도에서는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국가관념의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케함은 물론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을 자각케하고자 지난7월7일 지나사면 기념일을 계기로 전 도내 각부락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기로 되었었는데 그후 조직이 활발해져서 지난 8월 말일 현재 2,693대가 조직되었다는데 이의 대원수가 실로 142,890여명에 달하여 철도공사, 탄갱 도로수리 등에 진군하게 되어 청 호수호를 공고히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각군별 대수 및 대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보국대 결성현황 (8월말일 현재)

군명	결성	대원수
(중략)		
영월	128	10,287
원주	224	6,612
횡성	116	5,818
홍천	135	6,273
화천	80	4,225

김화 164 6,134
(중략)

- ▲9월 21일 강릉 주문진
- ▲9월 22일 양양
- ▲9월 23일 양양 발 원산에

강원시국 강연
(매일신보 1938-09-09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시국 인식을 철저케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좌기일정에 의하여 시국 강화회를 하리라는데 동시에 시국에 관한 영화회도 개최하리라 한다.

◇순회일정 및 강연지

- ▲9월 10일 춘천
- ▲9월 11일 인제
- ▲9월 12일 홍천
- ▲9월 13일 횡성
- ▲9월 14일 원주
- ▲9월 15일 영월
- ▲9월 16일 평창
- ▲9월 17일 정선
- ▲9월 18일 강릉
- ▲9월 19일 삼척
- ▲9월 20일 삼척군 정라

강원의 추건공판고 16만관을 예상
4등건 이상만도 13만여관
(매일신보 1938-09-09 / 3면)

군구	4등품이상	등외품이하	합계
강릉	12,000	1,800	13,800
양양			
원주			
인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합계	138,062	21,008	159,070

【춘천】 강원도의 금년 추잠건공등 판매 출회 예상고를 도농무과로부터 조사해보면 4등건 이상이 138,062관 등외건 이하가 21,008관으로 계 159,070관이라. 각군별 추건공판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추잠건 공판 출회 예상

군별	4등품이상	등외품이하	합계
강릉	12,000관	1,800관	13,800관
양양			
원주			
인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합계	138,062	21,008	159,070

횡성읍 정신연맹 지난5일 결성식
(매일신보 1938-09-09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5일 오후3시부터 공회당에서 42단체가 회합하여 횡성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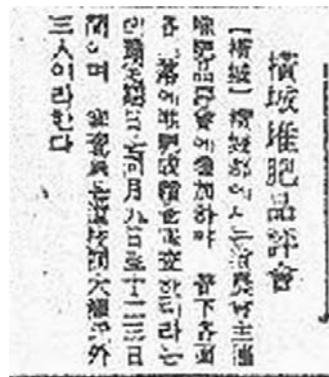
횡성추잠공판 14일부터 개시
(매일신보 1938-09-09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관하에 추잠 4,000매를 소립하였는데 전담 1만3,100매를 예

상으로 각면은 오는 14일부터, 읍내는 15일부터 공동 판매를 실천하리라 한다.

횡성퇴비 품평회
(매일신보 1938-09-09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도농회 주최 퇴비 품평회에 참가하여 관하 각면 부락에 퇴비 성적을 조사하리라는데 예정 기일은 9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며 심사원은 도기사 大澈씨의 3인이라 한다.

강원도지원병 후기생 32명 대기중
 목하 각서서 예비 훈련
 (매일신보 1938-09-10 / 4면)



의 훈련을 가하고자 금월 초순부터 그후의 건강 상태의 재조사와 규율, 예식, 학과 등에 대하여 맹렬한 훈련을 가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대기 중의 입소 예정자의 씨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엄○환(춘천) ▲박동순(춘천) ▲김용식(인제) ▲윤기락(양구) ▲송의순(회양) ▲송인복(회양) ▲한원갑(동천) ▲이명순(통천) ▲이영희(통천) ▲박장수(고성) ▲이상봉(양양) ▲최돈겸(강릉) ▲강세병(강릉) ▲김수정(삼척) ▲이택우(울진) ▲권백룡(울진) ▲유광돈(정선) ▲이종태(영월) ▲임무열(영월) ▲홍돈현(원주) ▲박원복(원주) ▲김철용(원주) ▲한명우(원주) ▲오하운(횡성) ▲이승우(홍천) ▲홍종현(화천) ▲최종규(화천) ▲박봉석(화천) ▲이종술(이천) ▲김화옥(화천) ▲이종욱(화천)

【춘천】 2,300만 도민 중의 다같이 열망하여오던 지원병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 한번 발표되자 때는 왔다는 듯이 밀려드는 지망자는 3천리 방방곡곡에 끊일 줄 모르고 계속하여 조선청년의 불타는 애국심을 여실히 표현한 바 있었는바 당시 강원도에서도 300여명의 지망자가 있었으나 정원 관계로 추리고 추리어 전기생으로 28명이 입소되어 방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며 후기 입소예정자 32명도 오는 12월 1일에 입소를 앞두고 모두 견재하여 대기중에 있다는데 이에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훈련소 생도 채용 예정자의 평소

횡성군내 8개면의 화전민 정리계획
전업, 이주 등을 알선
(매일신보 1938-09-12 /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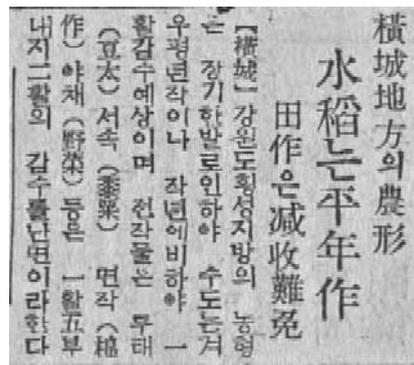
【횡성】 횡성군에서는 교통자원 개발에 따라 임정도 실로 획기적 진전을 보았으므로 임야 계획에 따라 불소한 화전민을 정리코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화전민의 정성이 박약함에 기하여 불안과 공포심이 없도록 상호 이해 하에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리라는데 관내 1,516정보에 달하는 화전으로 생계를 하는 1,618호에 대하여 보급지와 체지를 주며 갑을 양종으로 분하여 을종은 폐경 후 조립할 방침이며 경사 30도 이내로 된 현전으로 된 갑종에게는 이후 신간과 재간을 극력 제한하여 화전민의 자각과 희망에 따라 전업이주 이민을 알선하리라는데 금년도 실시 구역은 공근, 안흥, 우천 3면이라 한다.

국민정신동원 횡성군연맹 결성
(매일신보 1938-09-13 / 3면)



【횡성】 횡성군은 금월 10일 오전9시부터 횡성신사에서 黃군수 통제하에 횡성읍 각연맹 8면 연맹이 회합하여 국민정신총동원 횡성군연맹 결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횡성지방의 농형
수도는 평년작
전작은 감수 난면
(매일신보 1938-9-13 / 4면)



【횡성】 강원도 횡성지방의 농형은 장기 한발로 인하여 수도는 겨우 평년작이나 작년에 비하여 1할 감수 예상이며 전작물은 두태, 서숙, 면작, 야채 등은 1할5부 내지 2할의 감수를 면하기 어렵다하더라.

연산10만俵 목표 횡성목탄조 창립
(매일신보 1938-09-13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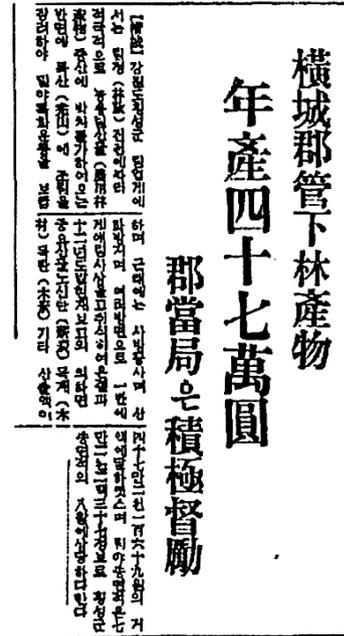


【횡성】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횡성군에 서는 금월 10일 오전10시부터 공회당에서 목탄개량조합을 창립하고 종래 연산 1만 표에 대하여 10만표 증산을 목표로 좌기 사항을 토의 하였다.

1. 제품 개량 규격 통일
1. 제품 조사
1. 공동판매 공동저장
1. 강습강화품평회개최 등

횡성군 관하 임산물 연산 47만원
군당국은 적극 독려

(매일신보 1938-09-15 / 4면)



【횡성】 강원도 횡성군 임업계에서는 임 정 진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농용 임산물 증산에 박차를 가하여 오는 반면에 독산 에 조림을 장려하여 임야 녹화 운동을 보 급하며 근래에는 사방공사며 산화방지며 여러 방면으로 일반에게 애립사상을 고취 시켜온 결과 1937년도 말 현재 보고에 의 하면 중요산물로 신탄, 목재, 목탄 기타 산출액이 47만2,169원의 거액에 달하였으 며 임야 총면적은 7만2,237정보로 횡성군 총면적의 8할에 상당하다 한다.

**강원도청년단 대회 21일부터 개최
각군대표 340명**

(매일신보 1938-09-15 / 4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의 청년들로부터 하여금 비상시 전시체제 하에 있어서 시국을 재인식케 하는 동시에 애국청년으로서의 진로를 명시하여 충후보국의 만전을 기케 하고자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춘천에서 강원도연합청년단 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공전의 역사적 회합인 만치 도내 각군에서 다음과 같이 339명이 출석하리라 한다. 그리고 24일부터 본부 청년단 대회에도 255명을 출석케 하리라는데 이들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바 기일까지에는 다소 이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괄호 내는 전선대회 출석자 수)

- ▲춘천 49명(42명) ▲인제 7(1) ▲양구 9(3) ▲회양 6(5) ▲통천 7(7) ▲고성9(6) ▲양양 29(17) ▲강릉 10(9) ▲삼척

- 10(10) ▲울진 3(5) ▲정선 7(8) ▲평창 1(1) ▲영월 6(2) ▲원주 12(24) ▲횡성 34(13) ▲홍천 18(12) ▲통천 23(13) ▲김화 36(18) ▲철원 23(22) ▲평강 29(29) ▲이천 11(8)
- 계 339(255)

**횡성축산품평 10월 상순에 개최
(매일신보 1938-09-17 / 3면)**



【횡성】 횡성군농회에서 현하 내외정세와 농촌 실정에 관하여 전군갱생지도 부락에 유축농업보급철저를 도하기 위하여 내 10월 하순에 제2회 축산품평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심사는 가축의 사육상황 우둔계사의개량건초채취저장 등이며 등급은 1등 1점 30원, 2등 2점 15원, 3등 4점 10원 의 우량면 상이 있다 한다.

횡성방공협회 내27일 결성식
(매일신보 1938-09-21 / 3면)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현하 시국에 감하여 방공정신을 확충하는 동시에 동양 영원 평화의 국가적 사명 실현에 매진코저 본부 통첩에 의하여 지난17일 오전9시부터 연무장에서 德久군수 이하 각관공단체를 20여명이 회합하여 협의처를 열고 내 27일에 조선방공협회 횡성지부 결성식을 거행키로 결정되었다.

순시중의 김지사 횡성서 석쇄작업
근로작업에 솔선수범
(매일신보 1938-09-22 / 3면)



【횡성】 金강원지사는 鈴木기수를 대동하고 지난19일 오후1시 원주를 출발, 횡성에 도착하여 중대한 훈화를 한 후 동 3시 일로 흥천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사진 ○표는 金지사의 작업광경)

횡성피발경진회

(매일신보 1938-09-23 / 3면)



【횡성】 횡성군농회에서서는 군외 수용품으로 0가가 높은 산미증수개량계획의 원만을 도모하여 일반농가의 피해가 불소한 피의 근절을 기코져 금월24일부터 28일까지 피발경진회를 개최하리라는데 각면담임서기를 소집하고 12반으로 분하여 군직원지도하에 각면은 순회 실시하리라하며 심사에 의하여 1등 20원, 2등 15원, 3등 10원의 상이 있으며 제1반은 우천, 공근, 서원 제2반은 안흥, 둔내, 청일, 갑천을 순회하리라는데 목하 각 학교에도 1교당금 4원씩을 배당하고 아동에게 피발을 장려중이라 한다.

횡성 시국 강연회

(매일신보 1938-09-23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19일 오후7시부터 공회당에서 관민생도 다수 집합리에 원산정묘사 주지중 山日 군승의 시국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강원전도를 3구로 금융조합 이사회의 원주, 강릉, 철원에서

(매일신보 1938-09-27 / 3면)



【춘천】 강원도에서 해마다 도내금융조합 이사회를 열어 금조 사무의 쇄신과 자금 융통의 원활등에 대한 구체방안을 협의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정상 도주회의 회의를 개최치않기로 되었으므로 조선금융조합강원지부 주관의 이사부분협의회의를 좌기에 의하여 개최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전도를 3구로 나누어 원주제2, 문막, 횡성, 원주, 춘천, 춘0, 화동, 인제, 주천, 영월, 평창, 대화, 진부, 정선, 둔내, 경전 등 17조합은 9월29일 원주에서, 강릉 명주 주문진 양양 대포 간성 옥계 삼척 원덕 울진 평해 죽변등 12개 조합은 10월13일 강릉에서, 철원 철원제2 동주 평강 이천 지석 안현 김화 금성 창도 통구 내금강 회양 화천 양구 흡곡 통천 고성 등 17조합은 10월 6일 철원에서 각기 개최하리라는데 이번 부분협의회의 자문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략)

**도로 개수에 출역하여
성심으로 봉사작업
횡성 관공서 직원들이
(매일신보 1938-09-27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23일 오후2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관하 각관공서단체 회합하여 회의가 있었는데 횡성면 개수 도로에 대한 근로작업을 실시하고 매일 제1횡성면과 제3토요일을 기하여 각관공서 직원들이 출역하게 되었다.

**횡성 곡검 협의
(매일신보 1938-09-27 / 3면)**



【횡성】 횡성군 곡물검사 출장소에서는 지난24일 오전9시부터 관내 곡물업자 다수를 회합하여 黃근수, 曹면장, 곡물검사소 西村기수 출석하에 곡물검사 개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횡성 추계청결

(매일신보 1938-09-27 / 3면)

**道路改修에 出役하야
誠心으로 奉仕作業**

橫城官公署職員들이

支那로 奉仕作業

江陵衛林團 勸勞隊組織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해상도 문제로 대부분 가독 불가능함. 위 제목과 구조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환절기를 당하여 예년과 같이 추계대청결을 시행하리라는 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1일 궁천리, 조군리, 송전리 ▲2일 벽옥리, 나지리, 북천리 ▲3일 옥동리, 영영포리 ▲4일 개관리, 마산리 ▲5일 입석리, 생담리, 갈풍리 ▲6일 목계리, 청룡리, 곡교리 ▲7일 모평리, 반곡리 ▲8일 읍상하리, 교항리

횡성 중견강습

(매일신보 1938-09-27 / 3면)

橫城中堅講習會

【본문 텍스트는 이미지 해상도 문제로 대부분 가독 불가능함. 위 제목과 구조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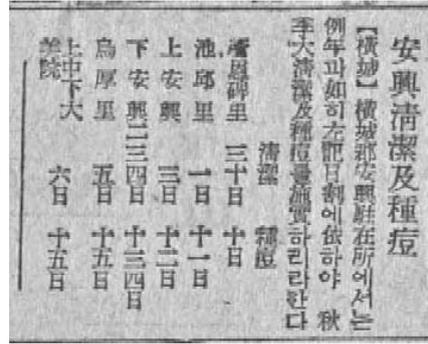
【횡성】 횡성농촌진흥회에서 금월 22, 23 양일간 공회당에서 제7차 갱생지도 부락 중심인물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 인원은 37명이고 강습과 시국인식, 생업보국, 생활개선 등이며 23일 밤에는 좌담회가 있었고 24일에는 오전8시에 矢野농질과장, 金起英, 鄭雲徹씨 인솔하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백운동 갱생부락을 시찰하였다.

사상보국의 철벽진 방공협회 지부 결성
각지서 성대히 거행
(매일신보 1938-10-01 / 3면)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이미 보도한 것과 같이 지난27일 오전9시부터 경찰서광장에서 德久서장 사회로 횡성군방공협회 결성식을 거행하고 각 임원에게 사령을 발한후 오전10시부터 신사대전에서 관민 다수 참례하에 조선방공협회 횡성지부 결성식 봉고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안흥청결 및 종두
(매일신보 1938-10-01 / 3면)



【횡성】 횡성군 안흥주재소에서는 예년과 같이 좌기 일정에 의하여 추계대청결 및 종두를 실시하였다.

	청 결	종 두
○은버리	30일	10일
지구리	1일	11일
상안흥	30일	12일
하안흥	2,3,4일	13, 14일
오후리	5일	15일
상중하대미원	6일	15일

횡성소조 역원회

(매일신보 1938-10-01 / 3면)



【횡성】 횡성군 소방조에서는 지난27일 오후1시부터 연무장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임원 보선이 있는 후 10월 10일 횡성 교에서 추계 연습을 거행하기로 협의하고 종래에 소방조에서 직접 취급하던 회계업무를 소방조 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횡성각교 증축 공사제부입찰

(매일신보 1938-10-04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금년도 각 학교 교사증축비를 계상하고 기채 인가를 고대중이던 바 지난23일부로 인가의 지령이 있어 갑천, 공근, 둔내에 각2교사씩 증축코자 청부 입찰공고를 발하고 9월30일 횡성군청에서 입찰을 실행하였는데 준공기는 10월 20일이라 한다.

횡성체육협회 결성

(매일신보 1938-10-04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국민체위향상과 보건위생건지에서 일반의 체육활동이 불충분함을 느끼어 오던바 추 내무과장 부임 이후로 노력하여오던 횡성체육협회를 지난30일 오후3시 반부터 군회의실에서 관내 관공서 각 단체장 30여명이 회집하여 발기회를 열고 좌기와 같이 임원을 선거

하였는데 1일 체육제를 기하여 황성신사 광장에서 오전10시부터 관민다수 참석하에 성대히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회장 黃軍수, 부회장 德久서장, 서무부장 李揆鳳, 경기부장 尹泰煥, 평의원 曹圭鳳

강원도내 부인단체 공동저축액만원 옥외노동의 결정으로

(매일신보 1938-10-04 / 4면)

江原道内婦人團體 共同貯蓄額萬圓 屋外勞働의 結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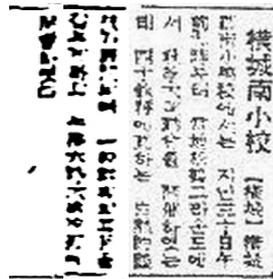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姓 名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李 德 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춘천】 강원도내 각 부인회에서는 사변 이래 시국을 철저히 인식한 나머지 총후 부인단체로서 국가행사에 참가 협력하는 등 눈물겨운 활동을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더욱 감탄할 것은 지금까지 문 밖에도 나와보지 못하던 가정부인들이 혹은 농장으로 혹은 공사장으로 혹은 도로 수선작업으로 각종 옥외노동을 실시하여 총후 생

업보국에 매진하고 있는 바 이같이 근로작업으로 얻은 수입금을 가지고는 국방헌금 회군위문 등 적성을 피력하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회의 기본금과 공동저금을 해 다고 한다. 이같이 하여 1,800여 단체의 44,700여 회원이 조성한 기본금이 29,266원38전에 달하였으며 공동저금액이 10,096원39전에 달하고 있다는데 국책에 의한 저축장려로 일흥 철저히 계속 실시중이라는 바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황성 조성금액 1,792.51원
 공동저축액 5,065.92원

각 학교 운동회 황성남소교 (매일신보 1938-10-04 / 3면)



【황성】 황성군 남소학교에서는 지난30일 오전 9시부터 상지 송학 그라운드에서 추계대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40여중에 달하는 백열적 경기가 전개되어 일반 관객의 이목을 기쁘게하고 오후6시 대성황리에 폐회하였다.

**강원미수확 1회 예상 8만5천여석
비 전년 5만여 석 감**

(매일신보 1938-10-06 / 3면)



【춘천】 금년 강원도의 도작은 용수가 윤택하여 파종, 이식공히 순조로 행하였으나 이양 후에 있어 천후불순한 까닭에 초기에 생육이 여의치 못하고 또한 병해충이 처처에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7월중순에 이르러 천후가 회복되어 일반적으로 고온다습의 천후의 혜택으로 개발실적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좌기와 같이 대감수의 수확예상을 보게 되었다. 즉 작부반별은 수도 85,153정2반보 육도 287정6반보 합계 85,440정9반보로의 전년에 비하여 수도 1,199정보와 육도 6정보 합계 1,193정보의 증가를 보였으며 예상 수확고는 수도 128만2,481석, 육도 3,247석 합계 128만5,728석으로 전년 실수확에 비하여 수도 49석 증으로 합계 58,148석

의 감수이다. 각군별 수확예상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미수확	예상고(수도)	1938년	전년실수고	비교증감
					예상고수확
(중략)					
횡성	71,789	82,247	▲10,458		
(중략)					

횡성군 면 사무 검열

(매일신보 1938-10-06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좌기 일정에 의하여 면사무소 검열을 시행하리라는데 검열관은 朴云燮, 군속의 4명이라 한다.

- ▲둔내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 ▲청일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 ▲감천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 ▲서원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횡성 각 근로대 적성

(매일신보 1938-10-16 / 4면)



【횡성】 횡성군 안흥면 각 근로보국대에 서는 총후강화주간인 지난9일에 신탄을 운반하여 소득한 임금 9원을 지난12일에 현금 수속을 하였다는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양지촌근로대 5원, 상○근로대 2원,
구초평근대 2원

**50여 방공단 결성 인원 2천명 돌파
철벽의 강원 방공진**

(매일신보 1938-11-05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현하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민중을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의 오진을 주지케 하여 이의 박멸 방위를 기함과 공히 바꾸어 나아가 일본정신의 양양을 도모하여서 사상국방의 완벽을 기하고자 과반 조선방공협회 강원도연합지부를 설치한 후 각군에는 군지부를 설치케 하는 것외에 세포단체인 방공단을 조직케 해왔었다. 그리하여 심정고등과장이 각군에 출장하여 결성을 독려지도하는 등 노력한 결과 각군의 지부와 방공단 결성의 완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군지부 22에 방공단이 50여단으로 대단원이 2천여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방공단의 구성은 대체로 각 군의 실정에 의하여 각 사회, 공장 등의 직공을 망라하여 그들 선량한 직공 노동자들로 하여금 제일선 방공단 조성하기로 치중하였다는 것으로 성수불투의 금성 철벽같은 방공진 앞에는 종래와 같은 노자관계의 불상사도 자연 그림자를 감추게 될 것이라 하여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춘천방공단(이하 방공단은 약) 93명 ▲경춘철도 45 (중략) ▲횡성 60 …… ▲계 416단 인원 1,914명

위 까지의 강릉, 양양, 회양 3군만은 결성 완료이나 보고가 미착이라는데 전기 3개군을 포함한다면 50여개의 2천여 대원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제1회 중선축구대회
(매일신보 1938-11-08 / 3면)

回 一 第	
場申 主賞 後催	場申 期日 申込金
橫城體育協會 優勝旗外(優勝旗に旗置)于團補助 橫城體育協會 每日新報社橫城支局	十一月十三日午前九時 橫城松鶴公園球場 十一月十二日午後六時 每團體三圓
中 鮮 蹴 球 大 會	

시일 : 11월13일 오전9시
장소 : 황성송학공원구장
신청기일 : 11월12일 오후6시
신청금 : 매단체 3원
신청장소 : 황성군체육협회
상품 : 우승기외(우승팀에 여비 20원 보조)
주최 : 황성체육대회
후원 : 매일신보사 황성지국

중선축구대회 내 13일에
(매일신보 1938-11-08 / 3면)

中 鮮 蹴 球 大 會

來 十 三 日 會

【橫城】橫城郡에서는體育協會發
會式記念으로 今月十三日午前九
時부터 橫城松鶴公園球場에서中
鮮蹴球大會를 開催하리라는事
賞品는優勝旗外副賞이있고 參加
金은每團體三圓이라한다

【황성】황성군에서는 체육협회 발회식 기념으로 금월13일 오전9시부터 황성송학 공원구장에서 중선축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상품은 우승기 외 부상이 있고 참가금은 매단체 3원이라 한다.

정신 작흥 주간 중 각지의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8-11-08 / 3면)

精神作興週間中

各地의 行事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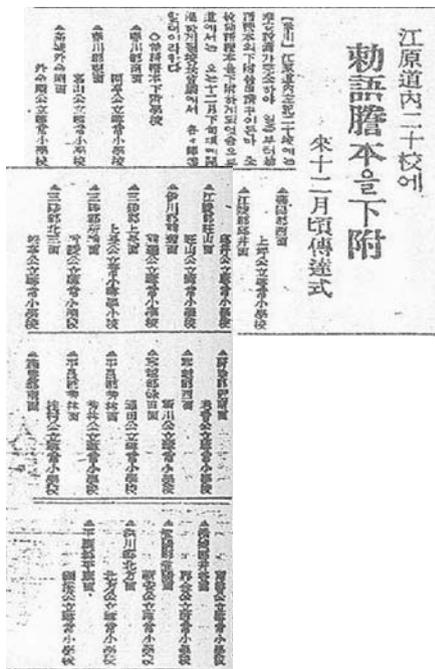
【橫城】橫城郡에서는國民精
神作興週間行事를爲기爲고各日決定
하리다

第一日 爲聖廟開日 第二日 爲勞
報日 第三日 爲安樂日 第四
日 爲發願日 第五日 爲發願日
第六日 爲發願日 第七日 爲發願日

【횡성】 횡성군에서는 국민정신작흥주간 행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제1일 황군감사일
- 제2일 근로보국일
- 제3일 자원애호일
- 제4일 조서○받기념일 시국인식일
- 제5일 극기정려일
- 제6일 가정보국일
- 제7일 체력 향상일

강원도내 20교에 칙어등본을 하부 내12월 경 전달식
(매일신보 1938-11-09 / 3면)



【춘천】 강원도내 좌기 21교에는 봉안설비가 완전하여 일찍부터 칙어등본의 하부를 신청중이던 바 동교 칙어등본을 하부하게 되었으므로 도에서는 오는 12월 하순경에 개최하게 될 교장회의에서 각각 전달할터이라 한다.

- ◇ 칙어등본 하부학교
- (중략)
- ▲ 횡성군 정곡면 정금공립보통소학교
- (중략)

강원도의 근로보국대 무려 3천800여 대원수 실로 26만명
(매일신보 1938-11-16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160만 도민으로 하여금 국가관념의 함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케함은 물론 근로애호,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을 독실케 하고자 지난7

월7일 지나사변 기념일을 계기로 전도내 각부락을 비롯하여 각종 기관단체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기로 되었는데 그후 조직이 활발해져서 지난10일 현재 3,804대대가 조직되었다는데 이의 대원수가 실로 260,822명에 달하여 각종 근로 작업으로 충후보국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근로보국대 결성상황(11월10일 현재)

군명	대수	대원수
(중략)		
원주	224대	6,612명
횡성	239대	13,375명
홍천	209대	13,057명
(중략)		
계	3,804대	260,822명

뫼대좌는 14일

(매일신보 1938-11-18 / 3면)



【횡성】뫼대좌는 14일 오후 3시반 관민유지 다수 환영회 횡성으로 와 신사를 참배한 후 군회의실에서 德久서장의 군사후원분회의 보고를 청취한후 공회당에서 장고봉 사건에 대한 군사강연이 있고 同 5시 원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강원의 추잠공판 44만5천여킬로그램
공판액 35만여원

(매일신보 1938-11-18 / 3면)



【춘천】강원도의 본추잠종의 소립 매수는 중앙선 및 경춘선 등의 철도공사로 노력 혹은 사육장소 부족을 보게 된 것과 추잠종의 일부 불발생의 지장에 의하여 전년에 비해서 1,834매 즉 3분6리의 감소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육기간 중 기후가 적순하여 작〇이 양호하였으므로 산견량에 있어서는 도리어 113,828kg 즉 1할7분의 증산을 보게 되었다. (중략) 각조의 공판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공판수량 공판가격

(중략)

원주	36,511kg	28,250원
횡성	51,941	40,494
홍천	53,155	41,041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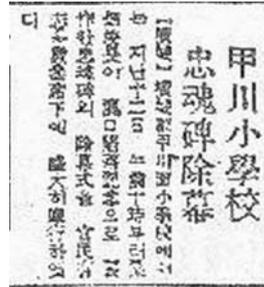
횡성군농회 인, 대두 공판
(매일신보 1938-11-19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인*대두 공동판매를 적극하여 농가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군농회와 금조가 출동으로 판매알선을 실시하기로 하여 총1만2,000석 대두 1,000에 대한 공판 입찰을 지난15일 오후 4시 군회의실에서 시행하였다.

[*인은 벼]

갑천소학교 충혼비 제막
(매일신보 1938-11-20 / 3면)



【횡성】 횡성군 갑천면 소학교에서는 지난12일 오전10시부터 桑畑교장이 한구 함락기념으로 제작한 충혼비의 제막식을 관민유지 다수 참석하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횡성농잠 주최 번식 빈우 품평
(매일신보 1938-11-20 / 3면)



【횡성】 횡성군 농회에서는 축산보국 표준화를 위하여 지난14일 오후3시부터 횡성 송원에서 번식빈우 품평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적이 작년에 비하여 양호하다 한다.

황성보국저금 13만9천원
(매일신보 1938-11-22 / 3면)



【횡성】 횡성군 보국저금 배당액은 28만 7,068원인데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예정액 13만9,000원에 대한 6할로 9만 2,904원인데 미정액은 11월에 보완하리라 한다.

만주 이민 지원자 횡성군에서 7명
(매일신보 1938-11-22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빈민의 전업 이주 이민 등을 극력으로 알선중이던 바 금번 7명의 만주이민 희망자가 있어서 도 이민 과 이주권을 신청중이라 한다.

강원 증소하천 개수
공비는 50만7천원 예상
명년도에 계속 착공
(매일신보 1938-11-29 / 3면)



【춘천】 전시체제하의 강원도 명년도 예산은 각과에서 모두 시국에 비쳐 신중히 연구한 결과 건축방침으로써 임하게 될 모양인데 전년도부터 1941년 계속사업으

로서 실시한 주요중소하천개수공사의 1939년도 공사는 시국관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었는바 결국 명년도 중소하천개수공사비의 예산액은 5할을 0연하여 587,000원이 될 예정이다. 이것을 공사 시행계획의 하천별로 배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외 염천=3,612원
 주수천=5,870원
 신리천=32,800원
 북한강=25,134원
 금강=26,100원
 삼척오십천=30,000원
 강릉남대천=69,012원
 평해남대천=19,700원
 전천=20,000원
 섬강=36,500원

횡성면화공판 출회 성적 부진 (매일신보 1938-12-02 / 3면)



【횡성】 횡성군농회에서서는 금년도 면화총
 총수확 50만근 예상에 30만근을 공판출회
 목표로 지난10월 16일부터 각면에 면화공
 판을 실시중인데 출회성적이 금월 25일
 현재로 겨우 6만근에 불과하여 군 당국은
 철저독려중이나 그 원인은 시가와 공판가
 격에 대한 차이가 큼에 있다한다. 즉 공
 판가격 실 면 1근비 작년 14전5리에 대하
 여 18전5리의 고가이나 금년도 0면 공판
 가격 1근에 17전이고 시가 1원50전인데
 매근 80전의 차이가 있으므로 농회에서
 시가통제를 요망하는 동시에 면화는 특
 히 군수품으로 중요한 물자인만치 일반
 농가의 이해를 기대한다 한다.

횡성군 각 부락 생업 報國田
수익결산 2천여원
(매일신보 1938-12-04 / 3면)

**橫城郡各部落
生業報國田**

收益決算二千餘圓

【統營】 橫城郡各部落 生業報國田 收益決算 二千餘圓 矣。其詳如左。

統營	二千餘圓
橫城	一千餘圓
襄陽	五百餘圓
佳羅州	五百餘圓

以上各部落 生業報國田 收益 共計 二千餘圓 矣。此項收益 將全部 充實 於 地方 建設 矣。

【횡성】 횡성군에서는 총후강화 주간에 각166 부락의 부인회 45, 청년단 6, 농촌 규○ 15회 66단체에게 생업보국전 11여 정보와 답 6정보를 ○○하고 지도노력하여 왔는데 그 성적이 양호하여 수익원이 2,037원79전에 달하였다 한다.

각지 방화일 행사 횡성
(매일신보 1938-12-05 / 4면)

各地防火日行事

【統營】 去日午前八時 統營 消防隊 消防日行事 始行 矣。是日 消防隊 消防日行事 始行 矣。是日 消防隊 消防日行事 始行 矣。

【襄陽】 襄陽郡各部落 生業報國田 收益決算 二千餘圓 矣。其詳如左。

【佳羅州】 佳羅州 消防日行事 始行 矣。是日 消防隊 消防日行事 始行 矣。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매년 12월1일 방화제를 선전하여 왔는데 금년에도 그의 철저를 기하고자 소방조원과 소학생을 동원하여 횡성악대를 선두로 기행렬로 시내를 일주하며 일반에게 선전편지를 배포하였다.

헌금과 위문대 횡성
(매일신보 1938-12-05 / 4면)

獻金과慰問袋

【橫城】 昨不 濟南 漢口 陷落 以來 軍之 辛苦 甚深 慰問 袋 高 興 奉 送 矣。其 詳 如 左。

【襄陽】 襄陽郡各部落 生業報國田 收益決算 二千餘圓 矣。其詳如左。

【횡성】 난공불락을 하던 漢口함락에 황군의 신고를 깊이 감사하여 위문의 뜻을 표할지 횡성군에서는 한구함락축하위원대를 각 방면으로 모집중이던 바 금월 2일부로 769원45전 금액을 도에 헌납수속을 하였다 한다.

간이라 하며 수강지도부락은 제7차 갱생지도부락 21개소와 제2차 갱생공동부락 8개소라 한다.

29개소 부락 문맹 계발 야학회
가계부 기입 정도로 3개월간
횡성군서 일제 개강
(매일신보 1938-12-06 / 3면)

갑천공영회 생산자 편의 도모
(매일신보 1938-12-10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농촌진흥운동 진전의 반하여 매년 농학기를 이용하여 야학강습회를 개최하고 피지도자 가정 경제를 숫자로 기입하여 참고와 반성의 재료가 될 가계기입장을 일제히 실행하도록 당농주와 주부에게 간단한 숫자와 언문과 국어를 교수하여 그의 철저를 기하리라는데 개강기일은 12월부터 명년 4월까지 5개월



【횡성】 횡성군 갑천면 매일시장에서는 부덕상인의 폭리를 방지하여 생산자의 복리를 도모코저 매일금조 홍이사의 알선으로 지난11월 19일 공영회를 조직하고 면내 물자집산의 원활 및 출회물질 소화조절을 기하고 있는 특색은 매 시일공영회 간부가 시장에 출장하여 두량과 시가의 정확을 기하며 생산자로부터 출회한 물자중 일반이 취인후 불매매가 되어 〇〇치 아니하면 안될 물자는 생산자에 편리를 도모하여 그시일의 시가대로 전부 공영회에 구입하여 그 다음날 혹은 타지방으로 판매를 알선하리라는데 공영회 상설자금은 최저 5천원이라 한다.

횡성 시국 좌담회
(매일신보 1938-12-11 / 4면)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일반 민중에게 현하 중대시국을 인식시키고자 각면 각 부락별로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지난 11월 말 까지의 통계를 보면 좌담회 수 195회에 청강 인원이 6,409인이라 하며 현재도 각처에서 개최 중이라 한다.

통천 횡성 양군 총후보국 주간
(매일신보 1938-12-11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내15일로 21일까지 1주간을 연말연시 총후보국 강조 주간으로 결정하고 좌기 요항에 의하여 실천 공행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5일 시국인식일 16, 17일 생활쇄신일 18, 19일 물자절약일 20, 21일 저축일

저축보국실행 횡성군서 협의
(매일신보 1938-12-20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보국 저금실시 이래 매월 예정액에 미달함은 일반농가가 농번기에 있는 일시 현상인 만큼 ●에 실속거양에 일단 강화를 기하고자 지난14일 오후1시부터 횡성공회당에서 군면 금조, 우국주최로 보국저축위원 165명을 초대하여 강원도 이재과 金英起屬임석하에 저축보국실행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농작물 수확직후를 이용하면 각면에도 좌와같이 저축보국 실행 좌담회를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횡성國婦 役원회

(매일신보 1938-12-20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 15일 오후2시부터 면 회의실에서 국부역원 17명을 소집하고 曹면장 사회하에 役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작년 9월 이래 일반 회원이 매월 5전씩 저축한 금액 11월 현재로 112원을 횡군 위문금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양력과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2만매 목표로 횡성군 입직 장려 연도말까지 실행

(매일신보 1938-12-27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입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생산의 확충을 기하고자 금년도 말까지 12만매를 목표로 농촌부락에 철저장려중이라 한다.

강원 횡성군 부락 중심인물의 희생적 노력 結晶
매호 평균 저금 50원
 (매일신보 1939-01-06 / 3면)



강원도 횡성군 영영포 갱생부락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 갱생부락은 관의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중심인물의 희생적 노력에 의해 개생을 보게될 부락인만치 소위 자발적 갱생부락으로서 유명한 부락이다. 이 부락은 횡성읍으로부터 동방 약1리만 국사봉하 계곡에 있는 벽취지로서 교통이 지극히 불편한 오지이다. 리내 도처에 구릉이 기복하여 호수 66호를 거하고 있으나 산정 또는

산복혹은 계곡에 점재하여 각호간의 도로도 또한 불편한 곳이다. 이같이 위치 지세가 모두 천혜를 받지 못하고 교통불편과 외지와의 교섭이 적은 관계로 관헌의 취처라든지 혹은 못하여 부락민의 대부분은 문맹이며 가난해서 그날 그날 생계를 이어가는 공상에 빠져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다수는 주색에 빠지고 도박에 혹하여 음탕한 기운이 전부락에 충만하여 60호에 불과한 벽촌에서 6, 7개의 주막을 보게되는 등 불량한 무리들의 출입이 빈번해서 흡사히 소굴화 하계된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때 혜성과 같이 중심인물의 출현을 보게되었으니 즉 1917년에 동리의 청년 위창래(魏昌來)군이 구장에 임명되자 이민의 전도를 우려하여 일야차의 선도에 힘써 생활개선, 농사개량, 근검저축의 실행 장려에 솔선궁행 부락민에게 시범함으로써 자기의 제일책무로 하여 리민을 위한 일신을 바칠 각오로서 자기의 사유림을 제공하여 목야로서 리민에게 이용케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불면불휴 지도에 진력한 결과 리민도 점차로 자각하는 동시에 위창래를 중심으로 1925년 5월에 흥농회란 단체를 조직하여 실사와 저축에 민풍작용에 협조선처하였으며 소화 3년에는 근농공제조합을, 1930년에는 흥업부인회를, 1931년에는 납세조합, 농산공동판매조합을 조직하여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진전의 목표에 활약케 한 결과 모두 상당한 성적을 거양함에 이르렀으며 그후 횡성군의 지정부락이

되자 일반의 노력을 부락 흥룡에 두고 약진 또 약진의 도를 가해서 금일의 진경을 보게된 것이다. 그리하여 1932년에는 농촌진흥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위창래부터 출선 갱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미리부터 실행해온 가계부일지연중행사표에 의하여 각 농가의 실태를 검토조사하여 이에 기초한 특색있는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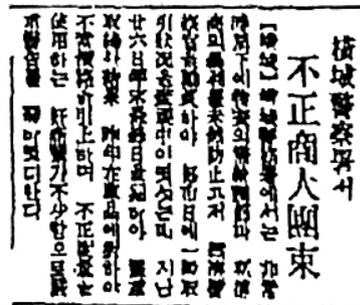
1. 리민에 부채가 없도록 할 것
2. 리민에 식량 부족이 없도록 할 것.
3. 리민에 현금수지 균형을 계할 것.
4. 리내의 토지는 리민의 소유로 할 것 등 4대목표를 세운후 1933년 8월1일에 갱생계획을 확립하여 목표 해결을 향하여 매진중으로 소위 자발적 갱생부락으로서 존재를 알리게된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같이 갱생 4대 목표를 수립후 예의 매진하는 가운데도 특기한 것은 동 부락이 금일과 같은 실적을 내게 된 것은 부업을 장려하면서 저축을 려행한 것이라 하겠는데 그의 실적을 본다면 현재 저금 총액이 3,300여원으로 매호 평균 50원이며 1호의 최고저금이 113원50전에 달한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축의 실행은 갑을 2조의 저금으로 구분하여 갑종저금은 공동경작에 의하여 득한 수입 또는 표창금 등으로는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을종 저금이란 것은 각자의 부업 또는 노동에 의하여 벌은 수입으로 매월 1인당 30전씩 저금하여 장래의 영농병토지 구입자금의 원활을 기할 목적으로 축적하여왔다. 이같이 하여 저축한 것은 농산물을

담보(담보물 공판에 부하여 이익을 보게한다)로 무이자로 부락민들에게 대부하여 토지를 구입케 해왔는데 그 실적을 본다면 부락내에 있는 타인의 소유 토지가격 3만원 정도의 것을 리민의 소유로 하고자 전기제도를 실시한 결과 현재 부락내 경지의 5분의 4를 부락민의 소유로 매점하게되었다. 그래서 소작농은 자작겸 소작으로, 자작겸 소작은 순자작농으로 향상되고 있어 부락은 수일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만 경과된다면 동 부락은 전부 자작농화 하게 되어 생활의 안정을 보게되는 동시에 이상 농촌의 현실을 보게될 것이다.

(사진은 영영포 갱생부락 부인들의 입직 광경. 선 사람이 중견인물 위창래씨.)

횡성경찰서서 부정상인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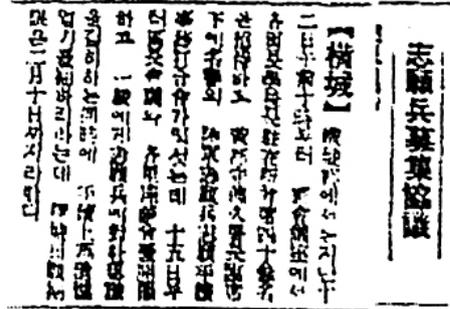
(매일신보 1939-01-07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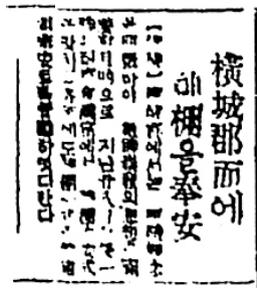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비상 시국하에

물자의 수급조절과 약덕상인의 폭리를 미연 방지코자 경제경찰관을 동원하여 매시 일에 일반 취인상황을 감시중이였었는데 지난 26일 연말 최종일을 기하여 엄중 취제한 결과 작년 재고품에 대하여 불상 가격을 인상하여 부정도량을 사용하는 간상배가 불소하므로 엄중 경고를 발하였다 한다.

지원병 모집 협의
(매일신보 1939-01-08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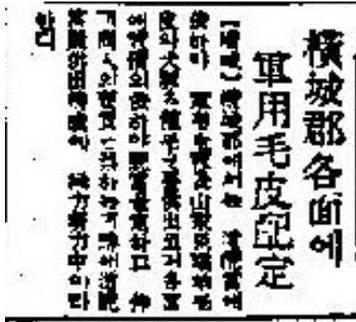
횡성군면에 ○봉을 봉안
(매일신보 1939-01-07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국체관념을 명징하여 경신송조의 사상을 함양할 목적으로 지난 28일 오후 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봉 봉안식을 마치고 각면에서 ○봉 1식을 엄숙히 봉안토록 독려하였다 한다.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12일 중순 오전10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각면장 학교장 주재소 수석 40여명을 초대하고 黃軍수 德久서장 참석하에 명예의 육군지원병 지원수속사무소 타합회가 있었는데 15일부터 구장회의와 각리장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에게 지원병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는 동시에 수속상만 유감없이 기하리라는데 횡성출원기한은 2월10일까지라 한다.

횡성군 각 면에 군용모피 배정
(매일신보 1939-01-17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도배당에 의하여 군용 소, 돼지 및 山家 토끼, 고양이, 양 모피와 건돈 각종 모피를 공출코자 각면에 실정에 의하여 배당을 정하고 중간상인의 매매를 금하는 동시에 도배당수 공출달성에 총력 노력 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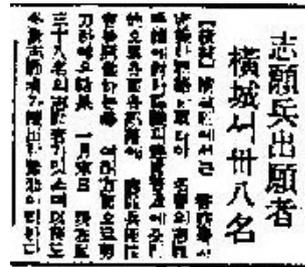
일본정신 발양주간 각지의 행사 결정
(매일신보 1939-02-05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21일 오후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횡성 관하 각관공서장을 초대하여 국민정신총동원 횡성연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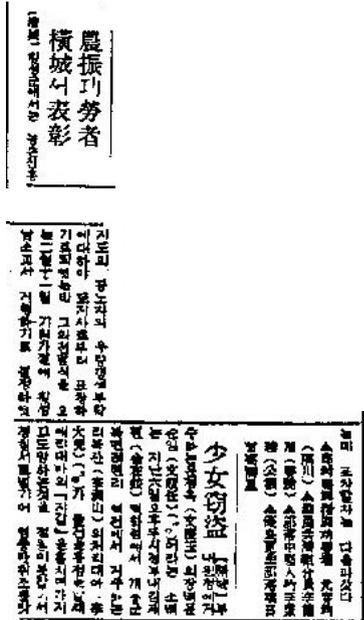
사회를 열고 성전 제3주년의 기원절을 환영함에 국민으로서의 만공의 축의를 표하는 동시에 광원한 〇국의 이상 일본문화 내선일체의 정신발양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할 국민의 각오를 전군민으로써 깊이 하고자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간을 일본정신발양주간을 정하고 아래와 같은 실천사항을 결정하였다. 2월 8일 주간 실시 취지선전일, 9일 경신송조, 10일 인고 단련일, 11일 기원봉축일, 12,13일 국제명정일, 14일 근로보국일

지원병 출원자 횡성 38명
(매일신보 1939-02-08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경찰서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명예의 지원 수속에 대한 인식과 취지보급에 전군적으로 각면각부락에 지원병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1월 말 일 현재로 38명의 지원자가 있으며 현재도 다수 지원자가 속출한 예상이라 한다.

농진공로자 황성서 표창
(매일신보 1939-02-09 / 4면)



【황성】 황성군에서는 농촌진흥 지도의 공로자와 우량 갱생부락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표창하기로 되었는바 그의 전달식을 오는 2월 14일 기원가절에 황성 남소교서 거행하기로 예정하였는데 표창할 자는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지도공로자 원용균(우천)
- ▲근농공제조합원 이덕용(서원)
- ▲부락중견인물 이秉규(공근)
- ▲우량갱생부락 청일면 울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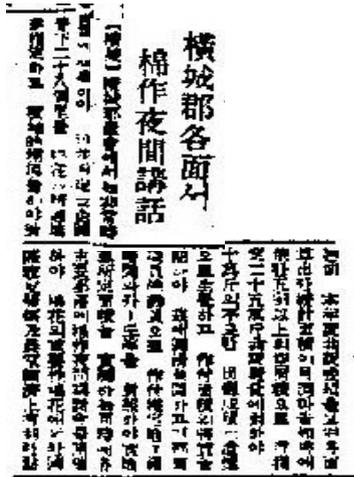
비상시를 반영하여 소작쟁의 감소
황성농촌의 명랑보

(매일신보 1939-02-09 / 4면)



【황성】 황성군 총농가호수 12,268호에 대하여 6,550호가 소작이니 답 53,710단 보에 대한 약3할 19,255 단보와 밭 94,543 단보의 3할감인 29,824 단보가 소작인데, 불아한 지주와 관리인이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였으므로 종래에는 소작쟁의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농지합보를 철저히 비상시를 반영하여 금년도 처리 건수를 보면 권해(勸解) 46건, 판정 3건 합49건으로 1937년도 149건에 비하여 약 3할이나 감소하였다 한다.

횡성군 각면서 면작 야간 강화
(매일신보 1939-02-10 / 3면)



【횡성】 횡성군농회에서는 비상시국책에 순응하여 면화증산을 기도 관하 28개리를 면화 재배적지로 지정하고 적극적 지도를 하여왔는데 본년도 공판 성적을 보면 각 면 산출한 통계면적이 일측과 고지서에 의한 5할이 공면적으로 토지 정25만근공판수량에 대하여 10만근에 불량한 출하성적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작촌면적의 확신을 기하여 이에 원할을 도모코자 각 군면 직원총동원으로 작촌지정지 지적약도와 카드등을 대조하여 실지로 소정면적을 실측하는 동시에 각 주요부락에 면작야간강화회를 개최하여 면화의 중요성, 면화에 대한 국제수지관계와 농가경제상 유리한 점 등 새로운 인식을 일반농가에게 고취시켜서 내년도 도지정확장 작촌면적을 공면적이 없이 재배케하여 면화생산 증가에

박차를 가하며 내년도 공판소정수량의 확충을 기하리라 한다.

횡성 면의개선
래5일에 시행
(매일신보 1939-2-10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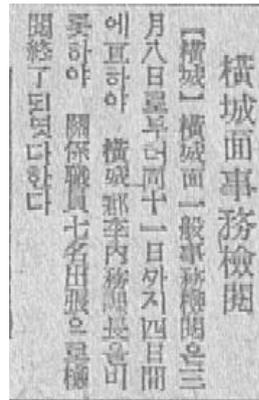
【횡성】 횡성군에서는 금년4월이 면협의 회 회원 만기가 됨으로 오는 6월 21일에 개선거을 하리라는데 유권자 예정수 1,249명에 대하여 문맹 유권자가 270여명이나 됨으로 각 부락 애국반 농촌진흥위원을 동원하여 오는 5월21일까지 문맹 유권자에게 언문을 교수하여서 1인이라도 기권이 없게 독려하리라 한다.

횡성군 각 면에 농진 지도 실시
(매일신보 1939-03-14 / 3면)



【횡성】 횡성군농촌진흥위원회에서는 군·면농촌진흥위원과 각 관계기관을 총동원하여 2월27일로부터 3월4일까지 6일간 농촌진흥지도자를 목표로 그 지도실시를 보게되었는데 지도상황을 일독하면 주로 각면농촌진흥위원회 지도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월례회 야학지도와 차년 〇〇〇에 정부락 준비지도등을 〇〇〇 조디자가 전군일원에 〇〇〇 있다는데 이에 큰 수확이 〇〇〇〇 한다고 한다.

횡성면 사무검열
(매일신보 1939-03-14 / 3면)



【횡성】 횡성면일반사무검열은 3월 8일부터 동 11일까지 4일간에 한하여 횡성군이 내무과장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7명 출장으로 검열종료되었다 한다.

횡성군당의회
(매일신보 1939-03-26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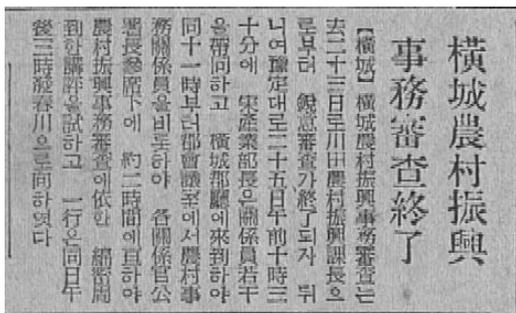
【횡성】 제21회 횡성군 당의회는 28일 오전9시부터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리라 한다.

횡성농진 사무 심사 결과 양호
(매일신보 1939-04-01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21일부터 26일 까지 5일간 횡성군농촌진흥사무를 심사하였는데 군내 7개면 13개부락에 대하여 내무보다도 부락의 지도실적답사에 주력을 두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성적이 양호하여 특히 농촌지도중 양잠, 전작, 개량 부업 등은 현저히 양호하였다고 한다.

횡성농촌진흥사무심사 종료
(매일신보 1939-04-01 / 3면)



【횡성】 횡성농촌진흥사무심사는 지난 23일로 천전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열의심사가 종료되자 뒤이어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송산업부장은 관계원 약간을 대동하고 횡성군청에 내도하여 각관계관 공서장 참석하에 약 2시간에 한하여 농촌진흥사무심사에 의한 세밀주도한 강화를 식하고 일행은 동일 오후3시 발 춘천으로 향하였다.

각군 농회 총회 횡성농회
(매일신보 1939-04-01 / 3면)



【횡성】 횡성군농회 제14회 통상총회는 지난 3월27일 오전9시 횡성군 농회의실에서 1939년도 총예산 87,014원을 가결하였다.

강원서 3개년계획 피마 재배를 장려
장려 부락을 대량 설치
(매일신보 1939-04-11 / 3면)

【춘천】 피마자유는 지금은 군수품으로서 귀중시 되어 금후 이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다른작물보다 재배가 용이함으로써 강원도에서는 국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도이후 3개년 계획으로 각군에 장려부락을 설정하여 농가, 학교, 면(읍) 사무소 주위의 공지와 수는 논 등을 이용 재배케하여 면적 275만정, 생산고 3천석, 공출량 2천석을 목표로 증산을 하기로 되었는데 본연도에는 장려부락 500개소를 설치하여 2만호에 대해서 125정부를 재배케하리라는데 도비로서 재배장려비 250원을 보조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장려부락의 장려호수는 40호 평균으로 하고 작촌면적은 2만5구(2500본) 평균으로 하여 금년에는 일천석의 생

산을 시도할터이라 한다.

◇각군 장려내용

각군	장려부락수	장려부락면적	보조액
(중략)			
횡성	30부락	7.40정	15,000원
(중략)			

지하 자원 조사대
도내를 3구로 강원도서 편성
신광상을 철저 조사
(매일신보 1939-04-14 / 3면)

【춘천】 전시 하 지하 자원개발에 총력량을 집중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연도초에 접어들며부터 인적 진용을 정비하는 등 개발 강화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본연도에는 좌기와 같이 도내를 3구로 분하여 지하자원조사대를 편성 신광상의 획기적 조사와 기득광구의 정밀조사를 단행하리라 한다. 이와같이 전면적 조사를 하기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각군에서는 기본 및 위치를 미리 조사해두기를 바란다 고 한다.

1. 동해안 8개군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2. 중앙7개군
 회양 양구 인제 평창 정선 원주 원주
3. 내륙 7개
 이천, 평강, 철원, 김화, 화천, 횡성, 흥천

**면양부락중심인물
 단기양성소 개소
 강원도 종양장에서
 (매일신보 1939-4-14 / 3면)**



【춘천】면양 국책에 의하여 증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면양사육부락내에서 면양사육의 중심이 될 자를 도종양장에 수용하여 사육과 생산물 처리등에 대한 기술을 전습케 하여 면양부락의 실적 거양을 도모하리라 함은 기보도 하였거니와 그동안 준비가 완료되어 오는 15일 평강군 고포면 근남리에서 제1기 양성생 25명의 입소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양성인원이 다수에 달하여 도종양장에 수용키 곤란함으로 부득이 2기로 나누어 제1기는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 제2기를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개월간 각각 양성하기로 된 것인데 제1기를 농업기로 정하게 된 것은 양모모에, 분면양 취급 전반에 관한 기술습득 등 타시기에 실시키 불능인 사정으로 그리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양성인원은 면양사육부(1939년도 신규사육예정부를 포함) 17개군에서 50명을 전형하여 양성하기로 된 것인데 실습중은 식비로서 1인당 월 15원(2개월분 30원)을 군농회에서 지급하기로 되었다.

- ◇제1기 양성생 할당표
- ▲춘천1 ▲인제1 ▲양구1 ▲회양2 ▲통천1
 - ▲강릉1 ▲삼척1 ▲정선2 ▲평창1 ▲원주1
 - ▲횡성1 ▲흥천2 ▲화천2 ▲김화2 ▲철원2
 - ▲평강2 ▲이천2 계25명

면작 파종 독려반
강원도 간부와 직원으로 조직
일제히 총동 지도
(매일신보 1939-04-21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면과종의 일제지도와 묘대, 감제, 대마, 비마 등 특용작물의 작부상황을 심사하고자 도간부와 관계 직원 총동원으로 3반의 지도 독려반을 조직하여 내 24일부터 30일까지 면장독려군 13개군과 묘대 각군, 감제 7개군, 대마 8개군, 비마 18개군에 출장지도 할터이라 한다.

▲지도 독려반

구별	반장	분대군명
제1반 가.	중천기사	원주, 영월
나.	길야기사	홍천, 횡성
.....		

폐품 회수 운동 강화
매수인과 취급인 지정
강원서 19일 부로
(매일신보 1939-04-21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물자를 증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시국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번 강원도 폐품협회를 결성한 후 폐품의 재생 이용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바 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자 지난19일부로 폐품매수인 140명과 취급인 13명을 선정하여 사업의 통제를 하기로 했다.

군별	폐품매수인	폐품취급인
춘천	8	정사성
양구	3	-
.....		
원주	4	황길성
횡성	8	-
홍천	7	이원춘
.....		

제7차 갱생지도부락 488부락에 1만여호
강원도서 설정 완료
(매일신보 1939-04-22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본부 방침에 순응하여 피해해가는 농촌의 갱생의 주안으로 지난 1933년부터 농가갱생계획 당초 5개년계획이었으나 1935년도에 10개년 확충계획을 수립, 농촌의 전면적 갱생을 목표로 지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차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제6차 갱생지도계획도 지난 년도말로서 완료되었으므로 제7차 갱생계획을 수립하여 신년도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각군으로부터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설치된 갱생부락의 488부락에 수립된 호수가 11,063호에 달하고 있다. 각군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부락수	총농가호수	계획수립호수
(중략)			
횡성	20부락	754호	458호
(중략)			

공채구입은 8천원
저금은 5만여원
춘천 연초소매인의 적성
(매일신보 1939-04-22 / 3면)



【춘천】 춘천전매국 출장소 관내 연초 소매인들의 저금상황을 보면 지난 3월말일 현재 54,500원에 달하여 1인당 평균 43원 57전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같이 막대한 저금을 하게 된 것은 전매당국의 지도에 의하여 1,200여명의 소매인이 연초매상 이익금의 3할 내지 5할 정도의 영세저금을 수행한 결정이라며 자발적으로 공채를 구입한 자도 벌써 445명에 금액으로 7,843원에 달하여 총후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다. 각 관매소 구역별 저금액과 공채 구입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역별	저금액	공채구입
춘천	6,845.41	2,325
(중략)		

서석	5,398.01	65
횡성	7,515.64	925
가평	6,677.93	173
계	54,500.18	7,843

(중략)
 ◇면협위원
 (중략)
 횡성 (86)34
 (중략)

강원도 입후보 읍은 만원, 면은 상부족
 (매일신보 1939-05-13 / 3면)

각 면협의회원 당선자 횡성군
 (매일신보 1939-05-26 / 3면)



강원도내에 읍면의원인 후보자는 읍회의원은 정원 74명에 입후보자가 73명, 면협의회원은 정 1,744명에 대하여 입후보자가 1,361명 운동자가 2,422명에 달하고 있어 전체로 보아 아직 격전 상태에 있지 않다.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정원수)

- ▲횡성면 함기남 이건설 정호성 신상순 이규화 윤창호 증춘편송 박순룡 신원목 김의수 정재연 진기두 (12명)
- ▲안흥면 조두환 김봉기 양계하 김창수 김응규 이규철 이동연 김형근 이상석 변석록 김일수 조재형 (이상12명)
- ▲둔내면 한귀석 원영상 안내승 조호남 김실영 함일수 김복래 김항중 이유연 주병기 최의근 임인경 (이상12명)
- ▲우천면 염인수 송일만 안순옥 심홍섭 이석구 유용근 박병주 이덕기 박기성 이종린 (10명)

- ◇읍회의원
- 춘천 12(11)
- 인제 14(12)

각지 춘건 공판 고가로 출회 양호
농촌에 희색이 창일

(매일신보 1939-06-23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춘건 공동판매를 지난 15일부터 횡성면을 필두로 개시하였는 바 생사 시세 폭등에 따라 고치 가격도 근년 희색이 교차이므로 출회성적이 좋아서 2만6천관을 예상한다 한다.

1만여명이 동원될 강원청년단대회
내 9월에 개최 결정

(매일신보 1939-07-30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시국하 청년운동의 강화를 도하고자 오는 9월 중에 도내 청년단 대회를 춘천, 철원, 원주, 강릉 4개 군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좌기 일정과 같이 각각 이틀 동안씩 열기로 하여 첫날에 예비연습을 하고 이튿날은 분열식, 운동회, 시가행진 등을 실시할터이다 한다. 이에 참가 해당 청년단원이 실로 1만명에 달하는 바 대회가 끝나면 강원도 대표로 50명을 선발하여 9월 15일부터 사흘동안 열게 되는 전선청년단대회에서 출석케할터이다.

◇개최 일정

- 원주 9월 4, 5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 강릉 동월 7, 7일 양양 울진 삼척 고성 정선 강릉
- 철원 동월 9, 10일 김화 평강 통천 이천 회양 철원
- 춘천 동월 13, 14일 홍천 양구 화천 인제 춘천

횡성의 울건* 채취 무려! 2천톤(噸) 예상
(매일신보 1939-08-04 / 3면)



【횡성】시국 중대성에 감하여 군수품으로서 용맹을 날리게 된 울건 채취에 대하여는 횡성군 당국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울건 채취 만전을 기하고 경찰당국과 협력하여 채취와 매입에 노력하는 일방 각면으로 배당하여 일반 부녀자와 소학교 아동을 총출동시키어 8월 중으로는 2천kg은 무난 채취하게 되었다 한다.

[*울건은 잘 익은 고치]

2만2천kg 송지 생산을 계획
횡성에 공장을 건설
(매일신보 1939-08-15 / 3면)



【횡성】다난한 시국 인식에 철저를 기함과 자원 증강 운동에 매진하는 횡성군에서는 생송지 채취에 박차를 가하여 본군 책임 생산량 1만2천kg를 생산하는 외에 한재로 인하여금 임목 이용과 부업이 되게 하고자 횡성군 청일면 율동리에 조송지 채취공장을 건설하고 횡성군 임정계 천구기수 과장주사 이하 직원이 총출동하여 적극 독려중이리는데 문자 그대로 일석이조의 격으로 조송지 1만kg의 생송지 총 합하여 2만2천kg라는 강원도 전생산량의 5할을 산출케 되었다고 한다.

도내를 3구로 강원 전작 품평회
11월 초순에 개최
(매일신보 1939-08-15 / 3면)



【춘천】강원도 농회에서는 전작 개량의 효과를 일반에게 철저히 주지케 하고자 오는 11월 초순에 도내 각3구로 나누어 전작 품평회를 개최할 터이다 한다. 그리하여 각군의 전작 개량 지도포와 각급 채

중전이 있는 부락에 대하여 포상을 할터 이라한다.

◇도내 구역

남부=화천,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

북부=인제, 양구, 회양, 화천, 김화, 철원, 평강, 이천

영동=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홍천축구대회 횡성군이 우승

(매일신보 1939-08-17 / 3면)



【홍천】 홍천군에서는 지난 8월 13일 화 산소학교 코트에서 전선 축구대회를 개최 하였는데 참가단체는 인제, 횡성, 두촌, 홍천 읍내 A B 2팀으로서 대성황리에 동 일 오후5시반에 폐회하였는데 당일 전적 은 다음과 같다.

예선

1. 홍천A 대 B팀(B승)
2. 횡성 대 두촌(횡성 승)
3. 홍천A 대 인제(인제 승)

결선

횡성 대 인제(횡성 승)

강원도 소농의 갱생

대부된 생업자금 46만 5천여원

공동저금만 6만여원

(매일신보 1939-08-18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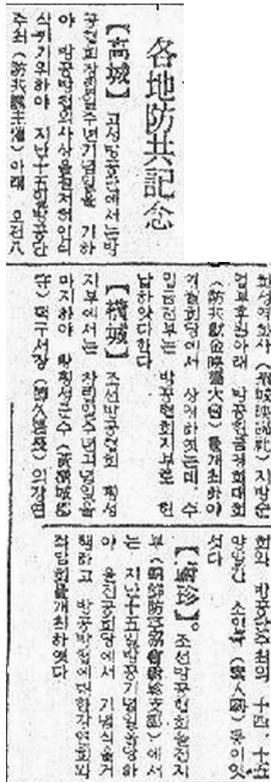


【춘천】 건전한 농촌의 건설은 소농가의 경제적 갱생으로 부디 ○작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에서 전체적으로 …… 그리고 동조합원들이 ○○수입에서 공동저금 한 것이 총액 6만1천원에 달하고 있어서 1인당 평균 3원62전에 ○○하고 있는바 최고 1,050원의 저금을 가진 조합원도 있다고 한다. 이제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조합수	조합원수	대부액
(중략)			
횡성	25	1,018	141,567.00
(중략)			

각지 방공기념 횡성
(매일신보 1939-08-22 / 3면)

횡성경찰서 무도납회식
(매일신보 1939-08-26 / 3면)



【횡성】 횡성경찰서에서는 서중 무도연습을 지난 8일부터 시작하여 21일까지 끝을 맺고 22일 오후1시부터 납회를 행한 바 특히 이 날은 경찰부에서 유도사범에 岡本선생과 검도에 宮源사범이 내림하여 심판을 행하였다는 바 당일에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다.

- ▲검도 1등 及川○哥 2등 ○田榮 3등 ○田正見 4등 朴○○ 5등 金○○
- ▲유도 1등 ○田○○三郎 2등 ○英○ 3등 ○○高○, 4등 小田○○, 5등 ○田正見

【횡성】 조선방공협회 횡성지부에서는 창립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黃횡성군수*, 德久서장의 강연회와 방공단 주최의 14, 15 양일간 소인극 등이 있었다.

[*黃횡성군수는 黃恒根]

**3천명 시위 행진 횡성 배영동지회 결성
(매일신보 1939-08-27 / 3면)**



편송(조선신문지부장) 윤태연(○○○○) ○○이사 유영태(매일신보지국 총무) 이 동운(매일신보 기자) 윤대○(동아일보 지 국장) 평의원 윤태환 박인○ 방현영 이○ 구 김○○ 원영상 조규○ 최석○ 정○철 윤○형(사진은 발회식장)

[*배영은 영국 배척]

**아들 싸움 말리고자 자가 방화한 우부
횡성서 범인 엄조 중
(매일신보 1939-09-09 / 3면)**

【횡성】 횡성에서도 지난24일 오후 4시 횡성공회당에서 배영*대회를 개최하고 횡성배영동지회를 결성하였다. 이날 흥분에 떠는 민중은 정각 전에 파도와 같이 밀려 들어 장내는 입추의 여지도 없었다. 「타도 영국」의 깃발아래 3천 대중은 궁성요배, 전몰장병의 명복도를 행하고 발기인 측 대표 방현영씨의 사회로 역원선정을 행하고 윤태연(尹泰年)씨에 선언문 낭독과 유영태(劉永泰)의 낭독에 이어 회장 신영순(申永淳)씨의 피 끓는 대사자후에는 대중의 박수갈채성은 우레 소리와 같이 장내는 진동하였으며 일동은 신사 참배를 끝맺고 약대를 선두로 시위행진을 하고 동일 오후6시에 만세삼창으로 산회하였다는 바 당일 선임한 역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신영순(강원도회의원) 부회장 中村



【횡성】 동네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자 그를 내쫓으려고 피를 낸다는 것이 겨우 자기집에 불을 싸 놓았다는 어리석은 자의 범죄사실!

횡성군 우천면 조곡리 372번지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林雲○(38)의 장남 근○은 지난8월 28일 밤에 동리에 사는 김봉○의 처 권씨만 사는 방에 뛰어들어가 폭행을 하려다가 집안사람에게 들킨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알게된 봉절의 실형 윤절과 그의 처 윤명○ 동리사람 이주성 등 세사람이 지난31일 오전11시 경에 근용의 집을 찾아가 ○○을 힐난하며 구타를 하자 이에 ○○ 근용의 부친 운성은 만약에 가지 않으면 제집에 불을 놓겠다고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가졌던 성냥을 가지고 옆에 있는 헛간에 불을 놓고 말았다 한다. 그리하여 이때에 놀란 전기 세 명도 싸움을 중지 ○○○부터 진화에 노력한 결과 ○○불을 끄고 말았는데 이 사실을 9월 3일에야 당지 경찰서에서 탐비하게 되어 범인을 잡아다가 방화죄를 묵하 엄중 취조 중이라 한다.

횡성체협 주최 시민운동회 개최 시일은 내 10월 2일

(매일신보 1939-09-19 / 3면)



【횡성】 횡성군체육협회에서는 매년에 행하던 시민운동회를 개최키 위하여 지난13일 횡성군 회의실에서役員회를 개최하고 일시는 10월 2일 결정되었으며 대회역원은 다음과 같다 한다.

- ▲회장 황항근 부회장 덕구원 산본○지
- ▲사무계 방현영 ○○○ 김원○ 윤태년
신○영 ○영재
- ▲교○계 윤○○ ○인○ ○○옥 윤○○
삼○○차 ○○문 신○○ 이봉○ 고○○
윤근○
- ▲○○계 ○정○ 방재○ ○○○ ○○○
○○○생 ○○○방○○ 우○○ ○인○
춘상생 흥○○
- ▲○○계 시○금일 ○○영 우○○길 ○○
영 ○○○ ○○○
- ▲○○계 ○○○○
- ▲구호계 문광○

한해 대책 협의코자 각군 지주 간담회
3정보 이상 소유자 300명 소집
(매일신보 1939-09-22 / 3면)



【춘천】 한해 대책과 농사 개량의 완벽을 기하자면 무엇보다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지에서 도내를 3구로 나누어 원주 강릉 철원 3개군에서 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 간담회에는 대소지주 전부를 망라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280명을 출석케 하리라는데 개최 일월과 구역은 다음과 같다.

- ◇ 원주=9월25일 의회장에서
구역=원주, 황성, 흥천, 평창, 영월, 인제 6개군
- ◇ 강릉=9월29일 면사무소에서
구역=강릉, 통천, 고성, 양양, 삼척, 울진, 정선 7개군
- ◇ 철원=9월30일 군소학교에서

구역=철원, 회양, 양구, 화천, 김화, 평강, 이천, 춘천 8개군

황성운동 기부 속지
(매일신보 1939-09-29 / 3면)



【황성】 황성체육협회 주최와 본보 황성지국 후원 하에 10월 2일에 황성군민 운동회를 개최한다함은 미리 보도한 바이거니와 황성 사회 인사 제씨로부터 물질적 찬조가 많다고 한다.

횡성 총후 주간 실시
(매일신보 1939-09-29 / 3면)



【횡성】 횡성군총후보국위원회에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총후보국 강화주간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횡성군회의실에서 본부 직원 참석리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간 중에 행사를 결의하였다고 한다.

축산 공진회 원주서 성황
(매일신보 1939-11-07 / 3면)

【원주】 주지한 바와 같이 강원도 남부 5군 공진회는 지난2일에 성황으로 마쳤었는데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부) ……
- (○○우) ……
- 4등 횡성군 청일면 이상○
- 2등 횡성군 공근면 공근소학교
- (○○우부) ……

강원의 축우 증식 27만두를 목표로 1기 10개년 계획 수립
(매일신보 1939-11-24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본부의 축우 증산 방침에 순응하여 20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본도의 사우 현상을 보면 현재 사우호수 13만7천호(총농가호수의 6할)에 사우두수가 19만두로 경지 100정보

에 해하여 40두에 돌파하는 상태인 바 이번 수립된 계획을 보면 증식수를 28만두에 달케 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그러나 우선 제1기 10개년 계획(1937년부터 1947년까지)을 수립한 후 현재의 19만두에서 8만두를 증식하여 1947년까지에 27만두에 달케할 계획이라 한다. 이제 각군별 증식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기준축우 증가수 1947년말 현재
.....

횡성 10,693 3,004 13,697

.....

(기준수는 1937년 말의 축우수로 한다)

강원의 면화 공판량 365만근
횡성 흥천 춘천은 예정량 돌파
(매일신보 1939-11-26 / 3면)

【춘천】 지난 10일 현재 강원도의 면화 출회고를 보면 365만근으로 금년의 출회 목표 380만근에 대하여 9할6부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목표수량에 부족되는 것이 겨우 15만근으로 월말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 하여 장려당국에서는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횡성 같은 곳은 할당 45만근에 출하가 61만4,800여근에 달하여 기록적으로 호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흥천과 춘천도 할당 수량을 달성 돌파하였다고 한다. 각군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은 횡성군의 면화 공판)

군별	출하성적(근)	목표에 대한 할합(%)
춘천	510,000	111
인제	62,439	62
양구	70,007	47
삼척	40,005	60
울진	178,315	54
영월	237,448	79
원주	594,749	97
횡성	614,846	137
흥천	580,000	126
통천	90,000	75
김화	57,446	57
철원	243,000	93
이천	372,000	93
계	650,225	96



전시하 중요 자원으로 강원산 송지 등장
각부락에 간이 공장을 설치
(매일신보 1939-12-14 / 3면)



물건이면 무엇이든 살려쓰고 아껴쓰지는 소리는 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말 같이 들리고 있는 소리다. 어찌서 평시에도 이같은 습관을 길러오지 못했는가 하고 민망스러울만치 귀가 아프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종래에도 생산해오던 눈에 익고 귀에 젖은 물건까지도 미처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전시 혹은 군수물자라하여 귀여움을 받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변전만 해도 업수히 여기고 천대하여 도로 희귀치 않게 끌어오던 물건이 그야말로 일약 전시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어 금쪽같이 귀중하게 알려지고 있는 물건도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이라 하겠다. 그중에 송지=흔히 송진이라

부른다=가 그러한 것으로 종래에는 농촌에서 한갓 불쏘시개로 써오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을 이 송지로 부터만 드러낼 수 있음을 알게 되니 중용되고 있는만치 전시의 물결을 타고 알려진 산업을 소개하려면 이 송지를 푸대접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더구나 강원도는 山國인 만치 도처에 적송이 울밀하여 송지를 얼마든지 채취해낼 수 있다는 데서 전시산업으로 송지가 한몫을 보게되어 연산 100톤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 증산을 기도하기로 되었으며 도당국에서는 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춘천 인제 울진 삼척 강릉 양양 횡성 등 7개군에 13개소의 조송지 제조공장을 설치(목하 건설 중)하여 일반에게 모범을 보이는 등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되었다. 그러면 이 송지를 채취함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되는 것인가를 실로 보고 알기 위하여 산림과 고하기사(古何伎師)와 함께 춘천군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춘천군 조송지 제조공장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곳 공장은 부락민 81명이 조합을 조직하여 군과 면의 지도를 받아가며 작업을 하고있는데 금년 6월부터 작업을 개시하기로 한 노력이 공장 건축 자체가 뜻대로 손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예정 계획보다 늦게 지난8월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게된 것이라 한다. 공장이라고 하기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 설비가 복잡한 줄로만 알았더니 예상과는 판판으로 지극히

【횡성】 다사다난한 오늘을 타개하며 총 후에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농촌부녀로 하여금 문맹을 열어주기로 하여 횡성군 농진과에서는 농촌야학을 지난11일 중순부터 8개면 각처 부락에서 일제히 시작하였다는 바 일반농가의 주인은 물론이러니와 부녀자까지라도 가계부 기입 정도로 명년 3월말까지 52개 부락에 1,216명을 교육하고 있다 한다.

**면화 70만근 돌파 강원수위를 자랑
횡성서 축하회 개최**
(매일신보 1939-12-20 / 3면)

그 수확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러니와 책임 할당 근수 45만근의 배가 돌파를 목표로 지도함이 성공되어 70만근이라는 놀라운 수확에 달하여 전강원도에서 단연코 제1위를 차지하며 산업전선에서 획기성을 토함은 물론 지난16일은 본도 파견단 임석하에 횡성공회당에서 관민 유력자와 면지도자를 200여명이 참집하여 각종 순서로써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었다 하며 횡성군농회 면작관계 직원과 각 면장 면지도원, 일행 30명은 횡성군수 인솔하에 강원도 대표로써 선진 경남지방을 시찰코자 지난17일에 출발하였다 한다. (사진은 축하연)



【횡성】 일찍부터 횡성 상업이 발달되어 제2 개성이리고 이름이 높은 바이니 근래에는 영서지방에 산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비약적 진전을 하고있음은 물론이러니와 더욱 사변 이후로 각종 군수산업에 일대 가하여 그 공로 지대하였거니와 그간 횡성군농회 면화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黃군수와 주임기수 장덕주씨를 위시하여 농회 직원들이 총출동으로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1940년대
황성 관련기사

**조선최대의 사방언제 횡성군일대에 출현
그간 살포된 노임만 21만원
(매일신보 1940-01-07 / 3면)**



【횡성】 횡성사방사무소에서는 1937년부터 횡성면, 청룡, 곡교, 목계, 반곡, 아평, 정암, 우천면 남산, 우항, 오원 9계곡에 급하여 체○립지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그 효과가 다대함은 일반이 주지하는 바 이니 1939년도에는 다시 제3차 계획으로 서 우천면 오원리에 15만원 예산으로 조선이 사방 공사를 시작한 이래로 제일큰 사방 「언」 을 담당기수 구정○○의 설계 지도와 기수○○○의 감독하에 공사는 ○○중이라 하며 한편으로는 다시 횡성사방 사무소 현장인 원주 소초간을 제외한 흥업, 지정, 호저 3개면에는 금번 한해 구제로써 시공예산으로 기수 팔중성회 씨가 적절히 총동원하여 공사 기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바 1937년부터 1939년도까지 구역면적 5,446정보와 시행면적 349정보 내 시공비 21만4,101원 이라는데 대다

수 금액이 살포되었다고 한다.(사진은 사방공사 현장)

**기원가절을 봉축
각 방면 인물도 표창
강원도 표창자
(매일신보 1940-02-13 / 3면)**



【춘천】 2월 11일 기원의 의식을 11일 정오에 어 하사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강원도에서는 계속 농촌진흥 공적자와 교육 공적자, 사회교화 사업 공적자의 표창장 및 전입식을 거행하였는 바 표창을 받은 자의 명단은 좌와 같다.

- ◇강원도표창자
- ◇○○공로자
-
- 횡성 ○○면
- ▲개인=횡성 이○○○○ 김○○ 신○○

저축 장려에 박차
강원도서 금조 이사 부분회의
(매일신보 1940-02-13 / 3면)



貯蓄獎勵에 拍車

江原道서金組理事部分會議

【춘천】 강원도에서는 도내 금융조합 지부 이사 부분단의 이사회를 오는 20일부터 춘천, 철원, 강릉, 원주 4곳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부분회의를 열게 된 것은 각처 (중략) 기타 상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20일(춘천) (중략)
2월 22일(철원) (중략)
2월 26일(강릉) (중략)
2월 28일(원주) 원주 횡성 대화 진부 영월 평창 ○○ 갑천 ○○ 둔내 청일 이상 11개 금조

횡성서 면작 장려 100만근 생산을 목표
지도강습회를 개최
(매일신보 1940-03-27 / 3면)

橫城서 棉作獎勵

百萬斤生産을 目標

指導講習會를 開催

【횡성】 횡성군에서는 작년도 면화 70만근을 생산하여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거니와 금년도에는 더 확장하여 경지면적 1천 정보에 백만근을 목표로 하고 오는 29일 경을 기하여 군내 각면 면리책임자와 각 부락 중심 인물들을 모으고 면화 생산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토의하기로 되었다 하며 금년은 만년을 제하고 소기한 백만근을 달성코 면작 담당 기수 박종호(朴鍾○)씨 이하 전직원이 총출동으로 대기중이라 한다.

【횡성】 횡성군에서는 작년도 면화 70만근을 생산하여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거니와 금년도에는 더 확장하여 경지면적 1천 정보에 백만근을 목표로 하고 오는 29일 경을 기하여 군내 각면 면리책임자와 각 부락 중심 인물들을 모으고 면화 생산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토의하기로 되었다 하며 금년은 만년을 제하고 소기한 백만근을 달성코 면작 담당 기수 박종호(朴鍾○)씨 이하 전직원이 총출동으로 대기중이라 한다.

춘궁기를 극복하고 한해구제 토목공사
강원도내의 28처에 착수
(매일신보 1940-04-03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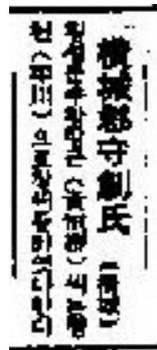


【춘천】 강원도에서는 한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가 예산으로 토지 개량 사방사업 부업 장려 등에 의하여 이재민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324,656원으로써 토목사업을 실시하여 노임의 산포로 이재민을 구제하고자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에도 춘궁기의 구제 대책으로 4월과 5월 두 달에 도내 28개소에 대하여 토목사업을 실시하리라 한다. 즉 사업비의 8할인 215,394원을 합하여 총공비 269,242원으로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바 사업이 한해 이재민의 구제인 만치 노임으로만 177,803원이란 돈이 뿌려질 것이라 한다.

◇한해 구제 토목공사 내역

군별	개소	구제사업액
춘천	2	21,481
.....		
횡성	4	25,424
.....		

횡성군수 창씨
(매일신보 1940-04-21 / 3면)



【횡성】 횡성군수 黃恒根씨는 平川으로 창씨를 하였다 한다.

**종돈생산 부락설치 양돈을 적극장려
강원서 구입비 보조**
(매일신보 1940-04-24 / 3면)

種豚生産部 養豚積極獎勵
江原서 購入費補助

본부에서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1개월간 강원도내에 종돈을 생산한 농가 중 종돈을 구입하여 양돈을 하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보조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종돈 1두당 20원이며, 구입비 7,500원 이하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단, 구입비 7,500원 이상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구입비 영수증과 종돈 구입내역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심사하여 지급한다.

군구명	종돈 수	보조액
춘천	60	32
인제	38	32
.....		
원주	55	120
횡성	39	100
홍천	57	60
.....		

군 2개소) 종돈 생산 부락을 두어 증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다시 100여개소의 종돈생산 부락을 설치하여 920두의 종돈을 대부해가지고 증식을 기도하기로 하였는데 종돈 375두 구입비 7,500원 중에서 1,500원(1두 20원 중에서 4원씩)은 도에서 보조하기로 되었다. 각군별 설치 두수와 보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설치두수	설치매입액	보조액
춘천	60	240	32
인제	38	160	32
.....			
원주	55	600	120
횡성	39	500	100
홍천	57	300	60
.....			

영예의 593명 강원지원병 추천자
(매일신보 1940-04-27 / 3면)

【춘천】 사변이 장기화 됨에 따라 각종 군수 자원의 수요도 점차 격증될 추세에 있는 바 그 중에도 각종 모피가 군수품으로 많이 수요되고 있음에 이의 공급을 유감없이 하고자 축우, 면양, 양돈 등 가축 전반에 대한 일대 증식 계획을 수립한 외에 다시 돼지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각군에 양돈 장려 부락을 설치하는 등 금년도까지 4만두 증식을 목표로 적극 장려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42개소(1

榮譽의 五九三名
江原省 支援兵 推薦者

본부에서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1개월간 강원도내에 종돈을 생산한 농가 중 종돈을 구입하여 양돈을 하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보조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종돈 1두당 20원이며, 구입비 7,500원 이하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단, 구입비 7,500원 이상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구입비 영수증과 종돈 구입내역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심사하여 지급한다.

狩犬
警防隊의 努力

安政 警察 氏

本館 查
本館에서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1개월간 강원도내에 종돈을 생산한 농가 중 종돈을 구입하여 양돈을 하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보조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종돈 1두당 20원이며, 구입비 7,500원 이하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단, 구입비 7,500원 이상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구입비 영수증과 종돈 구입내역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심사하여 지급한다.

水原에 水災
水原에 水災가 발생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본부에서 1940년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1개월간 강원도내에 종돈을 생산한 농가 중 종돈을 구입하여 양돈을 하는 농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입비를 보조한다. 보조금의 액수는 종돈 1두당 20원이며, 구입비 7,500원 이하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단, 구입비 7,500원 이상인 종돈 1두당 4원씩을 보조한다. 보조금의 지급은 구입비 영수증과 종돈 구입내역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부에서 심사하여 지급한다.

.....

◇횡성 합격자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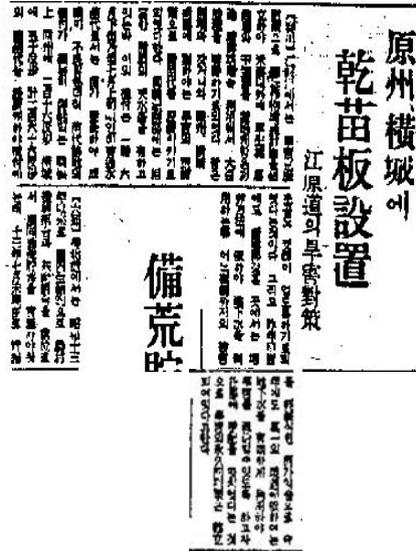
▲○○○ ▲○○구 ▲박봉○ ▲○○○ ▲
 김○○ ▲○병선 ▲(유○) 김○○ ▲○금
 봉 ▲민○철 ▲이○무 ▲우○○ ▲이○○
 ▲홍일홍 ▲○재○ ▲(○○)조○○ ▲김
 인태 ▲신○○ ▲이○○ ▲(○○)신○○
 ▲박○○ ▲이충○ ▲○○○ ▲김진○ ▲
 ○○○ ▲○○환 ▲송봉희 ▲박○○ ▲이
 ○○

횡성궐원 일제 창씨개명
 (매일신보 1940-04-27 / 3면)



【횡성】 횡성경찰서 내 임직원은 이번에 민사령 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창씨명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봉선-원강금조, 최귀순-무산귀정, 김○○-김○광대, 박순○-○정천부, ○재준-○야씨

원주 횡성에 건묘판 설치
 강원도의 한해 대책
 (매일신보 1940-05-18 / 4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한해 극복 대책으로 ○○작물 증산 계획을 설립하여 미백 이외에 한○○ ○○○와 옥수수를 재배케 함은 물론 ○○공지를 이용해서 대두 파종을 장려하기로 되었다 함은 전향과 같거니와 원주, 횡성 양군에 대하여는 한해의 대비책으로 건묘대를 설치시키기로 되었다 한다. 즉 전기한 양군에서는 상당한 면적의 천수답을 갖고 있는 바 이의 ○○는 일제 6월 하순과 7월 상순경에 이르는 데 물이 부족하면 묘가 잘 자라지 못해 성장이 불량할 뿐 더러 묘대 ○통의 회○가 상당히 한정되는 관계상 원주에 216만보 횡성에 50만보 계 266만보의 제 묘대

를 설치케하여 농사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한해에도 황성군 같은 곳에서는 굴경 방법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어느 근제까지의 한해를 경감시킨 예가 있으므로 금년에도 만일의 〇〇에 의하여는 지하수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한해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각군에 수배를 마치고 있다는 것으로 한해의 영구 대비책은 세워져있다고 한다.

**애국의 열정에 순사
지원병 시험에 불합격을 비관코 자결
한 청년
감격할 황성 군하의 군국 미담
(매일신보 1940-05-19 / 3면)**

보라- 애국심에 불타고 있는 반도 청년의 의기를- 육군 국별 지원병 전형 시험에 불합격이 되자 그를 비관하고 목을 매어 죽은 청년이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는 군국 미담이 있다.

황성군 서원면 3리 228번지 이강섭씨의 4남 창남(17)군은 지난6일 오후10시경 자기집 산속 부근에서 목을 매고 자살하였는데 자살 원인을 조사하여 본 즉 그는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게 되자 제국의 군인이 되어 일사보국의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후 작년에 지원병을 지망하였으나 연령이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금년에 적령에 달하게 되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이나 실시한 체력 검사에 합격이 되어 최후의 합격을 기다리고 있던 중 불행하게도 지난4월 7일에 시행한 도 전형 시험에 불합격 된 것을 알고 비관하던 나머지 그 같이 자살을 하고 말은 것이라 한다 그가 죽기 바로 이틀 전에도 동무들을 보고 일사보국의 군은 결심도 허사가 되었으니 나는 자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틀림없다 하여 듣는 사람마다 감격하는 동시에 동군의 순정에 동정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가마니 보국운동
강원도에서 8개군을 독려 중
(매일신보 1940-05-28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가의 부업으로 「가마니」의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출회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당국에서는 각군을 독려하여 군, 경찰서 등을 조합 가마니 제조에 들어가 고 한다. 이 가마니 생산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말일까지로 오는 10월말일 생산 목표를 보면 ○○용가마니 51만매, ○○용가마니 160만매인 바 주요 생산군은 원주, 횡성, 홍천, 춘천, 감파, 통천, 평강, 이천 등 8개군에 대하여 맹렬한 독려를 가해서 오는 7월말일까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당목표에는 달하리라 한다. 그런데 ○○가마니는 도리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치 못

할 것이 다소 있으나 ○용 가마니는 거의 반 도내에서 소비와 ○○으로 집에 조금 내두고 집에 있는대로 내놓게 해서 가마니를 짜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원병 불합격 되자 순사한 애국청년
충열의 미담을 찾아 횡성으로
(매일신보 1940-05-28 / 3면)

이번 사변 이래 반도인의 애국열은 곳곳에 폭발되어 총후 국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적성을 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육해군00지원병 제도를 한번 실시하게 되자 반도 청년들의 지원자 수는 물밀듯 하여 당국을 감격케 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같이 타오르는 애국의 정열을 이기지 못해 지원병이 되기를 지망 하였으나 불행하게 지원시험에 떨어지게 되자 국가의 간성이 되어 일사보국을 못하게 됨을 한탄함을 넘어서 죽음으로써 괴로운 심정을 청산해 버린 애국 청년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할 일이며 이 죽음을 어찌 헛되게 할 수 있으랴. 이 순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 지자 듣는 사람마다 아참 말짱한 죽음을 하였군! 감탄하는 이도 있고 혹은 다음 기회도 있는데 어찌서 그같이 죽어버리고 말았을까! 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세간에 큰 화제를 던지게 되었으니 두 사람만 모여도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는 이 없었다. 기사는 지남 20일 본사로부터 00로 급행하여 사실을 조사 보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사건이 발생한 횡성군 서원면 삼리를 찾아 떠나기로 하였다.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 이래 애국의 열정을 참지 못해서 혈서를 써서 표하는 청년이 수도룩하게 많은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지원병 시험에 합격이 되지 않았다고 조용히 자결을 하고 말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치 기지는 남모르는 흥분에 싸여 사건의 진상을 어서 속히 알아보았

으면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오전 9시 10분에 떠나는 차로 가려고 하였던 것이 최근 몇 달 동안에 50여명이나 살상을 한 경춘 철도 에서도 무엇을 생각 하였는지 만원이외에는 태워 줄 수 없다고 하여 4명이 다음차로 갈리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오후 2시 15분차로 떠나게 되었다. 차안에서 내다보는 논에는 못자리 마다 파랗게 올라온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며 밭에는 모리와 밀이 덕성스럽게 자랄듯이 자라고 있었는데 보리는 벌써 이삭이 패어서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년의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가뭄이었으니 만치 그 영향은 지금 이시간도 이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거니와 금년에는 때맞춰서 내린 비로 산과들의 백록이 견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아 만사가 대풍인 것을 짐작 할 수가 있었다. 000년에 쓰디쓴 경험을 맛본 관계도 있겠지만 만일의 경우도 생각하고 논 가운데 한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들에나와 고랑을 닦고 있는 …… 보였다. 흥천을 지나 횡성으로 가는 중간에 삼마치라는 큰 고개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해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로 개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난공사 구역의 밭과작업을 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 외에는 거의 반이 부근 농민들인 모양 이어서 늪은이와 어린이들 까지 나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헛각시 젊은 부녀들 까지 나와서 팽이와 삼태기를 들고 남자 부럽지 않게

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첫째 부녀자들의 옥외 노동이 철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에는 이재민들의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당국의 온정에 감격함을 새삼스럽게 느끼었다. 목적지 횡성읍에 닿기는 오후 6시 경이 었으나 차에서 내리는 즉시로 횡성경찰서에 들리어 대강 이야기를 들어볼 작정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서장 관서에 들리었더니 德久 서장은 찾는 손님이 있어 나가고 없다고 함으로 옆에 있는 경찰서로 들리었더니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 송곡 순사가 친절히 맞이해 주며 그렇지 않아도 오늘아침에 경찰부로부터 전화가 와서 올 줄 알았다며 지원병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등강 부장도 조금 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막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춘천을 떠나기 전에 갑배 고등과장에게 청을 들었더니 편의를 보아주라고 전화로 부탁해 둔 것임을 알았다. 송곡 순사는 서원주제소의 수석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본서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순사한 청년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등강 부장이 들어와서 관계서류를 보여 주며 오늘은 현지에 갈 수가 없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도록 하자고 지도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친절히 알려 주었다. 등강 부장은 등사함으로 인쇄한 공문 한 장을 내놓으며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에 관한 공문이라고 보라고 한다. 내용은 지금까지 000000 이었었는데 정무국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 경무 부

장과 관내 각 경찰 서장에게로 보내는 통첩으로 이번 사건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임을 얼른 알 수가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횡성 지국 서사이봉운 군이 찾아와서 참고할 만한 것만 가지고 동양여관에서 하루 밤을 쉬기로 하였는데 자동차를 이용 하면 21일에도 경성에 도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떠나 걸어서 현지 까지 가기로 결정 한 후 이씨의 주선으로 사진사를 불러 오게 되어 비좁은 방에서 약 네 시간 동안 눈을 부치기로 하였다. (계속)

【춘천지사 김근영 기】

아버지도 애국용
사를 초월한 총렬엔 항당이 감격
불후의 미담을 찾아 횡성으로
(매일신보 1940-05-29 / 3면)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전날 밤에 준비해 두었던 짚신을 꾸러 신고 우리 일행은 현지를 향하여 떠났다. 읍에서 약 10리쯤 나와 큰 영(嶺)이 있는데 마루턱까지 58분이 걸렸으니 아마 25리는 확실한 모양이다. 정상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니 횡성읍이 지척같이 보이며 첩첩이 쌓인 큰 산

숲도 여기서 보기에는 마치 적은 무덤 같이 보이며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서서 동해를 굽어보는 맛을 방불케 한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는 지계꾼의 말이 앞으로 큰 영과 적은 고개를 세 군데나 넘어야 양평으로 빠지는 자동차 길로 나서게 된다 하여 우리 일행을 실망케 하였는데 그는 공근면 학곡리에 산다는 박흥준(朴興俊, 24)이란 젊은 농군으로 서투른 국어를 가끔 써가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여 과히 심심치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말도 들려주었다. 이 고개 밑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백백교(百百教)도 들이었는데 연전에 경찰에서 대 검거를 하였다는 이야기와 교주 전용해 = 그는 교주라고만 했지만 전용해라는 것은 몰랐다 = 가 이곳 산 가운데 숨어 있다 하여 무장 경찰관이 산을 포위 하고 수색한 일이 있었는데 그놈이 기운이 장사라는 바람에 경찰들도 다섯씩 열씩 떼를 지어 다녔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며 무슨 큰 뉴스나 제공하여 주는 것처럼 제법 뽐 내는 꼴이 우스웠다. 그리고 이 부근 산에는 복령(茯苓)이 많이 생산되는데 어찌다가 동이 같이 큰놈만 캐게 되면 대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 아래로 내려 서니 과연 집집마다 마당에 복령을 쓰러 말리는 것이 눈에 띈었다. 아마도 이곳은 약초(藥草)의 산지로 유명한 곳인 모양이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나 목적인 서원면 3리에 닿게 되었는데 이곳은 광해 임자년(光海 壬子年)에 칠봉(七峰)이란 곳에 서원(書院)을 건립하여 현종 계축년(顯宗 癸丑年)에 사액한 후

원운곡, 원관린, 정방재, 한구암 등 4선생을 모신 때부터 서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 이라는데 대원군 섭정시대에 서원만은 폐원해 버렸다는 것이다. 먼저 면장 류병은(柳柄殷) 씨와 당지 소학교장 구미승일(久米昇一) 씨를 찾아보고 온 뜻을 말하니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다만 감격할 뿐이라고 전후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 후 면장이 친히 안내해 주어 이번에 값있는 죽음을 한 이창만(李昌萬)(19)군의 집을 찾게 되었다. 국기 게양대 밑에서 조용히 순사한 고 이원하(故 李元夏) 옹의 애국 미담에 지지 않는 이 군의 순사 사건 지원병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도 있을 것인데 그는 어째서 죽음도 괴로운 줄을 모르고 조용히 자살을 하고 말았을까? 다음에 이군이 자결까지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써서 독자들과 함께 감격을 나누기로 한다. 이 군은 서원면 3리 228번지 이강섭(李康涉, 42)씨의 4남으로 1939년 3월에 서원소학교 3학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게 되자 군은 그 취지를 잘 이해하여 장래 제국의 군인이 되어 일사 보국의 적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후 작년에 지원병을 지망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모자라서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금년에 이르러 겨우 적령에 달하게 됨으로 작년 12월 20일에 당시 주재소에 출두하여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두 번이나 실시한 신체검사에도 당당히 합격되자 그는 크게 기뻐하며 집안 식구와 동무들을 만날 때 마다 이제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도 전형시험에만 합격되면 지원병이 되어 기꺼이 죽음으로서 보국의 정성을 다하겠노라고 날뛰며 최후의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 지난 4월 7일에 시행된 전형시험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유지가 있자 그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군은 그만 한 풀이 죽어서 며칠을 계속하여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부모와 동리 사람들에게 대할 면목이 없다고 애를 쓰고 있다가 죽기 이틀 전에 동리 소학교 6년생(이군이 4학년 졸업 당시의 동창생) 최삼순(19) 류의형(19) 최홍규(19) 군 등을 보고 『나는 버리고 별다른 지원병도 이제는 틀렸다. 나도 남과 같이 돈이 있어서 6학년이나 마치게 되었다면 지원병이 될 수 있으나 4학년 졸업 정도로는 지원병이 될 수 없는 모양이다.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려던 굳은 결심도 이제는 허사가 되었으니 차라리 나는 죽으려 하니 부디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지원병이 되어 나라를 위해 싸워다오』 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 일이 있었고 애석하게도 최후를 마치고 6일 날 밤에는 형의 집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형님들은 같이 공부를 못하였으니 농군으로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등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제 방에 누워 있다가 밤 10시 집안 사람이 곤히 잠든 밤을 타서 슬그머니 나가 부근 산속 소나무에 허리띠로 목을 매어 죽은 것이다. 군이 죽기 전에 유서 같은 것도 써 놓지 않아서 군에게 더 깊은 사정이 있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알 길이

없으나 죽기 전에 동무에게 남긴 말과 집안 식구에게 한 언동으로 보아 각오의 자살이 분명하며 군이 평소에 만고의 충신인 내목대장(乃木大將) 과 남목정정(南木正政) 같이 훌륭한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숭배 하였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보아 충성은 죽음도 초월 한다는 신념이 어린 가슴을 흔들게 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군은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빼 놓는 날이 없었으며 축제일에는 동리 사람보다 먼저 국기를 내걸어 일반에 모범을 보인 일이라든지 또는 동리에서 세워놓은 삼리 동사에는 3년 동안이나 매일 같이 참배를 하여 부락민들을 감탄케 했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복 바쳐 오르는 애국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죽음도 괴로운 줄 모르게 한 것이다. 다만 금년에 합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기회도 있는데 어찌서 자살을 한단 말이냐고 애석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냉정히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첫째 지원병은 6학년 졸업정도를 원칙으로 하되 4학년 졸업생도 채용할 수 있게 마련되었는데 이군은 체격 검사에서도 합격 되었고 다른 시험도 자기 생각에는 자신 있게 보아 합격 할 줄로 알았던 것이 결국 떨어지게 되자 그는 원인이 4학년 졸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잘못 알고 다음해에도 물론 안 되리라고 극도로 실망하게 되어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된 모양이다.

다만 교육 정도가 낮아서 좀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유감이면서

도 애석한 일이지는 하나 군의 교육정도로는 오히려 무리도 아니어서 군의 존귀한 애국의 열정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군의 아버지 이강섭씨에게 감상을 물었더니 『만일 나에게 총과 칼을 주신다면 몸은 비록 늙었을망정 내 자식을 대신해서 전지에 나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하니 힘 있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가 있고서 비로소 그 아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지 소학교의 어린 생도들 까지도 이군이 죽은 다음부터 나도 얼른 커서 지원병이 되어야겠다고 베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의 죽음이 얼마나 값이 있으며 위대한 힘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에 띠고 귀에 들리는 것이 이군을 싸고도는 미담뿐이어서 감격에 싸여 있노라니 류면장이 점심을 해내고 밥을 먹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중간에 큰 영이 또 하나 가로 놓였으나 경성행 자동차를 놓쳐서는 또 하룻밤을 중도에서 묵게 됨으로 거동을 빨리 하여 오후 3시 20분경에 서원주재소 (양평행 가도) 앞 큰길로 나섰다. 주재소 수석은 마침 출장중이고 안재구구 순사만이 주재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차가 오게 되어 경성행 버스에 몸을 싣게 되었다. 아! 존귀한 이군의 이번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이 죽음이야말로 조선 지원병 사상에 길이 빛날 것이니라.(끝)

【춘천지사 김근영 기】

(사진은 이군이 다니던 소학교 교장(우상)과 류 면장(좌 상) 이 군이 참배하던 사당)

지하자원의 표본실
 풍부한 특수광물로 장래에
 대 약진을 예상
 ① 무익의 보고 광업 강원 전모
 (매일신보 1940-06-04 / 3면)

최고는 올진75m* 평균 35m*정도
 강원 각지 우량 집계
 (매일신보 1940-06-04 / 3면)

地下資源의 標本室

臺灣特殊礦物產物大發掘會標本室

◎無盡의 寶庫 鎭業 江原全貌

江原省의 지하자원(地質)은 매우 풍부하며, 특히 철광, 구리광, 아연광, 납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석탄, 석유, 천연가스, 지열, 지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발견된 텅스텐광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희토류 원소인 텅스텐의 주 원료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구리광과 아연광도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어, 광업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하자원의 풍부함을 바탕으로, 정부는 광업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最高는 蔚珍七五耗 平均卅五耗程度

江原各地雨量集計

江原省의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특히 울진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우량은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구	강수량 (mm)
울진	75.0
인제	20.7
양구	25.8
원주	49.8
횡성	44.0
홍천	44.9

※모든 mm

【춘천】 강원도내 일대에 대한 지난 29일부터 대량의 비가 내려 농촌에는 길을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청 상부에 올라온 각지의 보고에 의하면 20일부터 6월1일까지의 내린 비의 양은 울진이 75mm이고 고성 14mm가 최저인데 평균으로 보면 35mm에 달하며 이번 비는 각군마다 고무고루 내리었다 한다. 금년의 누계를 작년에 비한다면 지금까지도 도내에 내린적이 없다 한다. 이번 우량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34.9 ▲인제 20.7 ▲양구 25.8 ...
 ... ▲원주 49.8 ▲ 횡성 44.0 ▲홍천 44.9

.....
 왕좌를 점하는 「○○○」를 일찍부터 ○○하여 통천, 횡성, 강릉, 원주를 비롯하여 ○○에 있는 있는 것이다.
 【춘천지사발】

【*모든 mm】

15세 어린소부가 남편을 독살 미수
 황성에 조흔의 비극

(매일신보 1940-06-11 / 3면)

**十五歲 어린 소부가
 男便을 毒殺未遂**

橫城에 부부의 悲劇

【橫城】黃城嶺 黃城嶺(이하) 15세 어린 소부가 남편을 독살 미수하여 조흔의 비극을 연출하였다. 이 소부는 남편을 독살하려 하여 15일 전 밤 10시경에 죽에다가 양○물을 타서 남편에게 먹였으나 ○○하여 생명에는 별관계가 없이 되었다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고발하게 되어 황성서에서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중이라 한다.

【춘천】 생활은 어려운데다가 나이찬 남편이 무섭다고 남편에게 양○물을 먹이려 죽이려한 15세의 소부가 있다.

황성군 공근면 저곡리 29번지 이○○(21)의 처 ○○○(14)은 점점 심해가는 생활난에도 견디기가 귀찮은데다가 그 위에 날마다 못견디게 구는 남편이 무서워서 그를 죽여 없앨 생각을 하고 지난 2일 밤에 10시경에 죽에다가 양○물을 타서 남편에게 먹였으나 ○○하여 생명에는 별관계가 없이 되었다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고발하게 되어 황성서에서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중이라 한다.

잠견증산을 계획 황성생업보국운동
 (매일신보 1940-06-11 / 3면)

黃南增産을 計畫

橫城生業報國運動

【黃南】黃南(이하) 15세 어린 소부가 남편을 독살 미수하여 조흔의 비극을 연출하였다. 이 소부는 남편을 독살하려 하여 15일 전 밤 10시경에 죽에다가 양○물을 타서 남편에게 먹였으나 ○○하여 생명에는 별관계가 없이 되었다는데 이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고발하게 되어 황성서에서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중이라 한다.

**再生島爲主의
 世島고무誕生**

【황성】 사변이래로 각 ○래○○책과 생업보국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황성군에서는 이번에 1940년도부터 1945년까지에 잠견 1,140관 증산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황성생업보국운동원 일동은 ○○원하여 전년도 양을 능가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년 퇴비 제조량 7억300여만관
강원서 증산에 박차
(매일신보 1940-06-26 /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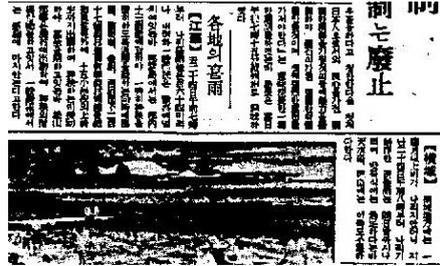


【춘천】「거름〇이 쌀〇이」라는 정신 아래 강원도에서는 퇴비 제조의 증산을 적극 장려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도 매년의 제조성적을 〇〇만 하여 작년 〇〇때에도 7억관이나 넘는 퇴비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도내 농가호수 220,861호에서 퇴비를 제조하는 호수가 211,124호로 1939년 동안에 7억396만2,859관을 제조해 내게 되어 제조농가 1호당 3,324관에 해당했다고 하며 〇〇면적이 35만2,172정보로 1반보에 대해서 200관에 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퇴비의 제조장려는 반당 300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목표에는 달치 못하고 있으니 인제군 같은 곳에서는 반당 286관에 이르는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각군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퇴비량예상	반보당
횡성	29,211,754	198

.....

각지의 희우 횡성
(매일신보 1940-06-28 / 3면)



횡성지방에는 1개월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난24일 오전8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익일까지 내리면서 밭농사에 만족하다는 바 천수답 등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한다.

광목 당목 옥양목 등 6월중 만여필 배급
강원 각군의 분량 결정
(매일신보 1940-06-28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위로 하는 ○○○○조합을 조직하는 동시에 종래○○○과 취인의 실적이 있는 600여 면화점을 소매상으로 지정하여 ○○○포를 농촌에 배급해주시기로 되었다고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6월분으로 10,295포의 구입 ○○○을 집행하여 각군에 보내어 지정 상인들로 하여금 ○○○포를 사다가 갖도록 수배를 마치고 있다 한다. 이번에 할당 배급하는 ○○○포는 광목, 당목, 옥양목 등 7종으로 각군의 인구수에 의하여 할당하였다는 것으로 할당면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6월분 면포 배급 수량

(중략)

▲ 횡성 477필

(중략)

계 10,395필

500 부락에 만여호 갱생 농가 설정 완료
강원농촌의 여명보
(매일신보 1940-07-03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농촌의 갱생을 기도하기 위하여 1933년부터 농가 갱생계획을 수립한 후 갱생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금년도에 시행한 제8차 갱생계획을 도에서 집계 발표한 것에 의하면 490부락에 14,772호를 갱생했다고 한다. 각군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횡성 18부락 464호

.....

강원도 국세조사 실시 앞두고 준비회
(매일신보 1940-07-06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오는 10월1일 오전 ○○ 현재로 국세 조사원이 오기로 되었는데 조사의 ○○○을 원만히 하기위해 소화 15년 국세○○ 오는 8, 9 양일에 ○○○○을 개최하기로 되어 ○○○에는 각 ○○○ 주임이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1일인 8일에는 오전10시40분에 일동이 강원청사에 모인 뒤 회직으로 옮겨서

수급의 원활기코저 강원서 공입회수
각군의 책임량 결정

(매일신보 1940-07-06 / 3면)



【춘천】 1939년 11월1일부터 1940년 10월 말일까지의 ○○ 17관입 120만매, ○용○○입 60만매, 기관용배급 80만매 ○○○○ 25만매, ○○ 18만매를 목표로 생산을 계획해왔는데 지난6월 20일 현재의 생산량을 보면 ○○17관입 60만매, ○용○○매입 18만매, 기관용○○ 18만2,000매, ○○용○○ 10만1,000매 ○○○5만매, ○○2만1,000매에 불과하여 입○의 ○○이 ○○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끝나는데로 …… 회관에서 찬상하기로 되었으며 ○○의 각군별 회○ ○ 책임수량은 다음과 같다.

군별	○○용공입	○○○공입
……		
횡성	6,500	1,177
……		

강원도내 각지의 자동차선 불통
전부 개통까지 상조

(매일신보 1940-07-09 / 3면)



【춘천】 지난1일 이래의 호우로 강원도내의 각면 간 교통은 거의 두절되어 일반의 불편이 막심할 뿐 아니라 그 때문에 통신까지도 거의 끊어져서 각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하여 각 우편국과 우편소에는 우편물이 산같이 쌓여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더욱이 신문 같은 것이 다잇로 들어가지 못하여 일반은 여간 궁급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6일 현재 자동차 교통 상황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바 날만 좋게되면 속속 개통을 하게될 모양이다.

- 6일 정오 현재 자동차 교통상황
1. 불통 노선 ▲홍천-원주간 ▲횡성-○○간 ▲횡성-둔내간 ▲횡성-양평간 ▲횡성-원주간 ……

풍작의 적 '병충해' 철저 구멸을 기도
강원도에서 각군에 보조비 지급
(매일신보 1940-07-13 / 3면)



【춘천】가뭄으로 걱정되는 강원도 일대에는 지난1일부터 각지에 희우가 흡족히 내리어 10일 현재로 약9mm5분의 이앙을 맞추게 되었는데 앞으로 병충해만 없다면 평년작 이상은 무난하다 하며 병충해의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각 군의…… 구입케 하여 2,430원을 보조하기로 되었으며 춘천, 양양, 강릉, 삼척, 울진, 홍천 6개군에 대하여는 이 〇〇〇〇공비로 3,900원을 보조하여……

군별 〇〇〇 개수 보조액
……
횡성 3 5 90
……

도민의 3분의 1 배출 설정자 50만명
강원도에도 창씨열 고조
(매일신보 1940-07-16 / 4면)



【춘천】반도인에게도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2천300만 민중은 감격한 나머지 앞을 다투어가며 씨의 설정을 급히하고 있는 중인데 강원도에서도 씨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서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한다. 즉 이제 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지난2월11일 기원절 날부터 6월말 일까지의 설정 상황을 보면 호수로 179,117호에 가족수가 506,449인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제출하는 사람이 많이 격증되어 가고있는 것은 제출 기간이 앞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과 처음에는 수속 방법을 몰라 주저하다가 요즘에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데 기간이 하루하루 절박감으로 앞으로 더욱 격

증을 보게될 것이라고 하며 6월말일까지
각군별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전도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

군명	호수(호)	가족수
춘천	1,857	12,178
.....		
삼척	10,454	68,095
.....		
원주	5,328	32,764
횡성	4,064	23,695
.....		

18개 자동차선 의연 불통
강원도내 교통망 혼란
(매일신보 1940-07-20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지난번 호우로 도
내의 각군간 교통이 거의 두절되어 불편
이 컸는데 그후 노력한 결과 속속 개통되
고 있으나 18일 현재로 좌기 14개소는 아
직 두절된 채로 있어 교통상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한다.

◇18일 현재 불통구간
..... ▲횡성-○간 ▲횡성-둔내간 ▲○
○-횡성간

양잠농가에 화색
공판 성적은 예상보담 훨씬 감소
수입은 예년 보담 증가
(매일신보 1940-07-24 / 3면)



【춘천】 강원도의 금년 양잠사 공판은 6
월 12일에 시작하여 7월12일에 끝나는데
각군의 실적을 도 공무과에서 집계 발표
한 바에 의하면 공판수량이 221,392○으
로 전년도 실적 327,240○에 비하면
1.79%에 해당하는 5,848○의 감소를 보게
되었다 한다. 그리고 공판가액을 보면 총
액이 2,414,515원에 달해 전년도 실적
1,743,702원에 비해서 38.47%에 해당하는
670,812원의 증가를 보였다는 것으로 수
량은 감소된 반면 금액은 도리어 증가되
었다는 것인데 이는 고치값이 좋았기 때
문으로 양잠농가의 주머니가 두둑해 졌다

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금년 양잠성적이 예전에 비하여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같이 공판 성적이 예상보다 좋은 시출을 하게 된 것은 첫째 …… 금액을 보면 …… 각군별 공판실적과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전년도 공판실적	본년도 공판실적	본년도 공판금액
.....			
횡성	18,792	17,516	206,114
.....			

호우 2천600mm
강원도내 7월 중순 기록적 우량
(매일신보 1940-07-24 / 3면)



【춘천】 7월1일 이후 20일까지 강원도의 호우량은 〇〇〇대에서 집계발표한데 의하면 다음과 같은 바 춘천군은 21일 현재

1,015.6mm 이어서 전년 655.5에 비하여 약 배에 해당하며 평년 총 1,120.1mm와도 같아서 기록적 폭우였는데 도 전체로 본 평균 호우 〇〇계는 563.8mm라고 한다.

군명	7월10일 현재 계	7월20일 현재 계	7월1일 부터 누계
.....			
횡성	464.4	244.0	707.4
.....			

강원도내 각군수 전부 창씨를 완료
(매일신보 1940-07-31 / 3면)



【춘천】 기일이 절박해 감에 따라 강원도민의 창씨열은 날로 급해가고 있는데 도내 각군수들도 민중에 솔선하여 속속 창씨를 하게되어 반도인 군수 19명은 다음과 같이 창씨 혹은 개명의 수속을 전부 마치었다.

주재군 창씨신명 구 성명

.....

▲ 횡성 평천〇유 횡항근

.....

납세보국에 강원도내 제1기분
징수 성적 13만4천백여원 9할8분
(매일신보 1940-07-31 / 3면)



춘잠뒤에 추잠 금년 소립 5만7천장
강원도 각군에 1, 2회분 배포 완료
(매일신보 1940-07-31 / 3면)



【춘천】 강원도의 1940년도 납세 1기분 징수성적을 보면 지난20일 현재로 징수에 정 135,410원60전에서 수입된 것이 134,157원90전으로 미수된 것은 1,261원 61전에 불과해 9할9분에 달하였다는데 전년 동기 9할8분에 비하면 성적이 조금 좋다고 한다. 이는 도민들이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여 납세 징수에 유감 없기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예정총액	수입총액	미수입액
춘천	10,469.92	9,788.45	681.61
.....			
원주	15,609.54	15,609.54	-
횡성	4,477.79	4,477.79	-
홍천	4,512.47	4,512.47	-
.....			

【춘천】 양잠농가의 공판을 끝낸 강원도에서는 벌써부터 을 마치고있는데 금년 을 보면 56,167매로 전년 동기의 49,943매에 비하면 6,924매(1할5푼9리)의 증가이라 한다. 본년도 목표 매수는 〇〇5개년에 있어서 최고 수립 기록의 일〇 증가한 것인데 지난27일 벌써 목표 매수에 가까운 51,980매에 달하였다 하며 〇〇〇〇은 8월 8일에 북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2회에 나누어 1회분으로 49,917매 제2회분으로 6,980매를 배포하여 16일 까지 마칠 것이라 한다. 각군별 총 수매량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전년총〇〇	본년도 목표매	본년도 증가매수
.....			
횡성	4,116	4,152	42
.....			

**영예를 쌓건에 강원도 지원병 112명
명일 O동역 집합 일로 훈련소로**
(매일신보 1940-08-02 / 3면)



【춘천】 1940년도 육군 지원병 훈련소 제 1기중대는 8월 2일에 입소하기로 되어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제1기생 115명 중에서 병, 기타의 사고로 3명이 빠지게 되어 다음 112명이 입소하기로 되었다 한다.

**문맹 퇴치의 이 실적
강원도내의 농촌야학 수강자
남녀 만6천명을 돌파**
(매일신보 1940-08-04 / 3면)



【춘천】 「이는 것이 힘 -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강원도에서는 농촌 야학을 적극 실시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달 동안 적당한 시기를 골라 성적을 조사해 보면 심사부락이 921부락에 수강자가 16,455명 여자 5,209명으로 도합 21,764명에 달한다고 한다. 배움에 굶주린 농촌 남녀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비하적 대명사를 벗어나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가며 열심히 수강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계부에 기입을 할 정도로 눈을 뜬 사람이 남자 12,834명 여자 3,318명 계 16,152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 갱생농가의 호주자는 〇〇만도 13,788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강자 중에는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7,297명으로 총수강자의 약 반수를 점령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겨우 7살된 어린 소년이 있나 하면 72세나 된 노인도 섞이어 「가지가지」를 외우는 등 한자라도 배우려는 〇〇〇에는 실로 감격할 지경이라고 한다. 각군별 개최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군명	야학 부락수	수강원수	기록 가능자수
.....			
횡성	56	1,281	962
.....			

드러난 각지 창씨의 총결산
강원에 17만호 총 호수의 6할6분
(매일신보 1940-08-13 / 3면)

씨 설정계출수(7월말일 현재)

군명	호수	가족수
.....		
원주	11,200	59,800
횡성	9,202	49,947
홍천	7,318	40,744
.....		

강원도지사 횡성을 시찰
(매일신보 1940-09-08 / 3면)

【춘천】 감격의 〇〇가운데 계속 되는 반도의 창씨는 만 번 개년한 뒤 지난 10일 로써 드디어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7월 말일까지 강원도의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계출호수가 16만9,388호에 가족수가 1,054,882명에 달해 14일 현재 조사에 의한 반도인 총인구수 1,597,597인데 비해서 6할6부에 해당하게 되었다. 8일 이후의 실적은 각군의 보고가 없어서 알수 없으나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계출하게 된 모양으로 8할 이상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호적상 〇〇 관계 등으로 금후에도 계출 수속을 하게될 모양이다.

【횡성】 伊洞강원도지사는 로 지난 27일 오후2시 경에 횡성에 와서 공근면, 횡성면에 갱생부락을 시찰하고 원주 영월을 거쳐 다시 27일 오후10시 경에 안흥면과 〇〇〇을 시찰한 다음 〇〇〇을 거쳐 일찍 춘천으로 향했다고 한다.

강원도 목탄 반출 계획
 도외로 206만2천관
 (매일신보 1940-10-05 / 3면)

江原道木炭搬出計畫

道外로 二百六萬二千貫

原州邑市 計畫

구분	종류	수량	단가	합계
원주	1급	100,000	100	10,000,000
	2급	50,000	80	4,000,000
	3급	30,000	60	1,800,000
	4급	20,000	40	800,000
	5급	10,000	20	200,000
	6급	5,000	10	500,000
	7급	3,000	6	180,000
	8급	2,000	4	800,000
	9급	1,000	2	200,000
	10급	500	1	50,000
횡성	1급	80,000	80	6,400,000
	2급	40,000	60	2,400,000
	3급	25,000	40	1,000,000
	4급	15,000	20	300,000
	5급	10,000	10	100,000
	6급	5,000	5	250,000
	7급	3,000	3	900,000
	8급	2,000	2	400,000
	9급	1,000	1	100,000
	10급	500	0.5	250,000
홍천	1급	120,000	120	14,400,000
	2급	60,000	80	4,800,000
	3급	40,000	60	2,400,000
	4급	25,000	40	1,000,000
	5급	15,000	20	300,000
	6급	10,000	10	100,000
	7급	5,000	5	250,000
	8급	3,000	3	900,000
	9급	2,000	2	400,000
	10급	1,000	1	100,000

강원도 대마 공판 400만근 돌파 예상
 (매일신보 1940-10-09 / 3면)

江原道大麻共販

四百萬斤突破豫想

新體

강원도 대마 공판 400만근 돌파 예상 (매일신보 1940-10-09 / 3면)

강원도 대마 공판 400만근 돌파 예상 (매일신보 1940-10-09 / 3면)

강원도 대마 공판 400만근 돌파 예상 (매일신보 1940-10-09 / 3면)

【춘천】 전국 적제 일○○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도내의 대마공출은 전년보다 성적이 좋아서 지난 4일 대마 공출한 것이 4,584,709근에 달하였는데 ……

◇대마출회성적(10월4일 현재)

군명	출회
원주	○○○○○
횡성	8,717
홍천	50

강원도 목탄 반출 계획

군명	예상액	계
원주	97	97
횡성	68	68
홍천	180	230

강원도 면화공판
10일부터 남부 각지에서 개시
(매일신보 1940년 10월 12일 / 3면)

江原道棉花共販

十日 南部各郡에서開始

1. 춘천군 100만근 (중략) 2. 원주군 30만근 3. 횡성군 100만근 (중략)	4. 홍천군 100만근 (중략)
---	-------------------

(사진은 ○○을 바빠하는 춘천부녀들)

소의 가격만 가지고 보더라도 1등 25전1리, 2등 23전2리, 3등 19전, 4등 15전6리, 5등 11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져서 그만큼 농가수입이 훨씬 좋아졌다 한다. 그리고 각 면사공장의 1등 실적과 면의 자정당 가격을 조사해보면 이상과 같으며 공판 매○군 16개군이 공판 배정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100만근 (중략) ▲원주 30만근 ▲
 횡성 100만근 ▲홍천 100만근 ▲ (중략)
 (사진은 ○○을 바빠하는 춘천부녀들)

강원도미 수확 예상 93만4천여석
(매일신보 1940-10-12 / 3면)

【춘천】 강원도의 금년 면화공판 개시는 지난10일 남부 각군서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 외 15개 군에서 실시하기로 되어있는데 공판 출하 목표는 820만근이나 금년의 면작은 흉작을 면치 못하여 계획보다 훨씬 줄어서 800만근 이내로 떨어지리라 보는 만치 생산면적 전부를 공판에 붙인대로 목표 수량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판 면화를 전부 조선방직주식회사에서 사가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종내에는 5등급에 의하여 판매하던 것을 금년에는 4등급에 의하여 판매하기로 되었으며 더욱이 판매소의 매○ 공정 가격을 도지사가 지정하기로 되어 춘천판매

江原道米收穫豫想

九十二萬四千餘石

仁川府의 出張

1. 춘천군 100만근 (중략) 2. 원주군 30만근 3. 횡성군 100만근 (중략)	4. 홍천군 100만근 (중략)
---	-------------------

【춘천】 금년 강원도의 도작은 용수가 풍부하여 ○○, 이앙이 모두 순조는 됐으나 세 번이나 거듭된 수해와 수확기에 풍○ 피해가 있어서 결실이 좋지 못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 보게 되었다. 즉 수도
는 작부반〇 860,391반보에 수확예정량이
923,617석이요, 육도는 작부반〇 1,328반
보에 수확예정고가 1,047석이라는데 제1회
각군별 판매 〇〇〇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년 제1회 미곡수확고

군명 수도〇〇 수도 육도〇〇 육도수확고
(석) 수확고(석) (반) (석)

……

횡성 49,146 65,492 9 6

……

강원도 잠업 품평회

(매일신보 1940-10-20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잠업 품평
회를 좌기 일정에 의하여 도내를 북부,
남부, 영동 3개로 나누어서 순회하기로
하였는데 주로 …… 에 대해서 품평회 하
기로 하였다.

1. 품평일정

북부

월일 출발 도착

10.21 춘천 인제

……

남부

10.25 횡성 홍천

……

우돈육 판매 가격 강원도 각군별로 지정 (매일신보 1940-10-20 / 3면)

【춘천】 강원도에서는 우육과 돈육의 판
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12일부
터 실시하였는데 돈육가격은 종전보다 훨
씬 인상되었으며, 〇〇 까지도 모조리 가
격을 지정해버렸다. 그리고 〇육〇〇의
인상에 따라 금후는 〇〇〇〇 돈육을 〇

○○지 없도록 해서 일반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인데 그래도 돼지를 잡지 않는 경우에는 돈의 ○○○○를 일체 금지 하여 ○○할 터이라 한다.

1. 우육 판매가격

군명 단위 상육 중육 하육 ○○ ○○ (전)

○○ ○○

(중략)

황성 1근 73 42 30 20 20

(중략)

황성군민체육제전

(매일신보 1940-10-20 / 3면)

城 横	
主 催 横 城 郡 民 體 育 會 發 行 日 新 報 社 横 城 支 局	郡 民 體 育 祭 典
時 間 日 二 十 七 日 午 前 十 時	場 所 日 松 原 運 動 場
對 峙 各 面 對 峙	

황성군민체육제전
 일시 : 27일 오전10시
 장소 : 황성운동장
 단위 : 각면 대항
 주최 : 황성군체육협회
 후원 : 매일신보사 황성지국

황성군민 체육대회

(매일신보 1940-11-02 / 3면)



【황성】 황성군체육회 주최 본사, 경일 양 지국의 후원하에 「체육제전」 황성군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예정대로 지난 27일 오전10시 각면 참가한 ○○ 400○○들이 황성경기장에 모여 ○○○하바 공근, 둔내, 우천, 황성, 청일, 갑천 선수가 백열적 대접전을 ○○한끝에 공근면이 ○○을 모조리 ○○한 총득점 59점을 획득하여 영예로운 경일사장배를 차지하고 각단체 ○대에는 황성○○이 우승하여 본사 사장배를 차지하고 각○○○○주에는 황성○○이 우승하여 우승기를 차지하였는데 당일 득점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공근 59점 2. 황성 55점 3. 우천, 청일 42점 4. 갑천 41점 5. 둔내 34점 6. 안흥, 서원 0점(사진은 입장식 광경)

횡성, 김화군 聯盟 총회
(매일신보 1940-11-30 / 3면)



【횡성】 국민총력총연맹 횡성군지부는 금년총회를 ○○○하에 지난 23일 오후1시 횡성군 8개면내 각○○장과 청년대, ○○○, ○○○, ○○부인회, ○○○, ○○○, ○○○들이 ○○하여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 하였다 한다.

자원 애호 사상 고취
각지 방화일 행사 성대
(매일신보 1940-12-05 / 3면)



【횡성】 1일 횡성○○에서 …… 조합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방화를 맞이하여 횡성 ……

강원도 묘대 품평회 성적
(매일신보 1941-01-08 / 3면)



【강원지사발】 ○○○을 목표로

적기 이앙 독려 강원도 간부 총출동
(매일신보 1941-01-08 / 3면)



【강원지사발】 관하 …… 을 보면 다음과 같다.

……

▲9일 ○○-홍천-횡성-강릉

……

검거만 1천700여건
강원도내의 작년 중 경제사범
(매일신보 1941-01-18 / 3면)



【춘천】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개년간 강원도내의 경제 ○○법령의 위반 건수를 보면 ○○ 1,711건에 인원이 2,410명이고 ○시 2,629건에 인원이 3,675명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

면화공판실적 불량
(매일신보 1941-01-18 / 3면)



군별	배정수량(천근)	출하수량(천근)
춘천	640	78,757
횡성	700	206,700

【춘천】 강원도의 면화공판 실적을 보면 지난 12월 말일 ○○ 출하물량이 겨우 125만근에 불과하여 예년에 없는 부진 ○○에 까지 …… 550만근에 비한다면 24.5%에 해당되는 불량한 성적이다. 이같이 출하가 부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면작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금월말까지 공판을 매지할 터이므로 그 안이라도 있는데도 출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각군에서는 …… 으로 출하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각군별 공판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면화공판실적(12월 말일 현재)

군별	배정수량(천근)	출하수량(천근)
춘천	640	78,757
횡성	700	206,700

내선일체는 피의 결합에서
강원도서 3쌍부부를 표창
(매일신보 1941-01-26 / 3면)



【춘천】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는 내선일체를 속히 구현시키자면 뭐니뭐니해도 내선인 간의 결혼을 장려해야만 된다는 견지에서 작년 중 내선인 간에 결혼한 자를 조사하여 표창하기로 되었다 함은 기보하였거니와 강원도에서도 국민총력 연맹에서 해당자를 조사한 결과 다음 세상의 부부를 표창하기로 되었다 한다.

◇표창결정자

(중략)

황성군 청일면 ○동리부=山本○—(산구현출생)(48)

(중략)

강원도 만명을 돌파
5일 현재의 지원병 응모자수
(매일신보 1941-02-08 / 3면)



【춘천】 강원도내의 지원병 지원자는 지난 5일 현재로 드디어 만명을 돌파하고 말았다. 즉 춘천의 827명을 최고로 1,208명에 달해 그 중에는 중등학교 졸업자가 33명이나 되며 혈서로 채용을 탄원한 청년도 27명이나 된다고 한다. 각군의 지원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 827명 ▲인제 243 ▲양구 319
……▲통천 412 ▲강릉 486 ▲삼척 583 …… ▲원주 794 ▲횡성 417 ▲홍천 625 ……

대두, 속 판매가격 강원도 10일부터 실시
(매일신보 1941-04-18 / 3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대두와 속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획정하여 4월 10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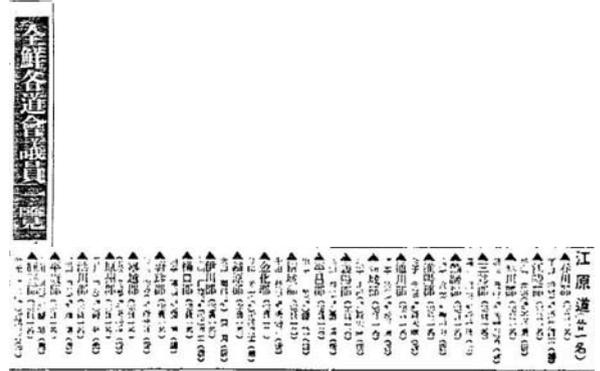
◇대두의 판매가격
(소매 〇〇〇〇은 두당 〇〇이고, 기타는 〇〇가격으로 함)

읍면명	소매판매 가격	도매판매 가격	생산자판매 가격(원)
.....			
횡성	3.00	40.00	27.59
.....			

◇속의 판매가격

.....			
횡성	3.15	15.91	12.94
.....			

全鮮 각도회 의원 일람
(매일신보 1941-05-13 / 3면)



- ▲평창군 (정원1명) 산본〇(41) 의사(유)
- ▲횡성군 (정원1명) 평〇〇〇(46) 목재상(신)
- ▲김화군 (정원1명) 금산광일(44) 사법서사(구)

목표액 53만원 횡성군 각 면에 배정
(매일신보 1941-05-23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총후보국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저축 목표액 53만원을 다음과 같이 각면

에 배정하였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일반은 소비 절약에 주력하여 이 목표 달성에 한층 노력하기 바란다고 한다.

횡성면 132,900원 우천 34,400
 안흥 77,000 둔내 80,400
 갑천 65,100 청일 54,200
 공근 58,600 서원 27,400
 계 530,000원

(중략)

◇애국일 지도 ○○○○○
 군명 ○명 씨명 출장기간
 횡성군 ○○○ ○○○ 5월29일부터 6월2
 일까지 4일간

도연맹계원 총출동 애국일상회 지도
 180만 도민의 '총립' 촉진
 (매일신보 1941-05-23 / 3면)

도작 개선 강습회

(매일신보 1941-05-23 / 3면)



강원도의 ○○총력연맹은 180만 도민의 총립촉진으로 ○○○○한 여○를 보이고 있는데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욱이 연맹의 활동적인 애국 일상사와 ○산 ○○에 ○○한 ○대의 ○○인 ○○○○ 층○○를 ○○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도 연맹원 총출동 지도를 각군에 출장 일촉지도를 하기로 되었다.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방시국은 180만 도민의 ○립○○으로 ○○○○한 ○○를 보이고 있는데 ○○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욱이 총○의 ○○○인 (중략) 다음과 같다.

지도사항과 지도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애국일상회의 ○○사항

◇애국일 상회의 ○○사항

1. 시간의 ○행

개막시간을 엄수할 것(오후6시30분)

2. 개최의 ○서와 추진 ○○을 바르게 할 것.

3. 출축

4. 각자의 통지문은 (……)

◇애국일상회지도 일정, 강사표

군명 직명 씨명 출장기간

춘천군 이사 ○○○ 6월1일부터 6월2일까지 2일간

인제군 ○사 출전춘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

횡성군 부○사 상암총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

부인 추진대원

(매일신보 1941-06-20 / 3면)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지난번 조선 …… 14명의 지방부인 ○○○○ 16일부로 국민총력추진대원에 각각 임명하였다.

◇임명된 대원

금일○가대원

…… ▲○○田子(횡성) ……

횡성 읍진 부인 이양 경진회

(매일신보 1941-06-20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 14일 오전10시부터 횡성을 읍하리 ……에서 ○○○, ○○○○, 각면에서 원활히 부인○○○의 …… 한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 청일면 ○○생 金○○○

2등 청일면 ○○○ 林今○

3등 갑천면 ○○○리 金○○○

3등 안흥면 안흥리 金○○○

3등 횡성면 ○곡리 金本○○

3등 ○○면 ○○리 金○○

세나는 강원도 목탄 76만표를 도외로 반출계획

(매일신보 1941-07-31 / 3면)



횡성수조 준공 등 강원도 토개사업 대진보

(매일신보 1941-07-31 / 3면)



【강원지사발】 도내는 물론 내지에서까지 대환영을 받고 있는 강원도목탄은 날로 수요가 높아가고 있는 바 강원도에서는 개량탄 증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 각군별 ……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탄정 …… 계획

각군	총산출	도내반출량	도외반출량
춘천	241,000	89,000	152,000
인제	65,000	34,000	31,000
양구	105,000	15,000	90,000
……			
원주	76,000	50,000	26,000
횡성	31,000	15,000	16,000
홍천	100,000	38,000	62,000
……			
총계	1,521,000	761,000	760,000

【강원지사발】 전시하 자원의 ○계는 횡성의 중대문제인만치 내외 우○○이 모두 이의 ○체 ○○○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에서는 생산 ○○○의 …… 시공중에 있는 개량 ○○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수리조합

횡성군 횡성수리조합

1941년도 읍면 유입야 시업 계획 실적
(매일신보 1941-09-27 / 3면)

面別	野遊 實績	備註
橫城	1,200	
...

【강원지사】 도내에 있는 사면 유장위의 총면적은 대략 16만 〇〇데 그 중 60〇는 입목〇이고 기타는 〇〇〇와 목립목구로서 〇〇〇에 〇〇〇분도 적지 않음으로 도에서는

횡성면 체육 단련회
(매일신보 1941-10-10 / 3면)



【횡성】 횡성군체육협회에서는 지난 5일 오전10시부터 횡성면민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횡성에 개로전 관민일체로 전개
(매일신보 1941-10-14 / 3면)



【횡성】 횡성군에서는 지난6일에 32인의 〇〇으로 제하에 근로정신을 인식하고 국민을 맹세하고 제일선에서 지도하여 개로전을 시작하여 〇〇〇중

인데 ○○○○은 종일을 ○○○○도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하여 ○○에 ○중이며 작○한 ○○○은 ○○○○을 하기로 하였다는 바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

황성	13,111	69,773
홍천	13,104	71,169
.....		
계	129,152	678,545

잠건 공출 성적부진
주요 원인은 자가 소비의 증가
 (매일신보 1941-10-22 / 3면)

입 320만매, 승 190만관 등
내년도 생산 목표 결정
증산위원회 설치 속락 통제키로
 (매일신보 1941-11-02 / 3면)



【강원지사】 강원도의 금년도 잠건 공출 성적을 보면 12만9,152관으로 공판금액에 있어서는 67만8,545원에 달하였는데 이같이 공판이 불○한 것은 자가 소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하는바 끝으로 ○○○○이 공판 실적을 각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군명	공판수량(관)	공판금액(원)
춘천	10,069관	54,166원
인제	10,037	53,072
.....		
원주	8,773	47,799



【강원지사】 시국하 ○○의 ○영은 물론 수 ... 강원도에서는 가마니와 새끼줄 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각군별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입(매)	○(매)	승(매)
춘천	180,000	4,000	14,000

(중략)

원주 251,000 - 51,000
 횡성 300,000 - 52,000

도전형 신체검사 16일부터
 내월 2일까지 실시
 (매일신보 1941-11-12 / 3면)

납세공로자 55명
 경성세무감독국서 표창
 (매일신보 1941-11-02 / 3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 위 6명에 달하였다 하는 것은 전보도와 같거나와 도에서는 도내는 4만으로 나누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까지에 도전형 신체검사를 각군에 ○○하기로 되었으며 (중략)
 ◇도전형 신체검사 일정
 제3반
 횡성 11월 27일

경성세무감독국에서는 …… 표창하기로 되었다 한다.

◇강원도

……

▲횡성군 우천면 ……

**총수 2만명 돌파 적격자만 9,200여명
강원청년의 의기를 십분 발휘
(매일신보 1941-11-12 / 3면)**

**總數一萬名突破
適格者만九千二百餘名**
江原道의 靑年力調査結果

원주	1,002	678	10	-
횡성	714	475	2	1
홍천	922	586	-	2
계	20,116	9,279	94	17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 은 드디어 10일로써 2만명을 돌파하였는데 …… 합격자가 많기로는 통천의 798명이 최대이다.

◇10일 현재 지원자수

군별	지원자	합격자	중등	고등
총수	수	수	수	수

(중략)

원주	1,002	678	10	-
횡성	714	475	2	1
홍천	922	586	-	2
계	20,116	9,279	94	17

**놀고먹는 유한남녀 농촌에만 1만8천여
강원도의 부유노력 조사 보고
(매일신보 1941-11-16 / 7면)**

**놀고먹는 有閑男女
農村에만一萬八千餘**
江原道의 勞務力調査結果

百歲上壽祝願
奉川郡敬光會盛大

【강원지사발】 「놀고먹는 자는 ○○이 아닙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운동을 힘차게 부르짖고 있는 이때 강원도에서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좌와같이 ○○로서 ○○○○에 등 일을 시키고자 농촌에 흩어져있는 소위 ○○이장을 일제 조사하기로 되었다.

(중략)

조사에 드러난 각군별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유노력○○○

군별	호수	인구	남	녀	계
----	----	----	---	---	---

(중략)

횡성	7,864	23,984	78	202	280
----	-------	--------	----	-----	-----

(중략)

군마다 국민대회
일·지 조약체결 1주년 기념으로
(매일신보 1941-11-20 / 7면)



- ▲강릉=.....
- ▲철원=.....

채권 예약 개시
연말 상여지급기 앞두고
(매일신보 1941-11-25 / 3면)



【강원지사발】 오는 11월 30일은 일·지 조약체결과
◇○○○○○일정
▲횡성군 11월 25일

신사작법 강습회
(매일신보 1941-11-20 / 3면)



【강원지사발】 제25회 ○○○과 ○○○을 오는 12월1일부터 同 30일까지 도내 ○○○과 (중략) 에서는 예약○○을 맡는 등 유감없기를 기하기로 되었다 한다.
군별 ○○○분(원) ○○○분(원)
(중략)

원주	6,790	5,320
횡성	4,595	3,570
홍천	5,095	3,990

(중략)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각군의 ○○○일정과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12월5일부터
▲원주=12월4일부터, ○○○○,
참가군명 평창, 영월, 원주, 횡성,
○○

부진하는 면공판 강원도민의 분기촉진
(매일신보 1941-12-06 / 3면)

초수봉납 명년은 양구군서
(매일신보 1941-12-13 / 3면)

不振하는棉共販

江原道民의奮起促進

이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지사발】도에서는 (중략)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달성을 돌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여 각군에서는 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각군별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1년도 목표비 실적현황

군명 목표(근) 실적(근) 할합(%)

.....

횡성 134 15.9

初穂奉納

明年各機關郡署

이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면공판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이를 부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면공판의 부진함을 단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기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황기 는 대부분이 5개소, 〇〇는 대부분이 1개소이다. 그리고 1942년 이후 매년 차순에 따른 각군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군명

(중략)

1954년도 횡성 5 1

(중략)

파종용 면화 종자 보관에 노력하라
강원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
(매일신보 1941-12-24 / 3면)

播種用棉花種子 保管에 노력하라

江原道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播種用棉花種子의 品質을 保正할 爲한 爲수 採取에 注意하라	2. 播種用棉花種子의 貯藏에 注意하라	3.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4.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5.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6.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7.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8.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9.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10.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11.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12. 播種用棉花種子의 播種에 注意하라

환지하는 현금과 헌품
(매일신보 1942-01-07 / 3면)

還幸하는 現金과 獻品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도 산하에 주의사항 통첩을 발령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還幸하는 現金과 獻品의 總額은 1,200원이다.

○ 還幸하는 現金과 獻品의 總額은 1,200원이다.

○ 還幸하는 現金과 獻品의 總額은 1,200원이다.

【횡성】 대동아전쟁 횡성군민의 ○○과 ○○○은 실로 고조 되고 있는바 지난 12월 30일까지 ○횡성군에 접수된 현금과 헌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횡성군=.....

【강원지사발】 전시체제하 본부의 부족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1941년도 면작소 배정 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횡성 1,200
-

면화 공판 기일 2월말까지 연기
(매일신보 1942-01-11 / 3면)

면화공판기일 연기		면화공판기일 연기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면화공판은 지난 12월 말 현재로 겨우 11만근이 출하되었을 뿐으로 목표량 30만근에 비하여 3할 6분에 미달하는 불량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〇〇의 간고의 불〇하는 내막을 살펴보면 작황이 불량했던 〇〇가 〇〇운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전시체제하 〇〇의 우려의 〇〇이므로 〇〇〇에서는 공판 마감기일인 1월 말일을 2월 말일로 연기하여 일〇공〇〇〇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 면화 총하에 주력하기로 되었다. 12월 말 현재 각군별 출하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배정수량	12월말	현재	출하량
(중략)	황성	200,000	111,468

과학교육강습회 강원도를 5구로 분할, 순회 개강
(매일신보 1942-02-08 / 3면)

科學教育講習會		科學教育講習會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강원지사발】 도에서는 …… 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을 〇〇시키고자 도내를 5구로 분하여 과학교육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학습지는 〇〇 235명이고 …… 철원중학교 〇구교장이 맡기로 되었는데 군별 일정과 시간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2구 2월26일 27일 황성군

청년훈련소 교육연구회
춘천 등 5개소에서 개최
(매일신보 1942-02-08 / 3면)

青年訓練所教育研究會		青年訓練所教育研究會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일 장소 출석군
2월 6일 원주 횡성 홍천 영월

각계 공로자 표창 경기, 강원서 기원가 절에
(매일신보 1942-02-11 / 3면)



【강원】 도에서는 11일 기원절의 ○○을 복하여 ○○○력진홍공로자를 비롯해서 ○○교육, 저축○○ 등 각종 공로자의 표창식을 거행하는데 노○의 표창을 받는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총력 우량연맹 공로○○○○
- ▲국민총력○○○○(횡성군 갑천면 ○○車)

영예의 지원병 강원서 417명 추천
(매일신보 1942-02-11 / 3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본부* 제1차 지원병자 2만16명중에서 분도의 ○○을 행한 이래 417명을 ○○○○하기로 되었다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지원출신을 각군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횡성지원병=강원○○○ ○광재구 이평○ ○○○전수 ○본갑○○○남 근춘○교 ○본영구 금춘인섭 ○산○○ 금산○○ ○○○금산○○ ○본○식 금○○○ 성천 ○○○천열 ○영호 안백○○ 백천○○

【*본부는 조선총독부】

확하였는데 신년도에는 도내 (중략) 4회
 ○○하기로 하여 ○○○○ 50만원을 계획
 하였다.

군별 도내…… 도외 ……
 횡성 - 500,000
 홍천 - 1,500,000

대마 증산에 박차 채종전을 새로 설치
 (매일신보 1942-03-27 / 3면)

項目	金額	項目	金額
1. 抽水機	10,000	10. 雜費	5,000
2. 抽水機	10,000	11. 抽水機	10,000
3. 抽水機	10,000	12. 抽水機	10,000
4. 抽水機	10,000	13. 抽水機	10,000
5. 抽水機	10,000	14. 抽水機	10,000
6. 抽水機	10,000	15. 抽水機	10,000
7. 抽水機	10,000	16. 抽水機	10,000
8. 抽水機	10,000	17. 抽水機	10,000
9. 抽水機	10,000	18. 抽水機	10,000
合計	170,400	合計	170,400

【강원지사발】 대마의 ○○로 유명한 강
 원도에서는 ○○○○에 순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제1차 채종전을 설치하여 우
 량종자를 보급하는 동시에 (중략) 금년에
 는 다음 각군별 ○○과 같이 1,704,040관
 을 증산하기로 되었다.

◇1942년도 대마 생산량
 군별 작부면적 ○○○○ 수매
 ……
 횡성 210 51 67,100관
 ……

8개군에 군사학 전시교육의 철저를
 기하고자
 (매일신보 1942-04-02 / 3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일의
 참상과 ○○의 ○○을 기하고자 교원의
 교양훈련에 주의함과 동시에 교육전반에
 걸쳐 ○○의 열서를 기하고자 새로이
 …… 을 착상하게 되었다. 즉 춘천을 중
 심으로 한 인접 각 군만은 도 학무과의
 시학이 담당하고 나머지 군에 대하여는 2
 개군에 …… 4월 1일부터 우선 강릉 삼척
 고성 철원 김화 횡성 원주 평창 8개군에
 배치를 마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군에
 배치된 군사학은 원래 각 학교를 순시하
 는 외에 (중략)

**우량 애국반원 21명
강원도연맹에서 표창**
(매일신보 1942-04-03 / 3면)



【강원지사발】 도연맹에서는 생산자 중에 ○○bacher 우량 실적을 드러낸 애국반원을 표창하기로 되어 3일 …… 하에 각군에서 표창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영예의 표창을 받는 사람은 다음 21명이다.

- ◇○○○○
- ▲○○○○(횡성)

**저축 장려 공로자와
모범 저축 조합 표창**
(매일신보 1942-04-03 / 3면)



【강원지사발】 …… 서는 국민저축○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도내 각 금융조합의 저축장려 ○○○와 …… 각조합에서 개최하게 되는 ○○도대회에서 감사표창 전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 ◇저축장려공로자(괄호내는 저축조합명)
- ▲○○○○(횡성)
- ◇모범저축조합
- ……

**부락 임지 연구회
철원 양양 양처서
개최 예정**
(매일신보 1942-04-09 / 3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농촌지도력의 만전을 기하고자 오는 6월 중순 철원과 양양 2개소에서 도부락임지연구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즉 농촌 재편성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략) 금후 지도상의 좋은 방침이 되게 하리라는데 개최 장소와 집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원=철원 평강 이천 인제 김화 화천 양구 춘천 흥천 횡성 원주 영월 12개군의 관계자 ▲양양=양양 통천 고성 강릉 삼척 울진 인제 평창 정선 9개군의 관계자

적성의 헌금

(매일신보 1942-04-23 / 4면)



○○잠 사육 권장 전국민학교 아동에게 (매일신보 1942-04-23 / 4면)

구분	군명	인원	사육량
○○잠	철원	1,000	240
	평강	1,000	240
	이천	1,000	240
	인제	1,000	240
	김화	1,000	240
	화천	1,000	240
	양구	1,000	240
	춘천	1,000	240
	흥천	1,000	240
	횡성	1,000	240
	원주	1,000	240
	영월	1,000	240
합계	12,000	2,880	

【횡성】 횡성군 ○○ 辛元○○씨는 그의 자친 辛元여사의 환갑이 4월 17일인바 장기의 대도상을 수급하고 전일의 모든 ○○○을 ○○하여서 24원을 ○○성금으로 보내달라고 지난18일 오전 횡성세무서에 기탁하였다한다.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 의 증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 을 적극 장려하기로 되었다. ○○은 2, 3년 전부터 시험적으로 사육해왔는데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함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장려하기로 된 것인바 올해는 1만농가 1만 9,600g, 각 초등학교에 5천400g 합계 2만 5,000g의 ○○잠을 배급하여 (중략) 아동들의 근로작업에 의하여 사육케 하리라는 바 1석3조의 ○○○두게 되리라 하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횡성남국민학교 후원회 정기총회 (매일신보 1942-04-23 / 4면)



◇각군 ……
 군명 …… …… ……
 횡성 1,000 240 1,240

【횡성】 횡성남국민학교 후원회에서는 지난19일 오전10시부터 동교장실에서 제5회 정기 후원회를 개최하였다.

오전중에는 역○○○있고, 오후1시반부터는 총부형 500여명 참석하에 1941년도 결산 승인안을 들고 1942년도의 예산수지안을 ○○결의하였다.

강릉이재민에 횡성서 동정금
(매일신보 1942-04-28 / 4면)



【횡성】 이번 강릉군 ○○에 일어난 불측한 화재에 대하여 횡성면민들이 상부상조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동정금 70원을 가지고 ○○○○원과 申村○○ 공○ 양씨가 면민을 대표로 이재민을 방문하고 지난 22일 오전 동○자동차로 강릉으로 향하였다.

영예의 치안전사 강원도에서 표창식
(매일신보 1942-05-01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29일 당일 오전10시부터 도회의실에서 민간측공로자와 ○○공로자, ○○○가족의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영예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민간공로자 표창
- ◇○○공로자표창 20년이상만근자
- ▲中野○(횡성)
- ◇가족표창자

군국부인의 단결
 각지 대일본부인회 결성
 (매일신보 1942-06-12 / 4면)



【황성】 황국○○의 ○○를 지키고 수신
 제가하여 국가에 봉공함으로써 고도○○
 로 ○○○수립하기 위하여 …… 전일본부
 인을 …… 한 대일본부인회를 ○결성하고
 자 6월 8일 오전10시부터 황성면 회의실
 에서 결성식을 거행하였는데 먼저 국민○
 ○를 한후 면지부장 ○田요시에의 개회사
 로부터 金村군수의 …… 가 있고 이어서
 군분회장 中村스미의 애국부인회 …… 삼
 창으로 폐회하였다.

새끼를 응급 증산
 각군에 제송기 보조코 독려
 (매일신보 1942-07-18 / 4면)



【강원지사발】 전선이 장기화함에 따라
 새끼의 수요는 ○만 ○○기타 소비 재료
 로서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만치 강원도에
 서는 ○○대책으로 ○의 급속 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7월 1일부터 9월 말
 일까지 3개월동안에 60만관을 증산하기로
 되었는데 증산 기간 중에 ○○기한을 정
 하여 …… 그리고 각군에는 보조금을 주
 어 제송기 4,390대를 장만케 한후 1대당
 300관 이상의 생산 수량을 ○○하기로 되
 었으며 …… 각군별 할당수관을 보면 다
 음과 같다.

- ▲춘천 20,000관 ▲인제 3,00 ▲양구 10,000
- ▲회양 8,000 ▲통천 120,000 ▲고성 20,000
- ▲양양 10,000 ▲강릉 140,000 ▲삼척 15,000 ▲울진 30,000
- ▲정선 3,000 ▲평창 3,000 ▲영월 5,000 ▲원주 20,000
- ▲황성 10,000 ▲철원 150,000 ▲평강 5,000 ▲이천 3,000
- 계 600,000

**춘삼공판 총결산
출하 24만관 금액 140만원
예년에 비해 감소
(매일신보 1942-07-18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춘천공판은 요즘 마감하였는데 총결산에 나타난 출하 실적을 보면 244,122관으로 각군별 공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황성 18,800관(출하실적) 17,904관(공판실적) 21,942관(작년실적)

**강원도우량유아 도대표 3명, 군대표 14명 결정
(매일신보 1942-07-19 / 4면)**



【강원지사발】 본사와 경일 공동주최의 우량유아 선발에 대하여 강원도지방 양구군에서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도대표 3명, 군대표 14명의 입선자를 결정하게 되어 ○○○○ 애협회로부터 표창하기로 되었는데 표창장과 상품은 해당 군수로부터 ○○할터이다.

◇도 대표

.....

◇군 대표

황성군 황성면 읍상리 西原○○(남)3년
황성군 황성면 ○○리 山李○子(여) 3년6개월
황성군 황성면 읍하리 鄭本○烈(남) 3년8개월

초수 봉납담 봉경

◇...금년은 양구군서

(매일신보 1942-07-19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1942년 …… 정례적으로 초수를 봉납하기로 되어 …… 금년도 이후에는 좌기에 의하여 봉경하기로 되었다.

- ▲1942년도 양구
- ▲1943년도 회양
- ……

- ▲1953년도 원주
- ▲1954년도 횡성
- ▲1955년도 홍천
- ……

이후는 위와 같이 의하여 매년 옮김.

각지 면작 품평회 강원도농회 주최로
(매일신보 1942-08-27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농회 주최의 금년도 면작 품평회 검사회는 좌기에 의하여 도내를 4구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되었다.

◇면작 품평회 검사일정 제1반 검사원 십〇기수

구역=원주 영월 횡성 평창
일정=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

종저 저장을 확보
강원서 감자, 고구마 우량 품종 보급
(매일신보 1942-09-12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고구마 생산고는 약 4천억 부(재배면적 26,000정보)에 달하며, 감자의 증산과 아울러 식량작물로서 막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비법의 개선과 ○○과종의 보급이 아직도 ○도치 못하므로 명년에는 다수 저장할 품종을 보급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의 …… 고구마는 반당 30관, 감자는 반당 15관을 저장해야된다고 한다. 각군별 종저저장 목표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마
.....
횡성 1,051.0 415,400
.....

◇감자
.....
횡성 200 40,000
.....

강원도의 대마공판
10일 현재로 목표량의 5할 출하
(매일신보 1942-09-18 / 4면)

郡別	出荷量(担)	9월10일현재 출하실적(担)
횡성	290,000	199,281

【강원지사발】 강원도의 대마공판은 8월 25일 인제서부터 시작하여 목하 ○○에서 ○○ 중○ 있는데 지난10일 도내 출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아서 춘천 2,683,609 근이 합계였다.

.....
◇9월 10일 현재 출하 실적
군별 ○○출량(근) 9월10일현재 출하실적(근)
춘천 290,000 199,281

.....
횡성 160,000 149,894
.....

횡성축구단 원정
(매일신보 1942-09-18 / 4면)



【횡성】 금번 흥천군에서 주최하는 ○○ 축구대회는 9월 13일 흥천군 ○○○에서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분석하면 축구 관련된 선수와 각군 내에 100여명은 동일 오전10시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이구 2로에 분집하여 ○군수 ○○○○○인솔 하에 로 출전하였는데 횡성군은 흥천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2년간이나 참가한 군이므로 우리가 축구의 결정기이니만치 횡성군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므로 군민의 성원은 심대하다.

**본사 주최 부로견학단 강원도 반을 모집
견학 일정 10월 14일부터 3일간
(매일신보 1942-09-27 / 4면)**



【강원지사발】 본사에서서는 1941년 후부터
…… 3일간인데 춘천 철원 통천 고성 원
주 횡성 홍천 김화 평강 9군에서는 2명을
……

**축우품평회 개최
강원도내를 2구로 분하여
(매일신보 1942-10-11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축우개량 ○
○○의 ○○을 ○○하고자 도내를 2구로
나누어 제3회 강원도 축우 품평회를 개최
하기로 하였다. 제1구는 춘천, 양구, 회

양, 평창, 원주, 횡성, 홍천, 김화, 철원,
이천, 평강 11개군으로 하고 제2구는 인
제, 통천, 고성, 양양, 강릉, 삼척, 울진,
정선, 영월, 화천 10개군으로 하여 이를
다시 4조로 나누어 좌기 일정에 의해서
품평하기로 되어있는데 각군으로부터 ……

◇ 품평일정

▲춘천 10월 14일 15일 ▲통천 동 18일
▲고성 동 20일 …… ▲횡성 14일 ▲원주
16일 ……

**거세우 경이회
강원도를 4구로 분해서 개최
(매일신보 1942-10-14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거세우의 근
력을 ○○○ 시키는 문제에 ○○의 ○
○에 기여하고자 도내를 중부, 북부, 남
부, 영동부 4부로 나누어 중부는 춘천, 북
부는 철원, 남부는 원주, 영동부는 강릉에
서 각각 거세우 경이회를 개최하기로 하
였다. ○○○에는 ○○○거세우(명3급이

종저 저장을 확보
강원도서 각군 목표 수량을 배당
(매일신보 1942-11-08 / 4면)



【강원지사발】 강원도에서는 전시하 ○○을 수립하며 …… 각군에 …… 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종저수
횡성 1,081.0 ……

특별청년연성소 건병으로 대진군
京, 黃, 江 3도 일제 개소
(매일신보 1942-12-02 / 4면)



【강원지사발】 조선인에 대하여 ○지○원이 될 ○실을 ○성 시키는 동시에 황국신민자가 됨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자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을 실행하게 되었으므로 강원도에서도 각군에 특별연성소를 만들어 12월 1일부터 일단 입소하기로 되었다. 연성소의 선호수는 전부 60개소로 금년에 ○○야 약 18세의 미성년 청년 2,810명을 채용해서 명년 9월 말일까지

10개월동안 연성시키기로 되어있는데
..... 각군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별	연성소 설치면수	연성소 참가지수
춘천	4	178
인제	3	86
.....		
원주	2	65
횡성	3	121
홍천	3	152
.....		

(安東) 횡성군 내무부장이 대○ 조선군 애국부를 방문하고 10만원은 전투기 현대 기금으로, 2만원은 국방기재 대금으로 헌납하였다.

▲대일본부대○ 횡성면지부 최령○○은 2,001원80전을 성금으로

▲횡성군 안흥면(목재상) 야나가와(柳川月○)씨는 120원 국방기금으로 헌납하였다.

횡성서 愛國機

(매일신보 1945-02-08 / 2면)



강원도 횡성군 횡성면민 일동은 12만원을
을 저금하여 사다야마(完山) 면장과 안동

찾/아/보/기

ㄱ

- 가곡리 / 95
 가마니 / 371, 400
 감자 / 284, 417
 갑천 / 91
 갑천공영회 / 334
 갑천면 / 54, 64, 136, 151, 330
 강도 / 200
 강릉기자대회 / 122, 123
 강원도 폐품협회 / 347
 개로전 / 399
 갯생 / 303
 갯생 농가 / 380
 갯생공동부락 / 334
 갯생부락 / 282, 300, 309, 337
 갯생지도부락 / 348
 거세우 / 419
 건민운동 / 413
 결핵 / 257, 263
 경찰대 / 86
 고흥수(高光洙) / 185, 186, 229
 고구마 / 417
 고둔골 / 64
 고려혁명당 / 106, 108, 109, 110, 111, 113, 116, 119, 131, 134
 고성청년회 / 105
 고정리 / 95
 고창한(高昌漢) / 114, 201, 203, 204, 212, 219
- 곡일리 / 70
 공근면 / 92, 136, 151, 200
 공립보통학교 / 105
 공입 / 381
 공채 / 348
 공출 / 388, 400
 공관 / 313, 329, 332, 350, 358, 360, 383, 385, 388, 389, 393, 404, 406, 416, 418
 관동지회 / 82
 관동학회 / 76
 관동학회 황성지회 / 78
 광산 / 194, / 197
 교육회 / 105
 교통 / 140, 235, 252, 381, 383
 구방내 / 54
 구파 / 90
 국민정신작흥주간 / 328
 국민정신총동원 황성군연맹(황성연맹) / 315, 340
 국민총력연맹 / 394, 396
 국민총력총연맹 황성군지부 / 392
 國婦 / 336
 국채 / 413
 군영촌 / 57
 권윤진 / 121
 근로보국대 / 300, 301, 305, 309, 311, 326, 328, 329
 금강소년회 / 143
 금광 / 44, 45, 149, 191, 192, 195, 196, 200, 221, 236, 248, 251
 金炳興 / 53

金永進 / 306
금융 / 233, 263
금융조합 / 211, 260, 319, 320, 366, 410
金村군수 / 415
기독교 / 234, 245
기부 / 203
길학생 / 155
김기만 / 121
김만수 / 121
김병홍 / 52
김윤수 / 236
김의수 / 349
김종실 / 121
김창수 / 121
김치영(金致榮) / 82, 89

L

납세보국 / 385
냉해 / 256
노동자 / 286
농업 / 141, 237
농업보국청년대 / 414
농촌야학회 / 360

C

대관대 / 55
대동상업학교(대동상업전수학교) / 201, 212
대동학원 / 114, 203, 204
대두 / 258, 259, 330, 395, 388, 409, 418
대일본부인회 / 415
덕고산 / 145
徳久서장 / 322, 373
도박술 / 133

도부락임지연구회의 / 410
도작 / 325, 389
도평의회 / 111, 112
독감 / 150
독살 / 180, 378
동창리 / 67
두태 / 316
둔내면 / 67, 96, 136, 151, 153, 176, 181, 225
둔내소년회 / 175
둔내우편소 / 154
둔내청년회 / 143

□

마산리 / 128
마암 / 70, 71
매일리 / 91
맥자조합 / 214
맥작 / 228, 259
면양 / 346
면작 / 262, 286, 294, 310, 316, 342, 347, 366
면협의회원 / 349
면화 / 332, 358, 360, 361, 380, 389, 393, 405, 406
목탄 / 388, 398, 408
목탄개량조합 / 316
묘대 / 204, 369
문막헌병과건소 / 85
미곡통제조합 / 255
미작 / 259, 282
민공호 / 61, 63

ㅂ

朴基鉉 / 52
박봉수(朴鳳秀) / 206, 207, 209

박순룡 / 349
 박순봉 / 242
 박양직 / 62
 박榮鎭 / 70
 박주헌(朴周憲) / 46, 47
 박춘식 / 83
 朴泰榮 / 70
 박형석(朴滢石) / 187
 반구정 / 146
 방공단 / 326
 방순범 / 121
 방현영 / 233, 354
 방화 / 190, 354
 배급 / 379
 배당 / 340
 백백교 / 374
 버달골 / 72
 보국 저금 / 336
 보국운동 / 371
 보조금(보조비) / 284, 382, 420
 봉복사 / 147
 부동리 / 54, 84
 부산학교 / 84
 부인 / 306, 324, 397, 415
 복원동맹 / 235
 분건대 / 68
 불교 / 245
 비(호우, 폭우) / 377, 379, 383, 384

人

사다야마(完山) 면장 / 422
 사방공사 / 295
 산내리 / 74
 살인 / 127, 180
 삼척전진회 / 105

삼교리 / 55
 상공업계 / 237
 상해치사 / 126
 새끼줄 / 400, 415
 생업보국전 / 333
 서대문경찰서 / 107
 서속 / 316
 서원면 / 151, 169, 180, 230, 370
 徐重錫 / 96, 97
 石明瑄 / 101
 선거 / 265, 266, 268, / 269, / 270, / 271, 342
 성심학교 / 147
 소맥 / 250
 소부 / 378
 소작인 / 144
 소학리 / 75
 속(속작) / 259, 262, 395
 송림공원 / 144
 송진(송지) / 351, 359
 수도(手稻) / 108, 308, 325
 수리산탐금용조합 / 98
 수비병 / 73
 수선공사 / 188
 수재 음악회 / 135
 수해 / 191, 250, 252, 272
 순검 / 64
 순사 / 64, 83
 시국강연회 / 319
 시국강화회 / 312
 시국좌담회 / 285, 301, 335
 시위운동 / 86
 식산주식회사 / 280, 281
 식상 / 264
 殖銀지점 / 118
 신견 / 100
 신상순 / 349

신영순(申永淳, 우당, 又堂)
 / 128, 133, 152, 153, 232, 265, 267, 271,
 354
 신원목 / 349
 신의주지방법원 / 107, 113, 119
 신진파 / 90
 신현구(申鉉玖) 132, 156
 신현만 / 235
 심상소학교 / 97
 심상회 / 62
 심흥택(沈興澤) / 57, 58, 60, 61, 63, 77, 82, 83

○

아동 / 311, 319, 411
 아편 / 248, 249
 安達善 / 240
 안동(安東) 황성군 내무부장 / 422
 안흥 / 91
 안흥분건소 / 80
 안흥주재소 / 322
 안흥청년회 / 92
 愛國機 / 422
 애국반 / 410
 애국일 / 396
 애국일상회의 / 396
 야소교 / 146
 야학 / 334, 386
 약수 / 146
 양돈 / 368
 양양동화청년회 / 105
 양잠 / 344, 383
 엽뿔 청년회(에) / 150, 151
 여공 / 258
 여의계 / 146
 연기호 / 79

演武場 / 308
 연초 / 180, 246, 348
 염색강습회 / 210
 영영포리 / 337
 吳彦洙 / 243
 오지선(吳智善) / 156
 오택선 / 61
 왜적수비대 / 86
 용암 / 145
 우량유아 / 416
 우박 / 207
 遇般철도협회 / 103
 右社商都中 / 56
 우시장 / 136
 우천면 / 61, 95, 136, 151
 우천진흥청년회 / 143
 우편국(우편소) / 155, 208
 울진진진회 / 105
 원영상 / 354
 元容均 / 241
 원주분서장 / 66
 원주수비대 / 65, 75
 원주일병 / 74
 원주진위대 / 57, 59, 61
 원주청년회 / 105, 235
 위문 / 310, 333, 334
 위창래 / 337
 유도천명회 / 92
 柳柄殷 / 243
 유성원(劉聖元) / 45, 46
 유영벽(柳永碧) / 187
 유영태 / 354
 윤석환(尹錫煥) / 156
 尹成玉 / 71
 윤성욱 / 71
 윤인순 / 79
 윤창호(尹昶鎬) / 267, 272, 349

윤태연(尹泰年) / 156, 232, 354
 윤태환 / 354
 율건 / 351
 율실리 / 81, 149
 은행기관 / 118
 음독 / 128
 읍면의원 / 349
 의병 / 42,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8, 69,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의병장 / 63, 71, 79, 82
 의원 / 395
 이건성 / 349
 이관기 / 98
 이규화 / 349
 이기준 / 61
 이동구(李東求) / 106, 107, 108, 110, 111,
 113, 116, 119, 130, 131,
 134, 211
 이동수 / 97, 98, 120, 121
 이동운 / 354
 이문칠 / 121
 이민 / 255, 294, 331
 이발사 / 299
 이발시험 / 267
 이범용 / 51
 이양 / 100, 129, 273, 275, 389, 393, 397
 이양상황 / 216
 이은삼 / 121
 이인영 / 61
 이일선 / 155
 이재민 / 367
 이주 / 294, 315, 331
 이창만 / 374
 이철이 / 190
 이태평 / 155
 이필영 / 42

李夏榮 / 70
 李鶴圭 / 86
 이혼 / 230
 인 / 330
 일병(일본병) / 58, 62, 64, 65, 66, 67, 68, 69,
 72, 74, 76
 일본 소대 / 64
 일본수비대 / 66, 74
 일본정신발양주간 / 340
 일본헌병 / 80, 81
 일본헌병대 / 83
 일진회원 / 61
 일헌병 / 81
 임산 / 316
 임업 / 141, 237, 316
 입직 / 287, 336, 420

ㄷ

자위단 / 66
 자작농 / 213
 잠건 / 378, 400
 잠업 / 141, 237, 390
 장경식 / 97, 98
 장경환 / 61
 장작 반출 / 408
 저곡리 / 378
 저금(저축, 저축금) / 215, 324, 331, 335, 336,
 348, 352, 410, 420
 건강원도 사회운동자 대회 / 104
 奎都 / 83
 전화 / 78, 118, 126, 127, 129, 135
 절동 / 67
 절부 / 154, 187
 정곡면(정곡) / 91, 99, 122, 124, 126, 127,
 151, 170, 194

정동호(鄭東濩) / 97, 235
 정목(오정목) / 61
 정의부 / 107, 108, 113, 131
 정의섭 / 121
 정재연 / 349
 정절부 / 154
 정준시 / 43
 정춘원 / 121
 정호성 / 349
 제방 / 274
 曹圭鳳 / 239
 조만봉 / 155
 曹秉軫 / 65
 조선방공협회 황성지부 / 318, 322, 353
 조선봉 / 155
 조선형평사총본부 황성지부 / 155
 조선형평사총연맹 / 102
 趙秀雄 / 218
 조순오 / 119
 조신(曹愼) / 53
 조영준 / 155
 조쟁(趙錚) / 102, 105, 120, 121
 조천실(曹千實) / 187
 주류 / 246
 주재소 / 301
 중견강습(중견강습회) / 307, 321
 중견인물 지도 / 226
 中鮮정축구대회(중선축구대회) / 106, 327
 중심인물 / 226
 중촌(中村)편송 / 349, 354
 지원병 / 283, 314, 339, 340, 368, 370, 371,
 374, 386, 394, 407
 지일면 / 95
 지주 / 144
 지하자원 / 345, 377
 진기두 / 349
 정세(정수) / 189, 226

㉠

창씨 / 382, 384, 387
 창촌리 / 55
 채권 / 403
 천군필(千君弼) / 102, 119
 천도교 / 106, 107, 108, 109, 116, 113, 131
 천주교회 / 245
 철교 / 208, 209
 철도 / 224, 238
 청결검사 / 156
 청년단 / 288, 300, 307, 317, 350
 청년훈련소 / 406
 청량리지방법원 / 126
 청일면 / 136, 149, 151, 185, 217
 초수봉납 / 404, / 416
 총후보국 강조 주간 / 335
 총후보국위원회 / 395
 최상옥 / 121
 최상하(崔尙夏) / 161
 최성녀 / 177
 최성술 / 120, 121
 최양옥(崔養玉) / 158,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5, 176, 177
 최양준 / 97, 98
 추천 / 193, 312
 추잠 / 305, 313, 329, 385
 축산 / 109, 136, 141, 237, 261, 317, 330
 축우 / 357, 368, 419
 춘견 / 217, 299, 350
 춘당리 / 217, 302
 춘잠 / 297, 416
 춘천청년회 / 105

E

타살 / 181
 탁명수(卓明洙·卓命洙) / 156, 234
 탁아소 / 273, 295
 탁영재 / 234
 통제 / 280
 퇴비 / 268, 272, 310, 379
 특별청년연성소 / 421
 표창 / 154, 187, 277, 279, 341, 365, 401, 407, 412, 420
 품평회 / 204, 262, 317, 330, 351, 390, 419
 풍수원 / 147
 풍수해 / 253, 258, 259, 263
 피마 / 345

ㅎ

하사금 / 253
 하안홍리 / 122
 하친 / 331
 학곡 / 73
 학교 / 77, 289, 290
 학회 / 77
 한강대 / 146
 한병 / 58
 한상렬(韓相烈) / 70, 71, 92
 한상우(韓相禹) / 156
 韓遇 / 188
 한철수 / 121
 한해 / 369
 韓熙東 / 244
 할당 / 371
 합기남 / 215, 349
 합동운동회 / 129

헌금 / 276, 333, 405, 411
 헌납 / 276, 278, 334
 헌병 / 83
 형평사 / 106, 107, 109, 131
 형평사위원 / 102
 형평운동 / 107, 108
 형평정기대회 / 118
 홍수 / 253
 홍순혁 / 41
 홍우석 / 61
 홍천수비대 / 77
 홍팔복 / 121
 화성유치원 / 147, 234
 화성학교 / 82, 83
 화재 / 412
 화전리 / 55
 화전민 / 315
 황열 / 57
 황재석 / 74
 黃恒根 / 367
 황선군 공립보통학교 / 137
 황성 공회당 / 219
 황성 형평지부 / 239
 황성경찰서 / 102, 309, 321, 322, 333, 335, 338, 353, 369
 황성공립보통학교 / 128, 151
 황성공원 / 146
 황성공회당 / 220
 황성교 / 125
 황성군 곡물검사 출장소 / 321
 황성군 농촌진흥회 / 307, 321
 황성군 분건소(황성분건소, 황성분건대) / 71, 74, 76, 81
 황성군 소방조 / 323
 황성군 조각위원회 / 233
 황성군 수비대 / 68
 황성군농촌진흥위원회 / 343

황성군농회 / 223, 224, 261, 344, 346
 황성군민정신총동원연맹 / 313
 황성군수 / 45, 46, 47, 57, 58, 60, 61, 63,
 77, 82, 83, 91, 247, 367
 황성군청 / 101
 황성군체육협회 / 355, 391, 399
 황성군체육회 / 391
 황성군총후보국위원회 / 357
 황성금융조합 / 178
 황성금융회 / 239
 황성금조 / 233
 황성기재단 / 179
 황성남소교 / 324
 황성남천교낙성협의회 / 132
 황성노농동맹 / 120, 125, 136, 143, 239
 황성노농회 / 120
 황성농촌진흥회 / 321
 황성동창회 / 239
 황성면 곡교리 / 117, 126
 황성면 옥동리 / 102
 황성면 읍상리 / 122
 황성면회 / 235
 황성배영동지회 / 354
 황성보교 / 128
 황성보교동창회 / 143
 황성보통학교 / 91
 황성사방사무소 / 365
 황성상업조합 / 143, 156, 233, 235, 239
 황성생업보국운동 / 378
 황성소방조합 / 233
 황성소학교 / 91
 황성수리조합 / 398
 황성수비대 / 68, 75, 77
 황성여자 야학 / 150
 황성우편소 / 238
 황성주조조합 / 235
 황성청년회 / 92, 105, 125, 142, 233
 황성체육관 / 106
 황성체육협회(황성체육회) / 233, 234, 239,
 323, 356
 황성팔경 / 148
 황성형평지부 / 143
 효자 / 151, 154, 187
 흥농회 / 337
 흥풍회 / 92

■ **편저자 약력** ■

박미현(朴美賢)은 1964년 출생으로 강릉대학교를 나와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도민일보 기획국장으로서 일하며 강원대 사학과 강사, (사)의암유인석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강원여성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테마로 읽는 강원여성문화사》 《인물로 읽는 강원문화사》(편저) 등이 있다.

mihyunpk@hanmail.net

향토사료 제23집

한말·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속의 황성

발행일 : 2009년 12월 30일

발행처 : 황성문화원

발행인 : 김광수

편저자 : 박미현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사

☎ 033-260-9400

비매품